

2018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일반국민]
Perception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제 출 문

국방대학교 총장 貴下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보고서 제출

본 보고서를 2018년 귀 대학의 조사연구사업인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수행기관 : (주)현대리서치연구소
연구 책임자 : 이상경(현대리서치연구소 대표이사)
공동 연구원 : 박원열(현대리서치연구소 사회여론조사팀 전무)
김경남(현대리서치연구소 사회여론조사팀 부장)
오탁경(현대리서치연구소 사회여론조사팀 과장)
조반석(현대리서치연구소 사회여론조사팀 주임)

2018년 10월

(주)현대리서치연구소



CONTENTS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일반국민]

제1장 조사개요	1
제2장 주요결과 요약	3
제3장 조사결과 분석	25
I. 국가안보 관련 일반사항	25
1.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	25
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27
3.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29
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	33
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요인	33
6.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	35
7. 전쟁 발생시 대처 방법	37
8. 국가정체성 평가	39
8-1.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	39
8-2.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	41
9.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43
10. 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44
10-1. 안보적 측면	45
10-2. 경제적 측면	47
11.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49
11-1. 미국	49
11-2. 일본	51
11-3. 중국	53
11-4. 러시아	55
12.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57
12-1. 미국	57
12-2. 일본	59
12-3. 중국	61
12-4. 러시아	63



CONTENTS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일반국민]

13. 미래 주변국가와의 관계 전망.....	6
13-1. 미국.....	66
13-2. 일본.....	67
13-3. 중국.....	69
13-4. 러시아.....	71
14.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	73
15.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75
16. 한·미·일간 3개국의 군사협력.....	77
II.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79
1. 한·미동맹관계.....	79
2.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	81
3.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83
3-1. 군사동맹 강화.....	83
3-2. 경제 분야 협력 강화.....	85
3-3.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	88
3-4.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	90
4.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	91
5.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93
6.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95
7. 주한미군 주둔시기.....	97
8.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	99
9.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111
10.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의 변화.....	113
1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115
III. 북한 관련 사항.....	107
1.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107
2.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109
3.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111
4.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113



CONTENTS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일반국민]

5.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116
6.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	117
7. 금강산 관광 재개.....	119
8. 북한 핵무기 보유에 따른 안보위협.....	121
9.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	123
10.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125
11.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	127
12. 북한 핵무기 폐기의 진정성.....	129
13.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	131
14.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133
15. 한반도의 평화체제로 전환 시기.....	135
16. 한반도 통일 전망.....	137
17. 한반도 통일 방식.....	139
IV. 병역제도 및 병역문화.....	143
1. 국민개병제에 대한 생각.....	143
2.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	145
3. 예술·체육 특기자의 병역특례.....	147
4. 군 내의 인권 보장 정도.....	149
V.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	151
1.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	151
1-1. 국방부 발표에 신뢰하지 않는 이유.....	153
2. 군에 대한 신뢰도.....	155
2-1.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157
3.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세금상승 의견.....	159



CONTENTS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일반국민]

4.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	161
5.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163
6. 한국의 국방비 수준.....	165
7.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167
8.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169
9.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171
10.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173
11. 아랍에미리트(UAE)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인식.....	175
12. 한국군의 해외파병 필요성.....	177
12-1. 국제평화유지활동을 통한 국가위상 증진.....	177
12-2. 국가이익 창출 기반 강화.....	179
12-3. 한미동맹 관계 강화.....	181
12-4. 인도적 차원.....	183
13. 향후 국제평화유지활동 규모에 대한 의견.....	185
14. 위협 지역 파병.....	187
15.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189
15-1. 테러.....	189
15-2. 해적, 마약, 조직범죄.....	191
15-3. 자연재해.....	193
15-4. 원전사고.....	195
15-5. 사이버테러.....	197
16. 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	199
17.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 방법 및 접촉 빈도.....	201
17-1.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 방법.....	201
17-2.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203
17-3. 국방일보.....	205
17-4. 국방FM(라디오).....	207
17-5. 국방TV(텔레비전).....	209
17-6.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211
18. 국방부 및 군의 정책을 알리기 위한 적합한 홍보활동.....	213

● 부록 : 시계열 자료·통계표·설문지

표 목 차

<표 1-1>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	26
<표 1-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28
<표 1-3>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30
<표 1-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	32
<표 1-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요인.....	34
<표 1-6>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	36
<표 1-7> 전쟁 발생시 대처 방법.....	38
<표 1-8-1> 국가정체성 평가 -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	40
<표 1-8-2> 국가정체성 평가 -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	42
<표 1-9>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44
<표 1-10-1>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46
<표 1-10-2>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48
<표 1-11-1>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무력침략)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미국.....	50
<표 1-11-2>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무력침략)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일본.....	52
<표 1-11-3>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무력침략)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중국.....	54
<표 1-11-4>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무력침략)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러시아.....	56
<표 1-12-1>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미국.....	58
<표 1-12-2>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일본.....	60
<표 1-12-3>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중국.....	62
<표 1-12-4>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러시아.....	64
<표 1-13-1> 미래(5년 이후) 주변국가와의 관계전망 - 미국.....	66
<표 1-13-2> 미래(5년 이후) 주변국가와의 관계전망 - 일본.....	68
<표 1-13-3> 미래(5년 이후) 주변국가와의 관계전망 - 중국.....	70
<표 1-13-4> 미래(5년 이후) 주변국가와의 관계전망 - 러시아.....	72
<표 1-14>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	74
<표 1-15>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76
<표 1-16> 한·미·일간 3개국의 군사협력.....	78
<표 2-1> 한·미동맹관계.....	80
<표 2-2>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	82

<표 2-3-1>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군사동맹 강화	84
<표 2-3-2>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경제 분야 협력 강화	86
<표 2-3-3>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	88
<표 2-3-4>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	90
<표 2-4>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	92
<표 2-5>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94
<표 2-6>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96
<표 2-7> 주한미군 주둔시기	98
<표 2-8>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	100
<표 2-9>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102
<표 2-10>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의 변화	104
<표 2-1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106
<표 3-1>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108
<표 3-2>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110
<표 3-3>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112
<표 3-4>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114
<표 3-5>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116
<표 3-6>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	118
<표 3-7> 금강산 관광 재개	120
<표 3-8> 북한 핵무기 보유에 따른 안보위협	122
<표 3-9>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	124
<표 3-10>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126
<표 3-11>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	128
<표 3-12> 북한 핵무기 폐기의 진정성	130
<표 3-13>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	132
<표 3-14>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134
<표 3-15>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시기	136
<표 3-16> 한반도 통일 전망	138
<표 3-17> 한반도 통일 방식	140
<표 3-18> 통일비용 지불 의향	142
<표 4-1>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	144
<표 4-2>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	146
<표 4-3> 예술체육 특기자의 병역특례	148
<표 4-4> 군 내의 인권 보장 정도	150
<표 5-1>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	152
<표 5-1-1> 국방부 발표에 신뢰하지 않는 이유	154
<표 5-2> 군에 대한 신뢰도	156

<표 5-2-2>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158
<표 5-3>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세금상승 의견.....	160
<표 5-4>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	162
<표 5-5>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164
<표 5-6> 한국의 국방비 수준.....	166
<표 5-7>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168
<표 5-8>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170
<표 5-9>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172
<표 5-10>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174
<표 5-11> 아랍에미리트(UAE)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인식.....	176
<표 5-12-1> 한국군의 해외파병 필요성 - 국제평화유지활동을 통한 국가위상 증진.....	178
<표 5-12-2> 한국군의 해외파병 필요성 - 국가이익 창출 기반 강화.....	180
<표 5-12-3> 한국군의 해외파병 필요성 - 한미동맹 관계 강화.....	182
<표 5-12-4> 한국군의 해외파병 필요성 - 해당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인도적 채.....	
<표 5-13> 향후 국제평화유지활동 규모에 대한 의견.....	186
<표 5-14> 위험 지역 파병.....	188
<표 5-15-1>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테러.....	190
<표 5-15-2>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해적, 마약, 조직범죄.....	192
<표 5-15-3>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자연재해.....	194
<표 5-15-4>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원전 사고.....	196
<표 5-15-5>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사이버테러.....	198
<표 5-16> 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	200
<표 5-17-1>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 방법.....	202
<표 5-17-2> 국방 홍보 매체 접촉 빈도 -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204
<표 5-17-3> 국방 홍보 매체 접촉 빈도 - 국방일보.....	206
<표 5-17-4> 국방 홍보 매체 접촉 빈도 - 국방FM(라디오).....	208
<표 5-17-5> 국방 홍보 매체 접촉 빈도 - 국방TV(텔레비전).....	210
<표 5-17-6> 국방 홍보 매체 접촉 빈도 -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213
<표 5-18> 국방부 및 군의 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214

그림 목 차

<그림 1-1>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	25
<그림 1-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27
<그림 1-3>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29
<그림 1-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	31
<그림 1-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요인.....	33
<그림 1-6>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	35
<그림 1-7> 전쟁 발생시 대처방법.....	37
<그림 1-8-1> 국가정체성 평가 -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	39
<그림 1-8-2> 국가정체성 평가 -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	41
<그림 1-9>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43
<그림 1-10-1>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45
<그림 1-10-2>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47
<그림 1-11-1>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무력침략)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미국.....	91
<그림 1-11-2>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무력침략)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일본.....	93
<그림 1-11-3>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무력침략)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중국.....	95
<그림 1-11-4>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무력침략)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러시아.....	97
<그림 1-12-1>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미국.....	99
<그림 1-12-2>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일본.....	101
<그림 1-12-3>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중국.....	103
<그림 1-12-4>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러시아.....	105
<그림 1-13-1> 미래(5년 이후) 주변국가와의 관계 전망 - 미국.....	107
<그림 1-13-2> 미래(5년 이후) 주변국가와의 관계 전망 - 일본.....	109
<그림 1-13-3> 미래(5년 이후) 주변국가와의 관계 전망 - 중국.....	111
<그림 1-13-4> 미래(5년 이후) 주변국가와의 관계 전망 - 러시아.....	113
<그림 1-14>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	73
<그림 1-15> 한일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75
<그림 1-16> 한·미·일 3개국의 군사협력.....	77
<그림 2-1> 한미동맹관계.....	79
<그림 2-2>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	81

<그림 2-3-1>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군사동맹 강화	88
<그림 2-3-2>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경제 분야 협력 강화	88
<그림 2-3-3>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	89
<그림 2-3-4>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	89
<그림 2-4>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	91
<그림 2-5>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93
<그림 2-6>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95
<그림 2-7> 주한미군의 주둔시기	97
<그림 2-8>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	99
<그림 2-9>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101
<그림 2-10>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의 변화	103
<그림 2-1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105
<그림 3-1>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107
<그림 3-2>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109
<그림 3-3>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111
<그림 3-4>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113
<그림 3-5>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115
<그림 3-6>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	117
<그림 3-7> 금강산 관광 재개	119
<그림 3-8> 북한 핵무기 보유에 따른 안보위협	121
<그림 3-9>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	123
<그림 3-10>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125
<그림 3-11>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	127
<그림 3-12> 북한 핵무기 폐기의 진정성	129
<그림 3-13>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	131
<그림 3-14>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133
<그림 3-15> 한반도의 평화체제로 전환 시기	135
<그림 3-16> 한반도 통일 전망	137
<그림 3-17> 한반도 통일 방식	139
<그림 3-18> 통일비용 지불 의향	141
<그림 4-1>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	143
<그림 4-2>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	145
<그림 4-3> 예술체육 특기자의 병역특례	147
<그림 4-4> 군 내의 인권 보장 정도	149
<그림 5-1>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	151
<그림 5-1-1> 국방부 발표에 신뢰하지 않는 이유	153

<그림 5-2> 군에 대한 신뢰도.....	155
<그림 5-2-2>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157
<그림 5-3>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세금상승 의견.....	159
<그림 5-4>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	161
<그림 5-5>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163
<그림 5-6> 한국의 국방비 수준.....	165
<그림 5-7>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167
<그림 5-8> 현재 병력수에 대한 인식.....	169
<그림 5-9>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171
<그림 5-10>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173
<그림 5-11> 아랍에미리트(UAE)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인식.....	175
<그림 5-12-1> 한국군의 해외파병 필요성 - 국제평화유지활동을 통한 국가위상 증진.....	177
<그림 5-12-2> 한국군의 해외파병 필요성 - 국가이익 창출 기반 강화.....	179
<그림 5-12-3> 한국군의 해외파병 필요성 - 한-미동맹 관계 강화.....	181
<그림 5-12-4> 한국군의 해외파병 필요성 - 인도적 차원.....	183
<그림 5-13> 향후 국제평화유지활동 규모에 대한 의견.....	185
<그림 5-14> 위험 지역 파병.....	187
<그림 5-15-1>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테러.....	189
<그림 5-15-2>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해적, 마약, 조직범죄.....	191
<그림 5-15-3>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자연재해.....	193
<그림 5-15-4>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원전 사고.....	195
<그림 5-15-5>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사이버 테러.....	197
<그림 5-16> 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	199
<그림 5-17-1>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 방법.....	201
<그림 5-17-2> 국방 홍보 매체 접촉 빈도 -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203
<그림 5-17-3> 국방 홍보 매체 접촉 빈도 - 국방일보.....	205
<그림 5-17-4> 국방 홍보 매체 접촉 빈도 - 국방FM(라디오).....	207
<그림 5-17-5> 국방 홍보 매체 접촉 빈도 - 국방TV(텔레비전).....	209
<그림 5-17-6> 국방 홍보 매체 접촉 빈도 -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211
<그림 5-18> 국방부 및 군의 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213

제1장 조사개요

I. 조사목적

본 조사는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및 정책대안연구’ 중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안보의식에 관한 조사로서, 안보관련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의 바람직한 안보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II. 조사방법

	일반국민	전문가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국방·안보 전문가
표본수	1,200명	60명
조사방법	면접조사	웹조사
조사지역	전국	
조사도구	구조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	
표본 추출 방법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다단계 층화추출	
표본 오차	신뢰수준 95% 범위내에서 $\pm 2.83\%$ (일반국민)	
조사기간	2018년 8월 16일 ~ 9월 15일	

III.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Key-in-Programm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 PC+(ver 12.0)에 의해 분석됨.
- ◎ 본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의 숫자와 각 항목별 합계의 숫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IV.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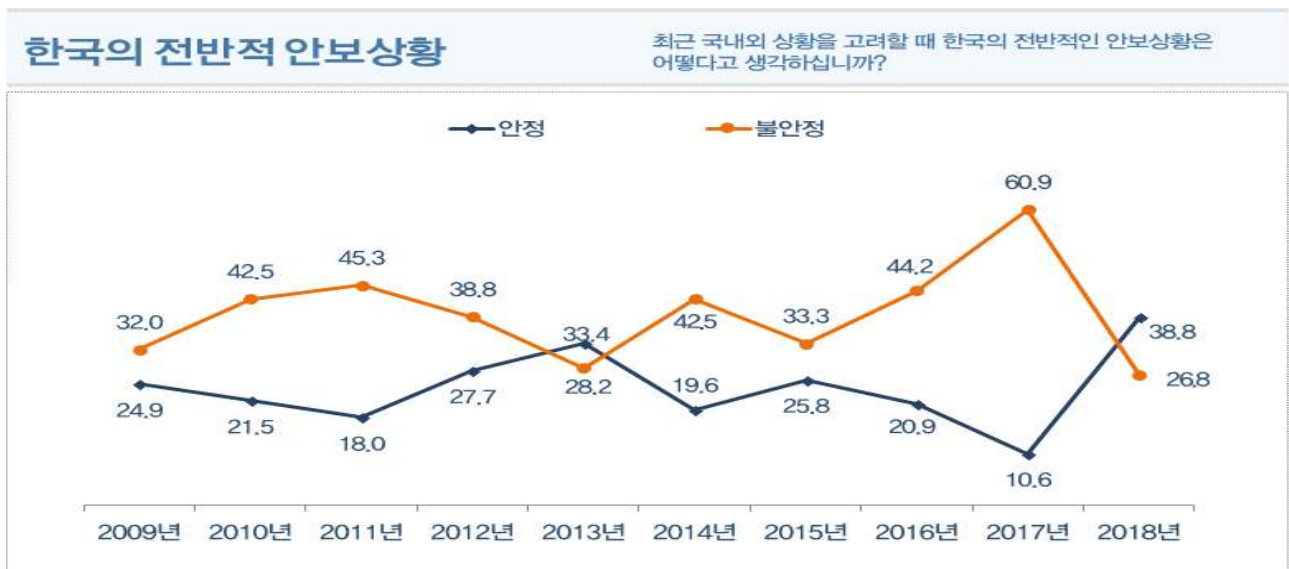
		사례수	%
전체		1,260	100.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95.2
	전문가	60	4.8
[일반국민]			
본인 안보수준	상	426	35.5
	중	564	47.0
	하	210	17.5
성별	남성	720	60.0
	여성	480	40.0
연령별	20대 이하	299	24.9
	30대	273	22.8
	40대	316	26.3
	50대	312	26.0
지역별	서울	237	19.8
	경기/인천	389	32.4
	부산/울산/경남	183	15.3
	대구/경북	114	9.5
	광주/전라	114	9.5
	대전/충청/세종	128	10.7
	강원	35	2.9
지역크기	대도시	542	45.2
	중·소도시	579	48.3
	읍/면	79	6.6
직업별	농업/어업/임업 종사자	10	0.8
	자영업자	260	21.7
	판매/서비스직	238	19.8
	사무/기술직	386	32.2
	전문/자유직	27	2.3
	전업주부	147	12.3
	학생	111	9.3
	무직/기타	21	1.8
학력별	중졸이하	21	1.8
	고등학교	381	31.8
	전문대	308	25.7
	4년제 대학교	466	38.8
	대학원 이상	24	2.0
생활수준별	상	110	9.2
	중	680	56.7
	하	410	34.2

제2장 주요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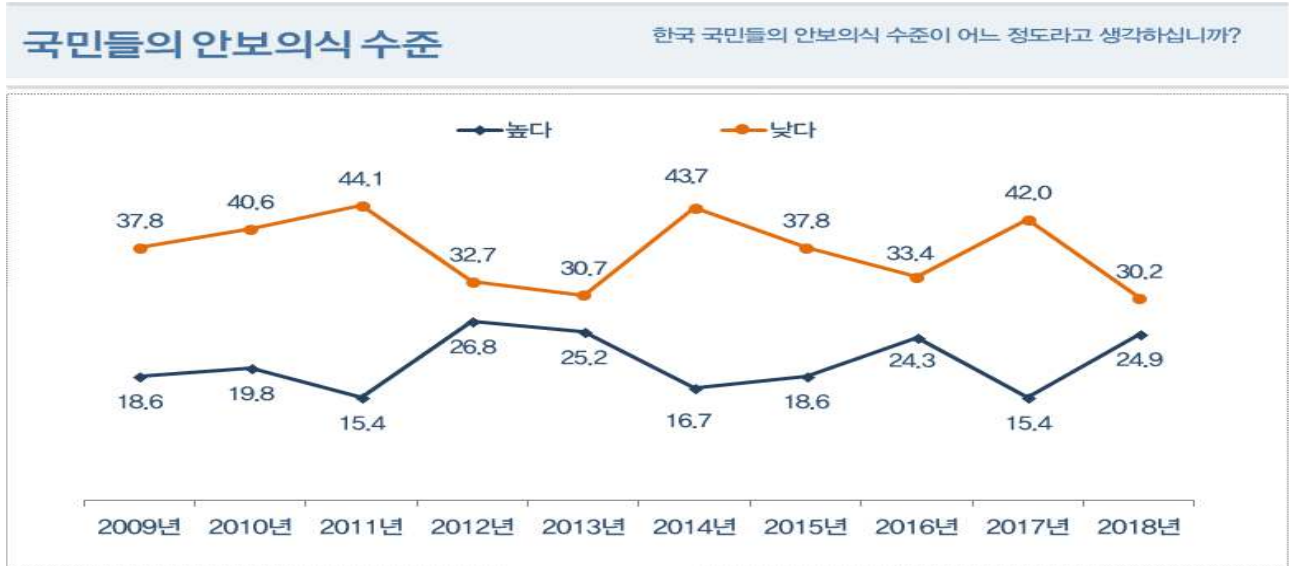
I. 국가안보 관련 일반사항

- ◎ 국가안보상황에 대해 ‘안정적’(38.8%)이라는 응답이 ‘불안정적’(26.8%)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2017년도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인식은 28.2%p 증가하였음.(2017년 10.6%)
- ◎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30.2%로 ‘높다’(24.9%)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17년도에 비해 ‘높다’라는 응답이 9.5%p 증가하였음.(2017년 15.4%)
- ◎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외요인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7년 대비 ‘북한의 군사력 위협’(20.9%p), ‘북미 관계 악화’(1.8%p)라는 응답은 감소하였고, ‘북한의 체제불안’(0.5%p)이라는 응답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내요인으로 ‘국내 정치의 불안’이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7년 대비 ‘국내 정치의 불안’(3.9%p), ‘국민 안보의식 해이’(12.4%p)라는 응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교류 협력확대’라는 응답이 39.3%로 높게 나타났고, 2017년 대비 ‘남북교류 협력확대’(17.3%p)라는 응답은 증가하였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12.8%p)이라는 응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86.9%)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7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1.4%p 감소하였고, ‘중국’이라는 응답도 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56.8%)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7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8.5%p 증가하였고, ‘중국’이라는 응답이 1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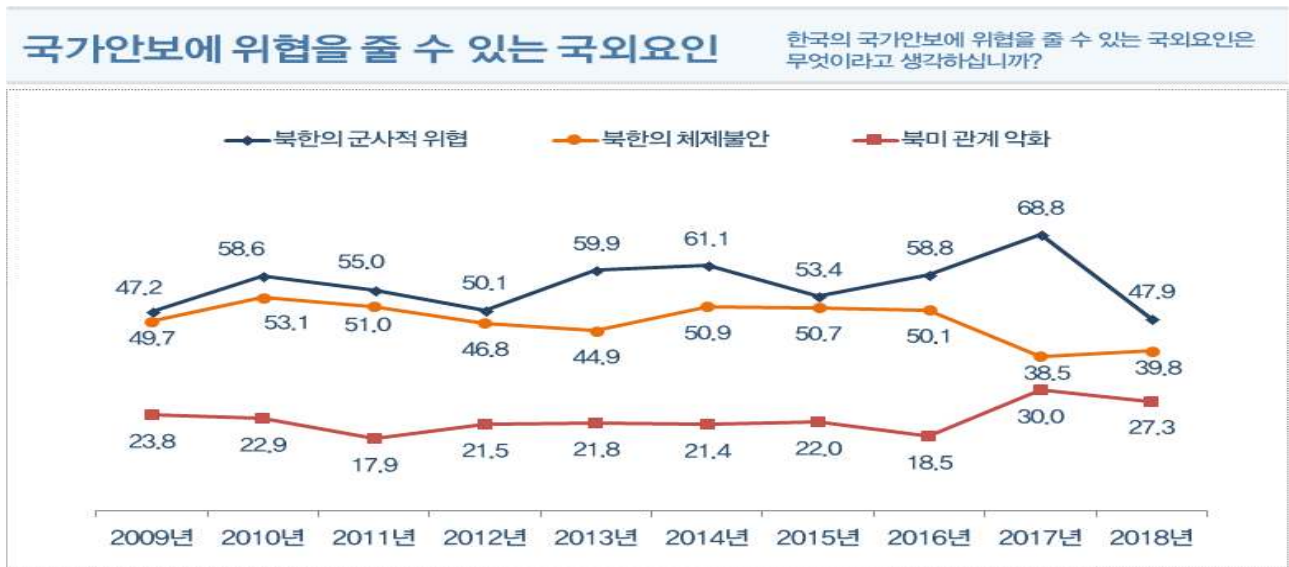
-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에 대해서 ‘안정적이다’는 응답이 38.8%로 ‘불안정적이다’는 응답 26.8% 보다 12.0%p 높게 나타남.
-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한 추세비교 결과 2017년 대비 ‘안정적이다’는 응답은 28.2%p 증가하였고, ‘불안정적이다’는 응답은 34.1%p 감소하면서 최근 10년의 조사결과 변화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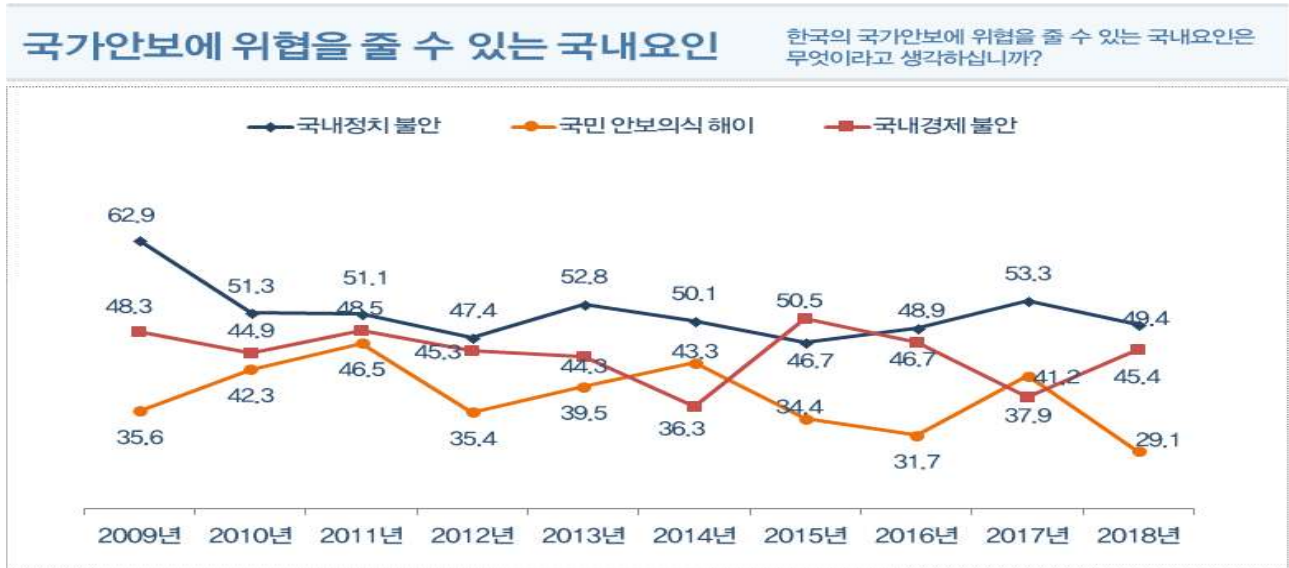
-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낮다는 응답이 30.2%로 ‘높다는 응답 24.9% 보다 5.3%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낮다’는 응답은 11.8%p 감소하였고, ‘높다’는 응답은 9.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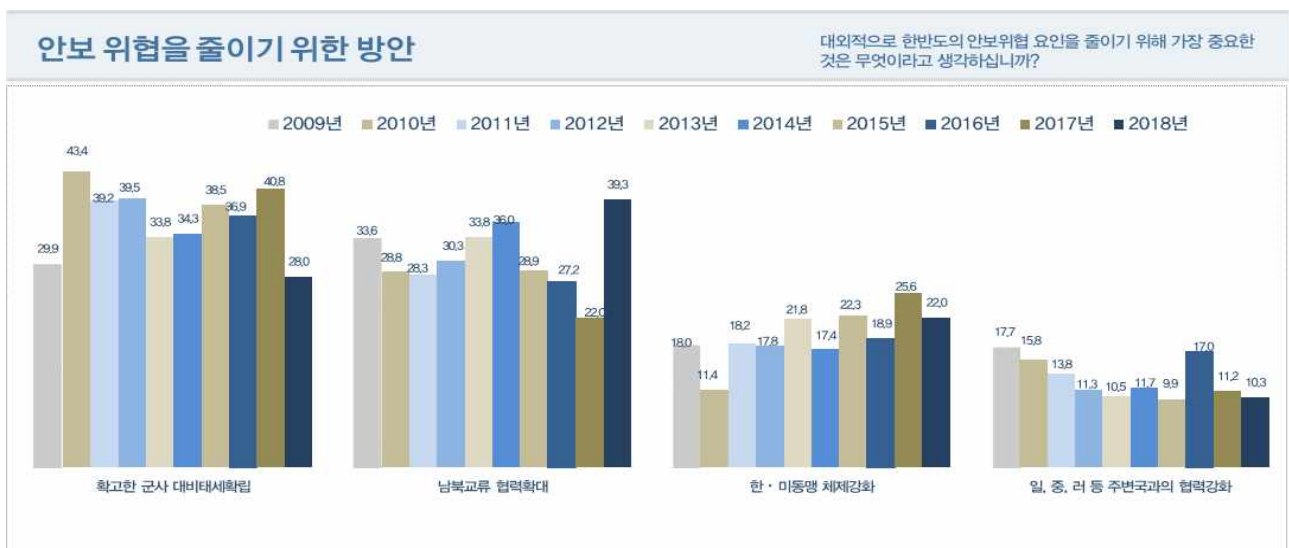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이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북한의 체제불안(39.8%),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악화’(2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북한의 군사력 위협’(20.9%p), ‘북미 관계 악화’(2.7%p)라는 응답은 감소하였고, ‘북한의 체제불안’(1.3%p)이라는 응답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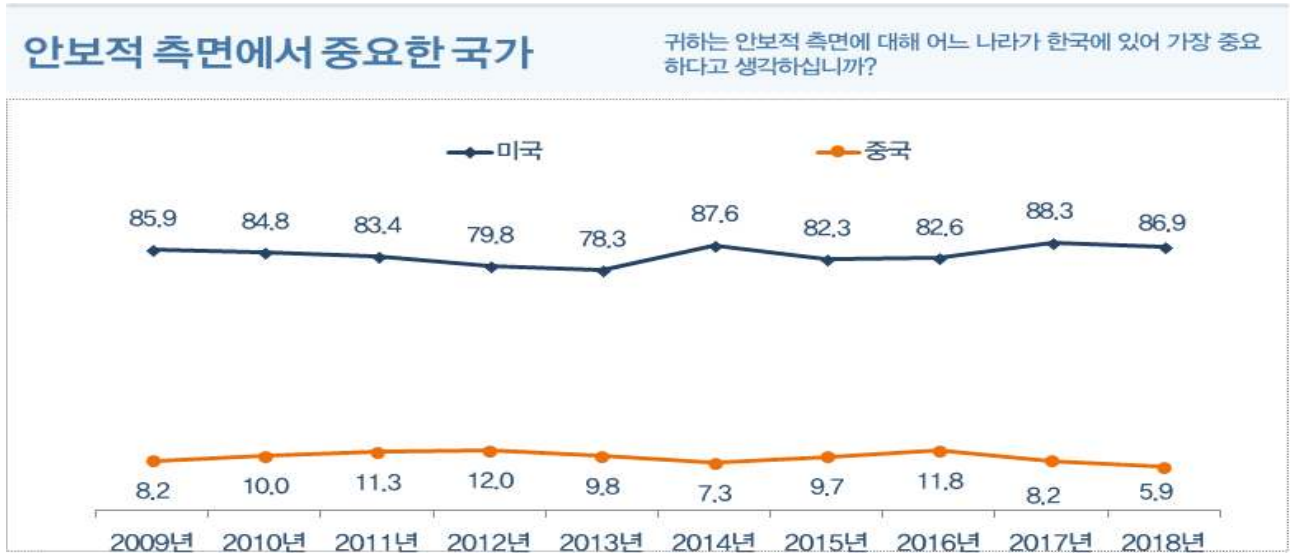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요인으로 국내 정치의 불안이라는 응답이 4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내 경제의 불안(45.4%), ‘사회 불평등의 심화(3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국내 경제의 불안(7.0%p)’이라는 응답은 증가하였고, ‘국내 정치의 불안(3.9%p), ‘국민 안보의식 해이(12.1%p)’라는 응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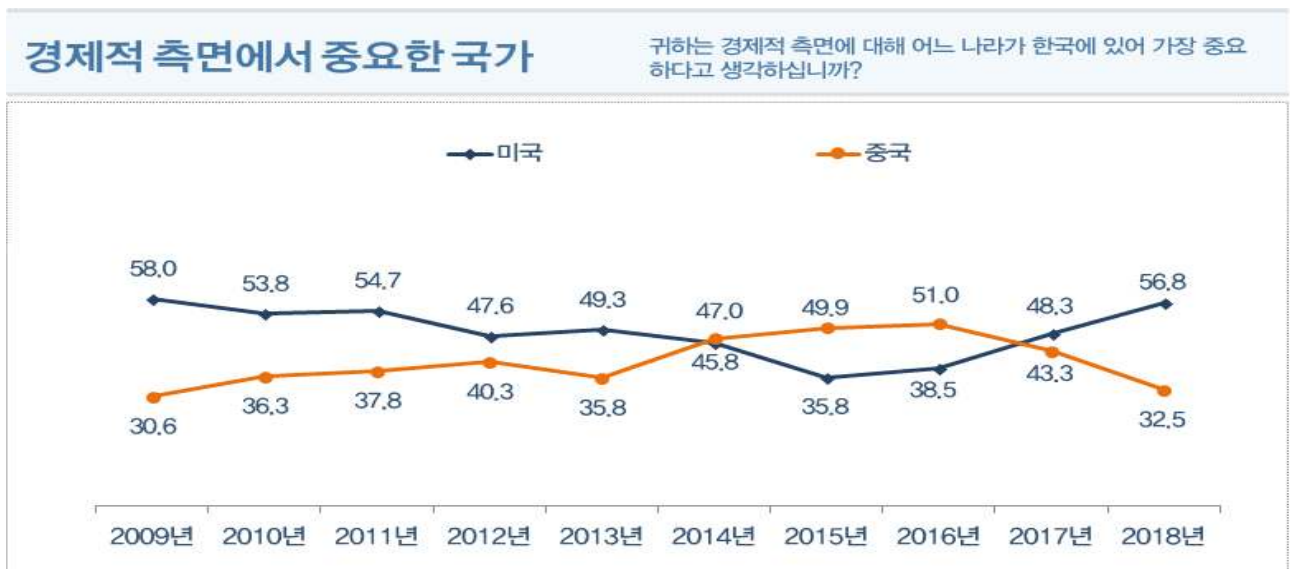
-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 교류협력 확대’라는 응답이 3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28.0%), ‘한·미 동맹체제 강화’(2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남북교류 협력확대’(17.3%p)’라는 응답은 증가하였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12.8%p), ‘한·미동맹 체제강화’(3.6%p)’ 등의 응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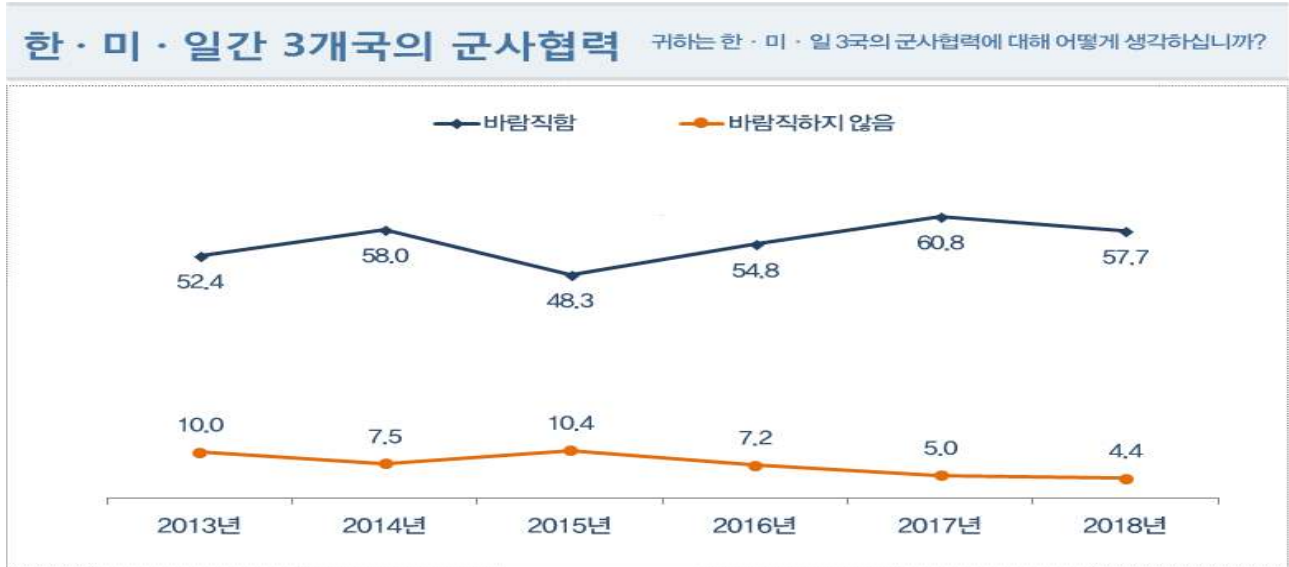
-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8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5.9%)', '일본(4.3%)', '러시아(1.7%)'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1.4%p 감소하였고, '중국'이라는 응답은 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5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32.5%)', '일본(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미국'(56.2%)이라는 응답은 8.5%p(2017년 48.3%) 증가하였고, '중국'(32.5%)이라는 응답은 10.8%p (2017년 4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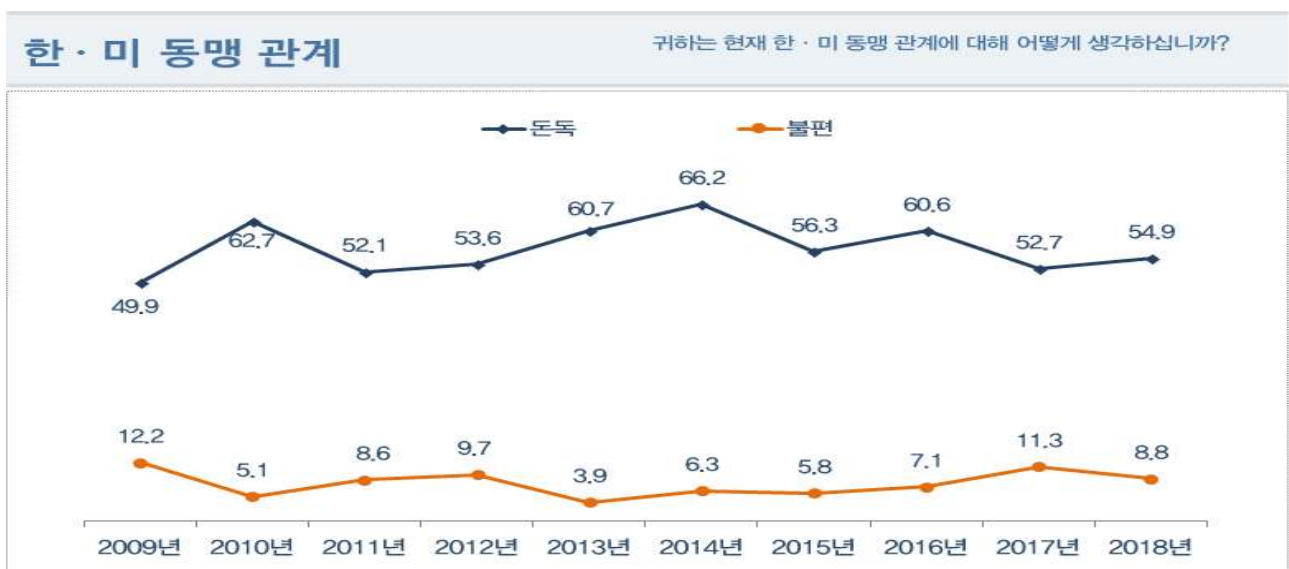
- 한·미·일간 3개국의 군사협력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7.7%로 ‘바람직하지 않다’(4.4%) 보다 53.3%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1%p 감소하였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0.6%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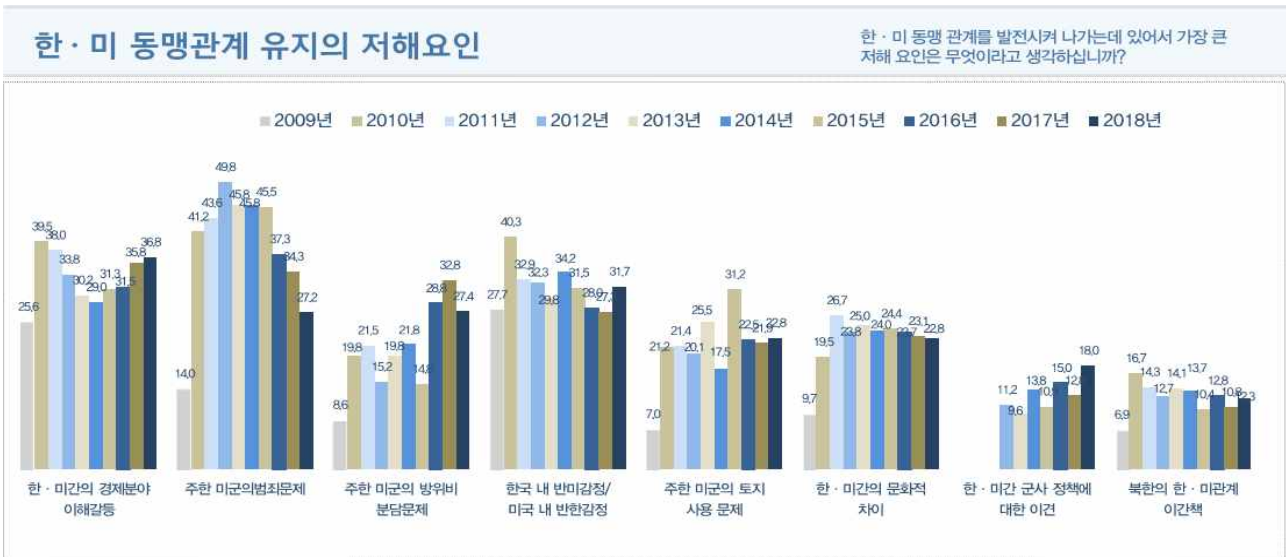
II.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 현재의 한·미동맹관계에 대해 ‘돈독하다’는 응답이 54.9%로 높게 나타났으며, 2017년도에 비해 ‘돈독하다’는 응답은 2.2%p 증가함. (2017년 52.7%)
- ◎ 한·미동맹관계 유지에 저해요인으로는 ‘한·미간 경제 분야 이해갈등’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내 반미감정 / 미국내 반한감정’(31.7%),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2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이 77.8%로 높게 나타남. 2017년 대비 ‘중요하다’는 응답은 1.4%p 증가함. (2017년 76.4%)
- ◎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우위’(41.3%)라는 응답이 ‘북한우위’(33.6%)라는 응답보다 7.7%p 높게 나타남. 2017년 대비 ‘한국우위’라는 응답은 9.7%p 증가함.(2017년 31.6%)
- ◎ 주한미군 주둔 시기에 대해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이라는 응답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2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3%로 높게 나타났으나, 2017년 대비 8.6%p 감소함. (2017년 78.9%)
- ◎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54.3%로 높게 나타났으며, 2017년 대비 1.8%p 감소함.(2017년 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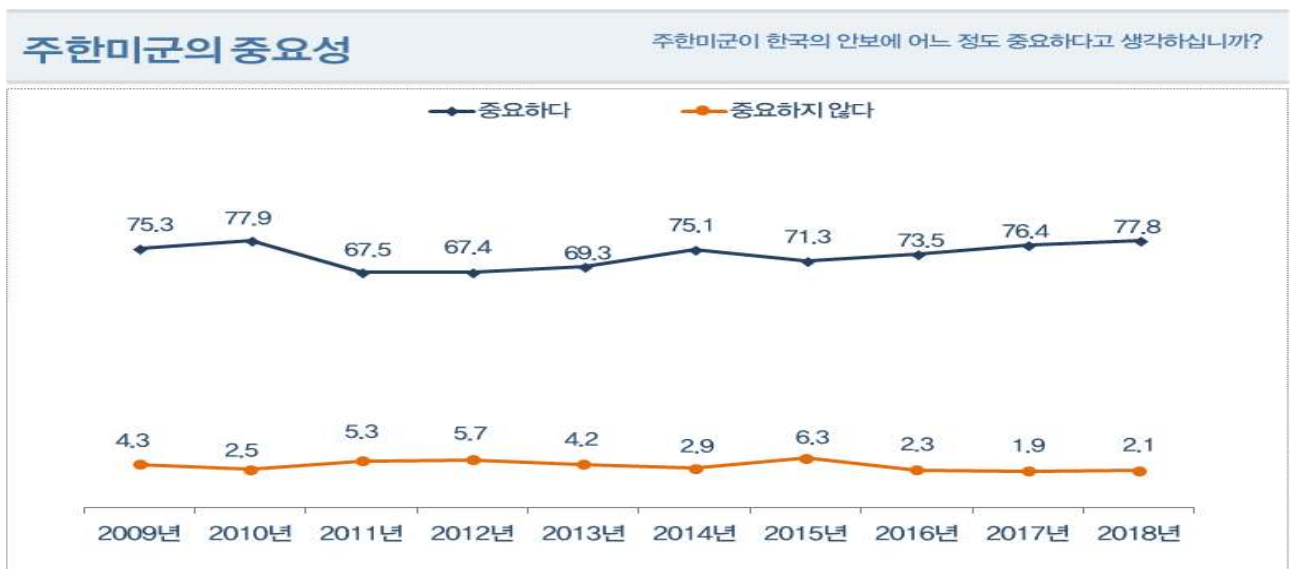
- 현재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돈독하다’는 응답이 54.9%로 ‘불편하다’(8.8%)는 응답보다 46.1%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돈독하다’(54.9%)는 응답은 2.2%p(2017년 52.7%) 증가하였고, ‘불편하다’(8.8%)는 응답은 2.5%p(2017년 1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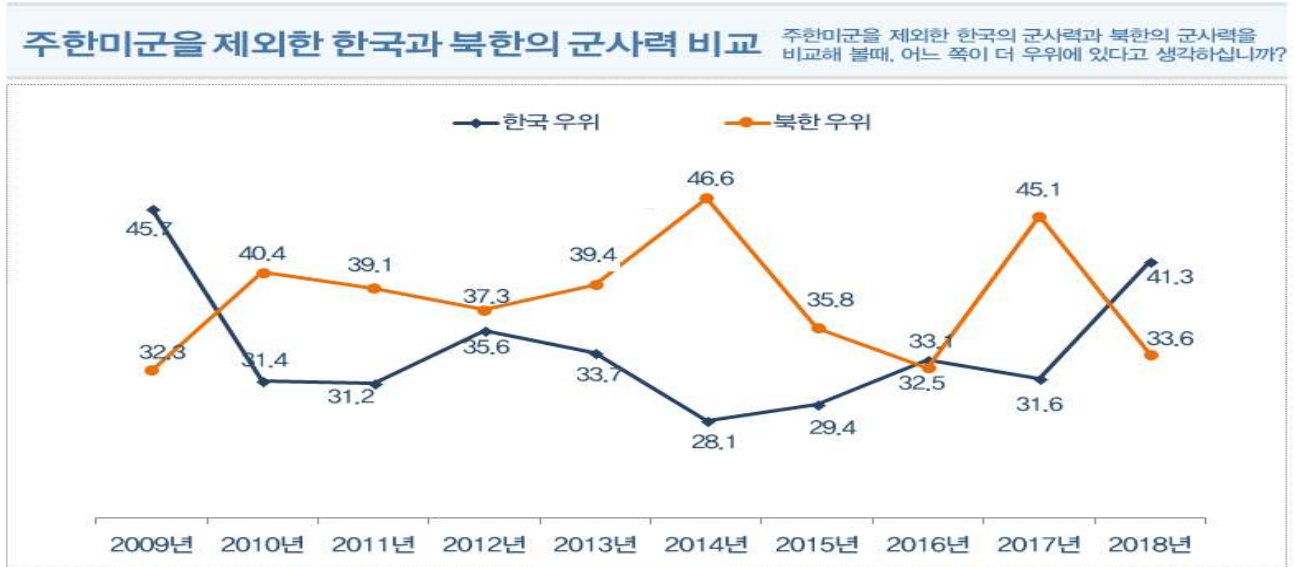
- 한·미동맹관계 유지의 저해 요인은 ‘한미간의 경제분야 이해 갈등’이 3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국내 반미감정/미국내 반한감정’(31.7%),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2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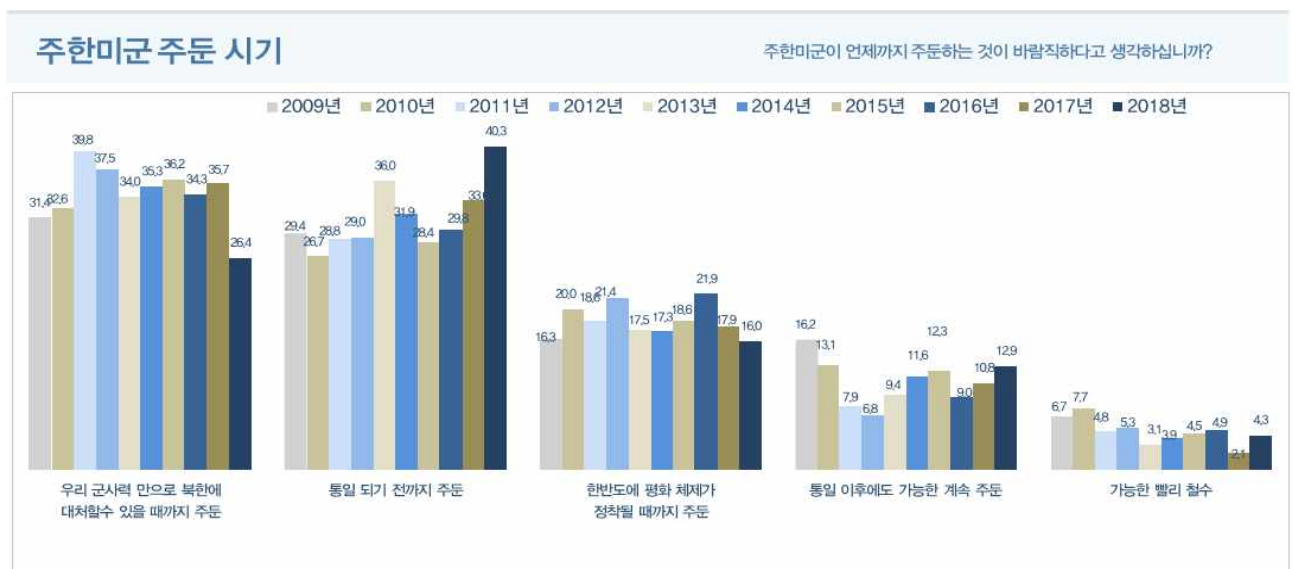
-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이 77.8%로 ‘중요하지 않다’(2.1%)는 응답보다 75.7%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중요하다’(77.8%)는 응답은 1.4%p(2017년 76.4%), ‘중요하지 않다’(2.1%)는 응답은 0.2%p(2017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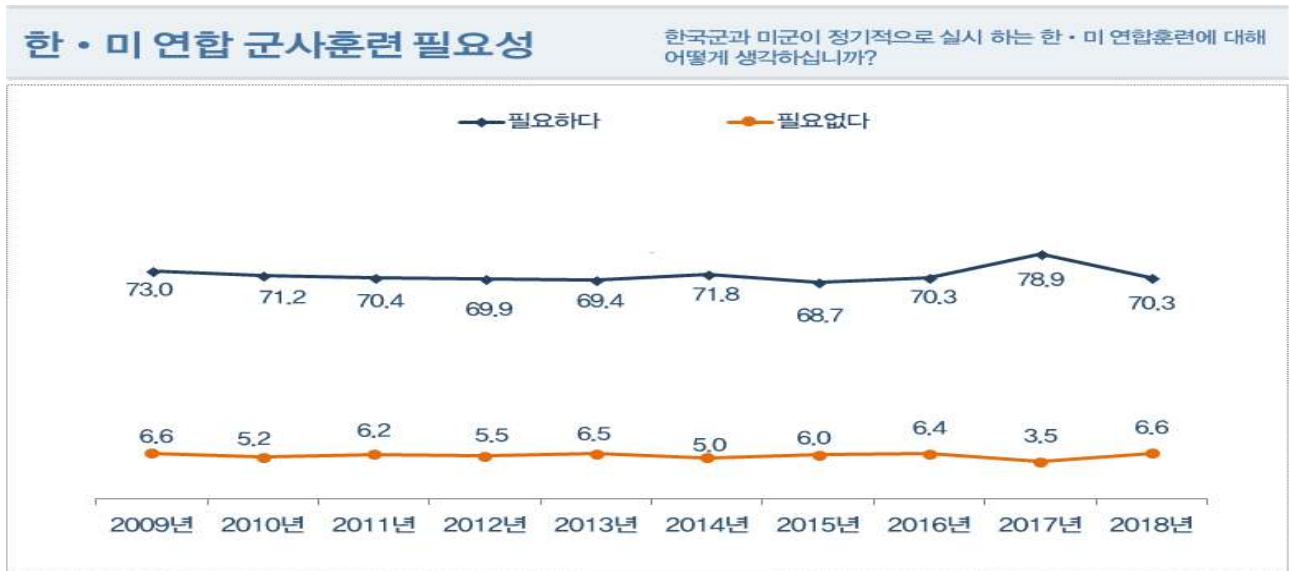
-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 군사력 비교 질문에 ‘한국 우위’라는 응답이 41.3%로 ‘북한 우위’(33.6%)라는 응답보다 7.7%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한국 우위’라는 응답은 9.7%p 증가하였고, ‘북한 우위’라는 응답은 1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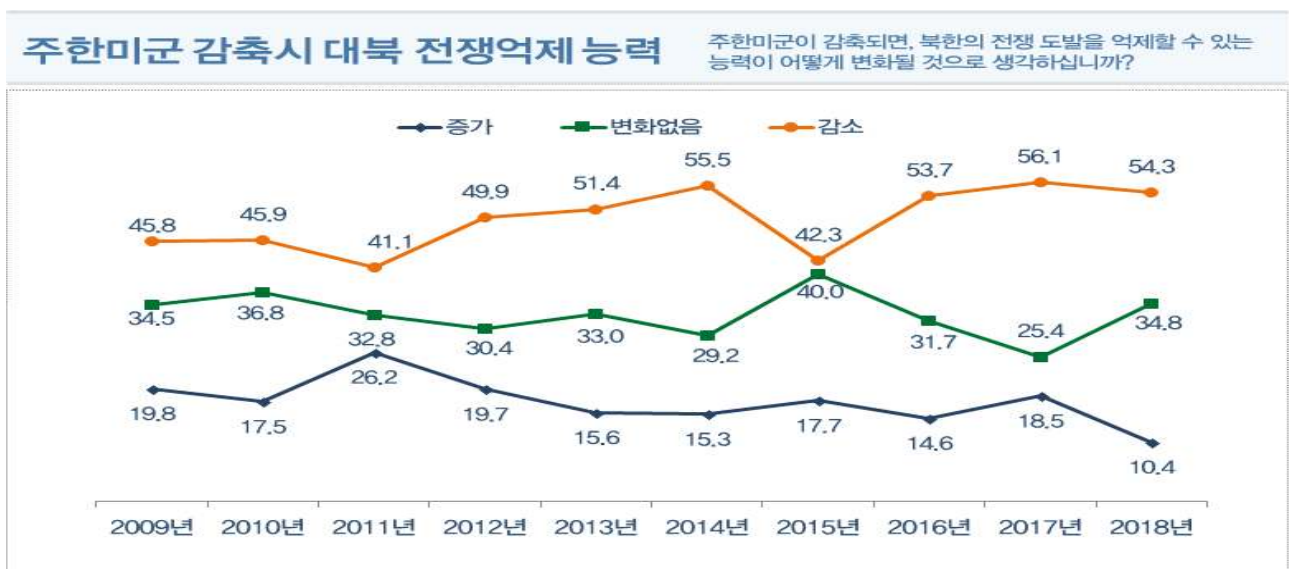
- 주한미군 주둔시기에 대해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2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응답이 최근 10년간 높은 응답을 나타냈으나, 2018년은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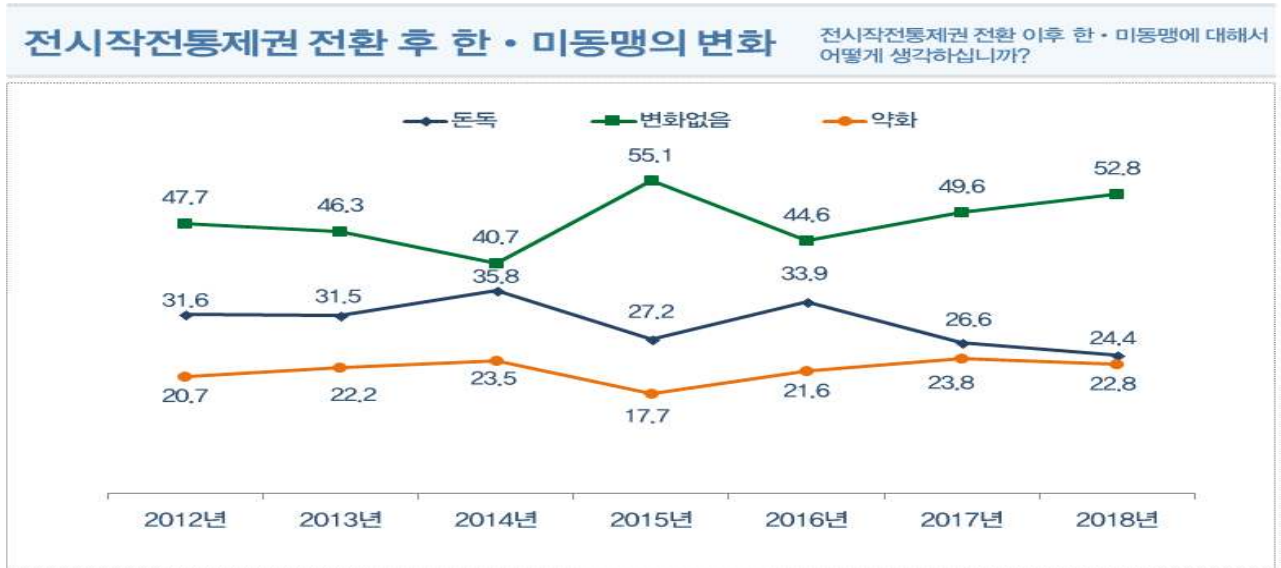
- 한·미연합훈련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3%로 ‘필요없다’(6.6%)는 응답보다 63.7%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필요없다’는 응답은 3.1%p 증가하였고, ‘필요하다’는 응답은 8.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인해 대북 전쟁억제 능력은 ‘감소할 것이다’는 응답이 54.3%로 ‘증가할 것이다’(10.4%)는 응답보다 43.9%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감소할 것이다’(54.3%)는 응답은 1.8%p(2017년 56.1%), ‘증가할 것이다’(10.4%)는 응답은 8.1%p(2017년 1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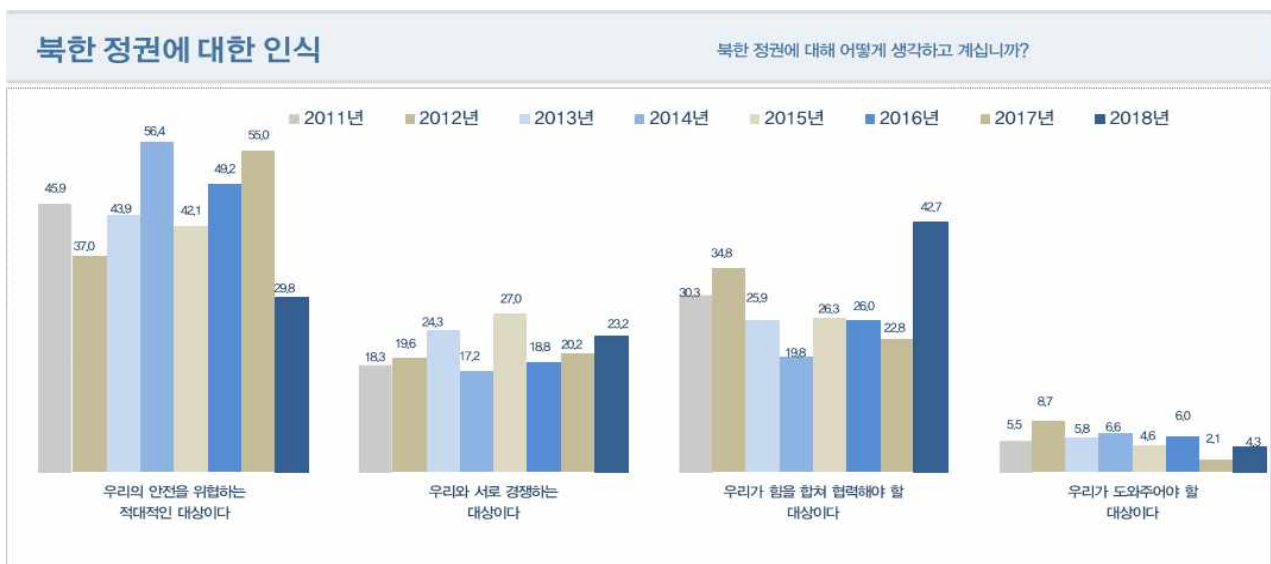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에 대해 ‘돈독해질 것이다’는 응답이 24.4%로 ‘약화될 것이다’(22.8%)는 응답보다 1.6%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돈독해질 것이다’(24.4%)는 응답은 2.2%p(2017년 26.6%), ‘약화될 것이다’(22.8%)는 응답은 (2017년 23.8%) 1.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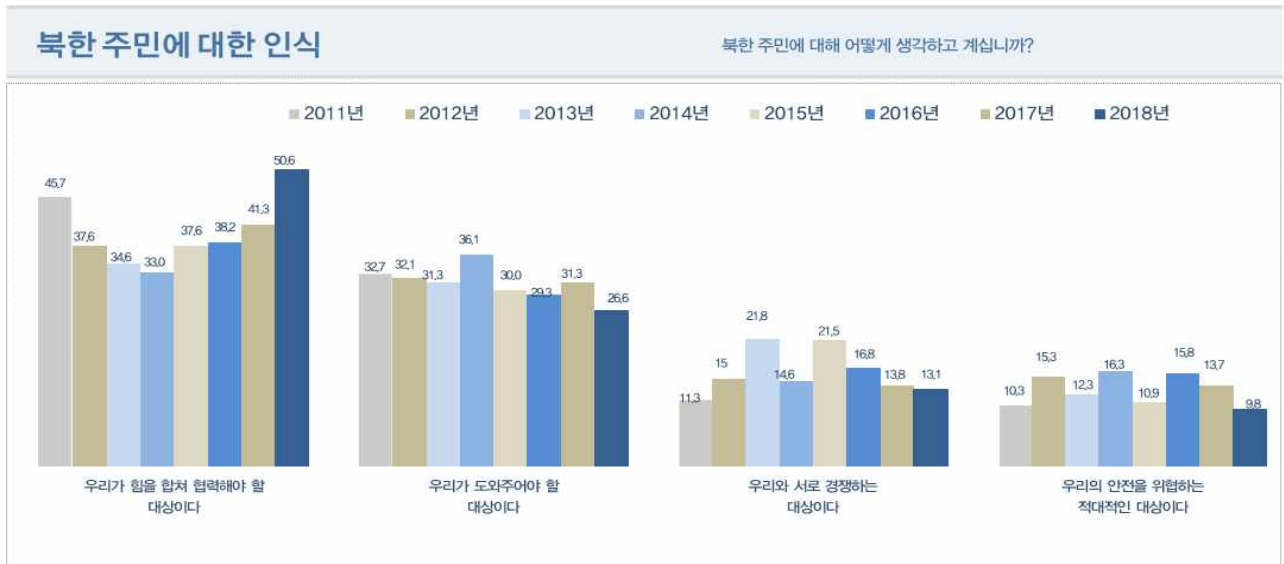
III. 북한 관련 사항

- ◎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는 응답이 42.7%로 높게 나타났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는 응답이 50.6%로 높게 나타남.
- ◎ 북한의 도발 가능성(향후 2~3년 이내)에 대해 ‘낮다’는 응답이 49.5%로 ‘높다’(21.8%)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2017년 대비 ‘낮다’는 응답은(2017년 27.0%) 22.5%p 증가하였고, ‘높다’는 응답은(2017년 44.3%) 2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대해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66.3%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8.0%) 보다 높게 나타남. 2017년 대비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21.8%p(2017년 44.5%) 증가하였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15.7%p(2017년 23.7%) 감소함.
- ◎ 북한 핵무기 개발이 한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정도에 대해 ‘위협이 된다’는 응답이 74.2%로 높게 나타남. 2017년 대비 5.6%p 감소함. (2017년 79.8%)
- ◎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으려고’라는 응답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더 얻으려고’(22.4%), ‘미국을 압박하기 위하여’(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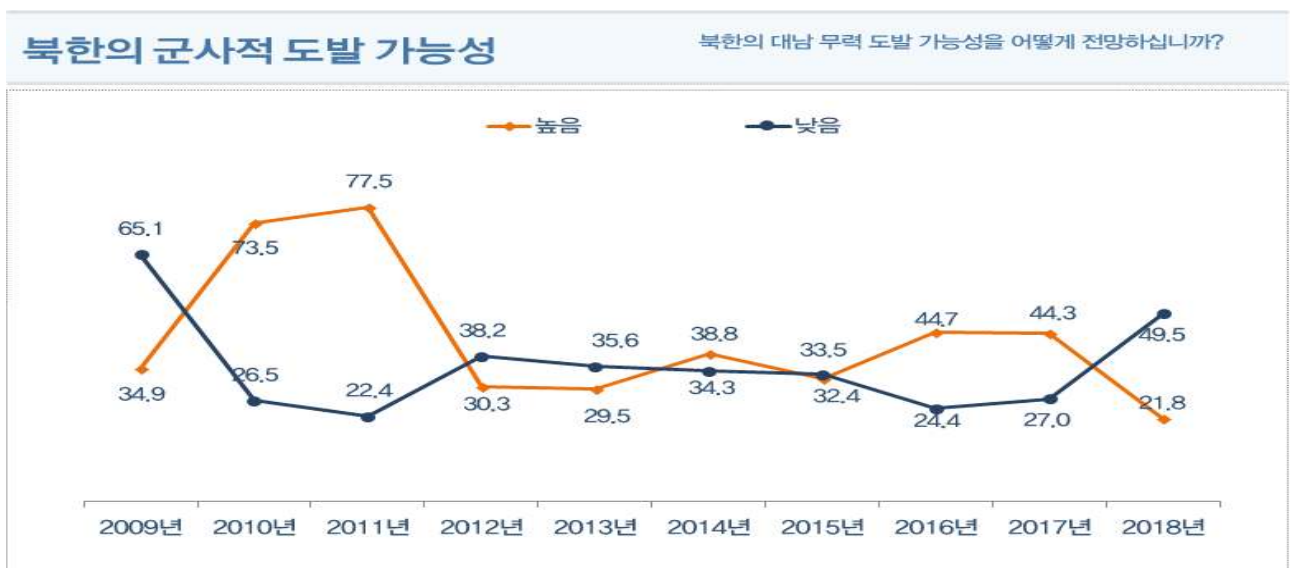
-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할 대상이다’라는 응답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할 대상이다’라는 응답은 19.9%p 증가하였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는 응답은 25.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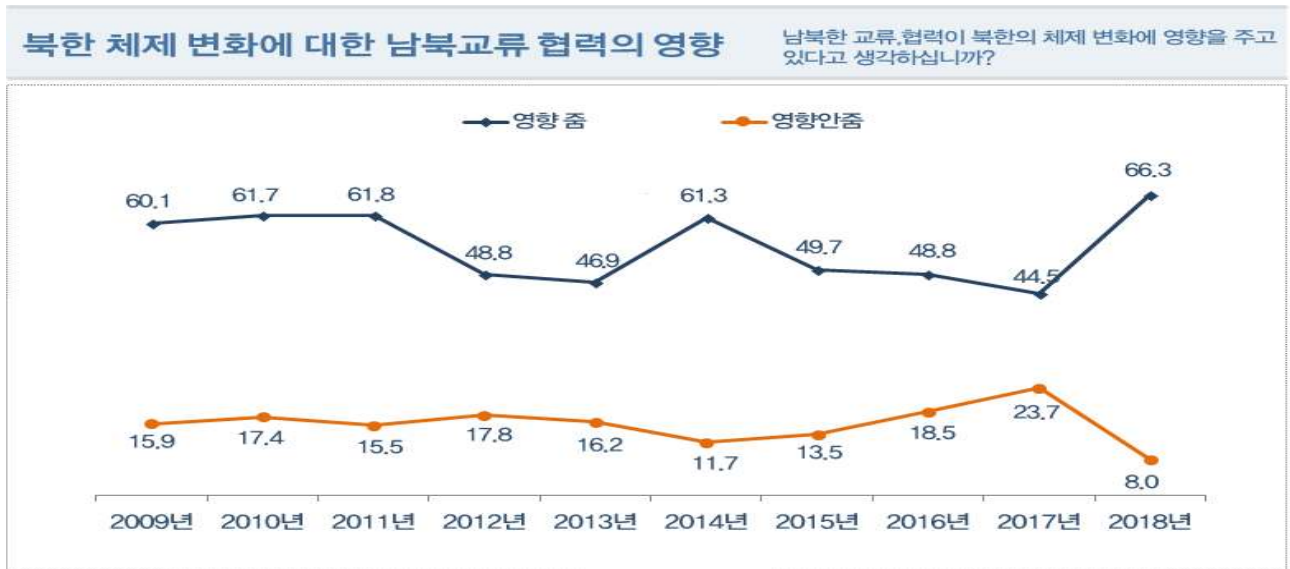
-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응답이 50.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2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응답은 9.3%p 증가하였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라는 응답은 3.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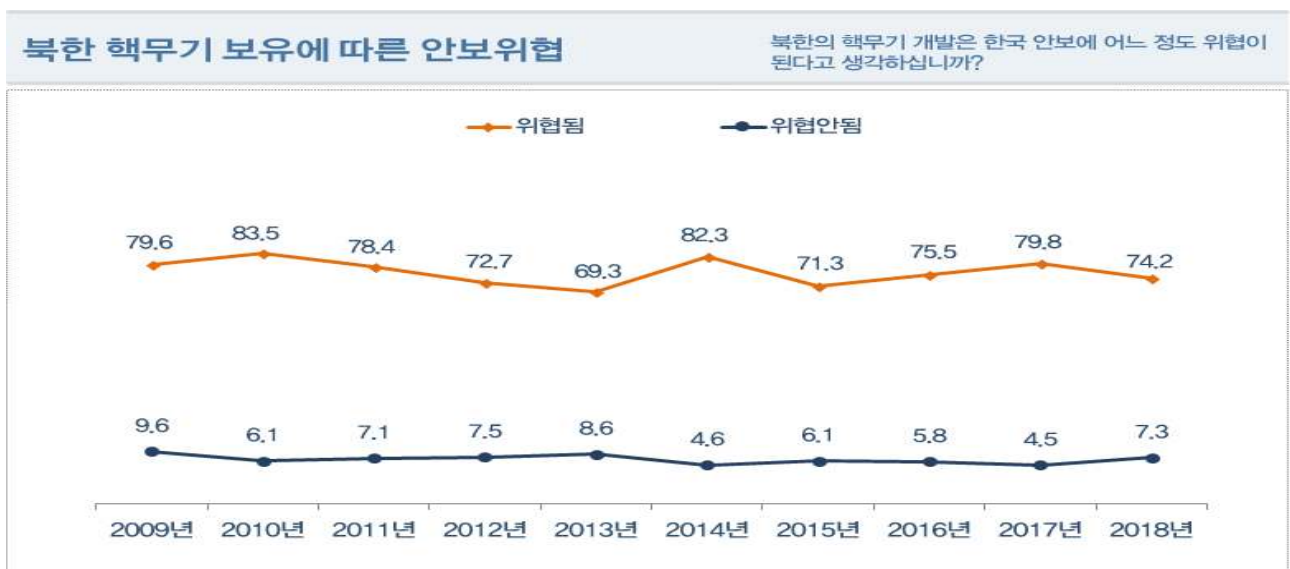
-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낮다’는 응답이 49.5%로 ‘높다’(21.8%)는 응답보다 27.7%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낮다’라는 응답은 22.5%p 증가하였고, ‘높다’는 응답은 2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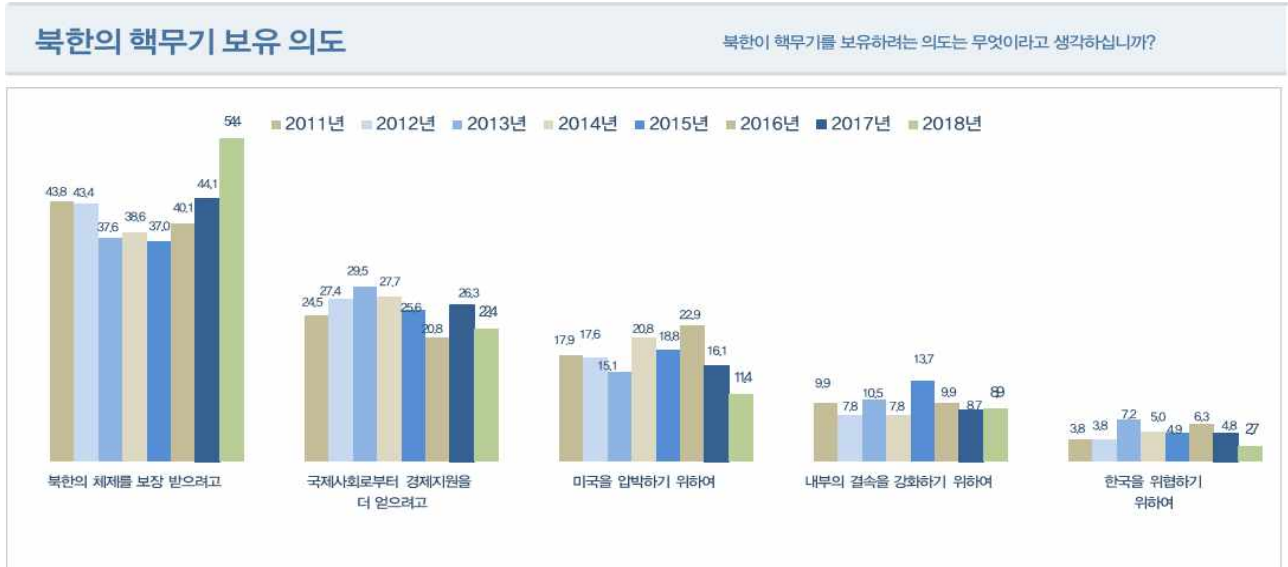
-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대해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66.3%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8.0%)는 응답보다 58.3%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21.8%p 증가하였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15.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안보위협에 대해 ‘위협이 된다’는 응답이 74.2%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7.3%)는 응답보다 66.9%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위협이 된다’는 응답은 5.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 받으려고’라는 응답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더 얻으려고’(2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북한의 체제를 보장 받으려고’라는 응답은 모든 조사년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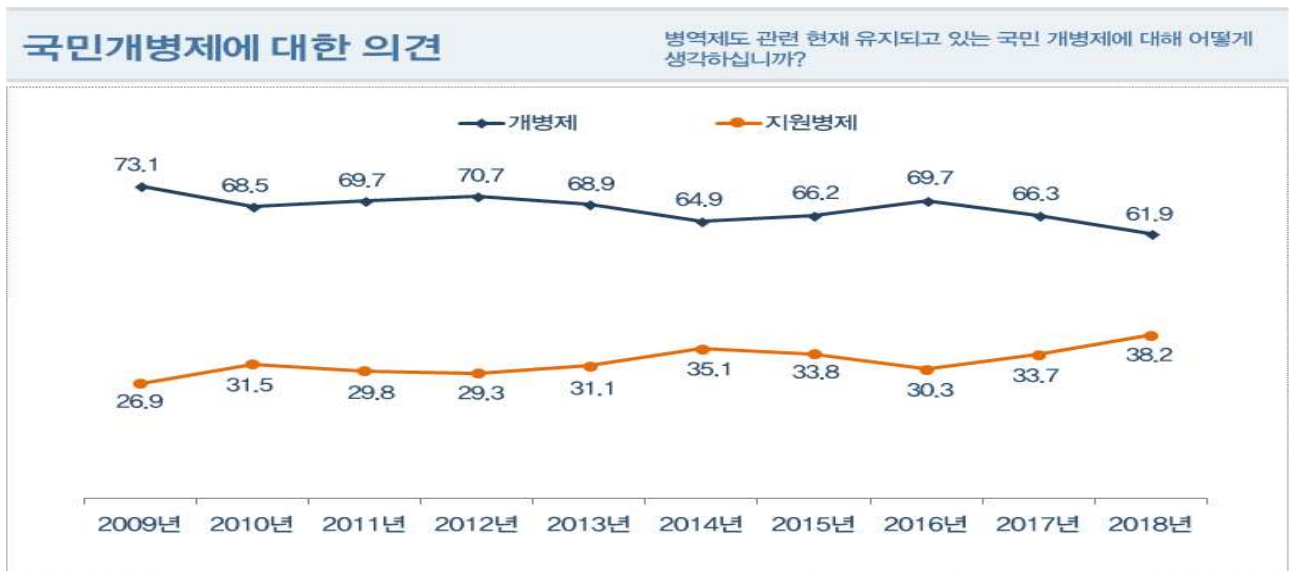


IV. 병역제도 및 병역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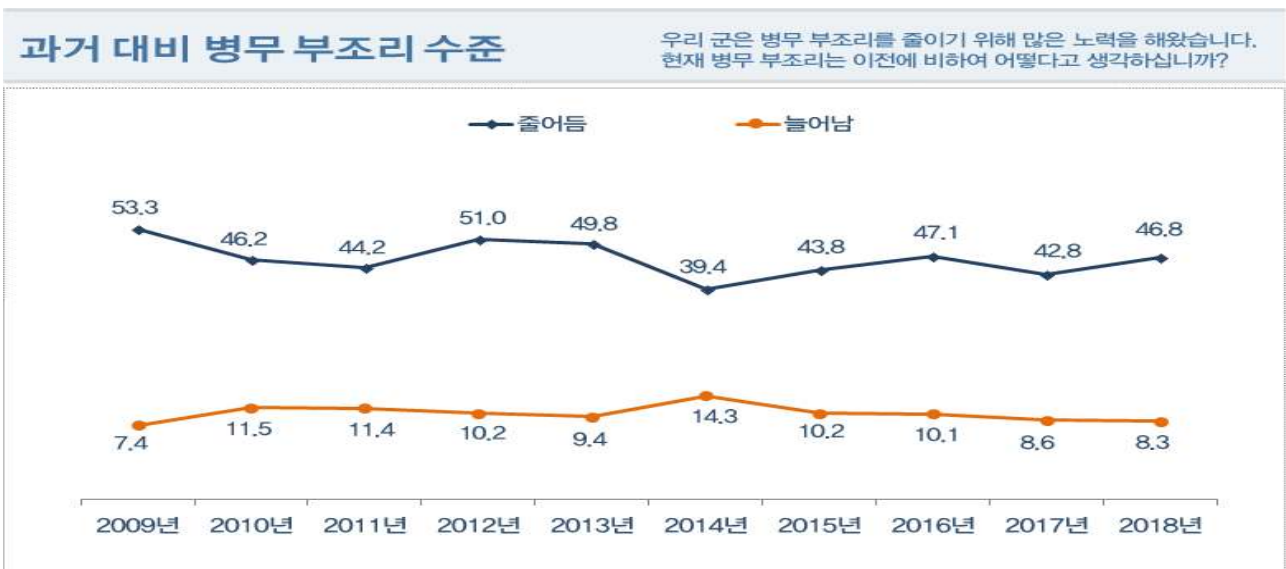
◎ 국민개병제에 대해서는 '국민개병제를 실시해야 한다'(국민개병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27.6% +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 34.3%)는 응답이 61.9%로 '지원병제를 실시해야 한다' 보다 높게 나타남.

◎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에 대해 '감소'라는 응답이 46.8%로 '증가'(8.3%)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 국민개병제에 대한 응답으로는 '국민개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61.9%로 '지원병제를 실시해야 한다'(38.2%) 보다 23.7%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개병제'는 4.4%p 감소하였고, '지원병제'는 4.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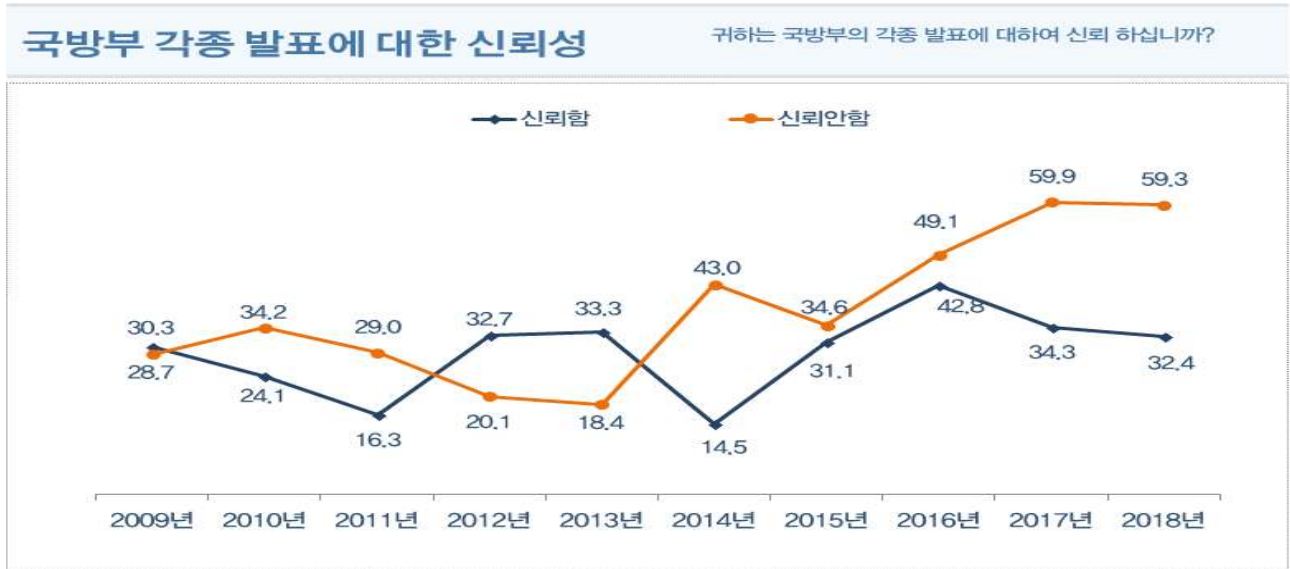
-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은 '줄어 든 것 같다'는 응답이 46.8%로 '많아진 것 같다'는 응답(8.3%)보다 38.5%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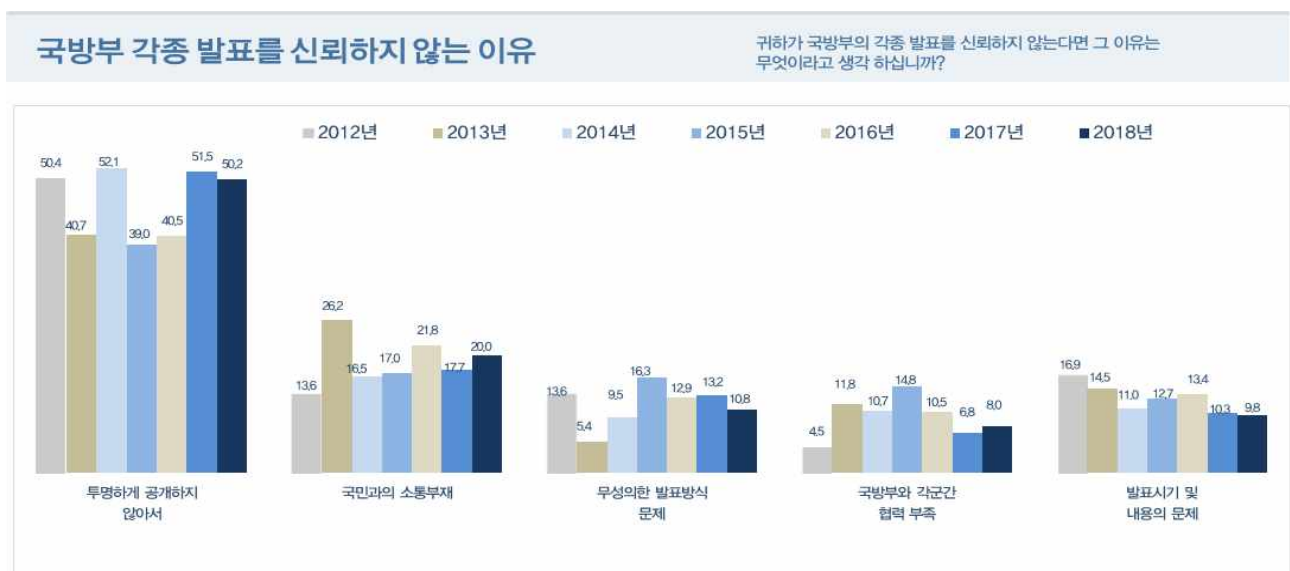
V.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

- ◎ 국방부 각종발표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9.3%로, ‘신뢰한다’(32.4%)보다 높게 나타남.
2017년 대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0.6%p, ‘신뢰한다’는 응답은 1.9%p 감소함.
-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46.7%로 ‘신뢰하지 않는다’(46.8%)와 유사하게 높게 나타남.
2017년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0.7%p 증가하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p 감소하였음.
-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라는 응답이 5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빈번한 사건사고 발생’(46.9%), ‘간부들의 도덕성’(4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64.6%로 ‘공정하다’(21.8%)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2017년 대비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4.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이 68.7%로 ‘효율적’(19.9%)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2017년 대비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은 2.6%p, ‘효율적’이라는 응답은 3.3%p 감소함.
- ◎ 한국의 국방비 수준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28.8%로 ‘줄여야 한다’(14.1%) 보다 높게 나타남.
2017년 대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12.1%p 하락하였고,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향후 국방비를 투자해야 할 분야로 ‘첨단무기 체계확보’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고,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 현대화’(26.9%),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2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은 ‘찬성한다’는 응답이 68.1%로 ‘반대한다’(5.8%) 보다 높게 나타남.
- ◎ 향후 국제평화유지활동 규모에 대한 응답에 대해 규모를 ‘확대해야한다’는 응답이 36.8%로 ‘축소해야한다’(7.1%) 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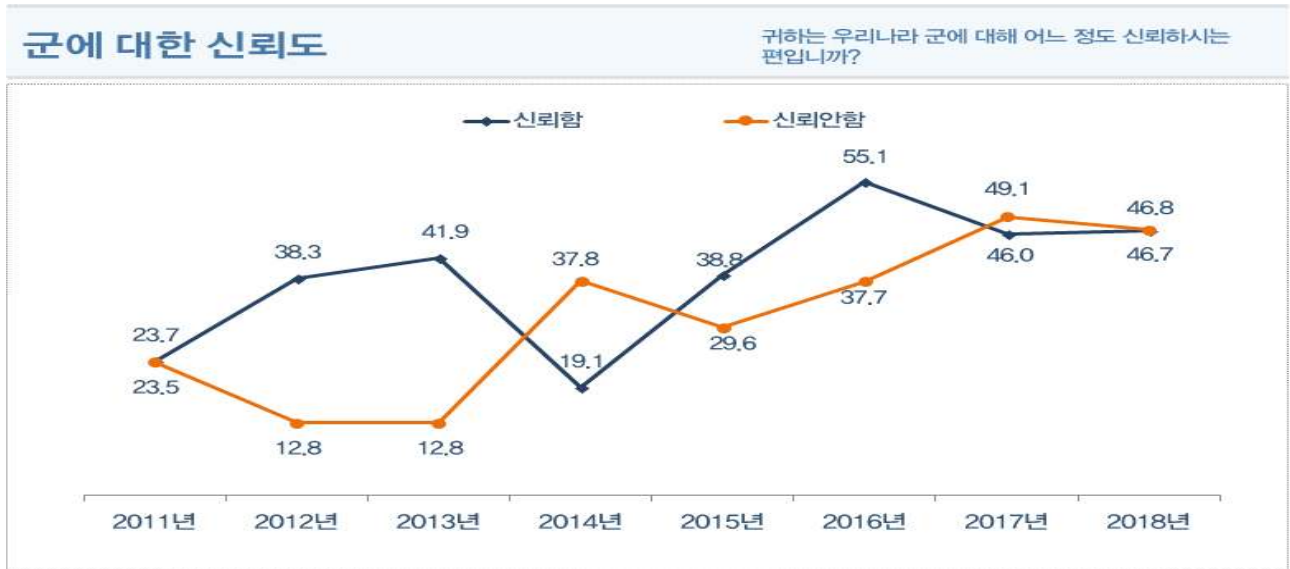
- 국방부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성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9.3%로 ‘신뢰한다’(32.4%)는 응답보다 26.9%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0.6%p 감소하였고, ‘신뢰한다’는 응답은 1.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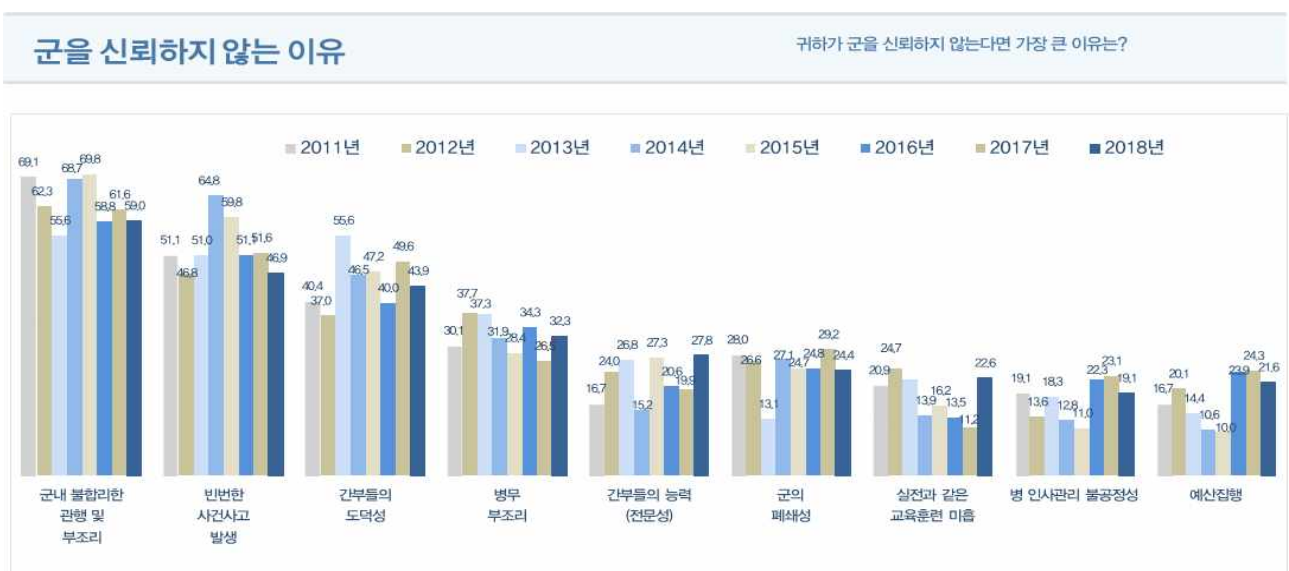
- 국방부 각종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0.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민과의 소통부재’(20.0%), ‘무성의한 발표방식 문제’(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1.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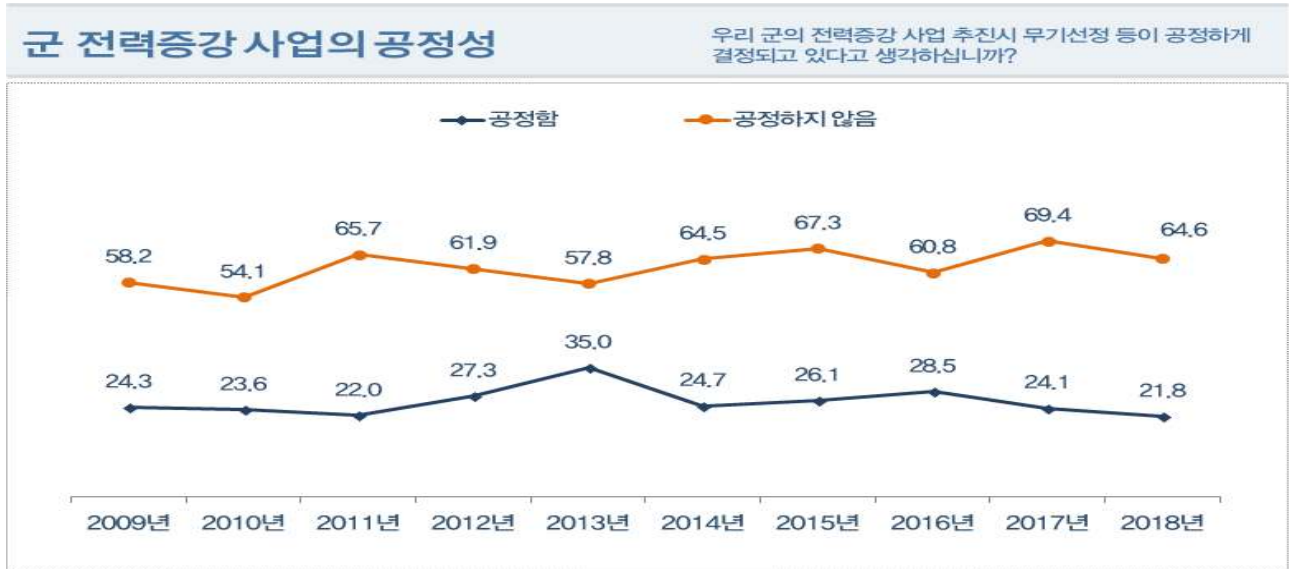
- 군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46.7%로 ‘신뢰하지 않는다’(46.8%)는 응답과 유사하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0.7%p 증가하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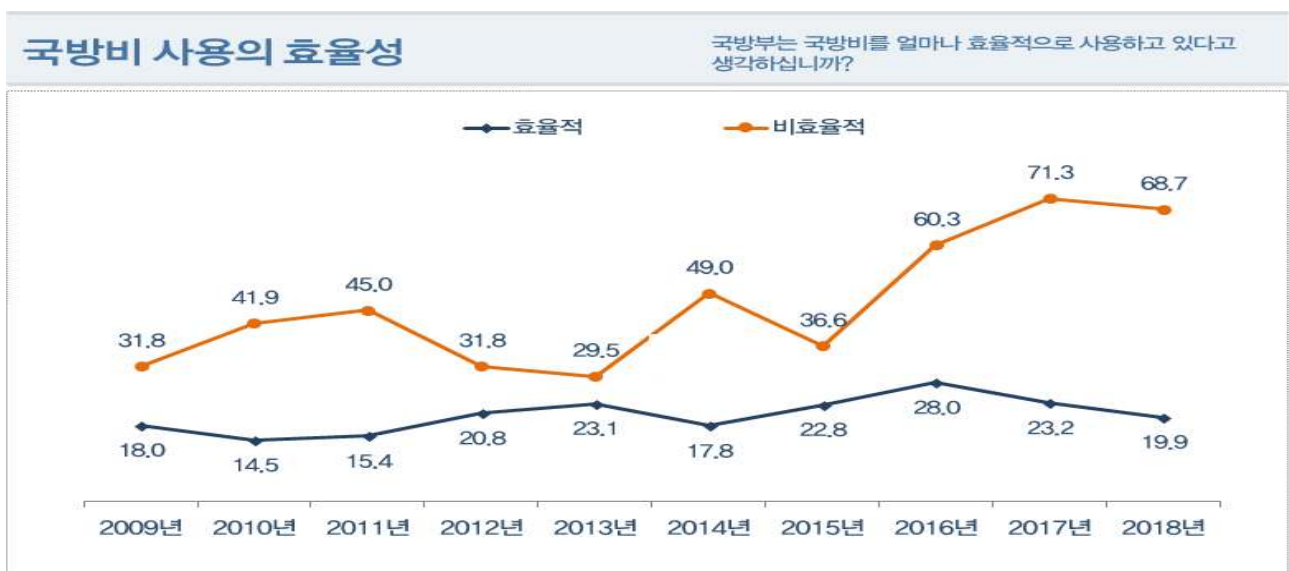
- 군을 신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가 5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빈번한 사건사고 발생’(46.9%), ‘간부들의 도덕성’(4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간부들의 도덕성’이라는 응답은 5.7%p 하락하였고, ‘간부들의 능력(전문성)’이라는 응답은 8.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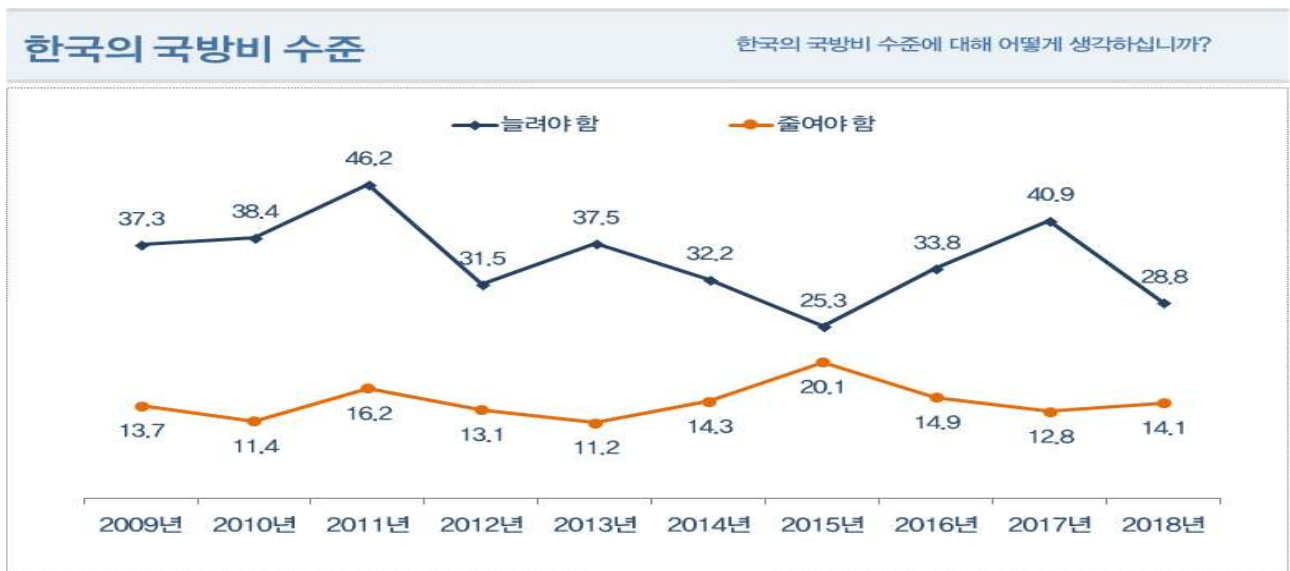
-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64.6%로 ‘공정하다’(21.8%)는 응답보다 42.8%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4.8%p 감소하였고, ‘공정하다’는 응답은 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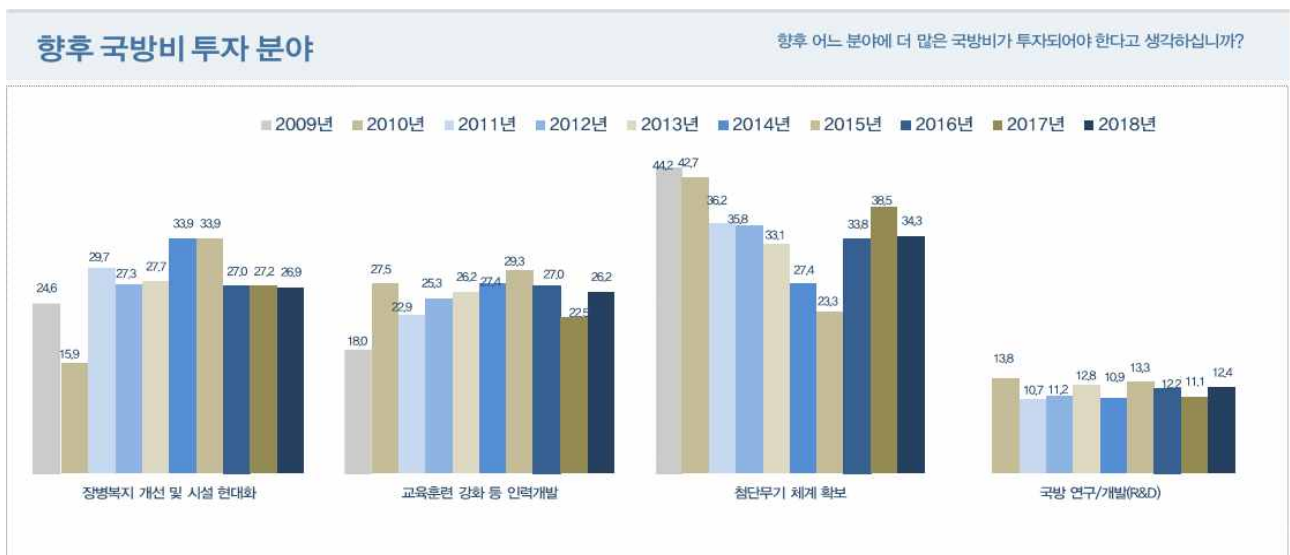
-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비효율적이다’는 응답이 68.7%로 ‘효율적이다’(19.9%)는 응답보다 48.8%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은 2.6%p 감소하였고, ‘효율적’이라는 응답은 3.3%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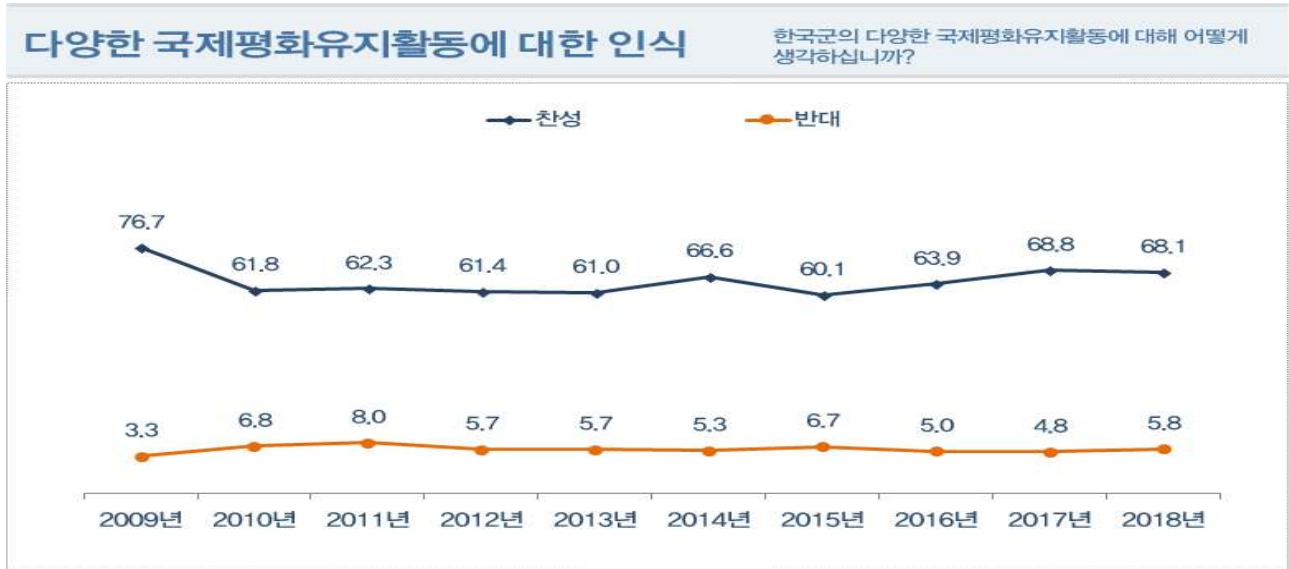
- 한국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28.8%로 ‘줄여야 한다’(14.1%)는 응답보다 14.7%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12.1%p 하락하였고,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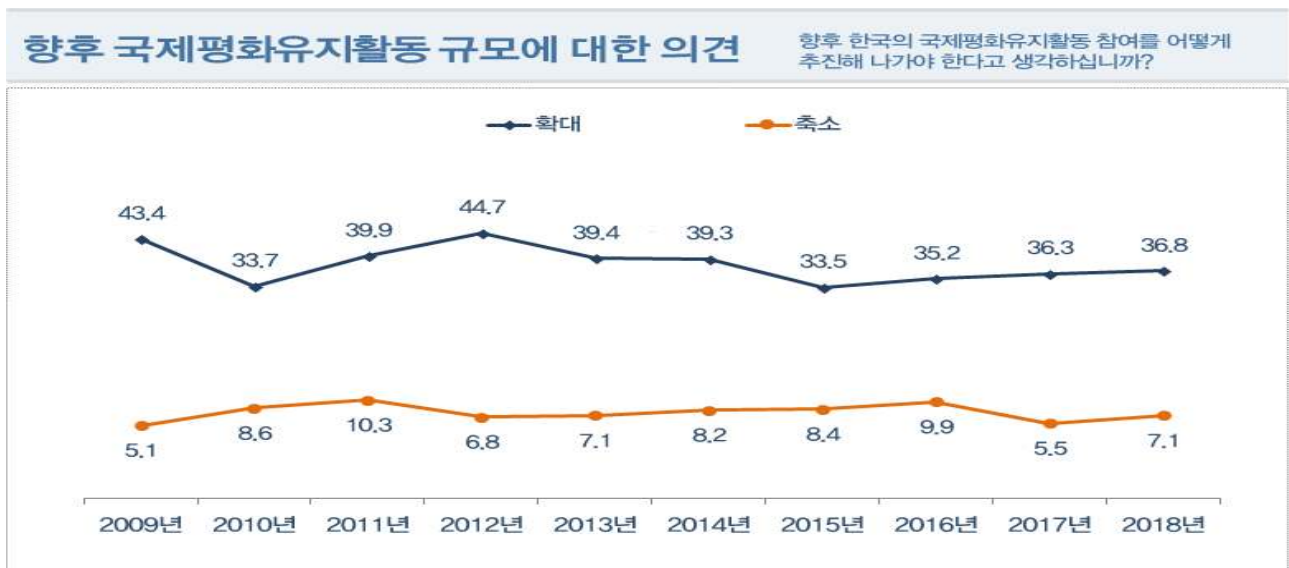
- 향후 국방비 투자분야로 ‘첨단 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 현대화’(26.9%),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2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첨단 무기 체계 확보’라는 응답은 4.2%p 하락하였고,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이라는 응답은 4.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군의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8.1%로 ‘반대한다’(5.8%)는 응답보다 62.3%p 높게 나타남.
- 2015년 이후 ‘찬성한다’는 응답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 향후 국제평화유지활동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6.8%로 ‘축소해야 한다’(7.1%)는 응답보다 29.7%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0.5%p 증가하였고,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도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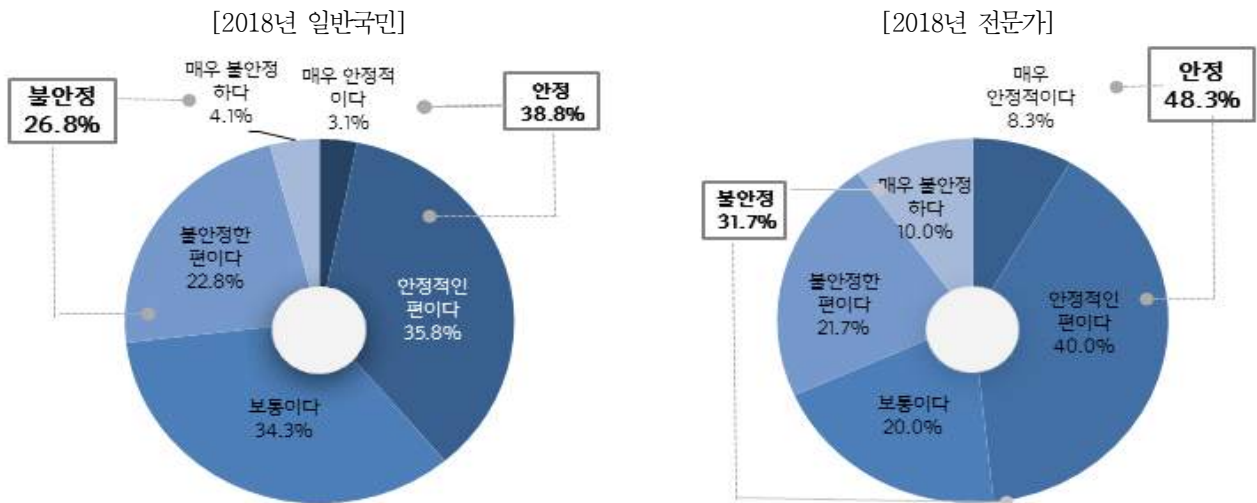
I 국가안보 관련 일반사항

1.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에 대해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일반국민 38.8%, 전문가 48.3%로 나타남.

- [일반국민]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이 ‘안정적이다’는 응답이 38.8%로 ‘불안정적이다’는 응답 26.8% 보다 12.0%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안정적이다’(38.8%)는 응답은 28.2%p(2017년 10.6%) 증가하였고, ‘불안정적이다’(27.1%)는 응답은 34.1%p(2017년 6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이 ‘안정적이다’는 응답이 48.3%로 높게 나타남.

<그림 1-1>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불안정적이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생활수준별로 ‘하’에서 높게 나타남.

<표 1-1>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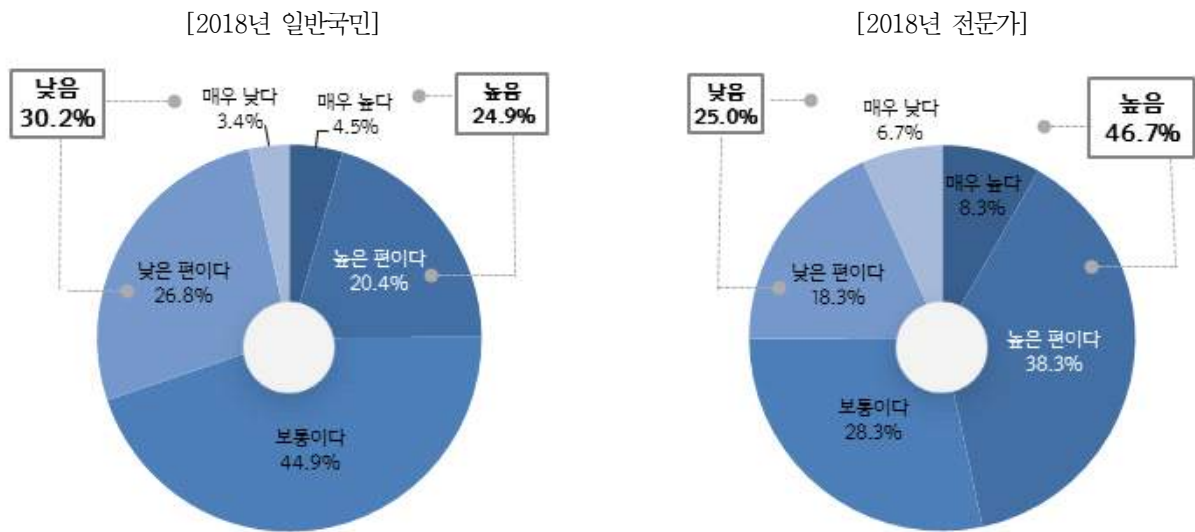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안정적 이다	안정적인 편이다	보통이다	불안정한 편이다	매우 불안정 하다	종합				
							안정	보통	불안정		
전체	1,260	3.3	36.0	33.7	22.7	4.4	39.3	33.7	27.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1	35.8	34.3	22.8	4.1	38.8	34.3	26.8	
	전문가	60	8.3	40.0	20.0	21.7	10.0	48.3	20.0	3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7.0	46.0	27.5	16.4	3.1	53.1	27.5	19.5	
	중	564	1.2	34.9	37.4	24.8	1.6	36.2	37.4	26.4	
	하	210	0.0	17.1	40.0	30.0	12.9	17.1	40.0	42.9	
성별	남성	720	4.0	37.2	31.5	23.6	3.6	41.3	31.5	27.2	
	여성	480	1.7	33.5	38.5	21.5	4.8	35.2	38.5	26.3	
연령별	20대 이하	299	1.7	33.4	39.1	22.1	3.7	35.1	39.1	25.8	
	30대	273	4.0	36.6	33.3	22.0	4.0	40.7	33.3	26.0	
	40대	316	4.1	35.1	37.0	19.3	4.4	39.2	37.0	23.7	
	50대	312	2.6	37.8	27.9	27.6	4.2	40.4	27.9	31.7	
지역별	서울	237	4.2	36.7	37.1	20.3	1.7	40.9	37.1	21.9	
	경기/인천	389	4.4	37.3	34.7	20.6	3.1	41.6	34.7	23.7	
	부산/울산/경남	183	0.5	20.8	29.5	38.8	10.4	21.3	29.5	49.2	
	대구/경북	114	2.6	40.4	29.8	21.1	6.1	43.0	29.8	27.2	
	광주/전라	114	0.9	41.2	44.7	13.2	0.0	42.1	44.7	13.2	
	대전/충청/세종	128	2.3	40.6	28.9	22.7	5.5	43.0	28.9	28.1	
지역크기	강원	35	5.7	40.0	37.1	17.1	0.0	45.7	37.1	17.1	
	대도시	542	3.1	33.6	36.2	24.4	2.8	36.7	36.2	27.1	
	중소도시	579	3.1	37.0	33.5	21.2	5.2	40.1	33.5	26.4	
	읍/면	79	2.5	41.8	27.8	22.8	5.1	44.3	27.8	27.8	
	직업별	농/어/임업	10	10.0	30.0	40.0	10.0	10.0	40.0	40.0	20.0
		자영업자	260	4.2	37.7	33.8	20.0	4.2	41.9	33.8	24.2
판매/서비스직		238	3.8	34.9	35.3	23.1	2.9	38.7	35.3	26.1	
사무/기술직		386	2.1	37.6	31.6	25.9	2.8	39.6	31.6	28.8	
전문/자유직		27	18.5	29.6	18.5	22.2	11.1	48.1	18.5	33.3	
전업주부		147	1.4	33.3	36.7	23.1	5.4	34.7	36.7	28.6	
학생		111	0.0	35.1	38.7	19.8	6.3	35.1	38.7	26.1	
무직/기타		21	4.8	19.0	57.1	14.3	4.8	23.8	57.1	19.0	
학력별	중졸이하	21	0.0	33.3	42.9	19.0	4.8	33.3	42.9	23.8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2.9	31.5	34.6	25.7	5.2	34.4	34.6	31.0	
	전문대(중퇴/졸업)	308	2.3	36.0	37.3	22.7	1.6	38.3	37.3	24.4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3.6	38.6	32.4	20.8	4.5	42.3	32.4	25.3	
	대학원 이상	24	8.3	45.8	20.8	16.7	8.3	54.2	20.8	25.0	
생활수준 별	상	110	6.4	30.0	34.5	29.1	0.0	36.4	34.5	29.1	
	중	680	2.4	38.5	35.6	20.0	3.5	40.9	35.6	23.5	
	하	410	3.4	32.7	32.2	25.6	6.1	36.1	32.2	31.7	

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낮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30.2%, 전문가 25.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30.2%로 ‘높다’는 응답 24.9% 보다 5.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높다’(24.9%)는 응답은 9.5%p(2017년 15.4%) 증가하였고, ‘낮다’(30.2%)는 응답은 11.8%p(2017년 4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46.7%로 ‘낮다’는 응답 25.0% 보다 21.7%p 높게 나타남.

<그림 1-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낮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농/어/임업(n=10), 학력별로 ‘중졸이하(n=21)’,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1-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단위[%]		사례수 (명)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종합			
								높음	보통	낮음	
전체		1,260	4.7	21.3	44.1	26.3	3.6	26.0	44.1	29.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5	20.4	44.9	26.8	3.4	24.9	44.9	30.2	
	전문가	60	8.3	38.3	28.3	18.3	6.7	46.7	28.3	2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10.3	37.6	35.4	15.0	1.6	47.9	35.4	16.7	
	중	564	1.2	14.0	59.0	24.6	1.1	15.2	59.0	25.7	
	하	210	1.4	2.9	26.2	56.2	13.3	4.3	26.2	69.5	
성별	남성	720	5.0	21.3	42.6	27.9	3.2	26.3	42.6	31.1	
	여성	480	3.8	19.2	48.3	25.0	3.8	22.9	48.3	28.8	
연령별	20대 이하	299	1.7	20.4	45.2	29.4	3.3	22.1	45.2	32.8	
	30대	273	5.5	16.8	45.1	29.7	2.9	22.3	45.1	32.6	
	40대	316	6.3	21.8	43.4	25.0	3.5	28.2	43.4	28.5	
	50대	312	4.5	22.1	46.2	23.4	3.8	26.6	46.2	27.2	
지역별	서울	237	5.9	21.5	46.0	24.1	2.5	27.4	46.0	26.6	
	경기/인천	389	4.9	21.1	51.2	20.6	2.3	26.0	51.2	22.9	
	부산/울산/경남	183	1.6	10.9	30.1	49.7	7.7	12.6	30.1	57.4	
	대구/경북	114	3.5	17.5	48.2	27.2	3.5	21.1	48.2	30.7	
	광주/전라	114	8.8	25.4	42.1	21.9	1.8	34.2	42.1	23.7	
	대전/충청/세종	128	1.6	24.2	47.7	22.7	3.9	25.8	47.7	26.6	
지역크기	강원	35	5.7	34.3	34.3	22.9	2.9	40.0	34.3	25.7	
	대도시	542	3.9	19.6	43.9	29.5	3.1	23.4	43.9	32.7	
	중소도시	579	5.2	21.4	45.4	24.2	3.8	26.6	45.4	28.0	
	읍/면	79	3.8	19.0	48.1	26.6	2.5	22.8	48.1	29.1	
	농/어/임업	10	0.0	10.0	40.0	40.0	10.0	10.0	40.0	50.0	
	직업별	자영업자	260	4.6	23.5	45.0	23.5	3.5	28.1	45.0	26.9
직업별	판매/서비스직	238	5.0	24.8	43.3	22.3	4.6	29.8	43.3	26.9	
	사무/기술직	386	4.4	20.2	42.0	31.3	2.1	24.6	42.0	33.4	
	전문/자유직	27	14.8	25.9	37.0	22.2	0.0	40.7	37.0	22.2	
	전업주부	147	4.8	15.0	51.0	23.1	6.1	19.7	51.0	29.3	
	학생	111	0.9	13.5	51.4	31.5	2.7	14.4	51.4	34.2	
	무직/기타	21	4.8	9.5	52.4	33.3	0.0	14.3	52.4	33.3	
	학력별	중졸이하	21	4.8	23.8	38.1	28.6	4.8	28.6	38.1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2.4	18.4	46.7	26.8	5.8	20.7	46.7	32.5
전문대(중퇴/졸업)		308	4.2	22.1	46.1	26.0	1.6	26.3	46.1	27.6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6.0	20.2	43.8	27.7	2.4	26.2	43.8	30.0	
대학원 이상	24	12.5	33.3	29.2	16.7	8.3	45.8	29.2	25.0		
생활수준 별	상	110	5.5	22.7	40.9	30.0	0.9	28.2	40.9	30.9	
	중	680	4.3	22.4	47.2	23.5	2.6	26.6	47.2	26.2	
	하	410	4.6	16.6	42.2	31.2	5.4	21.2	42.2	36.6	

3.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35.5%, 전문가 86.7%로 나타남.

- [일반국민]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5.5%로 '낮다'는 응답 17.5% 보다 18.0%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낮다'(17.5%)는 응답은 9.0%p(2017년 26.5%) 감소하였고, '높다'(35.5%)는 응답은 11.9%p(2017년 2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86.7%, '낮다'는 응답은 0.0%로 나타남.

<그림 1-3>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높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남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역별로 ‘광주/전라’,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3>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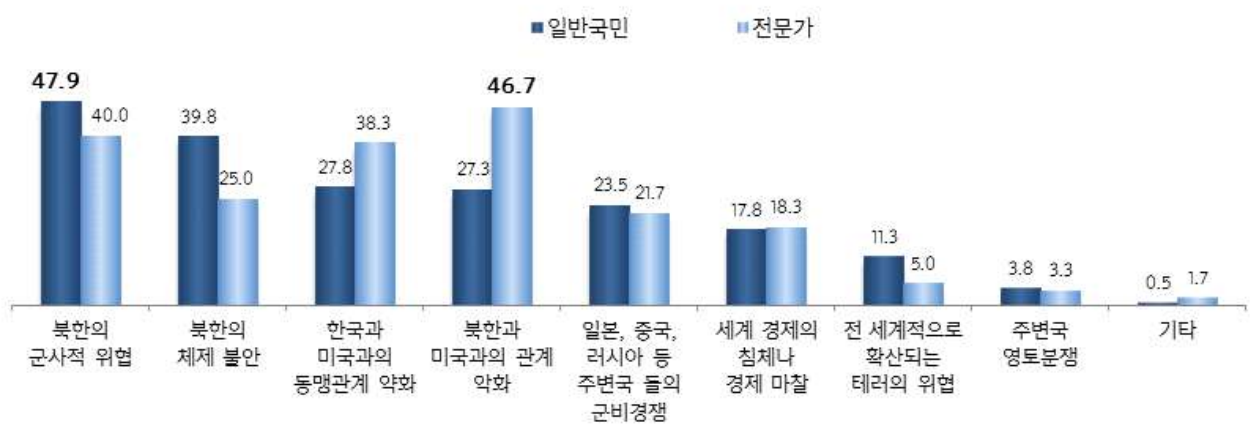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종합		
								높음	보통	낮음
전체		1,260	7.9	30.0	45.4	14.7	2.0	37.9	45.4	16.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6.4	29.1	47.0	15.4	2.1	35.5	47.0	17.5
	전문가	60	38.3	48.3	13.3	0.0	0.0	86.7	13.3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성별	남성	720	7.9	33.3	43.5	13.9	1.4	41.3	43.5	15.3
	여성	480	4.2	22.7	52.3	17.7	3.1	26.9	52.3	20.8
연령별	20대 이하	299	4.3	24.1	51.8	18.1	1.7	28.4	51.8	19.7
	30대	273	4.8	27.5	48.7	17.2	1.8	32.2	48.7	19.0
	40대	316	6.3	32.0	42.7	16.1	2.8	38.3	42.7	19.0
	50대	312	9.9	32.4	45.2	10.6	1.9	42.3	45.2	12.5
지역별	서울	237	6.8	34.2	47.7	11.0	0.4	40.9	47.7	11.4
	경기/인천	389	6.7	35.0	45.8	10.5	2.1	41.6	45.8	12.6
	부산/울산/경남	183	1.6	12.0	47.5	32.2	6.6	13.7	47.5	38.8
	대구/경북	114	4.4	21.9	56.1	16.7	0.9	26.3	56.1	17.5
	광주/전라	114	16.7	40.4	31.6	10.5	0.9	57.0	31.6	11.4
	대전/충청/세종	128	3.9	19.5	56.3	18.8	1.6	23.4	56.3	20.3
지역크기	강원	35	8.6	40.0	40.0	11.4	0.0	48.6	40.0	11.4
	대도시	542	6.5	28.2	50.0	14.6	0.7	34.7	50.0	15.3
	중소도시	579	6.0	30.1	43.9	16.4	3.6	36.1	43.9	20.0
직업별	읍/면	79	8.9	27.8	49.4	13.9	0.0	36.7	49.4	13.9
	농/어/임업	10	0.0	10.0	60.0	20.0	10.0	10.0	60.0	30.0
	자영업자	260	10.4	36.2	41.2	11.2	1.2	46.5	41.2	12.3
	판매/서비스직	238	4.6	31.5	47.5	12.6	3.8	36.1	47.5	16.4
	사무/기술직	386	5.4	29.3	48.2	16.6	0.5	34.7	48.2	17.1
	전문/자유직	27	22.2	29.6	37.0	11.1	0.0	51.9	37.0	11.1
	전업주부	147	3.4	23.8	47.6	21.1	4.1	27.2	47.6	25.2
	학생	111	5.4	17.1	55.0	18.9	3.6	22.5	55.0	22.5
학력별	무직/기타	21	4.8	19.0	52.4	23.8	0.0	23.8	52.4	23.8
	중졸이하	21	4.8	33.3	52.4	4.8	4.8	38.1	52.4	9.5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5.2	25.2	49.6	16.3	3.7	30.4	49.6	19.9
	전문대(중퇴/졸업)	308	5.2	27.9	50.6	15.3	1.0	33.1	50.6	16.2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6.9	32.8	42.7	16.1	1.5	39.7	42.7	17.6
대학원 이상	24	33.3	29.2	37.5	0.0	0.0	62.5	37.5	0.0	
생활수준 별	상	110	6.4	33.6	45.5	12.7	1.8	40.0	45.5	14.5
	중	680	6.6	30.4	49.3	12.5	1.2	37.1	49.3	13.7
	하	410	6.1	25.6	43.7	21.0	3.7	31.7	43.7	24.6

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으로 일반국민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47.9%), 전문가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악화’(46.7%)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이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북한의 체제불안’(39.8%),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악화’(2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북한의 군사적 위협’(47.9%)이라는 응답은 20.9%p(2017년 68.8%) 감소하였고, ‘북한의 체제불안’(39.8%)이라는 응답은 1.3%p(2017년 3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으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악화’라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40.0%),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악화’(3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생활수준별로 ‘상’ 등에서 높게 나타남.
- ‘북한의 체제불안’이라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별로 ‘광주/전라’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1-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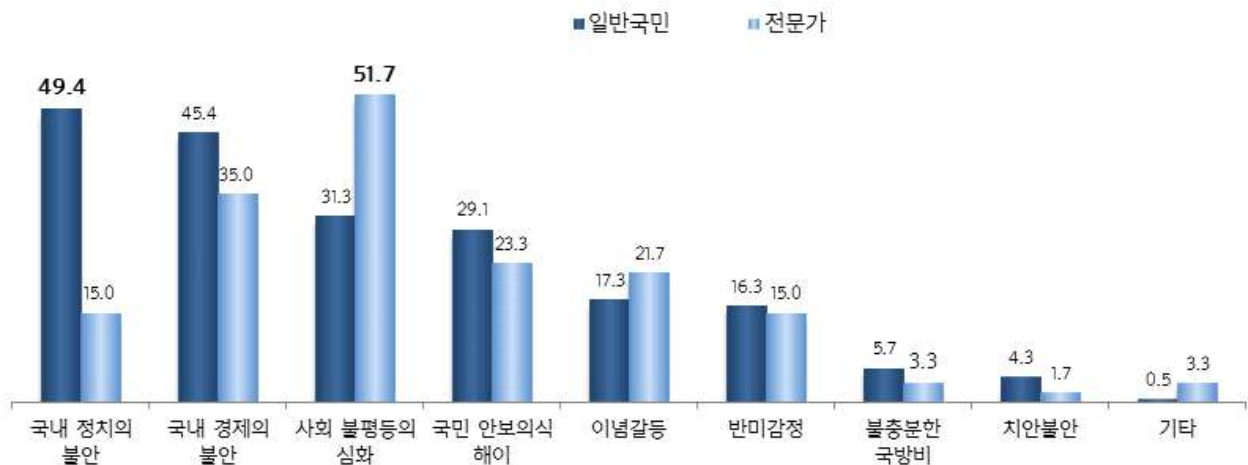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북한의 군사적 위협	북한의 체제불안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약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악화	일본,중국 러시아등 주변국 들의 군비경쟁	세계 경제의 침체나 경제 마찰	전 세계적 으로 확산되는 테러의 위협	주변국 영토분쟁	기타
전체		1,260	47.5	39.0	28.3	28.2	23.4	17.8	11.0	3.8	0.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7.9	39.8	27.8	27.3	23.5	17.8	11.3	3.8	0.5
	전문가	60	40.0	25.0	38.3	46.7	21.7	18.3	5.0	3.3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45.5	40.8	30.5	23.7	25.8	15.7	11.3	5.4	0.5
	중	564	48.8	38.8	26.8	31.2	22.3	16.8	11.3	3.0	0.5
	하	210	50.5	40.0	25.2	23.8	21.9	24.3	11.0	2.9	0.5
성별	남성	720	49.9	41.7	26.7	27.2	23.8	16.7	9.0	3.9	0.6
	여성	480	45.0	36.9	29.6	27.3	23.1	19.4	14.6	3.8	0.4
연령별	20대 이하	299	47.5	42.1	28.4	29.1	21.4	17.7	9.0	3.3	1.0
	30대	273	52.7	40.7	28.9	26.7	20.1	16.1	12.1	2.2	0.4
	40대	316	44.0	39.9	24.7	25.3	28.2	19.6	12.7	5.4	0.0
	50대	312	48.1	36.5	29.5	27.9	23.7	17.3	11.2	4.2	0.6
지역별	서울	237	48.5	40.5	27.4	26.2	25.7	13.9	13.1	2.5	1.7
	경기/인천	389	48.8	34.4	27.5	27.2	25.7	17.0	11.8	5.9	0.5
	부산/울산/경남	183	45.9	51.4	23.5	27.3	12.6	26.2	11.5	1.6	0.0
	대구/경북	114	50.9	25.4	43.9	30.7	24.6	14.0	7.9	2.6	0.0
	광주/전라	114	39.5	55.3	16.7	15.8	35.1	17.5	11.4	8.8	0.0
	대전/충청/세종	128	53.9	34.4	27.3	35.2	19.5	20.3	8.6	0.8	0.0
	강원	35	40.0	48.6	42.9	31.4	14.3	11.4	11.4	0.0	0.0
지역크기	대도시	542	45.0	42.6	25.8	29.7	24.0	15.1	12.4	4.2	0.9
	중소도시	579	51.5	36.6	29.7	26.3	21.9	18.7	10.5	4.0	0.2
	읍/면	79	41.8	43.0	27.8	17.7	31.6	29.1	8.9	0.0	0.0
직업별	농/어/임업	10	60.0	40.0	10.0	30.0	10.0	40.0	0.0	10.0	0.0
	자영업자	260	46.5	35.0	29.6	28.5	27.7	15.4	11.2	5.0	1.2
	판매/서비스직	238	46.6	41.2	27.7	24.4	26.1	14.7	14.3	4.2	0.4
	사무/기술직	386	47.9	44.0	25.1	26.9	22.8	18.7	10.9	2.8	0.0
	전문/자유직	27	37.0	44.4	11.1	14.8	33.3	37.0	18.5	3.7	0.0
	전업주부	147	49.7	37.4	32.0	27.9	19.0	20.4	11.6	2.0	0.0
	학생	111	52.3	35.1	30.6	36.0	17.1	16.2	6.3	5.4	0.9
	무직/기타	21	52.4	38.1	42.9	14.3	14.3	19.0	4.8	4.8	4.8
학력별	중졸이하	21	38.1	47.6	28.6	33.3	28.6	9.5	14.3	0.0	0.0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50.9	39.6	28.1	25.5	21.5	19.4	10.0	3.4	1.0
	전문대(중퇴/졸업)	308	49.0	37.7	28.6	29.2	25.6	14.9	11.4	3.2	0.3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45.9	41.0	26.8	26.8	23.0	18.9	12.2	4.5	0.2
	대학원 이상	24	33.3	37.5	33.3	33.3	33.3	12.5	8.3	8.3	0.0
생활수준 별	상	110	62.7	47.3	30.0	22.7	12.7	9.1	13.6	0.9	0.9
	중	680	46.0	37.1	29.1	29.4	24.7	17.2	11.9	3.5	0.6
	하	410	47.1	42.2	25.1	24.9	24.4	21.0	9.5	5.1	0.2

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요인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요인으로 일반국민은 ‘국내 정치의 불안’(49.4%), 전문가는 ‘사회 불평등의 심화’(51.7%)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요인으로 ‘국내 정치의 불안’이라는 응답이 4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내 경제의 불안’(45.4%), ‘사회 불평등의 심화’(3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국내 정치의 불안’(49.4%)이라는 응답은 3.9%p(2017년 53.3%) 감소하였고, ‘국내 경제의 불안’이라는 응답은 7.5%p(2017년 37.9%), ‘사회 불평등의 심화’라는 응답은 8.2%p(2017년 2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요인으로 ‘사회 불평등의 심화’라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고, ‘국내 경제의 불안’(35.0%), ‘국민 안보의식해이’(2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요인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요인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국내 정치의 불안’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하’, 연령별로 ‘20대’, 지역별로 ‘강원’,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국내 경제의 불안’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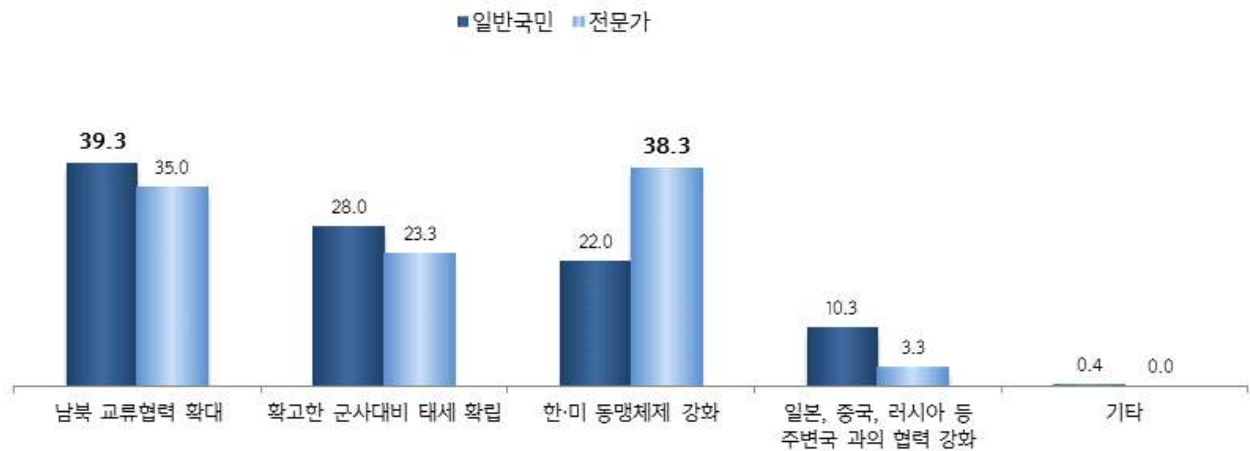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국내 정치의 불안	국내 경제의 불안	사회 불평등의 심화	국민 안보의식 해이	반미감정	불충분한 국방비	이념갈등	치안불안	기타	
전체		1,260	47.8	44.9	32.3	28.8	16.2	5.6	19.0	4.1	0.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9.4	45.4	31.3	29.1	16.3	5.7	17.3	4.3	0.5	
	전문가	60	15.0	35.0	51.7	23.3	15.0	3.3	51.7	1.7	3.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50.9	37.6	35.9	27.2	15.7	7.0	20.7	2.8	1.2	
	중	564	47.3	46.5	30.3	31.0	16.5	5.5	17.0	5.3	0.0	
	하	210	51.9	58.6	24.8	27.6	16.7	3.3	11.4	4.3	0.5	
성별	남성	720	50.1	42.9	30.7	29.3	17.6	6.3	18.9	2.8	0.6	
	여성	480	48.3	49.2	32.3	28.8	14.2	4.8	15.0	6.5	0.4	
연령별	20대 이하	299	53.5	40.5	36.5	26.1	17.1	6.7	13.0	5.7	0.7	
	30대	273	48.7	44.0	29.7	33.0	18.7	5.9	17.2	1.8	0.4	
	40대	316	46.8	44.9	32.3	29.4	15.5	4.4	19.9	5.7	0.3	
	50대	312	48.7	51.9	26.9	28.2	14.1	5.8	18.9	3.5	0.6	
지역별	서울	237	54.0	42.6	28.7	26.2	16.9	4.6	23.6	2.1	0.4	
	경기/인천	389	50.4	42.7	34.7	27.5	11.3	8.5	18.8	3.6	0.8	
	부산/울산/경남	183	48.1	65.6	29.5	25.1	14.2	1.6	7.1	8.2	0.5	
	대구/경북	114	31.6	42.1	13.2	36.0	45.6	0.9	23.7	7.0	0.0	
	광주/전라	114	52.6	37.7	54.4	23.7	11.4	6.1	11.4	2.6	0.0	
	대전/충청/세종	128	50.0	43.8	28.1	39.1	10.9	8.6	16.4	2.3	0.8	
지역크기	강원	35	60.0	31.4	17.1	45.7	17.1	5.7	14.3	8.6	0.0	
	대도시	542	56.6	42.3	28.2	27.9	17.5	3.1	18.5	5.0	0.6	
	중소도시	579	43.5	49.9	33.3	30.9	14.5	7.8	15.0	3.3	0.5	
	읍/면	79	43.0	34.2	38.0	24.1	20.3	7.6	26.6	6.3	0.0	
	직업별	농/어/임업	10	60.0	70.0	0.0	40.0	0.0	0.0	20.0	10.0	0.0
		자영업자	260	55.0	43.1	29.6	24.6	15.4	3.5	23.5	4.2	0.8
		판매/서비스직	238	50.8	45.0	34.9	31.9	13.9	6.3	12.6	3.4	0.0
사무/기술직		386	44.0	47.2	31.1	31.1	17.4	6.0	18.7	3.6	0.3	
전문/자유직		27	55.6	37.0	25.9	44.4	14.8	7.4	11.1	0.0	3.7	
전업주부		147	51.7	50.3	27.9	27.2	17.7	5.4	12.9	6.1	0.0	
학생		111	47.7	40.5	38.7	24.3	17.1	9.0	16.2	5.4	0.9	
학력별	무직/기타	21	42.9	38.1	23.8	28.6	28.6	4.8	14.3	9.5	4.8	
	중졸이하	21	52.4	33.3	38.1	23.8	14.3	0.0	19.0	14.3	0.0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45.7	52.0	31.0	27.3	15.5	5.8	16.3	5.8	0.3	
	전문대(중퇴/졸업)	308	56.8	42.2	28.2	29.5	20.1	5.5	14.9	1.6	0.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48.3	43.8	33.5	29.8	13.9	5.8	19.1	4.5	0.6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33.3	25.0	29.2	41.7	25.0	8.3	29.2	0.0	8.3	
	상	110	55.5	41.8	22.7	29.1	20.9	7.3	16.4	6.4	0.0	
	중	680	50.4	42.8	32.8	29.7	14.9	5.4	18.8	3.8	0.6	
하	410	46.1	50.7	31.2	28.0	17.3	5.6	15.1	4.4	0.5		

6.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

안보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국민은 ‘남북교류협력 확대’(39.3%), 전문가는 ‘한미 동맹체제 강화’(38.3%)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안보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남북 교류협력 확대’라는 응답이 3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28.0%), ‘한·미 동맹체제 강화’(2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남북 교류협력 확대’(39.3%) 응답은 17.3%p(2017년 22.0%), 증가한 반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28.0%) 응답은 12.8%p(2017년 4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안보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한미 동맹체제 강화’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남북 교류협력 확대’(35.0%),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2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6>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안보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북 교류협력 확대’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수준별로 ‘상’, 성별로 ‘여성’, 지역별로 ‘광주/전라’, 지역크기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남.
-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이라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6>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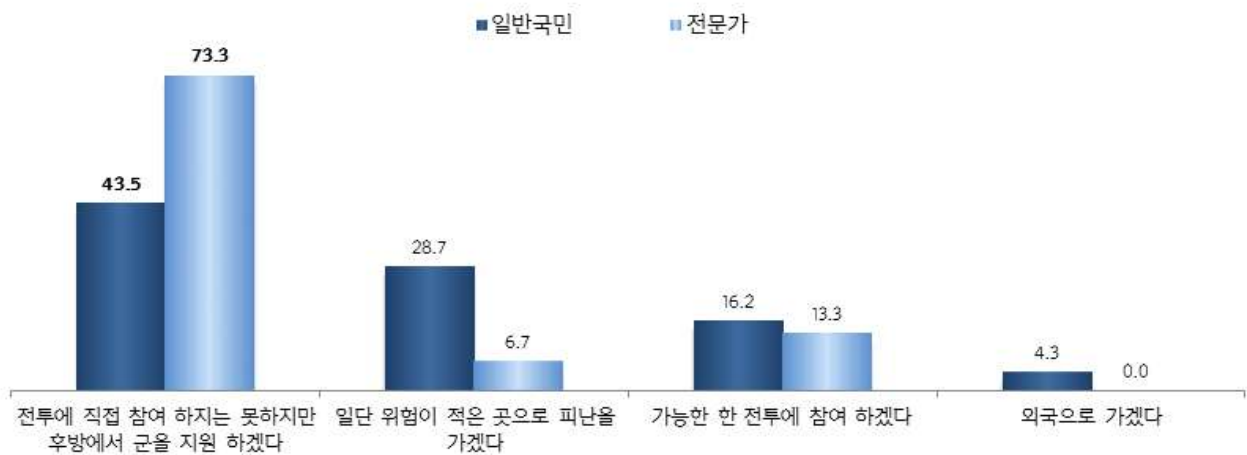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남북 교류협력 확대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	한·미 동맹체제 강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과의 협력 강화	기타	
전체		1,260	39.1	27.8	22.8	9.9	0.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9.3	28.0	22.0	10.3	0.4	
	전문가	60	35.0	23.3	38.3	3.3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43.7	27.0	20.7	8.5	0.2	
	중	564	35.6	30.9	22.7	10.3	0.5	
	하	210	40.5	22.4	22.9	13.8	0.5	
성별	남성	720	38.5	28.6	23.1	9.7	0.1	
	여성	480	40.6	27.1	20.4	11.0	0.8	
연령별	20대 이하	299	37.1	30.4	21.7	9.7	1.0	
	30대	273	39.2	30.4	18.7	11.4	0.4	
	40대	316	43.0	26.3	19.6	11.1	0.0	
	50대	312	37.8	25.3	27.6	9.0	0.3	
지역별	서울	237	31.2	35.9	24.1	8.4	0.4	
	경기/인천	389	43.4	30.6	18.5	6.9	0.5	
	부산/울산/경남	183	42.6	20.2	15.8	20.8	0.5	
	대구/경북	114	31.6	14.0	49.1	4.4	0.9	
	광주/전라	114	60.5	18.4	7.0	14.0	0.0	
	대전/충청/세종	128	21.9	39.1	28.1	10.9	0.0	
지역크기	강원	35	51.4	22.9	17.1	8.6	0.0	
	대도시	542	36.9	28.4	22.1	11.8	0.7	
	중소도시	579	40.2	29.0	21.9	8.6	0.2	
	읍/면	79	49.4	17.7	21.5	11.4	0.0	
	직업별	농/어/임업	10	30.0	50.0	10.0	10.0	0.0
		자영업자	260	40.4	27.7	24.2	7.3	0.4
		판매/서비스직	238	35.3	35.3	21.4	7.6	0.4
사무/기술직		386	40.9	25.1	21.0	12.7	0.3	
전문/자유직		27	44.4	22.2	25.9	7.4	0.0	
전업주부		147	36.7	25.2	22.4	15.6	0.0	
학생		111	42.3	30.6	17.1	9.0	0.9	
무직/기타		21	42.9	4.8	42.9	4.8	4.8	
학력별	중졸이하	21	33.3	14.3	38.1	14.3	0.0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39.4	26.0	23.1	11.0	0.5	
	전문대(중퇴/졸업)	308	34.4	32.8	23.4	9.1	0.3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42.3	27.7	19.1	10.5	0.4	
	대학원 이상	24	50.0	16.7	29.2	4.2	0.0	
생활수준별	상	110	40.0	31.8	18.2	9.1	0.9	
	중	680	37.5	30.3	22.8	9.0	0.4	
	하	410	42.2	23.2	21.7	12.7	0.2	

7. 전쟁 발생시 대처 방법

전쟁 발생시 대처 방법으로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43.5%, 전문가 73.3%로 나타남.

- [일반국민] 전쟁 발생시 대처 방법으로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28.7%),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하겠다'(1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43.5%)는 응답은 1.9%p(2017년 41.6%),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28.7%)는 응답은 3.2%p(2017년 2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전쟁 발생시 대처 방법으로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이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7> 전쟁 발생시 대처방법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전쟁 발생시 대처 방법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광주/전라’,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1-7> 전쟁 발생시 대처 방법

단위[%]		사례수 (명)	전투에 직접 참여 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 하겠다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 하겠다	외국으로 가겠다
전체		1,260	44.9	27.6	16.0	4.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3.5	28.7	16.2	4.3
	전문가	60	73.3	6.7	13.3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48.8	21.8	21.8	3.3
	중	564	44.0	30.0	13.3	3.7
	하	210	31.4	39.0	12.4	7.6
성별	남성	720	47.8	20.0	23.9	2.9
	여성	480	37.1	41.7	4.6	6.3
연령별	20대 이하	299	35.1	30.4	20.1	4.3
	30대	273	42.9	23.8	18.7	8.1
	40대	316	45.3	32.6	13.9	2.5
	50대	312	50.3	27.2	12.5	2.6
지역별	서울	237	45.1	28.3	18.1	2.1
	경기/인천	389	44.0	22.9	18.8	4.4
	부산/울산/경남	183	35.0	38.3	13.1	6.0
	대구/경북	114	37.7	31.6	14.0	7.9
	광주/전라	114	50.9	22.8	24.6	0.9
	대전/충청/세종	128	48.4	34.4	3.9	5.5
	강원	35	48.6	34.3	14.3	2.9
지역크기	대도시	542	43.7	27.1	16.6	4.6
	중소도시	579	43.4	29.5	15.9	4.5
	읍/면	79	43.0	32.9	15.2	0.0
직업별	농/어/임업	10	70.0	0.0	20.0	0.0
	자영업자	260	51.2	23.1	17.3	1.5
	판매/서비스직	238	45.0	27.3	13.0	4.6
	사무/기술직	386	44.3	25.6	20.5	3.9
	전문/자유직	27	48.1	14.8	14.8	7.4
	전업주부	147	32.0	49.0	4.8	7.5
	학생	111	33.3	36.0	18.9	5.4
	무직/기타	21	33.3	19.0	23.8	9.5
학력별	중졸이하	21	19.0	47.6	4.8	9.5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44.6	31.2	14.7	2.9
	전문대(중퇴/졸업)	308	42.5	27.3	16.6	4.9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44.4	27.0	17.2	4.5
	대학원 이상	24	41.7	20.8	25.0	8.3
생활수준 별	상	110	42.7	28.2	18.2	9.1
	중	680	47.1	25.3	16.6	3.7
	하	410	37.8	34.4	14.9	3.9

*잘 모르겠다(7.4%)는 표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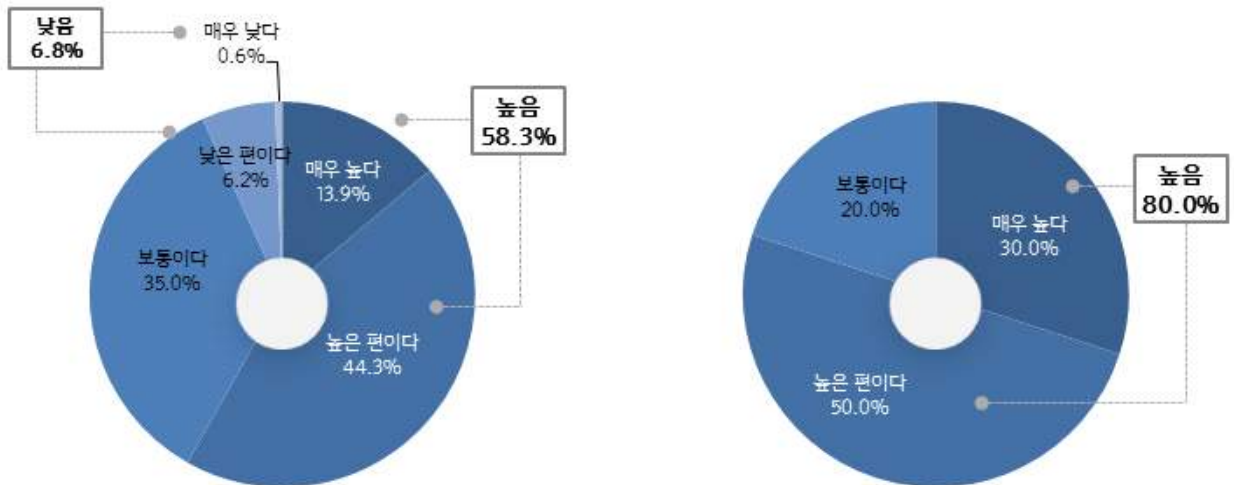
8. 국가정체성 평가

8-1.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58.3%, 전문가 8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는 응답이 58.3%로, '낮다'는 응답 6.8% 보다 51.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높다'(58.3%)는 응답은 4.1%p(2017년 54.2%) 증가하였고, '낮다'(6.8%)는 응답은 3.0%p(2017년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는 응답이 80.0%로 나타남. (보통이다 20.0%)

<그림 1-8-1> 국가정체성 평가 -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높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 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강원’, 직업별로 ‘농/어/임업(n=10)’,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n=24),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8-1> 국가정체성 평가 -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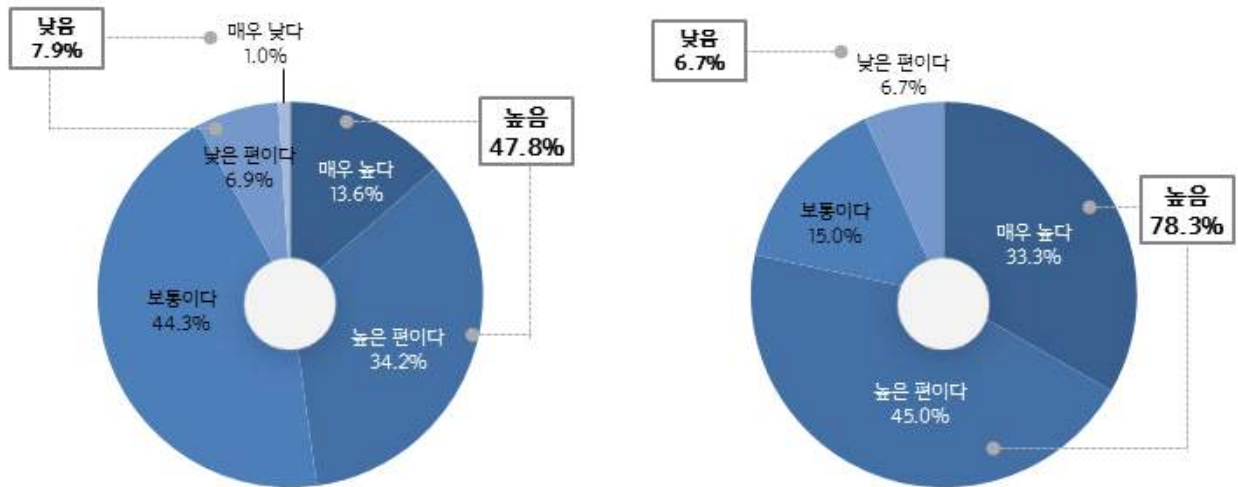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 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종합			
								높음	보통	낮음	
전체		1,260	14.7	44.6	34.3	5.9	0.6	59.3	34.3	6.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3.9	44.3	35.0	6.2	0.6	58.3	35.0	6.8	
	전문가	60	30.0	50.0	20.0	0.0	0.0	80.0	20.0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20.4	49.3	26.1	3.8	0.5	69.7	26.1	4.2	
	중	564	10.1	45.6	38.7	5.1	0.5	55.7	38.7	5.7	
	하	210	11.0	31.0	43.3	13.8	1.0	41.9	43.3	14.8	
성별	남성	720	17.1	44.0	33.3	5.0	0.6	61.1	33.3	5.6	
	여성	480	9.2	44.8	37.5	7.9	0.6	54.0	37.5	8.5	
연령별	20대 이하	299	12.0	43.1	36.1	8.7	0.0	55.2	36.1	8.7	
	30대	273	15.0	41.4	36.3	6.2	1.1	56.4	36.3	7.3	
	40대	316	13.0	42.7	37.7	6.3	0.3	55.7	37.7	6.6	
	50대	312	15.7	49.7	30.1	3.5	1.0	65.4	30.1	4.5	
지역별	서울	237	18.6	43.9	33.3	4.2	0.0	62.4	33.3	4.2	
	경기/인천	389	14.9	44.2	37.5	2.6	0.8	59.1	37.5	3.3	
	부산/울산/경남	183	0.5	44.8	38.3	15.8	0.5	45.4	38.3	16.4	
	대구/경북	114	7.0	42.1	43.9	5.3	1.8	49.1	43.9	7.0	
	광주/전라	114	20.2	43.0	22.8	13.2	0.9	63.2	22.8	14.0	
	대전/충청/세종	128	19.5	47.7	29.7	3.1	0.0	67.2	29.7	3.1	
지역크기	강원	35	22.9	45.7	31.4	0.0	0.0	68.6	31.4	0.0	
	대도시	542	13.8	45.8	34.3	5.5	0.6	59.6	34.3	6.1	
	중소도시	579	14.2	45.1	34.7	5.5	0.5	59.2	34.7	6.0	
	읍/면	79	12.7	29.1	41.8	15.2	1.3	41.8	41.8	16.5	
	직업별	농/어/임업	10	30.0	40.0	30.0	0.0	0.0	70.0	30.0	0.0
		자영업자	260	15.0	47.7	33.5	3.5	0.4	62.7	33.5	3.8
판매/서비스직		238	14.3	39.9	37.4	7.1	1.3	54.2	37.4	8.4	
사무/기술직		386	15.3	45.6	33.9	4.9	0.3	60.9	33.9	5.2	
전문/자유직		27	22.2	37.0	25.9	14.8	0.0	59.3	25.9	14.8	
전업주부		147	7.5	43.5	38.8	8.8	1.4	51.0	38.8	10.2	
학생		111	9.9	45.0	36.0	9.0	0.0	55.0	36.0	9.0	
무직/기타		21	19.0	42.9	28.6	9.5	0.0	61.9	28.6	9.5	
학력별	중졸이하	21	19.0	38.1	42.9	0.0	0.0	57.1	42.9	0.0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1.8	44.1	36.5	6.6	1.0	55.9	36.5	7.6	
	전문대(중퇴/졸업)	308	11.7	46.4	35.1	6.2	0.6	58.1	35.1	6.8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16.1	43.3	33.9	6.4	0.2	59.4	33.9	6.7	
	대학원 이상	24	29.2	45.8	25.0	0.0	0.0	75.0	25.0	0.0	
생활수준 별	상	110	15.5	52.7	28.2	2.7	0.9	68.2	28.2	3.6	
	중	680	15.6	45.4	34.1	4.6	0.3	61.0	34.1	4.9	
	하	410	10.7	40.2	38.3	9.8	1.0	51.0	38.3	10.7	

8-2.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높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47.8%, 전문가 78.3%로 나타남.

- [일반국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높다'는 응답이 47.8%로 '낮다'는 응답 7.9%보다 39.9%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높다'(47.8%)는 응답은 2.0%p(2017년 49.8%), '낮다'(7.9%)는 응답은 2.8%p(2017년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높다'는 응답이 78.3%로 '낮다'는 응답 6.7% 보다 71.6%p 높게 나타남.

<그림 1-8-2> 국가정체성 평가 -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높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대 별로 ‘50대’, 지역별로 ‘강원’,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n=24)’,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8-2> 국가정체성 평가 -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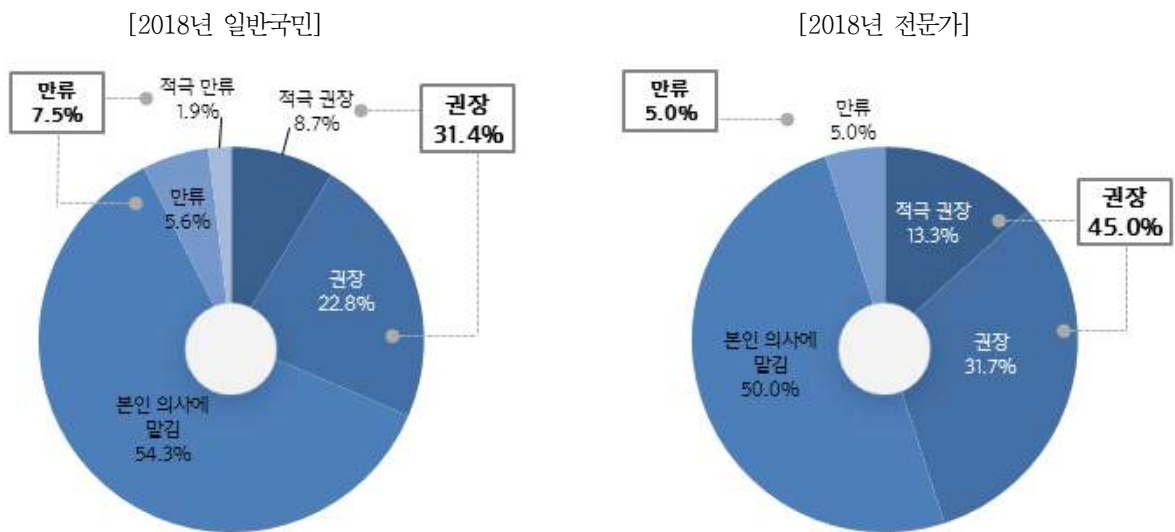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 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종합			
								높음	보통	낮음	
전체		1,260	14.5	34.7	42.9	6.9	1.0	49.2	42.9	7.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3.6	34.2	44.3	6.9	1.0	47.8	44.3	7.9	
	전문가	60	33.3	45.0	15.0	6.7	0.0	78.3	15.0	6.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19.7	37.3	35.7	5.9	1.4	57.0	35.7	7.3	
	중	564	9.2	36.5	48.2	5.5	0.5	45.7	48.2	6.0	
	하	210	12.9	21.4	51.4	12.9	1.4	34.3	51.4	14.3	
성별	남성	720	16.0	35.0	41.0	7.1	1.0	51.0	41.0	8.1	
	여성	480	10.0	32.9	49.4	6.7	1.0	42.9	49.4	7.7	
연령별	20대 이하	299	11.4	33.8	45.8	7.4	1.7	45.2	45.8	9.0	
	30대	273	14.7	30.4	45.4	8.4	1.1	45.1	45.4	9.5	
	40대	316	13.6	35.1	44.3	6.0	0.9	48.7	44.3	7.0	
	50대	312	14.7	36.9	42.0	6.1	0.3	51.6	42.0	6.4	
지역별	서울	237	15.2	38.8	39.7	5.5	0.8	54.0	39.7	6.3	
	경기/인천	389	12.1	37.3	45.8	3.6	1.3	49.4	45.8	4.9	
	부산/울산/경남	183	7.7	18.0	59.6	14.8	0.0	25.7	59.6	14.8	
	대구/경북	114	2.6	48.2	42.1	6.1	0.9	50.9	42.1	7.0	
	광주/전라	114	20.2	21.1	42.1	13.2	3.5	41.2	42.1	16.7	
	대전/충청/세종	128	24.2	34.4	37.5	3.9	0.0	58.6	37.5	3.9	
지역크기	강원	35	25.7	48.6	20.0	5.7	0.0	74.3	20.0	5.7	
	대도시	542	14.0	34.9	41.1	9.2	0.7	48.9	41.1	10.0	
	중소도시	579	13.0	34.7	46.5	5.0	0.9	47.7	46.5	5.9	
	읍/면	79	15.2	25.3	50.6	5.1	3.8	40.5	50.6	8.9	
	직업별	농/어/임업	10	40.0	30.0	30.0	0.0	0.0	70.0	30.0	0.0
		자영업자	260	15.4	35.8	39.6	9.2	0.0	51.2	39.6	9.2
판매/서비스직		238	12.6	35.3	40.3	9.7	2.1	47.9	40.3	11.8	
사무/기술직		386	13.5	33.9	47.7	4.1	0.8	47.4	47.7	4.9	
전문/자유직		27	11.1	48.1	40.7	0.0	0.0	59.3	40.7	0.0	
전업주부		147	10.9	27.9	54.4	6.8	0.0	38.8	54.4	6.8	
학생		111	11.7	33.3	44.1	8.1	2.7	45.0	44.1	10.8	
무직/기타		21	23.8	38.1	28.6	4.8	4.8	61.9	28.6	9.5	
학력별	중졸이하	21	9.5	38.1	38.1	14.3	0.0	47.6	38.1	14.3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2.1	31.5	48.6	7.3	0.5	43.6	48.6	7.9	
	전문대(중퇴/졸업)	308	9.7	37.3	45.5	6.2	1.3	47.1	45.5	7.5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16.5	33.9	41.2	7.1	1.3	50.4	41.2	8.4	
	대학원 이상	24	33.3	37.5	29.2	0.0	0.0	70.8	29.2	0.0	
생활수준 별	상	110	15.5	40.9	32.7	10.0	0.9	56.4	32.7	10.9	
	중	680	14.6	34.7	43.8	6.2	0.7	49.3	43.8	6.9	
	하	410	11.5	31.5	48.3	7.3	1.5	42.9	48.3	8.8	

9.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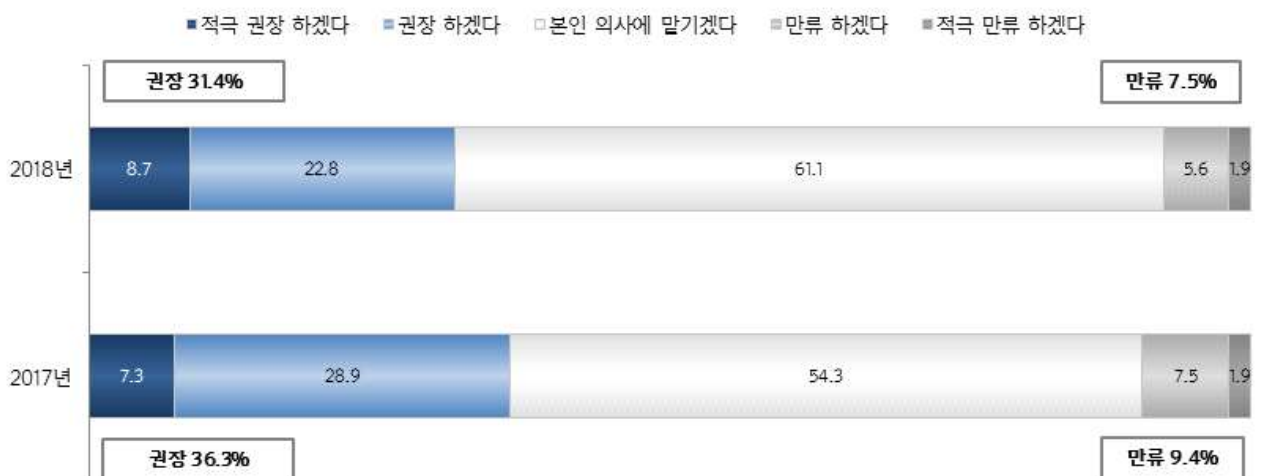
가족/친지/친구가 직업군인이 되는 것에 대해 ‘권장한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31.4%, 전문가 45.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가족/친지/친구가 직업군인이 되는 것에 대해 ‘권장한다’는 응답은 31.4%로 ‘만류한다’는 응답 7.5%보다 23.9%p 높게 나타남. (‘본인 의사에 맡기겠다’는 54.3%)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권장한다’(31.4%)는 응답은 4.9%p(2017년 36.3%), ‘만류한다’(7.5%)는 응답은 1.9%p(2017년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가족/친지/친구가 직업군인이 되는 것에 대해 ‘권장한다’는 응답은 45.0%로 ‘만류한다’는 응답은 5.0% ‘본인 의사에 맡긴다는 응답’ 50.0% 으로 나타남.

<그림 1-9>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가족/친지/친구가 직업군인이 되는 것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권장’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로 ‘상’, 성별로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서울’, ‘광주/전라’ 직업별로 ‘농/어/임업’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1-9>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단위[%]		사례수 (명)	적극 권장 하겠다	권장 하겠다	본인 의사에 맡기겠다	만류 하겠다	적극 만류 하겠다	종합		
								권장	본인의 의사에 맡김	만류
전체		1,260	8.9	23.2	60.6	5.6	1.8	32.1	60.6	7.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8.7	22.8	61.1	5.6	1.9	31.4	61.1	7.5
	전문가	60	13.3	31.7	50.0	5.0	0.0	45.0	50.0	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12.2	25.8	56.8	2.8	2.3	38.0	56.8	5.2
	중	564	7.1	21.3	65.1	5.5	1.1	28.4	65.1	6.6
	하	210	5.7	20.5	59.0	11.4	3.3	26.2	59.0	14.8
성별	남성	720	10.6	24.4	57.9	5.1	1.9	35.0	57.9	7.1
	여성	480	5.8	20.2	65.8	6.3	1.9	26.0	65.8	8.1
연령별	20대 이하	299	6.7	20.1	65.9	5.0	2.3	26.8	65.9	7.4
	30대	273	8.1	20.5	62.6	5.9	2.9	28.6	62.6	8.8
	40대	316	7.0	25.6	59.2	6.3	1.9	32.6	59.2	8.2
	50대	312	12.8	24.4	57.1	5.1	0.6	37.2	57.1	5.8
지역별	서울	237	11.0	27.0	55.7	5.5	0.8	38.0	55.7	6.3
	경기/인천	389	9.3	24.9	59.1	3.9	2.8	34.2	59.1	6.7
	부산/울산/경남	183	4.4	18.0	69.9	7.1	0.5	22.4	69.9	7.7
	대구/경북	114	1.8	24.6	61.4	10.5	1.8	26.3	61.4	12.3
	광주/전라	114	17.5	19.3	57.9	3.5	1.8	36.8	57.9	5.3
	대전/충청/세종	128	3.1	19.5	67.2	6.3	3.9	22.7	67.2	10.2
	강원	35	22.9	11.4	60.0	5.7	0.0	34.3	60.0	5.7
지역크기	대도시	542	9.0	24.2	59.0	6.5	1.3	33.2	59.0	7.7
	중소도시	579	8.1	22.8	62.2	4.1	2.8	30.9	62.2	6.9
	읍/면	79	10.1	12.7	67.1	10.1	0.0	22.8	67.1	10.1
직업별	농/어/임업	10	50.0	30.0	20.0	0.0	0.0	80.0	20.0	0.0
	자영업자	260	8.5	26.9	58.5	4.6	1.5	35.4	58.5	6.2
	판매/서비스직	238	6.3	23.9	63.4	3.8	2.5	30.3	63.4	6.3
	사무/기술직	386	11.9	23.6	57.5	5.4	1.6	35.5	57.5	7.0
	전문/자유직	27	7.4	22.2	59.3	11.1	0.0	29.6	59.3	11.1
	전업주부	147	6.1	15.0	68.0	8.8	2.0	21.1	68.0	10.9
	학생	111	2.7	20.7	69.4	5.4	1.8	23.4	69.4	7.2
	무직/기타	21	9.5	4.8	61.9	14.3	9.5	14.3	61.9	23.8
학력별	중졸이하	21	9.5	19.0	47.6	4.8	19.0	28.6	47.6	23.8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8.7	23.1	61.2	6.0	1.0	31.8	61.2	7.1
	전문대(중퇴/졸업)	308	6.2	19.5	66.9	5.8	1.6	25.6	66.9	7.5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9.9	24.2	58.8	5.2	1.9	34.1	58.8	7.1
	대학원 이상	24	16.7	33.3	41.7	4.2	4.2	50.0	41.7	8.3
생활수준 별	상	110	12.7	30.0	50.9	3.6	2.7	42.7	50.9	6.4
	중	680	7.8	21.9	64.6	3.5	2.2	29.7	64.6	5.7
	하	410	9.0	22.2	58.0	9.5	1.2	31.2	58.0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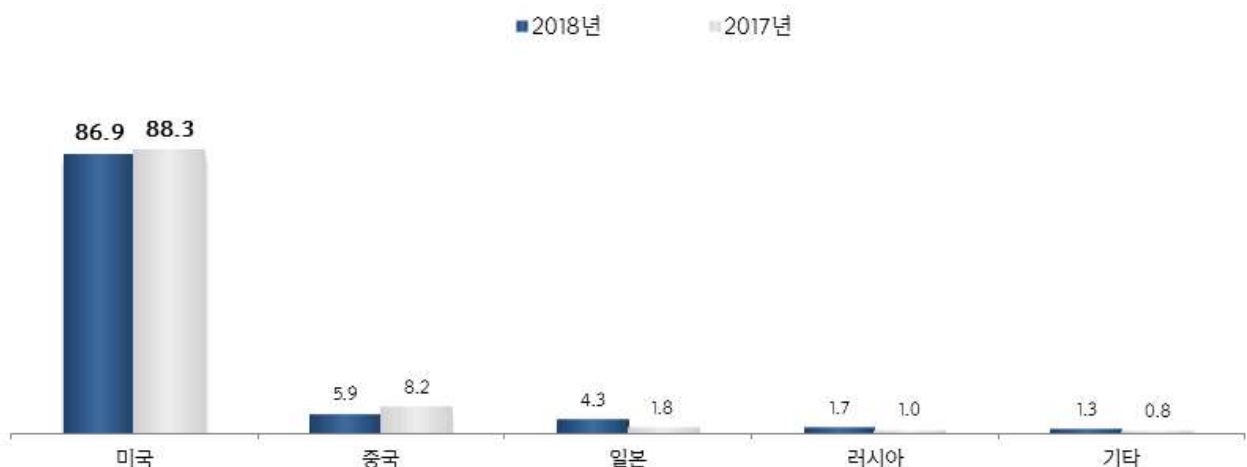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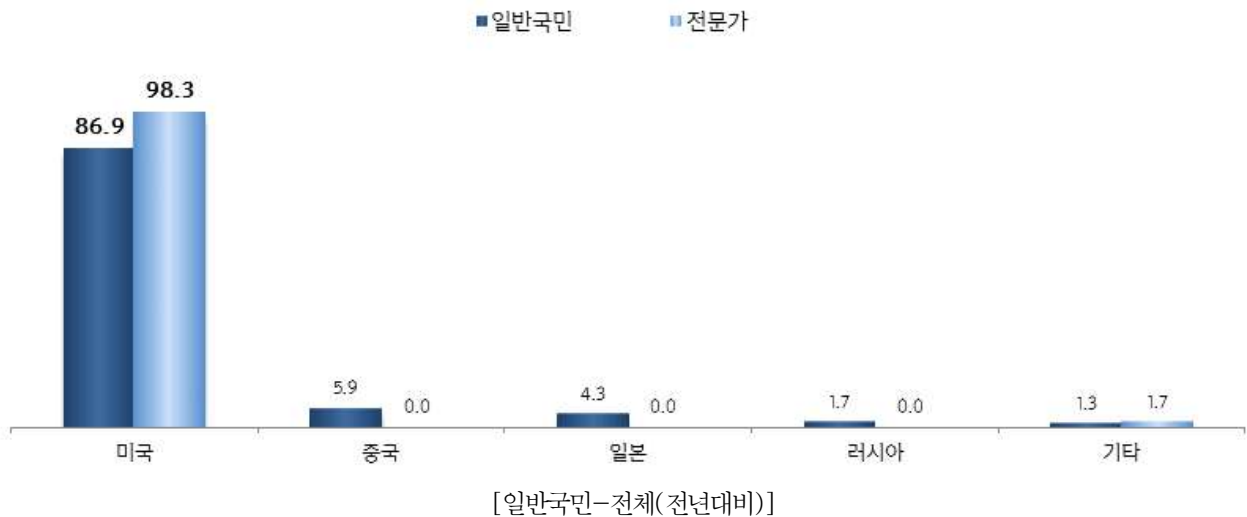
10. 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10-1. 안보적 측면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86.9%, 전문가 9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8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 (5.9%), '일본'(4.3%), '러시아'(1.7%) 순으로 나타남. (기타 1.3%)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가 '미국'(86.9%)이라는 응답은 1.4%p (2017년 88.3%), '중국'(5.9%)이라는 응답은 2.3%p(2017년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9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10-1>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특성별 분석]

-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미국’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중국’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생활수준별로 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0-1>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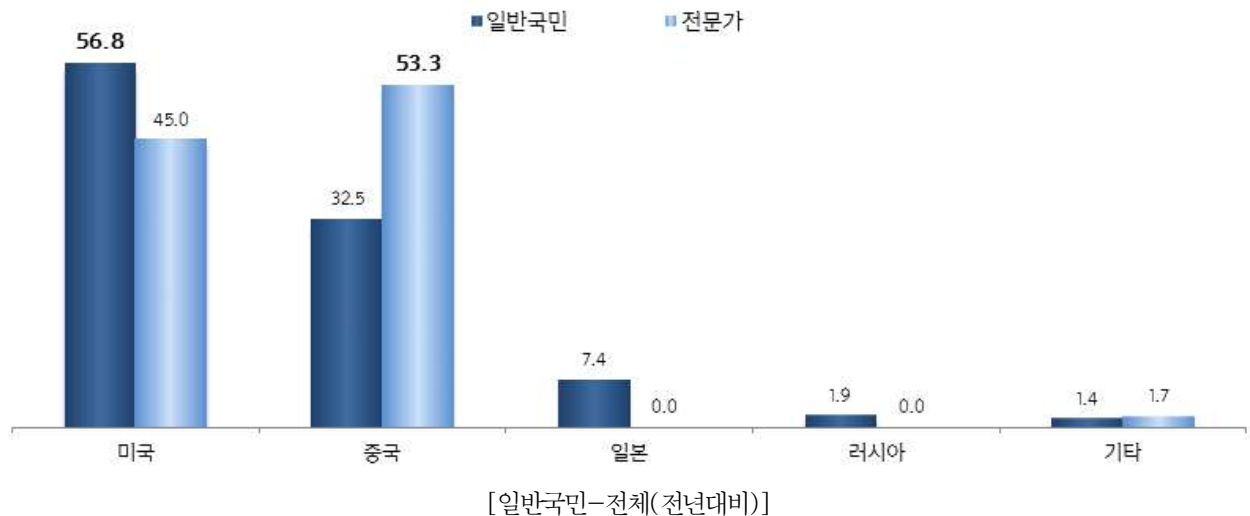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기타
전체		1,260	87.5	5.6	4.0	1.6	1.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86.9	5.9	4.3	1.7	1.3
	전문가	60	98.3	0.0	0.0	0.0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84.5	6.3	5.2	2.6	1.4
	중	564	88.5	4.6	4.3	1.4	1.2
	하	210	87.6	8.6	2.4	0.5	1.0
성별	남성	720	86.5	6.1	4.9	1.4	1.1
	여성	480	87.5	5.6	3.3	2.1	1.5
연령별	20대 이하	299	86.0	5.7	5.0	1.7	1.7
	30대	273	86.1	5.5	4.0	2.9	1.5
	40대	316	87.0	7.9	3.2	0.9	0.9
	50대	312	88.5	4.5	4.8	1.3	1.0
지역별	서울	237	87.3	4.2	5.1	2.1	1.3
	경기/인천	389	85.1	4.4	8.0	0.5	2.1
	부산/울산/경남	183	85.2	12.0	1.6	1.1	0.0
	대구/경북	114	96.5	1.8	0.0	0.0	1.8
	광주/전라	114	81.6	5.3	3.5	9.6	0.0
	대전/충청/세종	128	89.1	8.6	0.8	0.0	1.6
	강원	35	91.4	8.6	0.0	0.0	0.0
지역크기	대도시	542	89.5	5.7	2.6	1.1	1.1
	중소도시	579	84.5	6.0	5.9	2.1	1.6
	읍/면	79	87.3	6.3	3.8	2.5	0.0
직업별	농/어/임업	10	100.0	0.0	0.0	0.0	0.0
	자영업자	260	90.0	5.0	3.1	0.4	1.5
	판매/서비스직	238	86.6	4.6	5.5	2.5	0.8
	사무/기술직	386	85.2	6.7	4.7	2.1	1.3
	전문/자유직	27	92.6	7.4	0.0	0.0	0.0
	전업주부	147	83.7	8.2	6.1	2.0	0.0
	학생	111	87.4	4.5	2.7	1.8	3.6
	무직/기타	21	90.5	9.5	0.0	0.0	0.0
학력별	중졸이하	21	76.2	9.5	9.5	4.8	0.0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89.2	5.2	3.9	0.8	0.8
	전문대(중퇴/졸업)	308	85.7	7.1	3.6	2.6	1.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86.1	5.8	4.5	1.7	1.9
	대학원 이상	24	91.7	0.0	8.3	0.0	0.0
생활수준 별	상	110	79.1	9.1	8.2	0.9	2.7
	중	680	90.0	4.0	4.6	0.3	1.2
	하	410	83.9	8.3	2.7	4.1	1.0

10-2. 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일반국민은 ‘미국’(56.8%), 전문가는 ‘중국’(53.3%)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5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32.5%), ‘일본’(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가 ‘미국’(56.8%)이라는 응답은 8.5%p(2017년 48.3%) 증가하였고, ‘중국’(32.5%)이라는 응답은 10.8%p(2017년 4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중국’이라는 응답이 5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45.0%)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10-2>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특성별 분석]

-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미국’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 별로 ‘중’,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서울’ 등에서 높게 나타남.
- ‘중국’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강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0-2>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단위[%]		사례수 (명)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기타
전체		1,260	56.2	33.5	7.1	1.8	1.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6.8	32.5	7.4	1.9	1.4
	전문가	60	45.0	53.3	0.0	0.0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55.9	30.5	9.2	2.6	1.9
	중	564	58.9	32.3	5.7	2.1	1.1
	하	210	52.9	37.1	8.6	0.0	1.4
성별	남성	720	55.4	33.6	7.5	2.6	0.8
	여성	480	58.8	30.8	7.3	0.8	2.3
연령별	20대 이하	299	56.9	31.4	9.0	1.7	1.0
	30대	273	57.9	31.1	8.4	2.2	0.4
	40대	316	53.5	36.4	6.3	1.9	1.9
	50대	312	59.0	30.8	6.1	1.9	2.2
지역별	서울	237	68.4	21.5	7.2	1.3	1.7
	경기/인천	389	59.6	26.0	11.8	0.8	1.8
	부산/울산/경남	183	41.0	48.6	5.5	4.9	0.0
	대구/경북	114	60.5	32.5	7.0	0.0	0.0
	광주/전라	114	42.1	44.7	3.5	5.3	4.4
	대전/충청/세종	128	61.7	34.4	2.3	1.6	0.0
	강원	35	45.7	48.6	2.9	0.0	2.9
지역크기	대도시	542	54.8	36.9	4.8	2.4	1.1
	중소도시	579	58.5	28.2	10.7	1.2	1.4
	읍/면	79	57.0	34.2	1.3	3.8	3.8
직업별	농/어/임업	10	80.0	20.0	0.0	0.0	0.0
	자영업자	260	62.3	29.6	3.5	2.3	2.3
	판매/서비스직	238	54.6	33.6	8.8	2.5	0.4
	사무/기술직	386	51.3	36.0	9.8	1.8	1.0
	전문/자유직	27	70.4	29.6	0.0	0.0	0.0
	전업주부	147	57.8	31.3	8.8	0.0	2.0
	학생	111	58.6	27.9	7.2	3.6	2.7
	무직/기타	21	66.7	33.3	0.0	0.0	0.0
학력별	중졸이하	21	61.9	28.6	9.5	0.0	0.0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60.1	30.4	5.5	2.1	1.8
	전문대(중퇴/졸업)	308	57.5	30.2	8.8	2.3	1.3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53.6	35.8	7.5	1.7	1.3
	대학원 이상	24	50.0	33.3	16.7	0.0	0.0
생활수준 별	상	110	50.9	27.3	17.3	2.7	1.8
	중	680	62.1	29.4	6.2	1.6	0.7
	하	410	49.5	39.0	6.8	2.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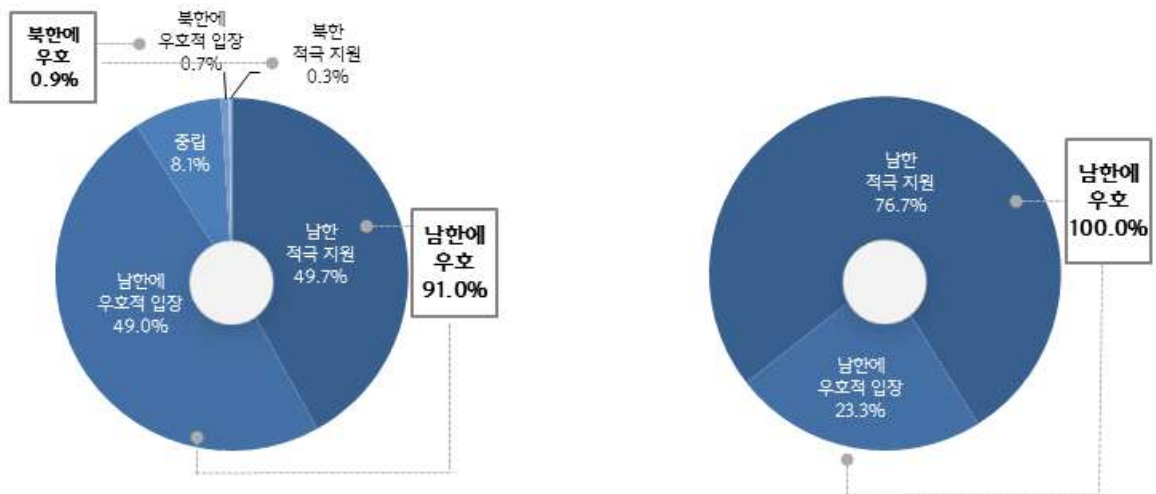
11.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무력침략)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11-1. 미국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미국이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일반국민 91.0%, 전문가 10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미국이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91.0%로, '북한에 우호적일 것'(0.9%)이라는 응답 보다 90.1%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남한에 우호적일 것'(91.0%)이라는 응답은 2.6%p(2017년 93.6%), '북한에 우호적일 것'(0.9%)이라는 응답은 0.3%p(2017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미국이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100.0%로 나타남.

<그림 1-11-1>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무력침략)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미국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미국의 태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1-11-1>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무력침략)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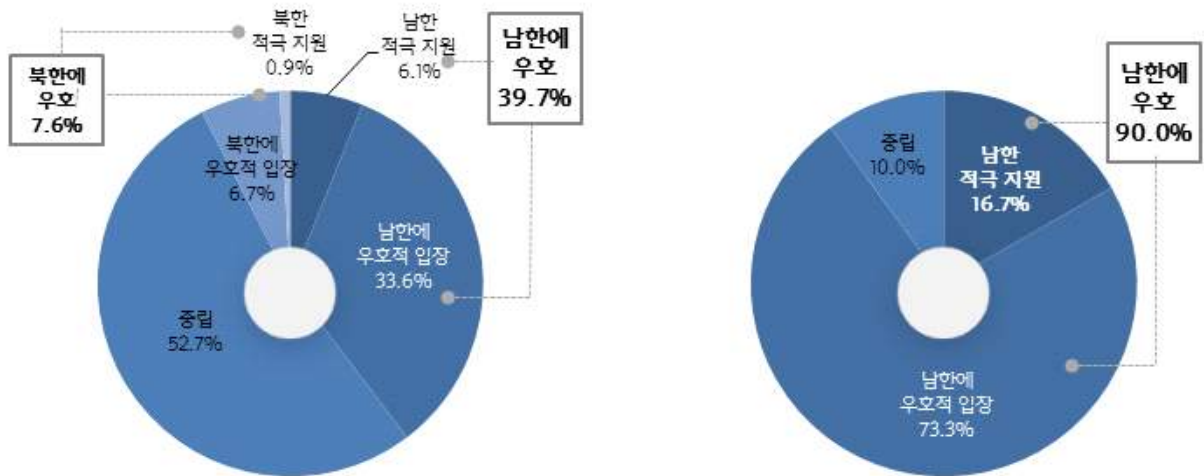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남한 적극 지원	남한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종합			
								남한에 우호	중립	북한에 우호	
전체		1,260	43.7	47.8	7.7	0.6	0.2	91.4	7.7	0.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2.0	49.0	8.1	0.7	0.3	91.0	8.1	0.9	
	전문가	60	76.7	23.3	0.0	0.0	0.0	100.0	0.0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41.8	47.9	9.2	0.9	0.2	89.7	9.2	1.2	
	중	564	41.8	51.1	6.2	0.5	0.4	92.9	6.2	0.9	
	하	210	42.9	45.7	11.0	0.5	0.0	88.6	11.0	0.5	
성별	남성	720	43.3	49.0	6.8	0.7	0.1	92.4	6.8	0.8	
	여성	480	40.0	49.0	10.0	0.6	0.4	89.0	10.0	1.0	
연령별	20대 이하	299	40.8	50.2	8.0	1.0	0.0	91.0	8.0	1.0	
	30대	273	35.5	50.5	12.8	0.7	0.4	86.1	12.8	1.1	
	40대	316	44.0	49.1	5.7	0.9	0.3	93.0	5.7	1.3	
	50대	312	46.8	46.5	6.4	0.0	0.3	93.3	6.4	0.3	
지역별	서울	237	47.3	41.4	11.4	0.0	0.0	88.6	11.4	0.0	
	경기/인천	389	45.5	45.0	9.0	0.5	0.0	90.5	9.0	0.5	
	부산/울산/경남	183	22.4	69.9	7.1	0.5	0.0	92.3	7.1	0.5	
	대구/경북	114	57.9	38.6	3.5	0.0	0.0	96.5	3.5	0.0	
	광주/전라	114	22.8	62.3	7.9	4.4	2.6	85.1	7.9	7.0	
	대전/충청/세종	128	48.4	46.1	5.5	0.0	0.0	94.5	5.5	0.0	
지역크기	강원	35	57.1	37.1	5.7	0.0	0.0	94.3	5.7	0.0	
	대도시	542	44.6	46.7	8.5	0.2	0.0	91.3	8.5	0.2	
	중소도시	579	40.8	49.9	8.1	0.9	0.3	90.7	8.1	1.2	
	읍/면	79	32.9	58.2	5.1	2.5	1.3	91.1	5.1	3.8	
	직업별	농/어/임업	10	60.0	30.0	10.0	0.0	0.0	90.0	10.0	0.0
		자영업자	260	45.8	46.9	7.3	0.0	0.0	92.7	7.3	0.0
판매/서비스직		238	42.9	50.4	5.9	0.0	0.8	93.3	5.9	0.8	
사무/기술직		386	39.9	50.8	8.0	1.3	0.0	90.7	8.0	1.3	
전문/자유직		27	37.0	55.6	7.4	0.0	0.0	92.6	7.4	0.0	
전업주부		147	41.5	44.9	12.2	0.7	0.7	86.4	12.2	1.4	
학생		111	36.9	52.3	9.0	1.8	0.0	89.2	9.0	1.8	
무직/기타		21	52.4	38.1	9.5	0.0	0.0	90.5	9.5	0.0	
학력별	중졸이하	21	9.5	71.4	14.3	0.0	4.8	81.0	14.3	4.8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42.8	49.1	8.1	0.0	0.0	91.9	8.1	0.0	
	전문대(중퇴/졸업)	308	41.6	49.4	7.8	0.6	0.6	90.9	7.8	1.3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42.1	48.3	8.4	1.3	0.0	90.3	8.4	1.3	
대학원 이상	24	62.5	37.5	0.0	0.0	0.0	100.0	0.0	0.0		
생활수준 별	상	110	40.0	49.1	10.0	0.9	0.0	89.1	10.0	0.9	
	중	680	45.6	47.9	6.2	0.1	0.1	93.5	6.2	0.3	
	하	410	36.6	50.7	10.7	1.5	0.5	87.3	10.7	2.0	

11-2. 일본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일본이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일반국민 39.7%, 전문가 9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일본이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39.7%로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7.6%)보다 32.1%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남한에 우호적일 것'(39.7%)이라는 응답이 8.8%p(2017년 48.5%) 감소하였고, '북한에 우호적일 것'(7.6%)이라는 응답이 3.9%p(2017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일본이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90.0%, '중립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10.0%로 나타남. (북한에 우호 : 0.0%)

<그림 1-11-2>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무력침략)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일본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일본의 태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로 '하',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강원', 직업별로 '전문/자유직(n=27)'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1-11-2>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무력침략)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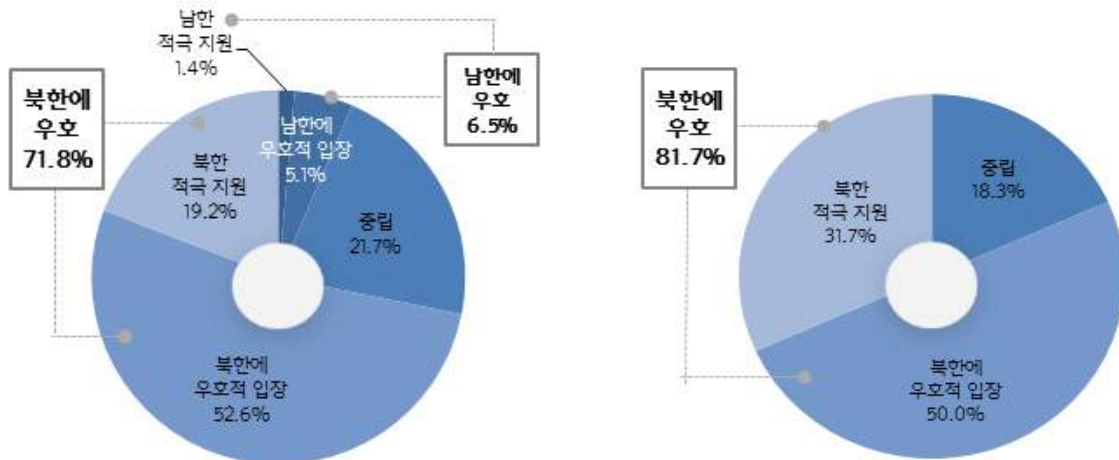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남한 적극 지원	남한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종합		
								남한에 우호	중립	북한에 우호
전체		1,260	6.6	35.5	50.7	6.3	0.9	42.1	50.7	7.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6.1	33.6	52.8	6.7	0.9	39.7	52.8	7.6
	전문가	60	16.7	73.3	10.0	0.0	0.0	90.0	10.0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5.6	33.1	52.6	7.7	0.9	38.7	52.6	8.7
	중	564	5.5	31.4	55.7	6.7	0.7	36.9	55.7	7.4
	하	210	8.6	40.5	45.2	4.3	1.4	49.0	45.2	5.7
성별	남성	720	7.5	34.4	51.4	6.0	0.7	41.9	51.4	6.7
	여성	480	4.0	32.3	54.8	7.7	1.3	36.3	54.8	9.0
연령별	20대 이하	299	7.4	31.8	54.2	5.7	1.0	39.1	54.2	6.7
	30대	273	5.1	29.7	56.4	7.0	1.8	34.8	56.4	8.8
	40대	316	6.6	38.0	47.8	7.0	0.6	44.6	47.8	7.6
	50대	312	5.1	34.3	53.2	7.1	0.3	39.4	53.2	7.4
지역별	서울	237	5.1	31.6	53.2	9.7	0.4	36.7	53.2	10.1
	경기/인천	389	8.2	30.3	50.6	9.8	1.0	38.6	50.6	10.8
	부산/울산/경남	183	2.7	39.3	57.9	0.0	0.0	42.1	57.9	0.0
	대구/경북	114	5.3	34.2	57.0	2.6	0.9	39.5	57.0	3.5
	광주/전라	114	0.9	22.8	62.3	9.6	4.4	23.7	62.3	14.0
	대전/충청/세종	128	12.5	42.2	41.4	3.9	0.0	54.7	41.4	3.9
지역크기	강원	35	2.9	54.3	42.9	0.0	0.0	57.1	42.9	0.0
	대도시	542	4.4	33.6	57.2	4.4	0.4	38.0	57.2	4.8
	중소도시	579	7.6	34.5	47.8	8.6	1.4	42.1	47.8	10.0
직업별	읍/면	79	6.3	26.6	58.2	7.6	1.3	32.9	58.2	8.9
	농/어/임업	10	20.0	10.0	60.0	0.0	10.0	30.0	60.0	10.0
	자영업자	260	6.5	32.3	54.2	6.9	0.0	38.8	54.2	6.9
	판매/서비스직	238	5.9	31.1	53.8	7.6	1.7	37.0	53.8	9.2
	사무/기술직	386	7.0	37.6	48.7	5.7	1.0	44.6	48.7	6.7
	전문/자유직	27	3.7	44.4	48.1	3.7	0.0	48.1	48.1	3.7
	전업주부	147	2.0	32.7	54.4	9.5	1.4	34.7	54.4	10.9
	학생	111	5.4	29.7	59.5	5.4	0.0	35.1	59.5	5.4
학력별	무직/기타	21	14.3	28.6	52.4	4.8	0.0	42.9	52.4	4.8
	중졸이하	21	4.8	14.3	71.4	4.8	4.8	19.0	71.4	9.5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6.6	32.3	54.6	6.0	0.5	38.8	54.6	6.6
	전문대(중퇴/졸업)	308	5.5	32.1	51.9	9.1	1.3	37.7	51.9	10.4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6.2	35.4	51.9	5.6	0.9	41.6	51.9	6.4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4.2	54.2	33.3	8.3	0.0	58.3	33.3	8.3
	상	110	10.0	26.4	54.5	7.3	1.8	36.4	54.5	9.1
	중	680	6.9	35.9	51.9	4.9	0.4	42.8	51.9	5.3
하	410	3.7	31.7	53.7	9.5	1.5	35.4	53.7	11.0	

11-3. 중국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일반국민 71.8%, 전문가 81.7%로 나타남.

- [일반국민]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71.8%로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6.5%)보다 65.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북한에 우호적일 것'(71.8%)이라는 응답은 2.0%p(2017년 69.8%), '남한에 우호적일 것'(6.5%)이라는 응답은 2.2%p(2017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81.7%, '중립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18.3%로 나타남.(남한에 우호적 : 0%)

<그림 1-11-3>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무력침략)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중국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중국의 태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직업별로 농어업(n=10), 학력별로 중졸이하(n=21)에서는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1-3>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무력침략)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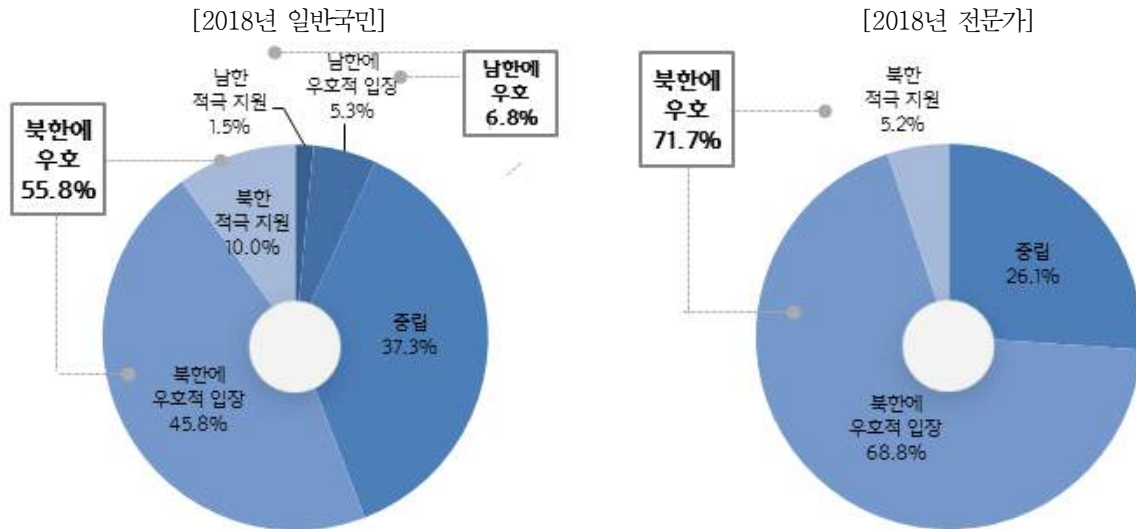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남한 적극 지원	남한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종합		
								남한에 우호	중립	북한에 우호
전체		1,260	1.3	4.8	21.5	52.5	19.8	6.2	21.5	72.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4	5.1	21.7	52.7	19.2	6.5	21.7	71.8
	전문가	60	0.0	0.0	18.3	50.0	31.7	0.0	18.3	8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0.7	5.9	20.9	48.1	24.4	6.6	20.9	72.5
	중	564	1.2	5.1	21.1	56.7	15.8	6.4	21.1	72.5
	하	210	3.3	3.3	24.8	51.0	17.6	6.7	24.8	68.6
성별	남성	720	1.8	4.3	22.4	51.9	19.6	6.1	22.4	71.5
	여성	480	0.8	6.3	20.6	53.8	18.5	7.1	20.6	72.3
연령별	20대 이하	299	1.3	5.7	20.7	56.2	16.1	7.0	20.7	72.2
	30대	273	1.1	5.1	22.7	51.6	19.4	6.2	22.7	71.1
	40대	316	1.6	4.7	22.2	50.9	20.6	6.3	22.2	71.5
	50대	312	1.6	4.8	21.2	51.9	20.5	6.4	21.2	72.4
지역별	서울	237	2.1	5.9	24.1	54.4	13.5	8.0	24.1	67.9
	경기/인천	389	2.3	6.9	24.2	51.7	14.9	9.3	24.2	66.6
	부산/울산/경남	183	0.0	1.6	24.0	66.1	8.2	1.6	24.0	74.3
	대구/경북	114	0.0	3.5	14.9	43.9	37.7	3.5	14.9	81.6
	광주/전라	114	0.9	2.6	10.5	40.4	45.6	3.5	10.5	86.0
	대전/충청/세종	128	0.8	7.8	21.1	50.0	20.3	8.6	21.1	70.3
지역크기	강원	35	2.9	0.0	25.7	60.0	11.4	2.9	25.7	71.4
	대도시	542	1.3	3.5	19.2	55.0	21.0	4.8	19.2	76.0
	중소도시	579	1.7	6.7	24.7	51.5	15.4	8.5	24.7	66.8
직업별	읍/면	79	0.0	3.8	16.5	45.6	34.2	3.8	16.5	79.7
	농/어/임업	10	10.0	10.0	10.0	60.0	10.0	20.0	10.0	70.0
	자영업자	260	1.5	3.8	19.2	49.6	25.8	5.4	19.2	75.4
	판매/서비스직	238	0.8	5.0	20.6	53.4	20.2	5.9	20.6	73.5
	사무/기술직	386	1.6	4.1	23.6	54.7	16.1	5.7	23.6	70.7
	전문/자유직	27	3.7	14.8	22.2	48.1	11.1	18.5	22.2	59.3
	전업주부	147	1.4	8.2	21.1	51.7	17.7	9.5	21.1	69.4
	학생	111	0.9	5.4	24.3	54.1	15.3	6.3	24.3	69.4
학력별	무직/기타	21	0.0	0.0	23.8	47.6	28.6	0.0	23.8	76.2
	중졸이하	21	9.5	9.5	23.8	42.9	14.3	19.0	23.8	57.1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0	6.0	21.8	53.0	18.1	7.1	21.8	71.1
	전문대(중퇴/졸업)	308	1.0	6.2	22.4	51.9	18.5	7.1	22.4	70.5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1.5	3.6	21.9	53.0	20.0	5.2	21.9	73.0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4.2	0.0	4.2	58.3	33.3	4.2	4.2	91.7
	상	110	2.7	4.5	29.1	51.8	11.8	7.3	29.1	63.6
	중	680	1.8	6.8	18.1	53.8	19.6	8.5	18.1	73.4
하	410	0.5	2.4	25.6	51.0	20.5	2.9	25.6	71.5	

11-4. 러시아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일반국민 55.8%, 전문가 71.7%로 나타남.

- [일반국민]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55.8%로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 6.8% 보다 49.0%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북한에 우호적일 것’(55.8%)이라는 응답이 1.2%p(2017년 54.6%), ‘남한에 우호적일 것’(6.8%)이라는 응답이 1.4%p(2017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71.7%, ‘중립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26.1%로 나타남. (남한에 우호 : 0.0%)

<그림 1-11-4>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무력침략)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러시아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러시아의 태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역별로 ‘광주/전라’, 생활수준별로 ‘하’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1-11-4>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무력침략)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러시아

단위[%]		사례수 (명)	남한 적극 지원	남한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종합		
								남한에 우호	중립	북한에 우호
전체		1,260	1.4	5.1	36.9	46.7	9.8	6.5	36.9	56.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5	5.3	37.3	45.8	10.1	6.8	37.3	55.8
	전문가	60	0.0	0.0	28.3	66.7	5.0	0.0	28.3	7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1.2	6.3	33.3	46.5	12.7	7.5	33.3	59.2
	중	564	1.4	5.3	42.9	41.8	8.5	6.7	42.9	50.4
	하	210	2.4	3.3	30.5	54.8	9.0	5.7	30.5	63.8
성별	남성	720	1.5	5.7	36.0	46.4	10.4	7.2	36.0	56.8
	여성	480	1.5	4.8	39.4	44.8	9.6	6.3	39.4	54.4
연령별	20대 이하	299	1.7	5.0	41.8	44.1	7.4	6.7	41.8	51.5
	30대	273	1.1	6.2	39.6	44.0	9.2	7.3	39.6	53.1
	40대	316	1.6	4.7	34.8	48.4	10.4	6.3	34.8	58.9
	50대	312	1.6	5.4	33.7	46.2	13.1	7.1	33.7	59.3
지역별	서울	237	2.1	3.8	48.5	35.9	9.7	5.9	48.5	45.6
	경기/인천	389	2.6	5.1	41.6	42.2	8.5	7.7	41.6	50.6
	부산/울산/경남	183	0.5	3.8	33.3	59.0	3.3	4.4	33.3	62.3
	대구/경북	114	0.0	2.6	27.2	50.0	20.2	2.6	27.2	70.2
	광주/전라	114	0.0	5.3	13.2	64.0	17.5	5.3	13.2	81.6
	대전/충청/세종	128	0.8	13.3	35.9	38.3	11.7	14.1	35.9	50.0
지역크기	강원	35	2.9	5.7	51.4	37.1	2.9	8.6	51.4	40.0
	대도시	542	0.9	4.1	41.1	44.8	9.0	5.0	41.1	53.9
	중소도시	579	2.2	6.4	36.6	44.6	10.2	8.6	36.6	54.7
	읍/면	79	0.0	6.3	16.5	60.8	16.5	6.3	16.5	77.2
	농/어/임업	10	0.0	10.0	20.0	50.0	20.0	10.0	20.0	70.0
	자영업자	260	1.2	6.9	32.7	45.8	13.5	8.1	32.7	59.2
직업별	판매/서비스직	238	1.3	4.2	41.2	42.4	10.9	5.5	41.2	53.4
	사무/기술직	386	1.3	6.7	34.2	50.5	7.3	8.0	34.2	57.8
	전문/자유직	27	3.7	7.4	40.7	44.4	3.7	11.1	40.7	48.1
	전업주부	147	2.7	2.0	39.5	43.5	12.2	4.8	39.5	55.8
	학생	111	1.8	3.6	49.5	38.7	6.3	5.4	49.5	45.0
	무직/기타	21	0.0	0.0	33.3	47.6	19.0	0.0	33.3	66.7
	중졸이하	21	0.0	9.5	38.1	38.1	14.3	9.5	38.1	52.4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8	5.5	38.3	44.4	10.0	7.3	38.3	54.3
전문대(중퇴/졸업)	308	1.0	5.8	41.6	43.2	8.4	6.8	41.6	51.6	
학력별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1.5	4.9	34.3	48.5	10.7	6.4	34.3	59.2
	대학원 이상	24	4.2	0.0	25.0	54.2	16.7	4.2	25.0	70.8
생활수준 별	상	110	0.9	14.5	32.7	43.6	8.2	15.5	32.7	51.8
	중	680	1.9	5.7	41.3	42.8	8.2	7.6	41.3	51.0
	하	410	1.0	2.2	32.0	51.2	13.7	3.2	32.0	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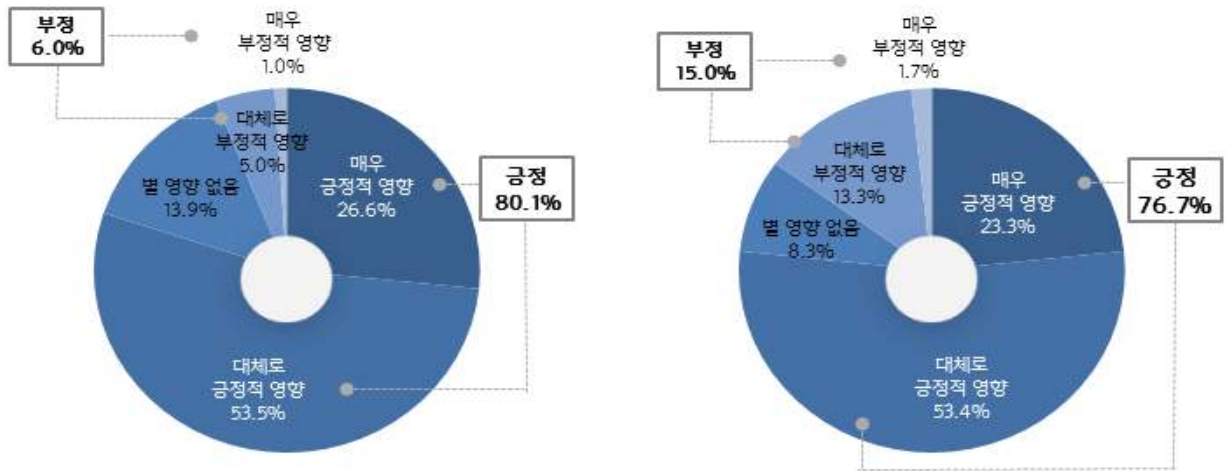
12.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12-1. 미국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80.1%, 전문가 76.7%로 나타남.

- [일반국민]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80.1%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6.0%)이라는 응답보다 74.1%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80.1%)이라는 응답은 3.0%p(2017년 77.1%),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6.0%)이라는 응답이 0.2%p(2017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76.7%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15.0%)이라는 응답보다 61.7%p 높게 나타남.

<그림 1-12-1>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미국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가운데, 지역별로 ‘광주/전라’, 지역크기별로 읍/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2-1>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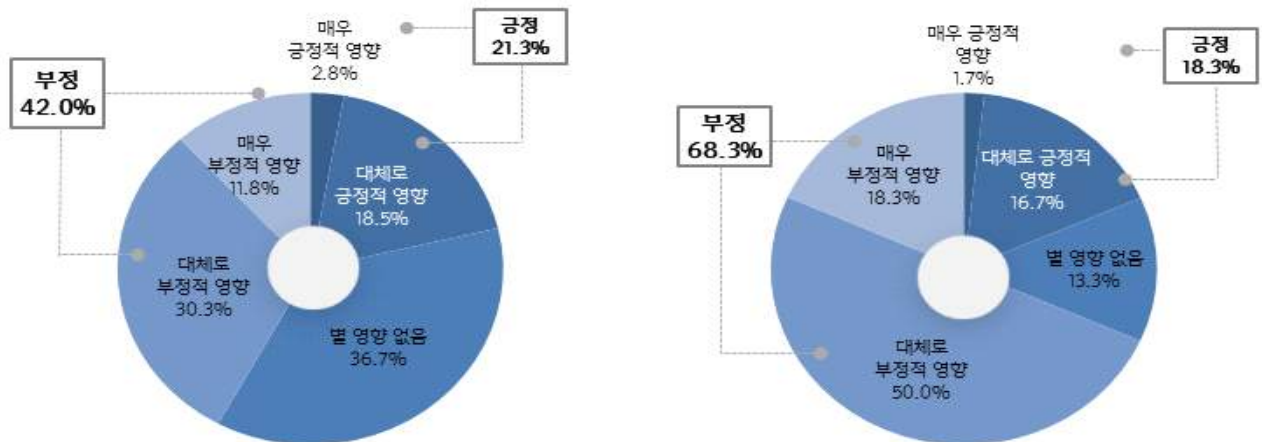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긍정적 영향	대체로 긍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종합		
								긍정	별 영향 없음	부정
전체		1,260	26.4	53.5	13.7	5.4	1.0	79.9	13.7	6.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6.6	53.5	13.9	5.0	1.0	80.1	13.9	6.0
	전문가	60	23.3	53.3	8.3	13.3	1.7	76.7	8.3	1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28.2	52.1	13.1	5.9	0.7	80.3	13.1	6.6
	중	564	26.1	56.0	12.6	4.3	1.1	82.1	12.6	5.3
	하	210	24.8	49.5	19.0	5.2	1.4	74.3	19.0	6.7
성별	남성	720	29.2	51.8	13.6	4.7	0.7	81.0	13.6	5.4
	여성	480	22.7	56.0	14.4	5.4	1.5	78.8	14.4	6.9
연령별	20대 이하	299	23.1	57.9	13.7	5.0	0.3	80.9	13.7	5.4
	30대	273	28.6	52.4	12.8	4.4	1.8	81.0	12.8	6.2
	40대	316	29.7	49.4	13.0	6.6	1.3	79.1	13.0	7.9
	50대	312	25.0	54.5	16.0	3.8	0.6	79.5	16.0	4.5
지역별	서울	237	33.3	49.8	11.8	4.2	0.8	83.1	11.8	5.1
	경기/인천	389	29.8	56.0	8.5	4.4	1.3	85.9	8.5	5.7
	부산/울산/경남	183	9.3	62.3	23.0	5.5	0.0	71.6	23.0	5.5
	대구/경북	114	28.1	53.5	17.5	0.9	0.0	81.6	17.5	0.9
	광주/전라	114	21.1	43.0	15.8	16.7	3.5	64.0	15.8	20.2
	대전/충청/세종	128	33.6	49.2	14.1	2.3	0.8	82.8	14.1	3.1
	강원	35	22.9	54.3	22.9	0.0	0.0	77.1	22.9	0.0
지역크기	대도시	542	28.2	51.1	15.5	4.4	0.7	79.3	15.5	5.2
	중소도시	579	25.4	55.3	13.6	5.0	0.7	80.7	13.6	5.7
	읍/면	79	24.1	57.0	5.1	8.9	5.1	81.0	5.1	13.9
직업별	농/어/임업	10	50.0	50.0	0.0	0.0	0.0	100.0	0.0	0.0
	자영업자	260	31.2	50.8	13.5	3.8	0.8	81.9	13.5	4.6
	판매/서비스직	238	27.7	55.9	8.8	7.1	0.4	83.6	8.8	7.6
	사무/기술직	386	24.1	52.1	17.6	5.2	1.0	76.2	17.6	6.2
	전문/자유직	27	25.9	66.7	7.4	0.0	0.0	92.6	7.4	0.0
	전업주부	147	28.6	51.0	14.3	3.4	2.7	79.6	14.3	6.1
	학생	111	16.2	61.3	15.3	6.3	0.9	77.5	15.3	7.2
	무직/기타	21	33.3	47.6	14.3	4.8	0.0	81.0	14.3	4.8
학력별	중졸이하	21	19.0	57.1	14.3	9.5	0.0	76.2	14.3	9.5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28.1	54.6	12.3	3.7	1.3	82.7	12.3	5.0
	전문대(중퇴/졸업)	308	25.6	55.2	14.3	4.5	0.3	80.8	14.3	4.9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25.1	51.9	15.2	6.4	1.3	77.0	15.2	7.7
	대학원 이상	24	50.0	41.7	8.3	0.0	0.0	91.7	8.3	0.0
생활수준 별	상	110	29.1	55.5	8.2	6.4	0.9	84.5	8.2	7.3
	중	680	31.3	51.8	12.2	3.8	0.9	83.1	12.2	4.7
	하	410	18.0	55.9	18.3	6.6	1.2	73.9	18.3	7.8

12-2. 일본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42.0%, 전문가 68.3%로 나타남.

- [일반국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42.0%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21.3%)이라는 응답보다 20.7%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21.3%)이라는 응답은 3.5%p(2017년 17.8%),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42.0%)이라는 응답은 1.1%p(2017년 4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8.3%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18.3%)이라는 응답보다 50.0%p 높게 나타남.

<그림 1-12-2>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일본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광주/전라’, 지역크기별로 ‘읍/면’ 등에서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본인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12-2>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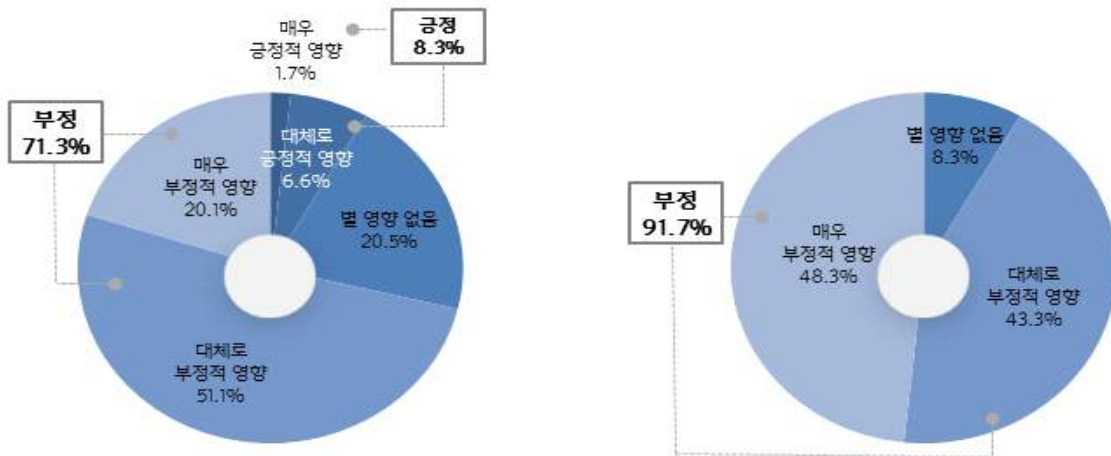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긍정적 영향	대체로 긍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종합		
								긍정	별 영향 없음	부정
전체		2.8	18.4	35.6	31.2	12.1	21.2	35.6	43.3	41.6
대상별	일반국민	2.8	18.5	36.7	30.3	11.8	21.3	36.7	42.0	40.9
	전문가	1.7	16.7	13.3	50.0	18.3	18.3	13.3	68.3	5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3.3	12.0	34.7	34.3	15.7	15.3	34.7	50.0
	중	564	2.1	20.9	40.4	27.5	9.0	23.0	40.4	36.5
	하	210	3.8	25.2	30.5	29.5	11.0	29.0	30.5	40.5
성별	남성	720	3.9	18.3	35.7	29.3	12.8	22.2	35.7	42.1
	여성	480	1.3	18.8	38.1	31.7	10.2	20.0	38.1	41.9
연령별	20대 이하	299	3.0	17.1	40.1	30.8	9.0	20.1	40.1	39.8
	30대	273	1.8	20.5	36.3	26.7	14.7	22.3	36.3	41.4
	40대	316	3.8	18.0	33.5	30.4	14.2	21.8	33.5	44.6
	50대	312	2.6	18.6	36.9	32.7	9.3	21.2	36.9	42.0
지역별	서울	237	3.4	16.5	46.0	24.5	9.7	19.8	46.0	34.2
	경기/인천	389	2.1	22.1	28.5	31.4	15.9	24.2	28.5	47.3
	부산/울산/경남	183	0.5	19.7	48.6	27.9	3.3	20.2	48.6	31.1
	대구/경북	114	0.9	19.3	43.9	32.5	3.5	20.2	43.9	36.0
	광주/전라	114	2.6	3.5	15.8	48.2	29.8	6.1	15.8	78.1
	대전/충청/세종	128	7.8	21.9	40.6	24.2	5.5	29.7	40.6	29.7
지역크기	강원	35	8.6	20.0	31.4	25.7	14.3	28.6	31.4	40.0
	대도시	542	2.0	15.5	40.0	33.9	8.5	17.5	40.0	42.4
지역크기	중소도시	579	3.1	21.8	34.5	27.6	13.0	24.9	34.5	40.6
	읍/면	79	6.3	15.2	29.1	24.1	25.3	21.5	29.1	49.4
	농/어/임업	10	10.0	20.0	20.0	40.0	10.0	30.0	20.0	50.0
직업별	자영업자	260	3.1	15.8	37.3	28.8	15.0	18.8	37.3	43.8
	판매/서비스직	238	3.8	16.8	39.5	29.0	10.9	20.6	39.5	39.9
	사무/기술직	386	3.9	20.5	34.5	29.3	11.9	24.4	34.5	41.2
	전문/자유직	27	0.0	37.0	44.4	14.8	3.7	37.0	44.4	18.5
	전업주부	147	0.0	21.8	33.3	34.0	10.9	21.8	33.3	44.9
	학생	111	0.0	10.8	43.2	36.0	9.9	10.8	43.2	45.9
	무직/기타	21	4.8	28.6	23.8	38.1	4.8	33.3	23.8	42.9
학력별	중졸이하	21	4.8	14.3	42.9	38.1	0.0	19.0	42.9	38.1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2.6	18.9	39.6	28.9	10.0	21.5	39.6	38.8
	전문대(중퇴/졸업)	308	4.2	18.5	39.3	29.2	8.8	22.7	39.3	38.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1.9	17.6	33.3	31.8	15.5	19.5	33.3	47.2
대학원 이상	24	4.2	33.3	16.7	29.2	16.7	37.5	16.7	45.8	
생활수준 별	상	110	1.8	23.6	30.0	35.5	9.1	25.5	30.0	44.5
	중	680	3.4	19.6	37.6	27.1	12.4	22.9	37.6	39.4
	하	410	2.2	15.4	36.8	34.1	11.5	17.6	36.8	45.6

12-3. 중국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71.3%, 전문가 91.7%로 나타남.

- [일반국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71.3%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8.3%)이라는 응답보다 63.0%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8.3%)이라는 응답은 2.6%p(2017년 5.7%),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71.3%)이라는 응답은 4.5%p(2017년 6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91.7%로 나타남.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 0.0%)

<그림 1-12-3>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중국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2-3>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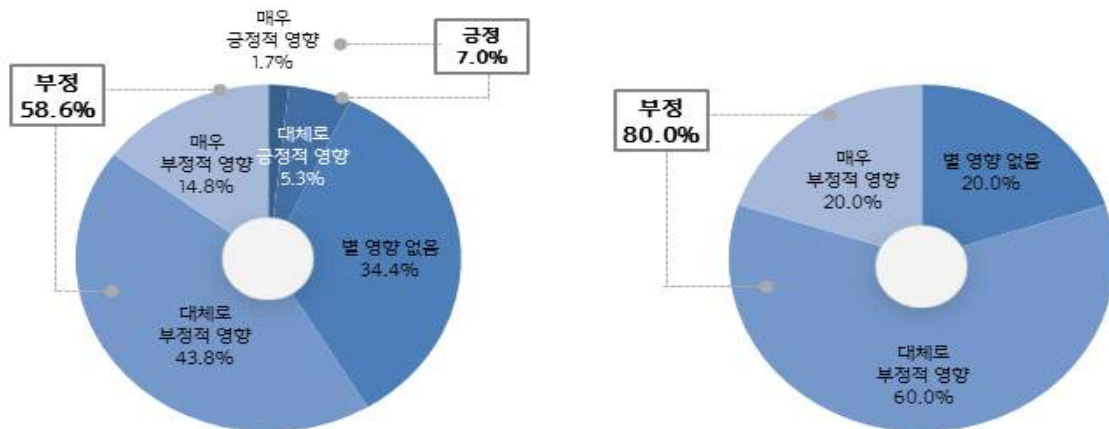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긍정적 영향	대체로 긍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종합			
								긍정	별 영향 없음	부정	
전체		1,260	1.6	6.3	19.9	50.8	21.4	7.9	19.9	72.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7	6.6	20.5	51.2	20.1	8.3	20.5	71.3	
	전문가	60	0.0	0.0	8.3	43.3	48.3	0.0	8.3	9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1.4	7.3	16.0	48.4	27.0	8.7	16.0	75.4	
	중	564	1.6	6.6	21.6	53.9	16.3	8.2	21.6	70.2	
	하	210	2.4	5.2	26.7	49.5	16.2	7.6	26.7	65.7	
성별	남성	720	1.8	5.3	20.6	50.0	22.4	7.1	20.6	72.4	
	여성	480	1.5	8.5	20.4	52.9	16.7	10.0	20.4	69.6	
연령별	20대 이하	299	1.7	5.4	23.7	53.8	15.4	7.0	23.7	69.2	
	30대	273	1.5	9.5	16.1	50.5	22.3	11.0	16.1	72.9	
	40대	316	1.3	6.0	20.6	50.6	21.5	7.3	20.6	72.2	
	50대	312	2.2	5.8	21.2	49.7	21.2	8.0	21.2	70.8	
지역별	서울	237	2.5	8.4	27.0	48.5	13.5	11.0	27.0	62.0	
	경기/인천	389	3.1	7.5	19.5	47.8	22.1	10.5	19.5	69.9	
	부산/울산/경남	183	0.5	2.7	29.5	60.7	6.6	3.3	29.5	67.2	
	대구/경북	114	0.0	4.4	14.9	52.6	28.1	4.4	14.9	80.7	
	광주/전라	114	0.0	3.5	8.8	57.9	29.8	3.5	8.8	87.7	
	대전/충청/세종	128	0.0	10.2	13.3	46.1	30.5	10.2	13.3	76.6	
지역크기	강원	35	2.9	8.6	22.9	48.6	17.1	11.4	22.9	65.7	
	대도시	542	1.5	5.5	19.9	53.1	19.9	7.0	19.9	73.1	
	중소도시	579	2.1	7.6	22.8	48.4	19.2	9.7	22.8	67.5	
	읍/면	79	0.0	6.3	7.6	58.2	27.8	6.3	7.6	86.1	
	직업별	농/어/임업	10	10.0	0.0	30.0	40.0	20.0	10.0	30.0	60.0
		자영업자	260	1.2	5.8	16.9	54.6	21.5	6.9	16.9	76.2
판매/서비스직		238	1.3	4.6	19.7	55.5	18.9	5.9	19.7	74.4	
사무/기술직		386	2.6	6.7	21.2	49.2	20.2	9.3	21.2	69.4	
전문/자유직		27	0.0	18.5	18.5	48.1	14.8	18.5	18.5	63.0	
전업주부		147	2.0	11.6	19.7	44.2	22.4	13.6	19.7	66.7	
학생		111	0.0	3.6	27.9	54.1	14.4	3.6	27.9	68.5	
무직/기타		21	0.0	4.8	23.8	38.1	33.3	4.8	23.8	71.4	
학력별	중졸이하	21	9.5	14.3	19.0	42.9	14.3	23.8	19.0	57.1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3	8.1	21.5	54.3	14.7	9.4	21.5	69.0	
	전문대(중퇴/졸업)	308	2.3	6.5	20.8	48.7	21.8	8.8	20.8	70.5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1.3	5.4	20.4	50.6	22.3	6.7	20.4	73.0	
	대학원 이상	24	0.0	0.0	4.2	50.0	45.8	0.0	4.2	95.8	
생활수준 별	상	110	0.9	11.8	19.1	42.7	25.5	12.7	19.1	68.2	
	중	680	2.5	7.1	19.3	50.9	20.3	9.6	19.3	71.2	
	하	410	0.5	4.4	22.9	53.9	18.3	4.9	22.9	72.2	

12-4. 러시아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58.6%, 전문가 8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8.6%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7.0%)이라는 응답보다 51.6%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7.0%)이라는 응답은 2.0%p(2017년 9.0%) 감소하였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58.6%)이라는 응답은 15.3%p(2017년 4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80.0%로 나타남.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 0.0%)

<그림 1-12-4>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러시아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 전문/자유직(n=27),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2-4>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러시아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긍정적 영향	대체로 긍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종합		
								긍정	별 영향 없음	부정
전체		1,260	1.6	5.1	33.7	44.5	15.1	6.7	33.7	59.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7	5.3	34.4	43.8	14.8	7.0	34.4	58.6
	전문가	60	0.0	0.0	20.0	60.0	20.0	0.0	20.0	8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1.6	6.6	27.5	42.7	21.6	8.2	27.5	64.3
	중	564	1.4	4.8	40.6	42.2	11.0	6.2	40.6	53.2
	하	210	2.4	4.3	31.9	50.0	11.4	6.7	31.9	61.4
성별	남성	720	1.8	4.2	33.8	43.3	16.9	6.0	33.8	60.3
	여성	480	1.5	7.1	35.4	44.4	11.7	8.5	35.4	56.0
연령별	20대 이하	299	1.3	4.0	39.1	43.8	11.7	5.4	39.1	55.5
	30대	273	1.5	8.4	31.9	45.8	12.5	9.9	31.9	58.2
	40대	316	2.2	5.4	32.0	42.1	18.4	7.6	32.0	60.4
	50대	312	1.6	3.8	34.6	43.6	16.3	5.4	34.6	59.9
지역별	서울	237	2.5	6.3	44.7	36.3	10.1	8.9	44.7	46.4
	경기/인천	389	3.1	6.2	35.2	38.3	17.2	9.3	35.2	55.5
	부산/울산/경남	183	0.0	3.3	39.9	47.5	9.3	3.3	39.9	56.8
	대구/경북	114	0.0	2.6	28.1	44.7	24.6	2.6	28.1	69.3
	광주/전라	114	0.9	0.9	10.5	67.5	20.2	1.8	10.5	87.7
	대전/충청/세종	128	0.0	10.2	30.5	46.9	12.5	10.2	30.5	59.4
지역크기	강원	35	2.9	5.7	40.0	42.9	8.6	8.6	40.0	51.4
	대도시	542	1.5	4.4	37.6	43.2	13.3	5.9	37.6	56.5
	중소도시	579	2.1	6.4	34.0	42.0	15.5	8.5	34.0	57.5
직업별	읍/면	79	0.0	3.8	15.2	60.8	20.3	3.8	15.2	81.0
	농/어/임업	10	0.0	10.0	30.0	30.0	30.0	10.0	30.0	60.0
	자영업자	260	1.5	5.0	31.9	42.3	19.2	6.5	31.9	61.5
	판매/서비스직	238	2.1	2.1	35.3	49.2	11.3	4.2	35.3	60.5
	사무/기술직	386	2.1	6.2	33.2	45.9	12.7	8.3	33.2	58.5
	전문/자유직	27	0.0	22.2	18.5	51.9	7.4	22.2	18.5	59.3
	전업주부	147	1.4	7.5	35.4	37.4	18.4	8.8	35.4	55.8
	학생	111	0.9	2.7	44.1	38.7	13.5	3.6	44.1	52.3
학력별	무직/기타	21	0.0	4.8	42.9	28.6	23.8	4.8	42.9	52.4
	중졸이하	21	9.5	0.0	23.8	38.1	28.6	9.5	23.8	66.7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6	6.0	39.9	42.0	10.5	7.6	39.9	52.5
	전문대(중퇴/졸업)	308	2.3	5.8	37.7	39.6	14.6	8.1	37.7	54.2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1.1	4.7	29.6	47.2	17.4	5.8	29.6	64.6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0.0	4.2	8.3	62.5	25.0	4.2	8.3	87.5
	상	110	3.6	10.9	26.4	39.1	20.0	14.5	26.4	59.1
	중	680	2.2	6.3	37.9	40.3	13.2	8.5	37.9	53.5
하	410	0.2	2.2	30.7	50.7	16.1	2.4	30.7	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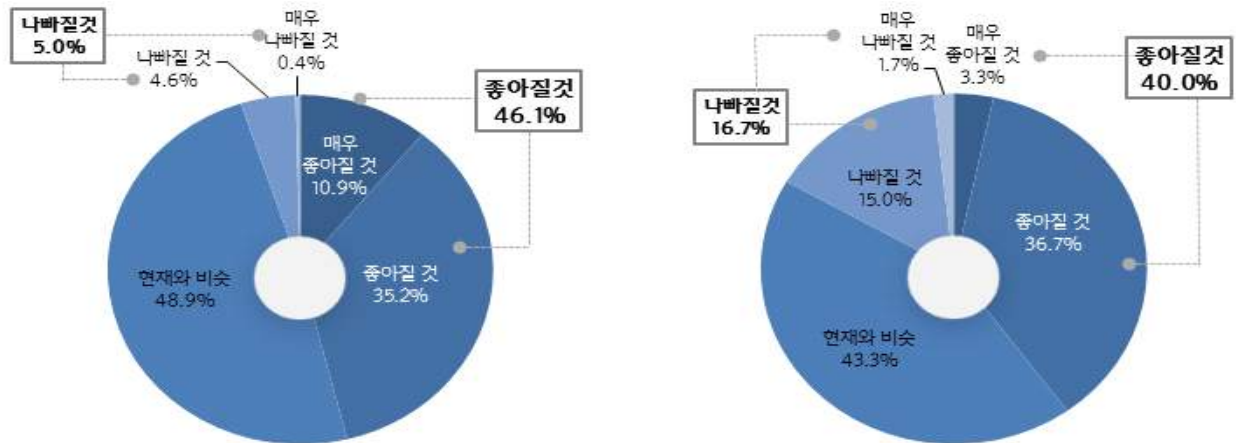
13. 미래(5년 이후) 주변국가와의 관계 전망

13-1. 미국

미국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46.1%, 전문가 4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미래 미국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46.1%로 '나빠질 것이다'는 응답 5.0%보다 41.1%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좋아질 것이다'(46.1%)는 응답은 7.3%p(2017년 38.8%), '나빠질 것이다'(5.0%)는 응답은 0.7%p(2017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미래 미국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40.0%로 '나빠질 것이다'(16.7%)는 응답보다 23.3%p 높게 나타남.

<그림 1-13-1> 미래(5년 이후) 주변국가와의 관계 전망 - 미국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미래 미국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직업별로 ‘자영업자’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1-13-1> 미래(5년 이후) 주변국가와의 관계전망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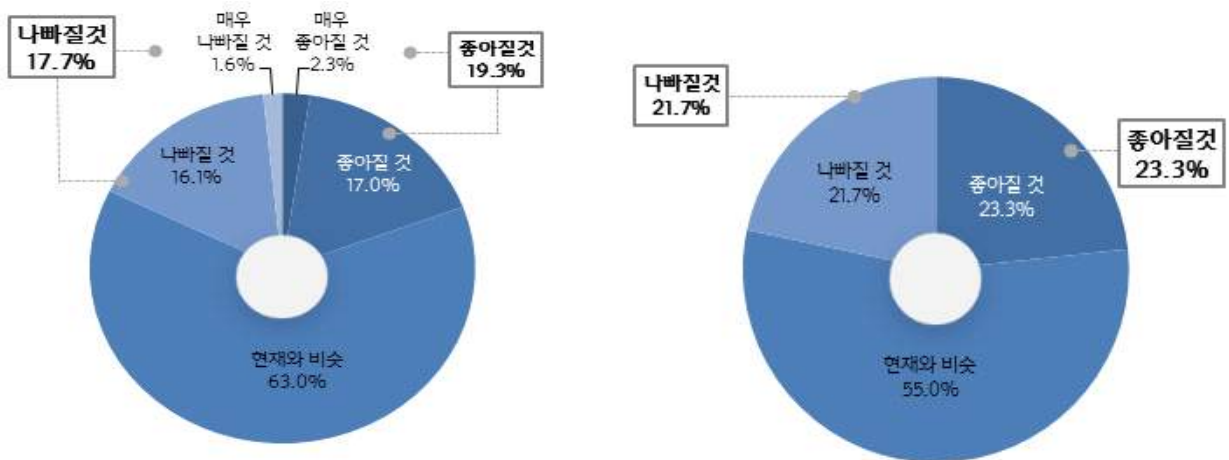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매우 나빠질 것이다	종합			
								좋아질 것	현재와 비슷	나빠질 것	
전체		1,260	10.6	35.2	48.7	5.1	0.5	45.8	48.7	5.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0.9	35.2	48.9	4.6	0.4	46.1	48.9	5.0	
	전문가	60	3.3	36.7	43.3	15.0	1.7	40.0	43.3	16.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9.9	42.3	42.5	4.7	0.7	52.1	42.5	5.4	
	중	564	11.3	32.1	52.1	4.3	0.2	43.4	52.1	4.4	
	하	210	11.9	29.0	53.3	5.2	0.5	41.0	53.3	5.7	
성별	남성	720	11.8	36.0	47.5	4.3	0.4	47.8	47.5	4.7	
	여성	480	9.6	34.0	51.0	5.0	0.4	43.5	51.0	5.4	
연령별	20대 이하	299	8.7	36.1	49.8	5.0	0.3	44.8	49.8	5.4	
	30대	273	11.4	34.8	48.7	4.0	1.1	46.2	48.7	5.1	
	40대	316	11.7	32.3	50.3	5.7	0.0	44.0	50.3	5.7	
	50대	312	11.9	37.5	46.8	3.5	0.3	49.4	46.8	3.8	
지역별	서울	237	9.3	36.7	48.5	4.2	1.3	46.0	48.5	5.5	
	경기/인천	389	13.6	38.8	44.5	2.8	0.3	52.4	44.5	3.1	
	부산/울산/경남	183	2.2	22.4	70.5	4.9	0.0	24.6	70.5	4.9	
	대구/경북	114	15.8	35.1	48.2	0.9	0.0	50.9	48.2	0.9	
	광주/전라	114	6.1	34.2	50.9	8.8	0.0	40.4	50.9	8.8	
	대전/충청/세종	128	17.2	39.8	31.3	10.9	0.8	57.0	31.3	11.7	
지역크기	강원	35	14.3	37.1	48.6	0.0	0.0	51.4	48.6	0.0	
	대도시	542	9.0	36.7	49.1	4.6	0.6	45.8	49.1	5.2	
	중소도시	579	12.8	34.2	48.0	4.7	0.3	47.0	48.0	5.0	
	읍/면	79	10.1	31.6	54.4	3.8	0.0	41.8	54.4	3.8	
	직업별	농/어/임업	10	40.0	0.0	60.0	0.0	0.0	40.0	60.0	0.0
		자영업자	260	10.8	38.8	46.9	3.1	0.4	49.6	46.9	3.5
판매/서비스직		238	10.9	35.3	49.6	3.4	0.8	46.2	49.6	4.2	
사무/기술직		386	10.9	35.5	47.2	6.5	0.0	46.4	47.2	6.5	
전문/자유직		27	11.1	29.6	59.3	0.0	0.0	40.7	59.3	0.0	
전업주부		147	10.9	35.4	48.3	4.1	1.4	46.3	48.3	5.4	
학생		111	9.0	30.6	55.0	5.4	0.0	39.6	55.0	5.4	
무직/기타		21	9.5	28.6	52.4	9.5	0.0	38.1	52.4	9.5	
학력별	중졸이하	21	9.5	42.9	47.6	0.0	0.0	52.4	47.6	0.0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3.4	32.0	50.4	3.7	0.5	45.4	50.4	4.2	
	전문대(중퇴/졸업)	308	10.1	38.6	46.4	3.9	1.0	48.7	46.4	4.9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8.8	35.2	50.0	6.0	0.0	44.0	50.0	6.0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25.0	33.3	37.5	4.2	0.0	58.3	37.5	4.2	
	상	110	12.7	36.4	46.4	4.5	0.0	49.1	46.4	4.5	
	중	680	13.2	39.3	42.6	4.3	0.6	52.5	42.6	4.9	
하	410	6.6	28.0	60.0	5.1	0.2	34.6	60.0	5.4		

13-2. 일본

일본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19.3%, 전문가 23.3%로 나타남.

- [일반국민] 미래 일본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19.3%로 '나빠질 것이다'(17.7%)는 응답보다 1.6%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좋아질 것이다'(19.3%)는 응답은 5.1%p(2017년 14.2%) 증가하였고, '나빠질 것이다'(17.7%)는 응답은 2.4%p(2017년 2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미래 일본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23.3%로 '나빠질 것이다'(21.7%)는 응답보다 1.6%p 높게 나타남.

<그림 1-13-2> 미래(5년 이후) 주변국가와의 관계 전망 - 일본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미래 일본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역별로 ‘강원’,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13-2> 미래(5년 이후) 주변국가와의 관계전망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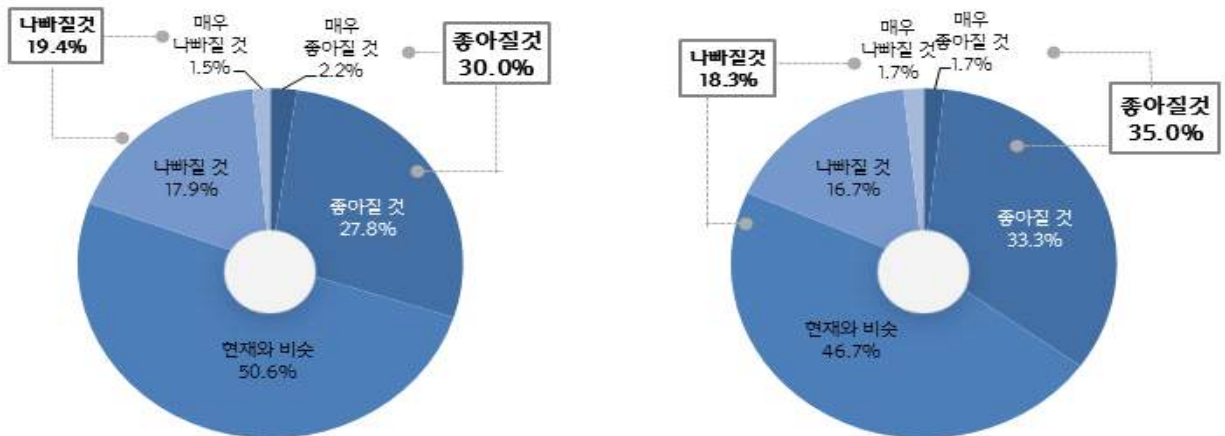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매우 나빠질 것이다	종합		
								좋아질 것	현재와 비슷	나빠질 것
전체		1,260	2.2	17.3	62.6	16.3	1.5	19.5	62.6	17.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3	17.0	63.0	16.1	1.6	19.3	63.0	17.7
	전문가	60	0.0	23.3	55.0	21.7	0.0	23.3	55.0	2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1.9	18.8	58.5	19.7	1.2	20.7	58.5	20.9
	중	564	2.7	16.3	65.2	14.4	1.4	19.0	65.2	15.8
	하	210	2.4	15.2	66.2	13.3	2.9	17.6	66.2	16.2
성별	남성	720	3.2	17.5	61.1	16.7	1.5	20.7	61.1	18.2
	여성	480	1.0	16.3	65.8	15.2	1.7	17.3	65.8	16.9
연령별	20대 이하	299	2.3	17.7	61.2	16.1	2.7	20.1	61.2	18.7
	30대	273	3.7	16.1	63.4	15.0	1.8	19.8	63.4	16.8
	40대	316	2.2	17.4	61.4	18.4	0.6	19.6	61.4	19.0
	50대	312	1.3	16.7	66.0	14.7	1.3	17.9	66.0	16.0
지역별	서울	237	1.7	11.0	63.3	21.9	2.1	12.7	63.3	24.1
	경기/인천	389	2.3	22.1	56.6	17.7	1.3	24.4	56.6	19.0
	부산/울산/경남	183	0.0	15.8	77.0	7.1	0.0	15.8	77.0	7.1
	대구/경북	114	1.8	14.9	73.7	8.8	0.9	16.7	73.7	9.6
	광주/전라	114	0.9	16.7	55.3	23.7	3.5	17.5	55.3	27.2
	대전/충청/세종	128	7.8	12.5	64.1	13.3	2.3	20.3	64.1	15.6
지역크기	강원	35	5.7	31.4	45.7	14.3	2.9	37.1	45.7	17.1
	대도시	542	1.3	13.5	69.4	14.6	1.3	14.8	69.4	15.9
	중소도시	579	3.1	20.9	58.4	15.7	1.9	24.0	58.4	17.6
직업별	읍/면	79	3.8	12.7	53.2	29.1	1.3	16.5	53.2	30.4
	농/어/임업	10	20.0	10.0	30.0	40.0	0.0	30.0	30.0	40.0
	자영업자	260	0.4	16.5	64.6	17.7	0.8	16.9	64.6	18.5
	판매/서비스직	238	1.7	13.4	66.4	15.1	3.4	15.1	66.4	18.5
	사무/기술직	386	3.9	18.7	61.4	14.8	1.3	22.5	61.4	16.1
	전문/자유직	27	7.4	18.5	66.7	7.4	0.0	25.9	66.7	7.4
	전업주부	147	1.4	19.7	63.3	15.0	0.7	21.1	63.3	15.6
	학생	111	0.9	18.9	59.5	18.0	2.7	19.8	59.5	20.7
학력별	무직/기타	21	4.8	4.8	61.9	28.6	0.0	9.5	61.9	28.6
	중졸이하	21	4.8	9.5	81.0	4.8	0.0	14.3	81.0	4.8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0	16.8	65.4	15.0	1.8	17.8	65.4	16.8
	전문대(중퇴/졸업)	308	3.2	18.8	61.4	14.9	1.6	22.1	61.4	16.6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2.4	16.5	61.4	18.2	1.5	18.9	61.4	19.7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8.3	12.5	62.5	16.7	0.0	20.8	62.5	16.7
	상	110	2.7	21.8	57.3	18.2	0.0	24.5	57.3	18.2
	중	680	2.8	18.5	62.9	14.1	1.6	21.3	62.9	15.7
하	410	1.5	13.2	64.6	18.8	2.0	14.6	64.6	20.7	

13-3. 중국

중국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30.0%, 전문가 35.0%로 나타남.

- [일반국민] 미래 중국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30.0%로 '나빠질 것이다'(19.4%)는 응답보다 10.6%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좋아질 것이다(30.0%)는 응답은 6.4%p(2017년 23.6%) 증가하였고, '나빠질 것이다'(19.4%)는 응답은 0.9%p(2017년 2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미래 중국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35.0%로 '나빠질 것이다'(18.3%)는 응답보다 16.7%p 높게 나타남.

<그림 1-13-3> 미래(5년 이후) 주변국가와의 관계 전망 - 중국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미래 중국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광주/전라’, 직업별로 ‘농/어/임업’(n=10),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13-3> 미래(5년 이후) 주변국가와의 관계전망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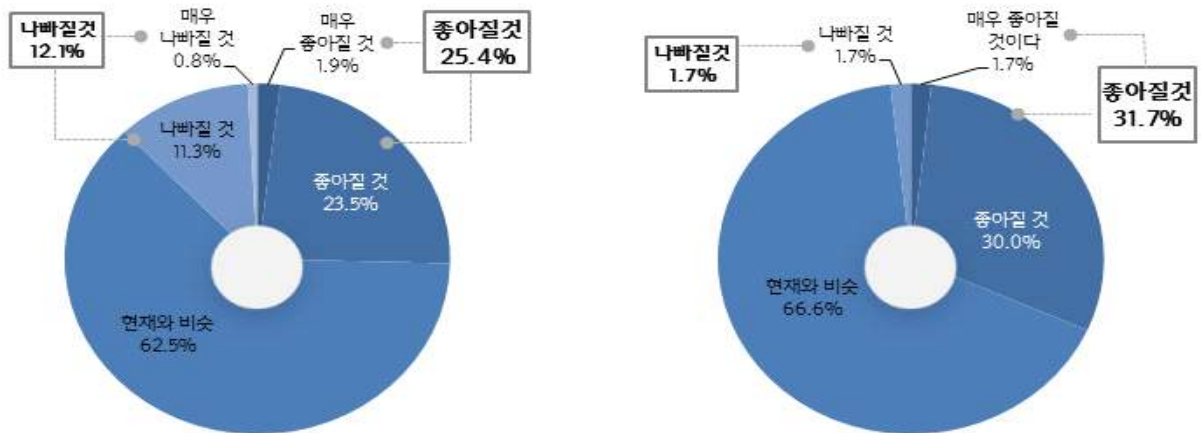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매우 나빠질 것이다	종합			
								좋아질 것	현재와 비슷	나빠질 것	
전체		1,260	2.1	28.1	50.4	17.9	1.5	30.2	50.4	19.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2	27.8	50.6	17.9	1.5	30.0	50.6	19.4	
	전문가	60	1.7	33.3	46.7	16.7	1.7	35.0	46.7	18.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2.8	31.7	46.7	17.1	1.6	34.5	46.7	18.8	
	중	564	2.1	22.9	54.6	19.3	1.1	25.0	54.6	20.4	
	하	210	1.0	33.3	47.6	15.7	2.4	34.3	47.6	18.1	
성별	남성	720	2.6	29.7	47.5	18.5	1.7	32.4	47.5	20.1	
	여성	480	1.5	25.0	55.2	17.1	1.3	26.5	55.2	18.3	
연령별	20대 이하	299	2.3	30.8	48.5	16.7	1.7	33.1	48.5	18.4	
	30대	273	2.9	24.9	51.3	18.7	2.2	27.8	51.3	20.9	
	40대	316	2.2	29.4	51.6	15.8	0.9	31.6	51.6	16.8	
	50대	312	1.3	26.0	51.0	20.5	1.3	27.2	51.0	21.8	
지역별	서울	237	1.7	22.8	56.1	19.0	0.4	24.5	56.1	19.4	
	경기/인천	389	3.1	30.1	50.4	15.4	1.0	33.2	50.4	16.5	
	부산/울산/경남	183	0.5	35.5	42.6	19.1	2.2	36.1	42.6	21.3	
	대구/경북	114	2.6	17.5	64.9	14.9	0.0	20.2	64.9	14.9	
	광주/전라	114	1.8	41.2	44.7	8.8	3.5	43.0	44.7	12.3	
	대전/충청/세종	128	1.6	15.6	45.3	34.4	3.1	17.2	45.3	37.5	
지역크기	강원	35	5.7	31.4	48.6	11.4	2.9	37.1	48.6	14.3	
	대도시	542	1.3	26.2	50.7	20.3	1.5	27.5	50.7	21.8	
	중소도시	579	2.6	30.6	49.9	16.1	0.9	33.2	49.9	16.9	
	읍/면	79	5.1	19.0	54.4	15.2	6.3	24.1	54.4	21.5	
	직업별	농/어/임업	10	0.0	50.0	40.0	0.0	10.0	50.0	40.0	10.0
		자영업자	260	1.2	25.8	50.8	21.2	1.2	26.9	50.8	22.3
판매/서비스직		238	1.7	26.9	52.5	16.8	2.1	28.6	52.5	18.9	
사무/기술직		386	2.6	31.1	48.4	16.6	1.3	33.7	48.4	17.9	
전문/자유직		27	3.7	37.0	48.1	11.1	0.0	40.7	48.1	11.1	
전업주부		147	2.7	24.5	53.7	17.7	1.4	27.2	53.7	19.0	
학생		111	2.7	25.2	52.3	18.9	0.9	27.9	52.3	19.8	
무직/기타		21	4.8	19.0	42.9	28.6	4.8	23.8	42.9	33.3	
학력별	중졸이하	21	9.5	19.0	52.4	14.3	4.8	28.6	52.4	19.0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3	28.1	50.7	19.2	0.8	29.4	50.7	19.9	
	전문대(중퇴/졸업)	308	2.6	25.0	54.2	16.6	1.6	27.6	54.2	18.2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2.4	30.5	47.9	17.4	1.9	32.8	47.9	19.3	
	대학원 이상	24	0.0	16.7	54.2	29.2	0.0	16.7	54.2	29.2	
생활수준 별	상	110	4.5	22.7	55.5	15.5	1.8	27.3	55.5	17.3	
	중	680	2.2	27.4	50.9	18.4	1.2	29.6	50.9	19.6	
	하	410	1.5	30.0	48.8	17.8	2.0	31.5	48.8	19.8	

13-4. 러시아

러시아와의 관계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25.4%, 전문가 31.7%로 나타남.

- [일반국민] 미래 러시아와의 관계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25.4%로 '나빠질 것이다'는 응답 12.1%보다 13.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좋아질 것이다'(25.4%)는 응답은 7.2%p(2017년 18.2%) 증가하였고, '나빠질 것이다'(12.1%)이라는 응답은 2.5%p(2017년 1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미래 러시아와의 관계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31.7%로 '나빠질 것이다'는 응답 1.7%보다 30.0%p 높게 나타남.

<그림 1-13-4> 미래(5년 이후) 주변국가와의 관계 전망 - 러시아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미래 러시아와의 관계전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강원’, 직업별로 ‘전문/자유직’(n=27)에서 높게 나타남.

<표 1-13-4> 미래(5년 이후) 주변국가과의 관계전망 -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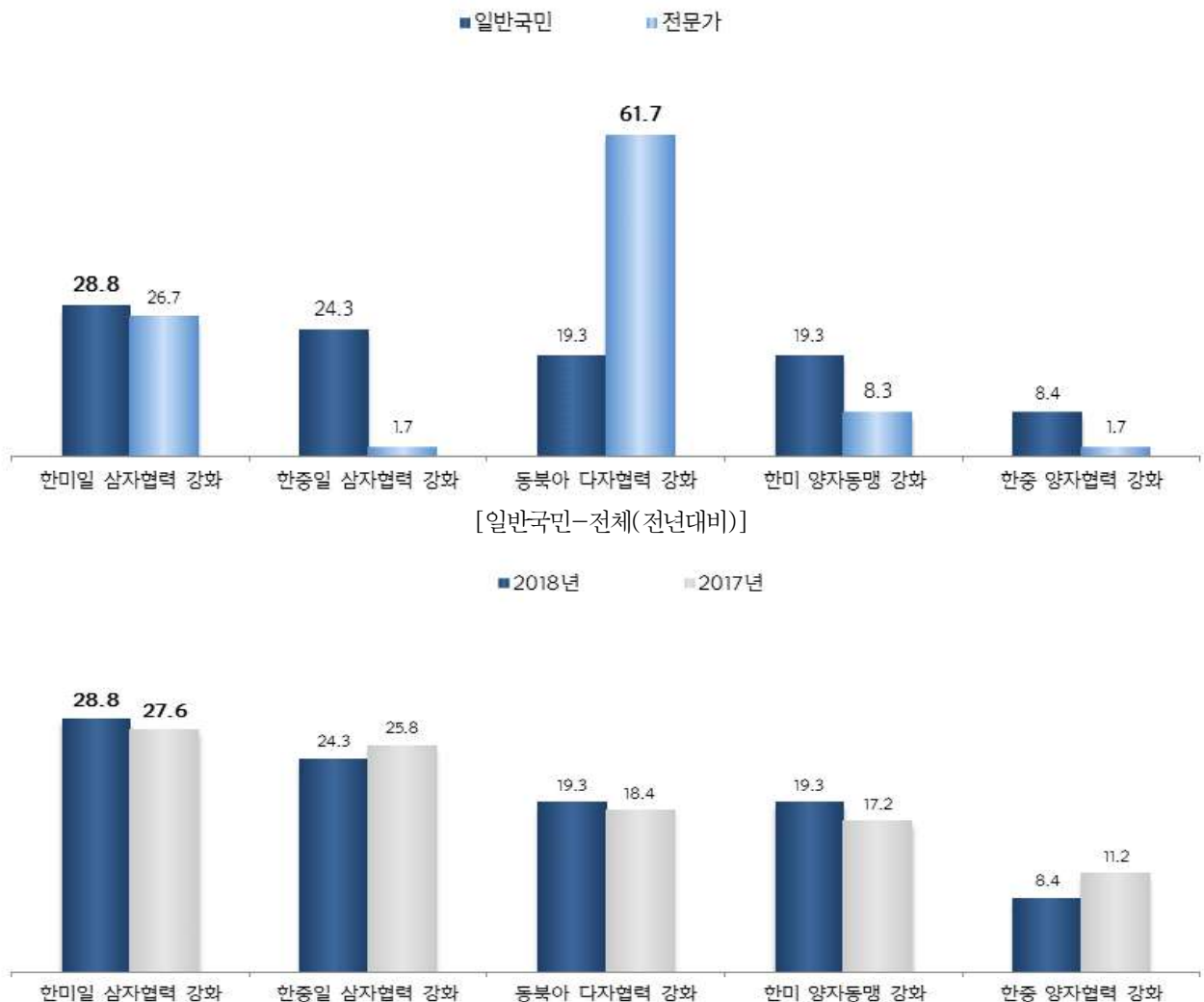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매우 나빠질 것이다	종합			
								좋아질 것	현재와 비슷	나빠질 것	
전체		1,260	1.9	23.8	62.7	10.9	0.7	25.7	62.7	11.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9	23.5	62.5	11.3	0.8	25.4	62.5	12.1	
	전문가	60	1.7	30.0	66.7	1.7	0.0	31.7	66.7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2.3	29.8	54.7	12.2	0.9	32.2	54.7	13.1	
	중	564	1.4	19.1	67.6	11.3	0.5	20.6	67.6	11.9	
	하	210	2.4	22.4	64.8	9.5	1.0	24.8	64.8	10.5	
성별	남성	720	2.2	25.7	61.3	10.1	0.7	27.9	61.3	10.8	
	여성	480	1.5	20.2	64.4	13.1	0.8	21.7	64.4	14.0	
연령별	20대 이하	299	2.0	21.7	65.2	10.0	1.0	23.7	65.2	11.0	
	30대	273	2.9	24.9	62.6	8.8	0.7	27.8	62.6	9.5	
	40대	316	1.9	25.6	60.4	12.0	0.0	27.5	60.4	12.0	
	50대	312	1.0	21.8	61.9	14.1	1.3	22.8	61.9	15.4	
지역별	서울	237	1.7	20.3	64.1	12.7	1.3	21.9	64.1	13.9	
	경기/인천	389	2.8	26.2	63.5	6.9	0.5	29.0	63.5	7.5	
	부산/울산/경남	183	1.1	27.3	64.5	6.6	0.5	28.4	64.5	7.1	
	대구/경북	114	1.8	7.0	68.4	22.8	0.0	8.8	68.4	22.8	
	광주/전라	114	0.9	34.2	45.6	16.7	2.6	35.1	45.6	19.3	
	대전/충청/세종	128	0.8	17.2	66.4	15.6	0.0	18.0	66.4	15.6	
지역크기	강원	35	5.7	37.1	51.4	5.7	0.0	42.9	51.4	5.7	
	대도시	542	1.5	23.2	64.0	10.5	0.7	24.7	64.0	11.3	
	중소도시	579	1.9	24.7	61.3	11.4	0.7	26.6	61.3	12.1	
	읍/면	79	5.1	16.5	60.8	16.5	1.3	21.5	60.8	17.7	
	직업별	농/어/임업	10	10.0	20.0	70.0	0.0	0.0	30.0	70.0	0.0
		자영업자	260	1.2	25.0	60.4	12.7	0.8	26.2	60.4	13.5
		판매/서비스직	238	1.7	22.7	65.5	10.1	0.0	24.4	65.5	10.1
사무/기술직		386	1.8	25.4	62.2	10.4	0.3	27.2	62.2	10.6	
전문/자유직		27	7.4	37.0	48.1	7.4	0.0	44.4	48.1	7.4	
전업주부		147	2.0	21.1	63.3	11.6	2.0	23.1	63.3	13.6	
학생		111	1.8	17.1	65.8	13.5	1.8	18.9	65.8	15.3	
무직/기타		21	4.8	14.3	52.4	23.8	4.8	19.0	52.4	28.6	
학력별	중졸이하	21	9.5	14.3	61.9	9.5	4.8	23.8	61.9	14.3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0	20.5	66.1	11.3	1.0	21.5	66.1	12.3	
	전문대(중퇴/졸업)	308	1.6	22.7	63.6	12.0	0.0	24.4	63.6	12.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2.6	26.6	59.0	10.9	0.9	29.2	59.0	11.8	
	대학원 이상	24	0.0	29.2	58.3	12.5	0.0	29.2	58.3	12.5	
생활수준 별	상	110	5.5	22.7	60.0	10.9	0.9	28.2	60.0	11.8	
	중	680	2.2	24.6	64.4	8.4	0.4	26.8	64.4	8.8	
	하	410	0.5	22.0	60.0	16.3	1.2	22.4	60.0	17.6	

14.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으로 일반국민은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28.8%), 전문가는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61.7%)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으로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가 2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중·일 삼자협력 강화’(24.3%),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1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28.8%)는 1.2%p(2017년 27.6%) 증가하였고, ‘한·중·일 삼자협력 강화’(24.3%)이라는 응답은 1.5%p(2017년 2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으로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가 6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26.7%), ‘한·미 양자동맹 강화’(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14>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특성별 분석]

-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 응답은 지역별로 ‘강원’, 직업별로 ‘판매서비스직’ 등에서 높게 나타남.
- ‘한·중·일 삼자협력 강화’ 응답은 성별로 ‘여성’,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직업별로 ‘농/어/임업 (n=1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4>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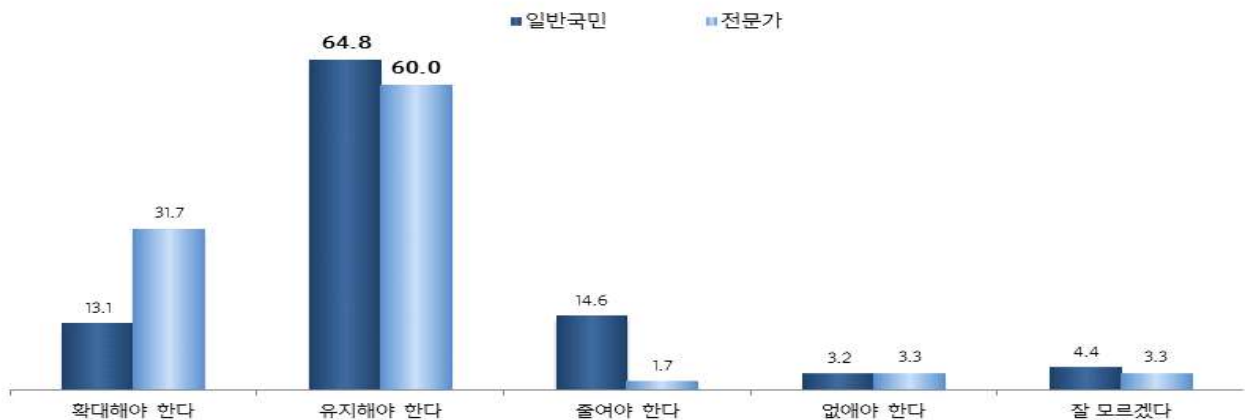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	한·중·일 삼자협력 강화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	한·미 양자동맹 강화	한·중 양자협력 강화
전체		1,260	28.7	23.2	21.3	18.8	8.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8.8	24.3	19.3	19.3	8.4
	전문가	60	26.7	1.7	61.7	8.3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24.2	23.2	25.8	20.7	6.1
	중	564	31.9	26.4	15.4	17.7	8.5
	하	210	29.5	20.5	16.2	21.0	12.9
성별	남성	720	29.4	22.9	19.7	19.9	8.1
	여성	480	27.7	26.3	18.5	18.5	9.0
연령별	20대 이하	299	27.1	24.7	20.1	19.4	8.7
	30대	273	30.4	21.6	18.7	21.6	7.7
	40대	316	27.5	24.7	20.9	17.1	9.8
	50대	312	30.1	25.6	17.3	19.6	7.4
지역별	서울	237	21.1	27.0	18.1	23.6	10.1
	경기/인천	389	25.7	28.3	19.8	18.0	8.2
	부산/울산/경남	183	37.2	13.1	23.0	10.4	16.4
	대구/경북	114	37.7	28.1	11.4	17.5	5.3
	광주/전라	114	20.2	14.0	36.8	27.2	1.8
	대전/충청/세종	128	35.2	30.5	8.6	25.0	0.8
	강원	35	45.7	17.1	8.6	11.4	17.1
지역크기	대도시	542	24.2	22.9	21.8	21.4	9.8
	중소도시	579	32.5	25.7	15.9	18.7	7.3
	읍/면	79	32.9	22.8	26.6	10.1	7.6
직업별	농/어/임업	10	20.0	40.0	20.0	20.0	0.0
	자영업자	260	24.6	30.0	18.8	20.8	5.8
	판매/서비스직	238	33.2	26.1	17.2	18.1	5.5
	사무/기술직	386	31.9	19.7	19.4	17.9	11.1
	전문/자유직	27	25.9	18.5	14.8	25.9	14.8
	전업주부	147	23.8	24.5	21.8	21.1	8.8
	학생	111	28.8	22.5	21.6	17.1	9.9
	무직/기타	21	14.3	23.8	19.0	33.3	9.5
학력별	중졸이하	21	33.3	19.0	14.3	23.8	9.5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30.2	26.5	13.1	19.9	10.2
	전문대(중퇴/졸업)	308	28.6	25.6	15.3	24.0	6.5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27.3	21.9	26.8	15.9	8.2
대학원 이상	24	33.3	20.8	25.0	12.5	8.3	
생활수준 별	상	110	30.9	20.0	23.6	21.8	3.6
	중	680	28.2	26.8	19.0	19.3	6.8
	하	410	29.0	21.2	18.5	18.8	12.4

15.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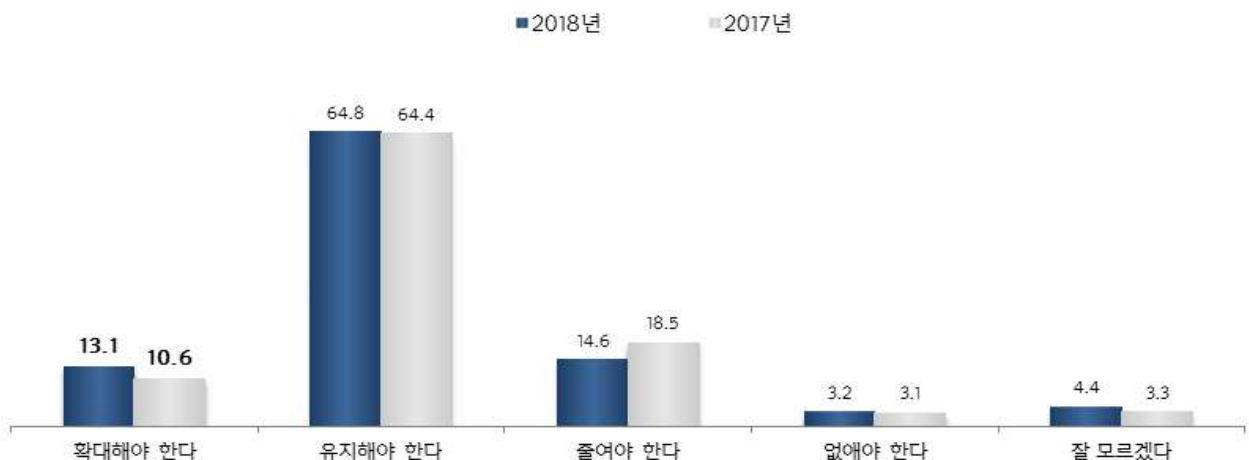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국민 64.8%, 전문가 60.0%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일본과의 안보협력에 대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4.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줄여야 한다' (14.6%), '확대해야 한다'(1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확대해야 한다'(13.1%)는 2.5%p(2017년 10.6%) 증가하였고, '줄여야 한다'(14.6%)는 응답은 3.9%p(2017년 1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일본과의 안보협력에 대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확대해야 한다' (31.7%), '없애야 한다'(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15> 한일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일본과의 안보협력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성별로 ‘여성’,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크기가 클수록, 직업별로 ‘농/어/임업 종사자(n=10)’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1-15>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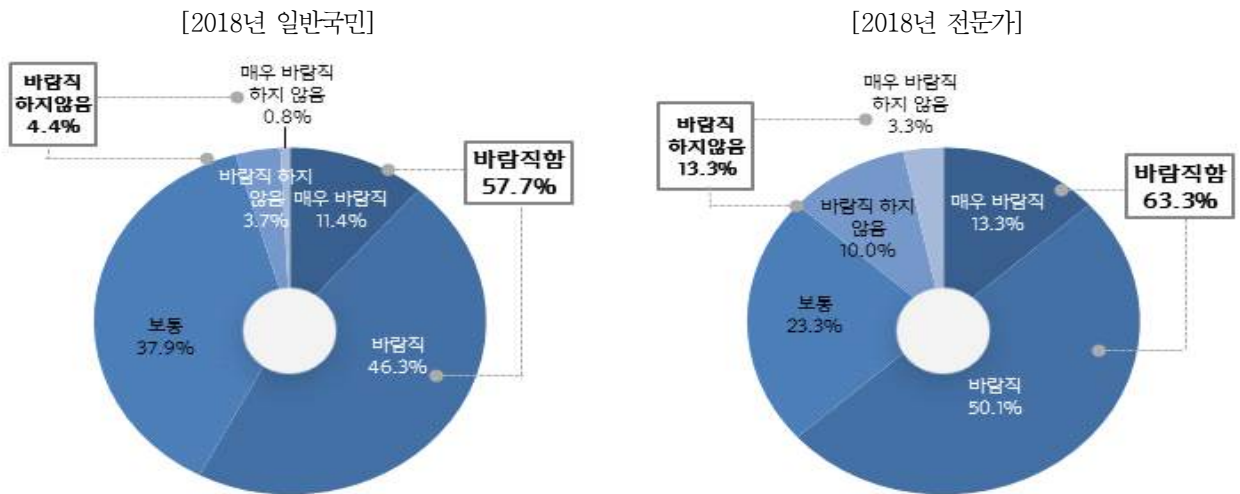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확대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줄여야 한다	없애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1,260	14.0	64.5	14.0	3.2	4.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3.1	64.8	14.6	3.2	4.4
	전문가	60	31.7	60.0	1.7	3.3	3.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15.7	63.1	14.6	4.2	2.3
	중	564	11.5	66.1	14.5	2.3	5.5
	하	210	11.9	64.3	14.8	3.3	5.7
성별	남성	720	16.0	62.8	15.1	3.2	2.9
	여성	480	8.8	67.7	13.8	3.1	6.7
연령별	20대 이하	299	15.4	58.9	13.7	3.3	8.7
	30대	273	12.5	68.5	12.5	2.2	4.4
	40대	316	10.4	66.5	16.5	4.1	2.5
	50대	312	14.1	65.4	15.4	2.9	2.2
지역별	서울	237	12.2	70.5	11.4	1.7	4.2
	경기/인천	389	14.4	60.7	15.9	2.6	6.4
	부산/울산/경남	183	12.0	66.7	13.1	2.2	6.0
	대구/경북	114	10.5	76.3	7.0	0.0	6.1
	광주/전라	114	7.9	55.3	24.6	12.3	0.0
	대전/충청/세종	128	14.8	63.3	18.8	3.1	0.0
	강원	35	28.6	60.0	5.7	5.7	0.0
지역크기	대도시	542	12.0	66.1	12.9	4.8	4.2
	중소도시	579	14.5	64.8	14.7	1.7	4.3
	읍/면	79	10.1	55.7	25.3	2.5	6.3
직업별	농/어/임업	10	0.0	90.0	10.0	0.0	0.0
	자영업자	260	11.2	63.5	17.7	6.2	1.5
	판매/서비스직	238	13.0	66.0	14.3	2.9	3.8
	사무/기술직	386	13.0	66.8	14.8	1.6	3.9
	전문/자유직	27	18.5	51.9	11.1	0.0	18.5
	전업주부	147	11.6	66.7	12.2	3.4	6.1
	학생	111	18.9	55.0	13.5	3.6	9.0
	무직/기타	21	19.0	71.4	4.8	0.0	4.8
학력별	중졸이하	21	14.3	57.1	14.3	4.8	9.5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0.5	67.7	14.7	2.9	4.2
	전문대(중퇴/졸업)	308	11.7	66.9	13.3	4.2	3.9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15.5	60.7	16.1	2.8	4.9
	대학원 이상	24	25.0	75.0	0.0	0.0	0.0
생활수준 별	상	110	11.8	67.3	15.5	2.7	2.7
	중	680	15.0	63.4	15.0	2.6	4.0
	하	410	10.2	66.3	13.7	4.1	5.6

16. 한·미·일간 3개국의 군사협력

한·미·일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57.7%, 전문가 63.3%로 나타남.

- [일반국민] 한·미·일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7.7%로 '바람직하지 않다'(4.4%) 보다 53.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바람직하다'(57.7%)는 응답은 3.1%p(2017년 60.8%), '바람직하지 않다'(4.4%)는 응답은 0.6%p(2017년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미·일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3.3%로 '바람직하지 않다'(13.3%)는 응답 보다 50.0%p 높게 나타남.

<그림 1-16> 한·미·일 3개국의 군사협력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한·미·일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대구/경북’, ‘대전/충청/세종’,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16> 한·미·일간 3개국의 군사협력

단위[%]	사례수 (명)	매우 바람직	바람직	보통	바람직 하지 않음	매우 바람직 하지 않음	종합				
							바람직함	보통	바람직 하지 않음		
전체	1,260	11.5	46.4	37.2	4.0	0.9	57.9	37.2	4.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1.4	46.3	37.9	3.7	0.8	57.7	37.9	4.4	
	전문가	60	13.3	50.0	23.3	10.0	3.3	63.3	23.3	13.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14.6	43.9	35.7	4.9	0.9	58.5	35.7	5.9	
	중	564	9.2	48.0	39.9	2.7	0.2	57.3	39.9	2.8	
	하	210	11.0	46.2	37.1	3.8	1.9	57.1	37.1	5.7	
성별	남성	720	13.1	47.1	35.7	3.5	0.7	60.1	35.7	4.2	
	여성	480	9.0	45.0	41.3	4.0	0.8	54.0	41.3	4.8	
연령별	20대 이하	299	10.0	43.5	42.1	3.7	0.7	53.5	42.1	4.3	
	30대	273	10.6	48.7	35.9	2.9	1.8	59.3	35.9	4.8	
	40대	316	12.0	44.9	38.6	3.8	0.6	57.0	38.6	4.4	
	50대	312	12.8	48.1	34.9	4.2	0.0	60.9	34.9	4.2	
지역별	서울	237	8.4	46.0	40.1	5.1	0.4	54.4	40.1	5.5	
	경기/인천	389	12.3	42.4	40.6	3.1	1.5	54.8	40.6	4.6	
	부산/울산/경남	183	13.1	51.4	33.3	2.2	0.0	64.5	33.3	2.2	
	대구/경북	114	7.0	67.5	22.8	1.8	0.9	74.6	22.8	2.6	
	광주/전라	114	7.0	21.1	63.2	7.9	0.9	28.1	63.2	8.8	
	대전/충청/세종	128	18.0	53.9	25.8	2.3	0.0	71.9	25.8	2.3	
지역크기	강원	35	17.1	48.6	28.6	5.7	0.0	65.7	28.6	5.7	
	대도시	542	11.1	46.1	37.5	4.8	0.6	57.2	37.5	5.4	
	중소도시	579	11.2	48.4	37.0	2.8	0.7	59.6	37.0	3.5	
	읍/면	79	15.2	31.6	48.1	2.5	2.5	46.8	48.1	5.1	
	직업별	농/어/임업	10	20.0	50.0	20.0	0.0	10.0	70.0	20.0	10.0
		자영업자	260	11.2	43.5	38.8	6.2	0.4	54.6	38.8	6.5
		판매/서비스직	238	11.8	45.0	38.7	4.2	0.4	56.7	38.7	4.6
사무/기술직		386	12.7	49.5	35.0	2.1	0.8	62.2	35.0	2.8	
전문/자유직		27	11.1	48.1	37.0	3.7	0.0	59.3	37.0	3.7	
전업주부		147	10.9	44.9	40.1	2.7	1.4	55.8	40.1	4.1	
학생		111	6.3	45.9	43.2	3.6	0.9	52.3	43.2	4.5	
무직/기타		21	14.3	42.9	38.1	4.8	0.0	57.1	38.1	4.8	
학력별	중졸이하	21	9.5	52.4	28.6	4.8	4.8	61.9	28.6	9.5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1.0	45.9	39.4	3.4	0.3	57.0	39.4	3.7	
	전문대(중퇴/졸업)	308	11.0	44.2	39.3	4.9	0.6	55.2	39.3	5.5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11.6	47.0	37.3	3.0	1.1	58.6	37.3	4.1	
	대학원 이상	24	20.8	58.3	16.7	4.2	0.0	79.2	16.7	4.2	
생활수준 별	상	110	10.0	58.2	26.4	4.5	0.9	68.2	26.4	5.5	
	중	680	13.4	43.8	38.1	3.8	0.9	57.2	38.1	4.7	
	하	410	8.5	47.1	40.7	3.2	0.5	55.6	40.7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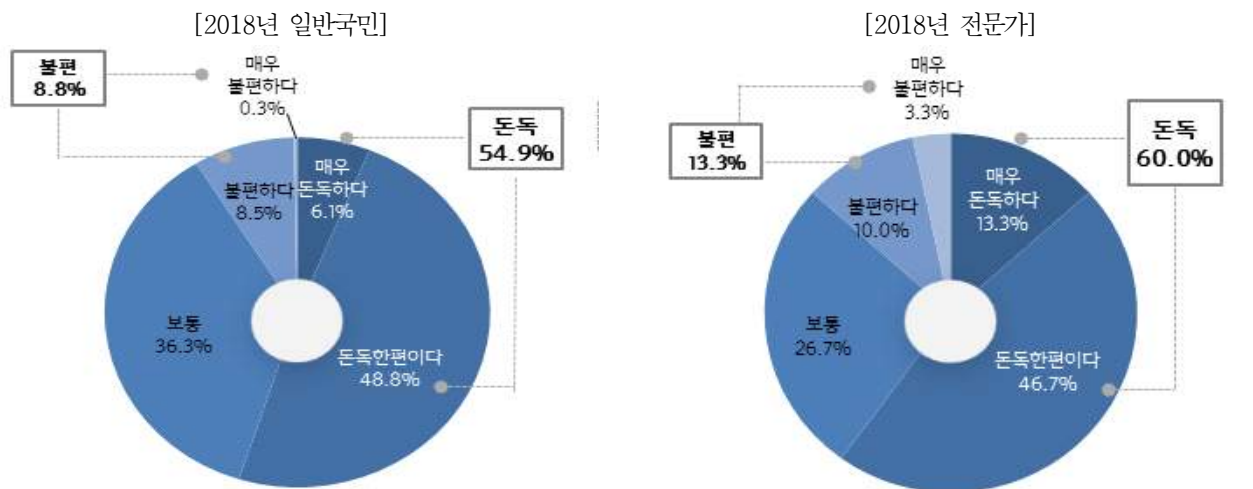
II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1. 한·미동맹관계

한·미동맹관계가 '돈독하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54.9%, 전문가 6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한·미동맹관계가 '돈독하다'는 응답이 54.9%로 '불편하다'(8.8%)는 응답보다 46.1%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돈독하다'(54.9%)는 응답은 2.2%p(2017년 52.7%) 증가하였고, '불편하다'(8.8%)는 응답은 2.5%p(2017년 1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미동맹관계가 '돈독하다'는 응답이 60.0%로 '불편하다'(13.3%)는 응답보다 46.7%p 높게 나타남.

<그림 2-1> 한·미동맹관계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한-미동맹관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돈독하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광주/전라’,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n=24)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2-1> 한-미동맹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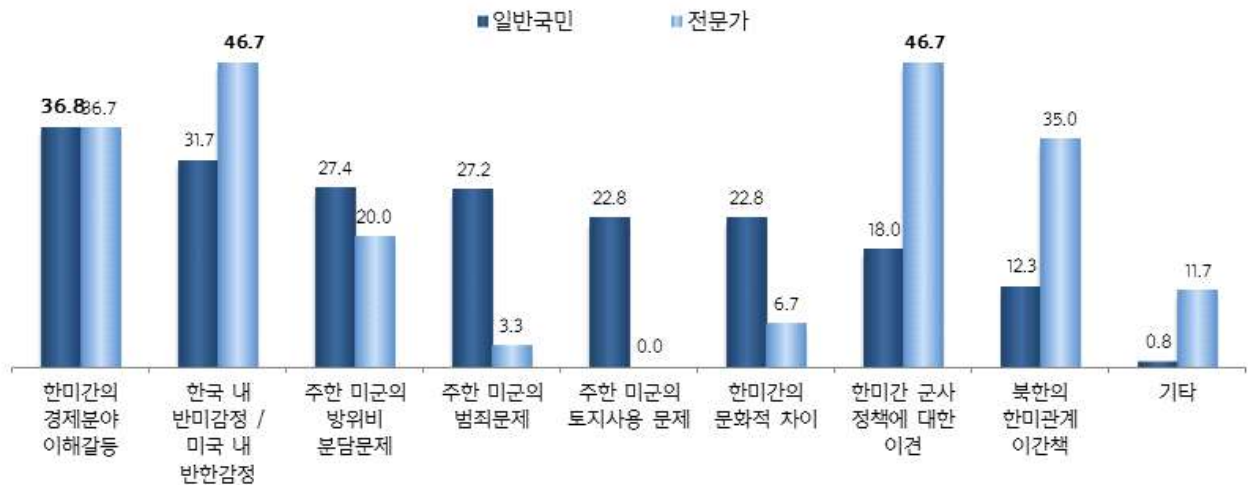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돈독하다	돈독한 편이다	보통이다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종합			
								돈독	보통	불편	
전체		1,260	6.4	48.7	35.9	8.6	0.4	55.2	35.9	9.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6.1	48.8	36.3	8.5	0.3	54.9	36.3	8.8	
	전문가	60	13.3	46.7	26.7	10.0	3.3	60.0	26.7	13.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7.7	58.7	27.2	5.9	0.5	66.4	27.2	6.3	
	중	564	5.0	45.2	40.6	9.0	0.2	50.2	40.6	9.2	
	하	210	5.7	38.6	43.3	12.4	0.0	44.3	43.3	12.4	
성별	남성	720	7.8	50.0	33.2	8.8	0.3	57.8	33.2	9.0	
	여성	480	3.5	47.1	41.0	8.1	0.2	50.6	41.0	8.3	
연령별	20대 이하	299	7.0	45.8	39.8	7.4	0.0	52.8	39.8	7.4	
	30대	273	8.4	49.1	33.3	9.2	0.0	57.5	33.3	9.2	
	40대	316	4.1	48.7	36.7	10.1	0.3	52.8	36.7	10.4	
	50대	312	5.1	51.6	35.3	7.4	0.6	56.7	35.3	8.0	
지역별	서울	237	7.6	50.2	32.9	8.9	0.4	57.8	32.9	9.3	
	경기/인천	389	8.0	50.4	36.8	4.6	0.3	58.4	36.8	4.9	
	부산/울산/경남	183	0.5	45.4	39.3	14.8	0.0	45.9	39.3	14.8	
	대구/경북	114	4.4	49.1	38.6	7.0	0.9	53.5	38.6	7.9	
	광주/전라	114	5.3	57.0	35.1	2.6	0.0	62.3	35.1	2.6	
	대전/충청/세종	128	7.0	41.4	32.0	19.5	0.0	48.4	32.0	19.5	
지역크기	강원	35	8.6	40.0	51.4	0.0	0.0	48.6	51.4	0.0	
	대도시	542	6.3	53.9	30.8	8.9	0.2	60.1	30.8	9.0	
	중소도시	579	5.7	45.3	40.4	8.5	0.2	50.9	40.4	8.6	
	읍/면	79	7.6	40.5	44.3	6.3	1.3	48.1	44.3	7.6	
	직업별	농/어/임업	10	40.0	20.0	40.0	0.0	0.0	60.0	40.0	0.0
		자영업자	260	3.5	55.0	33.5	7.3	0.8	58.5	33.5	8.1
판매/서비스직		238	5.0	51.3	34.0	9.7	0.0	56.3	34.0	9.7	
사무/기술직		386	8.0	45.6	38.3	7.8	0.3	53.6	38.3	8.0	
전문/자유직		27	14.8	40.7	37.0	7.4	0.0	55.6	37.0	7.4	
전업주부		147	3.4	44.9	40.8	10.9	0.0	48.3	40.8	10.9	
학생		111	7.2	50.5	33.3	9.0	0.0	57.7	33.3	9.0	
무직/기타		21	0.0	47.6	42.9	9.5	0.0	47.6	42.9	9.5	
학력별	중졸이하	21	9.5	57.1	28.6	4.8	0.0	66.7	28.6	4.8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5.0	48.3	37.8	8.7	0.3	53.3	37.8	8.9	
	전문대(중퇴/졸업)	308	7.8	46.4	37.0	8.8	0.0	54.2	37.0	8.8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5.4	49.6	36.3	8.4	0.4	54.9	36.3	8.8	
	대학원 이상	24	12.5	66.7	12.5	8.3	0.0	79.2	12.5	8.3	
생활수준 별	상	110	8.2	49.1	37.3	5.5	0.0	57.3	37.3	5.5	
	중	680	6.6	52.6	33.4	7.1	0.3	59.3	33.4	7.4	
	하	410	4.6	42.4	41.0	11.7	0.2	47.1	41.0	12.0	

2.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으로 일반국민은 ‘한-미간의 경제분야 이해갈등’(36.8%), 전문가는 ‘한국내 반미감정/미국내 반한감정’(46.7%)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으로 ‘한-미간의 경제분야 이해 갈등’이 3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국내 반미감정/미국내 반한감정’(31.7%),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2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한-미간의 경제분야 이해 갈등’(36.8%)이라는 응답은 1.0%p(2017년 35.8%) 증가하였고, ‘한국내 반미감정/미국내 반한감정’(31.7%)는 4.4%p(2017년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으로 ‘한국내 반미감정/미국내 반한감정’ 및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이 각각 4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간의 경제분야 이해 갈등’(3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한·미동맹관계 유지의 저해 요인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한미간의 경제분야 이해 갈등’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로 ‘하’, 성별로 ‘남성’, 지역크기가 작을수록, 직업별로 ‘전문/자유직’(n=27)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2-2>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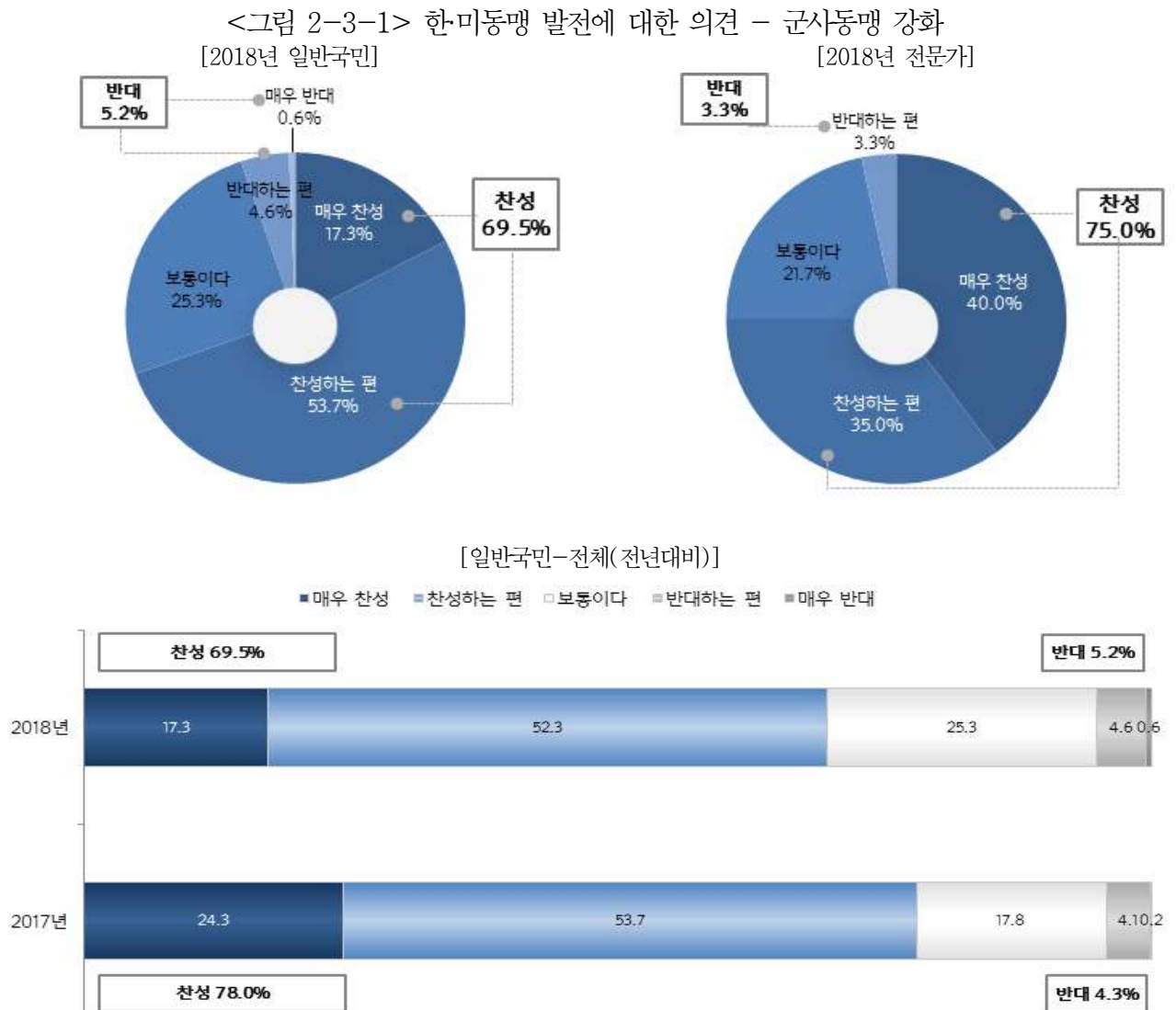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	한국내 반미감정 /미국내 반한감정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	주한 미군의 범죄 문제	한미간의 문화적 차이	주한 미군의 토지사용 문제	한미간 군사 정책에 대한 이견	북한의 한미관계 이간책	기타	
전체		1,260	36.7	32.4	27.1	26.0	22.0	21.7	19.4	13.3	0.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6.8	31.7	27.4	27.2	22.8	22.8	18.0	12.3	0.6	
	전문가	60	36.7	46.7	20.0	3.3	6.7	0.0	46.7	35.0	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35.7	29.8	25.6	26.1	21.1	27.5	18.3	14.3	0.7	
	중	564	35.5	31.9	28.9	25.9	23.6	22.5	20.0	11.0	0.5	
	하	210	42.4	34.8	27.1	32.9	23.8	13.8	11.9	11.4	0.5	
성별	남성	720	39.0	31.9	25.6	26.5	22.2	22.8	18.8	11.5	0.7	
	여성	480	33.3	31.3	30.2	28.1	23.5	22.7	16.9	13.3	0.4	
연령별	20대 이하	299	36.8	30.8	25.8	27.8	24.7	20.4	20.4	11.7	1.0	
	30대	273	33.0	34.4	24.5	29.7	22.7	26.7	13.2	14.3	0.7	
	40대	316	40.2	25.0	29.4	26.9	22.5	23.1	20.6	12.0	0.3	
	50대	312	36.5	36.9	29.5	24.7	21.2	21.2	17.3	11.2	0.3	
지역별	서울	237	30.0	38.0	29.1	22.4	23.2	24.5	17.7	13.9	0.8	
	경기/인천	389	33.9	28.0	28.0	27.0	24.4	28.3	15.4	12.3	1.0	
	부산/울산/경남	183	42.1	35.5	21.3	33.3	21.9	11.5	19.7	14.2	0.0	
	대구/경북	114	22.8	42.1	28.9	41.2	24.6	7.9	21.9	10.5	0.0	
	광주/전라	114	49.1	11.4	18.4	18.4	24.6	37.7	35.1	5.3	0.0	
	대전/충청/세종	128	50.0	31.3	35.2	28.1	16.4	21.1	3.9	13.3	0.8	
지역크기	강원	35	42.9	42.9	37.1	8.6	17.1	14.3	22.9	14.3	0.0	
	대도시	542	34.7	34.5	30.1	24.9	21.4	19.2	22.1	12.2	0.6	
	중소도시	579	36.4	28.8	25.7	30.1	23.8	27.1	13.3	13.0	0.7	
	읍/면	79	53.2	32.9	21.5	21.5	24.1	15.2	24.1	7.6	0.0	
	직업별	농/어/임업	10	30.0	30.0	40.0	10.0	20.0	10.0	50.0	0.0	0.0
		자영업자	260	38.5	33.5	26.5	24.6	22.3	23.5	18.8	11.5	0.8
판매/서비스직		238	36.1	30.3	23.5	29.8	25.2	29.8	11.8	13.0	0.4	
사무/기술직		386	39.1	30.3	29.5	25.4	21.2	20.5	20.5	11.7	0.0	
전문/자유직		27	44.4	33.3	37.0	14.8	7.4	14.8	22.2	22.2	3.7	
전업주부		147	33.3	31.3	26.5	30.6	27.2	23.8	12.9	14.3	0.0	
학생		111	33.3	35.1	24.3	30.6	22.5	18.0	24.3	10.8	0.9	
무직/기타		21	14.3	33.3	47.6	42.9	19.0	9.5	14.3	9.5	9.5	
학력별	중졸이하	21	42.9	47.6	23.8	38.1	14.3	4.8	9.5	14.3	0.0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36.5	33.3	26.5	27.0	25.2	23.6	16.5	10.2	0.3	
	전문대(중퇴/졸업)	308	35.1	30.2	25.3	27.6	26.9	22.7	19.8	11.0	1.3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37.6	30.3	29.8	26.6	18.9	23.4	18.5	13.9	0.2	
	대학원 이상	24	41.7	37.5	25.0	25.0	12.5	12.5	16.7	25.0	4.2	
생활수준 별	상	110	35.5	27.3	25.5	28.2	20.0	29.1	20.9	10.9	1.8	
	중	680	35.7	31.8	26.8	25.0	24.9	23.8	18.5	12.8	0.6	
	하	410	38.8	32.7	29.0	30.5	20.0	19.3	16.3	11.7	0.2	

3.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3-1. 군사동맹 강화

향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69.5%, 전문가 75.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향후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9.5%로 ‘반대한다’(5.2%)는 응답보다 64.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찬성한다’(69.5%)는 응답은 8.5%p(2017년 78.0%) 감소하였고, ‘반대한다’(5.2%)는 응답은 0.9%p(2017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향후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5.0%로 ‘반대한다’(3.3%)는 응답보다 71.7%p 높게 나타남.



[특성별 분석]

- 한-미군사동맹 강화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대별로 ‘50대’,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크기가 클수록,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n=24)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2-3-1>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군사동맹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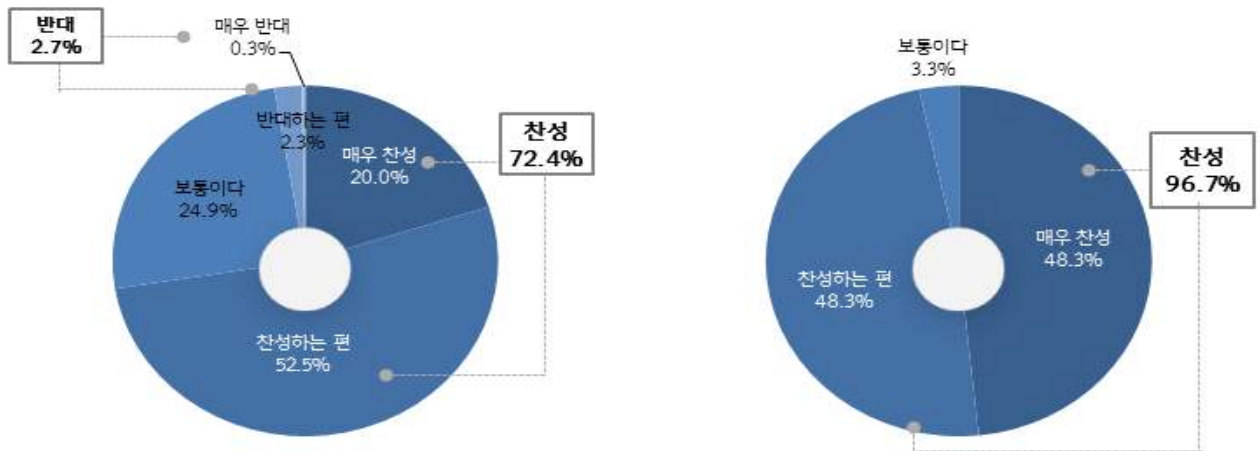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보통 이다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0	18.3	51.4	25.2	4.5	0.6	69.8	25.2	5.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7.3	52.3	25.3	4.6	0.6	69.5	25.3	5.2
	전문가	60	40.0	35.0	21.7	3.3	0.0	75.0	21.7	3.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23.7	51.4	20.0	4.0	0.9	75.1	20.0	4.9
	중	564	13.5	55.5	26.8	3.9	0.4	69.0	26.8	4.3
	하	210	14.3	45.2	32.4	7.6	0.5	59.5	32.4	8.1
성별	남성	720	20.1	50.7	24.9	3.9	0.4	70.8	24.9	4.3
	여성	480	12.9	54.6	26.0	5.6	0.8	67.5	26.0	6.5
연령별	20대 이하	299	14.4	54.2	26.8	4.7	0.0	68.6	26.8	4.7
	30대	273	17.9	50.2	26.4	4.4	1.1	68.1	26.4	5.5
	40대	316	15.5	52.8	26.6	4.4	0.6	68.4	26.6	5.1
	50대	312	21.2	51.6	21.8	4.8	0.6	72.8	21.8	5.4
지역별	서울	237	20.7	59.1	19.8	0.4	0.0	79.7	19.8	0.4
	경기/인천	389	18.8	56.0	22.1	2.8	0.3	74.8	22.1	3.1
	부산/울산/경남	183	6.0	49.7	33.3	10.9	0.0	55.7	33.3	10.9
	대구/경북	114	22.8	62.3	12.3	1.8	0.9	85.1	12.3	2.6
	광주/전라	114	8.8	21.9	51.8	13.2	4.4	30.7	51.8	17.5
	대전/충청/세종	128	21.9	53.9	20.3	3.9	0.0	75.8	20.3	3.9
지역크기	강원	35	28.6	37.1	31.4	2.9	0.0	65.7	31.4	2.9
	대도시	542	18.5	53.1	24.0	4.4	0.0	71.6	24.0	4.4
	중소도시	579	16.1	52.2	26.3	4.8	0.7	68.2	26.3	5.5
	읍/면	79	17.7	46.8	27.8	3.8	3.8	64.6	27.8	7.6
	농/어/임업	10	30.0	20.0	40.0	10.0	0.0	50.0	40.0	10.0
	자영업자	260	22.3	50.4	25.4	1.5	0.4	72.7	25.4	1.9
직업별	판매/서비스직	238	17.6	49.2	27.3	5.0	0.8	66.8	27.3	5.9
	사무/기술직	386	16.3	52.8	24.1	5.7	1.0	69.2	24.1	6.7
	전문/자유직	27	22.2	48.1	25.9	3.7	0.0	70.4	25.9	3.7
	전업주부	147	12.9	59.9	22.4	4.8	0.0	72.8	22.4	4.8
	학생	111	9.9	55.9	27.9	6.3	0.0	65.8	27.9	6.3
	무직/기타	21	23.8	47.6	23.8	4.8	0.0	71.4	23.8	4.8
	학력별	중졸이하	21	9.5	57.1	33.3	0.0	0.0	66.7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4.4	53.8	27.6	3.9	0.3	68.2	27.6	4.2
전문대(중퇴/졸업)		308	18.5	50.3	26.3	3.9	1.0	68.8	26.3	4.9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17.6	52.4	23.4	6.0	0.6	70.0	23.4	6.7
대학원 이상	24	45.8	45.8	8.3	0.0	0.0	91.7	8.3	0.0	
생활수준 별	상	110	20.0	51.8	21.8	4.5	1.8	71.8	21.8	6.4
	중	680	18.2	55.7	21.9	4.0	0.1	74.0	21.9	4.1
	하	410	14.9	46.6	32.0	5.6	1.0	61.5	32.0	6.6

3-2. 경제 분야 협력 강화

향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일반 국민 72.4%, 전문가 96.7%로 나타남.

- [일반국민] '향후 한-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2.4%로 '반대한다'(2.7%)는 응답보다 69.7%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찬성한다'(72.4%)는 응답은 2.4%p(2017년 70.0%) 증가하였고, '반대한다'(2.7%)는 응답은 1.9%p(2017년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향후 한-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96.7%로 나타남. (반대 : 0.0%)

<그림 2-3-2>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경제 분야 협력 강화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한·미 경제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반대한다’는 응답은 광주/전라, 중졸이하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3-2>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경제 분야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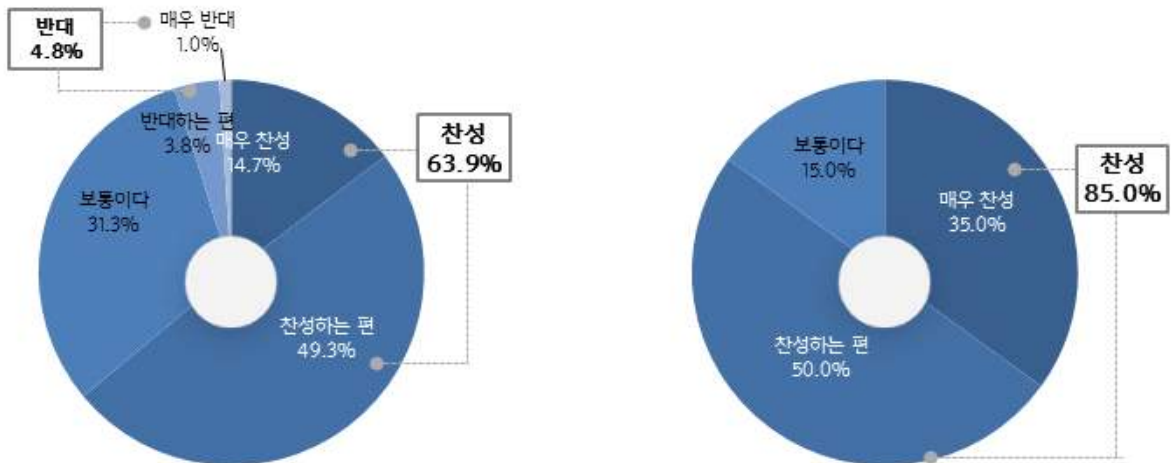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보통 이다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0	21.3	52.2	23.9	2.2	0.3	73.6	23.9	2.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0.0	52.4	24.9	2.3	0.3	72.4	24.9	2.7
	전문가	60	48.3	48.3	3.3	0.0	0.0	96.7	3.3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24.9	53.8	18.8	2.3	0.2	78.6	18.8	2.6
	중	564	16.3	52.1	28.7	2.3	0.5	68.4	28.7	2.8
	하	210	20.0	50.5	27.1	2.4	0.0	70.5	27.1	2.4
성별	남성	720	22.8	51.4	23.5	2.1	0.3	74.2	23.5	2.4
	여성	480	15.8	54.0	27.1	2.7	0.4	69.8	27.1	3.1
연령별	20대 이하	299	17.1	53.5	27.1	2.3	0.0	70.6	27.1	2.3
	30대	273	16.8	52.0	29.3	1.5	0.4	68.9	29.3	1.8
	40대	316	20.6	54.7	20.9	3.5	0.3	75.3	20.9	3.8
	50대	312	25.0	49.4	23.1	1.9	0.6	74.4	23.1	2.6
지역별	서울	237	16.0	52.3	28.7	3.0	0.0	68.4	28.7	3.0
	경기/인천	389	23.7	51.2	23.4	1.5	0.3	74.8	23.4	1.8
	부산/울산/경남	183	10.9	59.6	26.8	2.7	0.0	70.5	26.8	2.7
	대구/경북	114	23.7	57.0	19.3	0.0	0.0	80.7	19.3	0.0
	광주/전라	114	11.4	51.8	26.3	7.9	2.6	63.2	26.3	10.5
	대전/충청/세종 강원	128 35	30.5 31.4	43.0 51.4	25.8 17.1	0.8 0.0	0.0 0.0	73.4 82.9	25.8 17.1	0.8 0.0
지역크기	대도시	542	17.3	56.3	24.4	2.0	0.0	73.6	24.4	2.0
	중소도시	579	22.1	49.2	25.4	2.6	0.7	71.3	25.4	3.3
	읍/면	79	22.8	49.4	25.3	2.5	0.0	72.2	25.3	2.5
직업별	농/어/임업	10	60.0	30.0	10.0	0.0	0.0	90.0	10.0	0.0
	자영업자	260	24.6	49.6	22.7	2.7	0.4	74.2	22.7	3.1
	판매/서비스직	238	16.8	52.5	27.7	2.5	0.4	69.3	27.7	2.9
	사무/기술직	386	17.9	56.5	24.1	1.3	0.3	74.4	24.1	1.6
	전문/자유직	27	25.9	44.4	29.6	0.0	0.0	70.4	29.6	0.0
	전업주부	147	17.0	55.8	23.1	3.4	0.7	72.8	23.1	4.1
	학생	111	18.9	47.7	30.6	2.7	0.0	66.7	30.6	2.7
	무직/기타	21	38.1	33.3	19.0	9.5	0.0	71.4	19.0	9.5
학력별	중졸이하	21	0.0	71.4	14.3	9.5	4.8	71.4	14.3	14.3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8.9	53.0	26.0	1.8	0.3	71.9	26.0	2.1
	전문대(중퇴/졸업)	308	18.2	55.2	24.0	2.6	0.0	73.4	24.0	2.6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21.7	49.8	25.8	2.4	0.4	71.5	25.8	2.8
	대학원 이상	24	45.8	41.7	12.5	0.0	0.0	87.5	12.5	0.0
생활수준 별	상	110	20.0	54.5	24.5	0.9	0.0	74.5	24.5	0.9
	중	680	21.0	50.7	26.0	2.1	0.1	71.8	26.0	2.2
	하	410	18.3	54.6	23.2	3.2	0.7	72.9	23.2	3.9

3-3.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

향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사회 및 문화 분야의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63.9%, 전문가 85.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향후 한·미 사회 및 문화 분야의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3.9%로 '반대한다'(4.8%)는 응답보다 59.1%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찬성한다'(63.9%)는 응답은 2.3%p(2017년 66.2%), '반대한다'(4.8%)는 응답은 1.0%p(2017년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향후 한·미 사회 및 문화 분야의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5.0%로 나타남. (반대 : 0.0%)

<그림 2-3-3>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한·미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에 대해 의견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찬성’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반대’라는 응답은 광주/전라, 농/어/임업, 중졸이하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3-3>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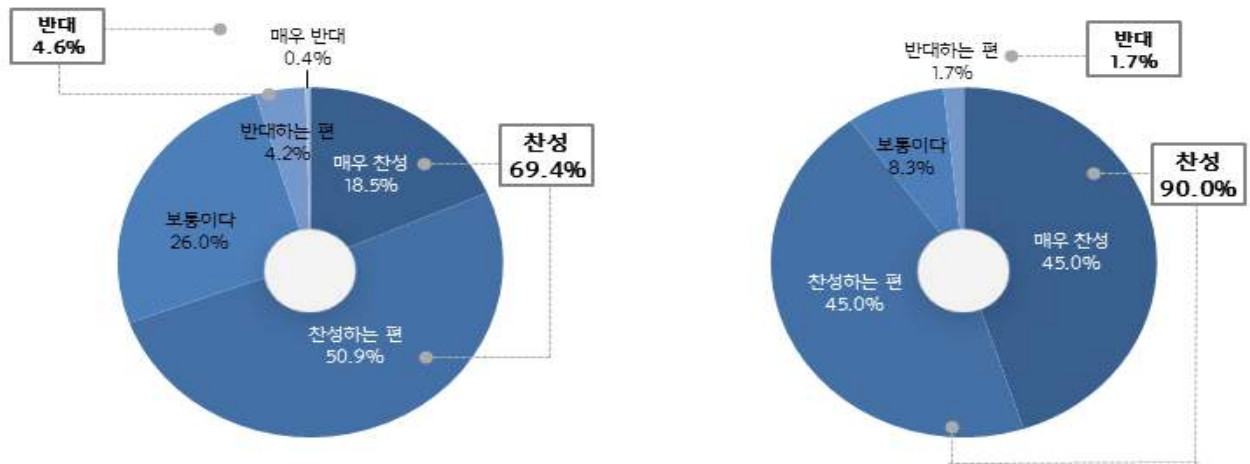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보통 이다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0	15.6	49.3	30.6	3.6	1.0	64.9	30.6	4.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4.7	49.3	31.3	3.8	1.0	63.9	31.3	4.8	
	전문가	60	35.0	50.0	15.0	0.0	0.0	85.0	15.0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20.0	44.8	28.9	4.9	1.4	64.8	28.9	6.3	
	중	564	11.5	52.8	31.6	3.4	0.7	64.4	31.6	4.1	
	하	210	12.4	48.6	35.7	2.4	1.0	61.0	35.7	3.3	
성별	남성	720	16.0	48.9	30.1	4.0	1.0	64.9	30.1	5.0	
	여성	480	12.7	49.8	33.1	3.3	1.0	62.5	33.1	4.4	
연령별	20대 이하	299	11.7	48.5	34.1	3.7	2.0	60.2	34.1	5.7	
	30대	273	16.1	48.7	28.9	5.1	1.1	64.8	28.9	6.2	
	40대	316	13.0	50.0	33.9	2.5	0.6	63.0	33.9	3.2	
	50대	312	17.9	49.7	28.2	3.8	0.3	67.6	28.2	4.2	
지역별	서울	237	16.0	48.9	31.2	3.8	0.0	65.0	31.2	3.8	
	경기/인천	389	15.4	48.1	31.4	4.9	0.3	63.5	31.4	5.1	
	부산/울산/경남	183	8.7	50.8	38.3	1.6	0.5	59.6	38.3	2.2	
	대구/경북	114	17.5	56.1	25.4	0.9	0.0	73.7	25.4	0.9	
	광주/전라	114	7.0	50.9	25.4	7.9	8.8	57.9	25.4	16.7	
	대전/충청/세종	128	19.5	48.4	28.9	3.1	0.0	68.0	28.9	3.1	
지역크기	강원	35	25.7	31.4	42.9	0.0	0.0	57.1	42.9	0.0	
	대도시	542	14.8	51.8	29.7	3.5	0.2	66.6	29.7	3.7	
	중소도시	579	15.0	45.8	33.5	4.3	1.4	60.8	33.5	5.7	
	읍/면	79	11.4	57.0	26.6	1.3	3.8	68.4	26.6	5.1	
	직업별	농/어/임업	10	20.0	60.0	10.0	0.0	10.0	80.0	10.0	10.0
		자영업자	260	16.5	47.7	33.5	1.9	0.4	64.2	33.5	2.3
판매/서비스직		238	17.2	48.3	29.0	5.0	0.4	65.5	29.0	5.5	
사무/기술직		386	12.2	52.8	28.8	4.7	1.6	65.0	28.8	6.2	
전문/자유직		27	11.1	48.1	40.7	0.0	0.0	59.3	40.7	0.0	
전업주부		147	15.6	46.3	33.3	4.1	0.7	61.9	33.3	4.8	
학생		111	10.8	45.0	38.7	3.6	1.8	55.9	38.7	5.4	
무직/기타		21	23.8	52.4	23.8	0.0	0.0	76.2	23.8	0.0	
학력별	중졸이하	21	14.3	33.3	38.1	9.5	4.8	47.6	38.1	14.3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5.2	50.4	31.0	2.9	0.5	65.6	31.0	3.4	
	전문대(중퇴/졸업)	308	10.4	51.3	32.1	5.5	0.6	61.7	32.1	6.2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16.3	47.4	31.5	3.2	1.5	63.7	31.5	4.7	
	대학원 이상	24	29.2	54.2	16.7	0.0	0.0	83.3	16.7	0.0	
생활수준 별	상	110	20.0	43.6	30.9	3.6	1.8	63.6	30.9	5.5	
	중	680	14.4	51.2	30.0	4.0	0.4	65.6	30.0	4.4	
	하	410	13.7	47.6	33.7	3.4	1.7	61.2	33.7	5.1	

3-4.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

향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세계 문제에 함께 대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69.4%, 전문가 9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향후 한미가 세계 문제에 함께 대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9.4%로 '반대한다'(4.6%)는 응답보다 64.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찬성한다'(69.4%)는 응답은 4.9%p(2017년 74.3%), '반대한다'는 응답(4.6%)은 1.0%p(2017년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향후 한미가 세계 문제에 함께 대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90.0%로 '반대한다'(1.7%) 보다 88.3%p 높게 나타남.

<그림 2-3-4>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한미가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하자는 의견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찬성’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반대’라는 응답은 광주/전라, 농/어/임업/, 읍/면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3-4>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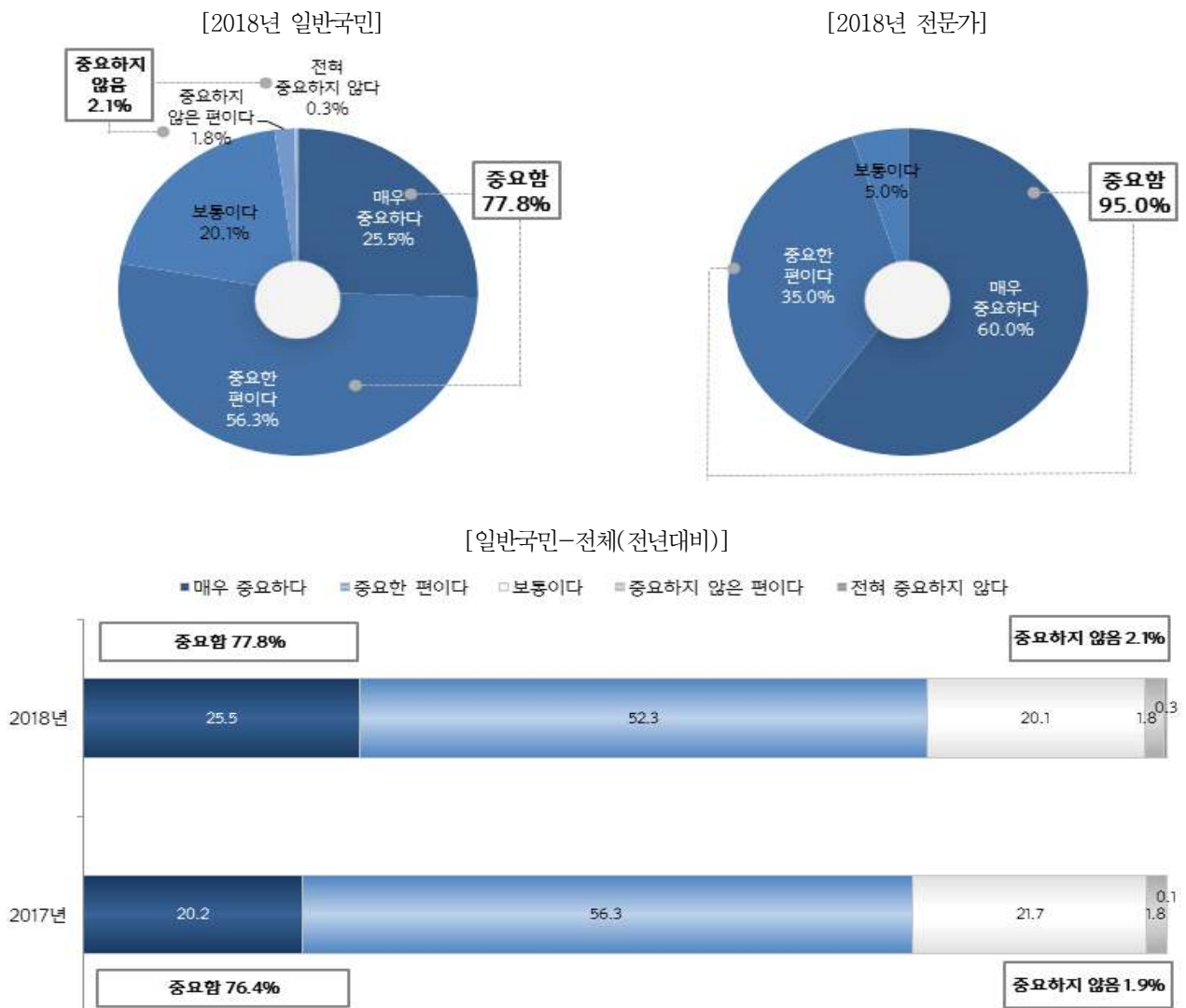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보통 이다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0	19.8	50.6	25.2	4.0	0.4	70.4	25.2	4.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8.5	50.9	26.0	4.2	0.4	69.4	26.0	4.6	
	전문가	60	45.0	45.0	8.3	1.7	0.0	90.0	8.3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21.4	51.2	22.5	3.8	1.2	72.5	22.5	4.9	
	중	564	15.4	52.7	28.0	3.9	0.0	68.1	28.0	3.9	
	하	210	21.0	45.7	27.6	5.7	0.0	66.7	27.6	5.7	
성별	남성	720	18.5	50.8	25.4	4.7	0.6	69.3	25.4	5.3	
	여성	480	18.5	51.0	26.9	3.3	0.2	69.6	26.9	3.5	
연령별	20대 이하	299	18.1	47.8	29.1	4.7	0.3	65.9	29.1	5.0	
	30대	273	18.3	50.2	25.3	5.5	0.7	68.5	25.3	6.2	
	40대	316	18.7	52.8	25.6	2.2	0.6	71.5	25.6	2.8	
	50대	312	18.9	52.6	24.0	4.5	0.0	71.5	24.0	4.5	
지역별	서울	237	22.8	46.4	28.7	2.1	0.0	69.2	28.7	2.1	
	경기/인천	389	19.8	46.3	29.6	4.4	0.0	66.1	29.6	4.4	
	부산/울산/경남	183	12.0	55.2	27.9	4.9	0.0	67.2	27.9	4.9	
	대구/경북	114	23.7	62.3	14.0	0.0	0.0	86.0	14.0	0.0	
	광주/전라	114	9.6	51.8	19.3	14.9	4.4	61.4	19.3	19.3	
	대전/충청/세종	128	16.4	58.6	23.4	1.6	0.0	75.0	23.4	1.6	
지역크기	강원	35	28.6	42.9	28.6	0.0	0.0	71.4	28.6	0.0	
	대도시	542	18.1	52.6	26.4	3.0	0.0	70.7	26.4	3.0	
	중소도시	579	19.3	48.5	26.8	4.7	0.7	67.9	26.8	5.4	
	읍/면	79	15.2	57.0	17.7	8.9	1.3	72.2	17.7	10.1	
	직업별	농/어/임업	10	30.0	40.0	10.0	20.0	0.0	70.0	10.0	20.0
		자영업자	260	18.8	55.0	24.2	1.9	0.0	73.8	24.2	1.9
판매/서비스직		238	16.8	48.3	29.0	5.9	0.0	65.1	29.0	5.9	
사무/기술직		386	16.1	52.8	25.6	4.1	1.3	68.9	25.6	5.4	
전문/자유직		27	25.9	48.1	25.9	0.0	0.0	74.1	25.9	0.0	
전업주부		147	21.1	50.3	25.2	3.4	0.0	71.4	25.2	3.4	
학생		111	19.8	48.6	25.2	6.3	0.0	68.5	25.2	6.3	
무직/기타		21	38.1	19.0	38.1	4.8	0.0	57.1	38.1	4.8	
학력별	중졸이하	21	4.8	52.4	33.3	9.5	0.0	57.1	33.3	9.5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8.4	50.1	27.3	4.2	0.0	68.5	27.3	4.2	
	전문대(중퇴/졸업)	308	14.3	52.3	29.5	3.2	0.6	66.6	29.5	3.9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21.0	50.4	23.2	4.7	0.6	71.5	23.2	5.4	
대학원 이상	24	37.5	54.2	8.3	0.0	0.0	91.7	8.3	0.0		
생활수준 별	상	110	23.6	47.3	20.9	8.2	0.0	70.9	20.9	8.2	
	중	680	18.2	51.8	26.3	3.5	0.1	70.0	26.3	3.7	
	하	410	17.6	50.5	26.8	4.1	1.0	68.0	26.8	5.1	

4.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77.8%, 전문가 95.0%로 나타남.

- [일반국민]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이 77.8%로 ‘중요하지 않다’(2.1%)는 응답보다 75.7%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중요하다’(77.8%)는 응답은 1.4%p(2017년 76.4%), ‘중요하지 않다’(2.1%)는 응답은 0.2%p(2017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이 9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중요하지 않다 : 0.0%)

<그림 2-4>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



[특성별 분석]

-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중요하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 별로 ‘상’, 성별로 ‘남성’, 연령대별로 50대, 지역별로 ‘대구/경북’,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n=24)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2-4>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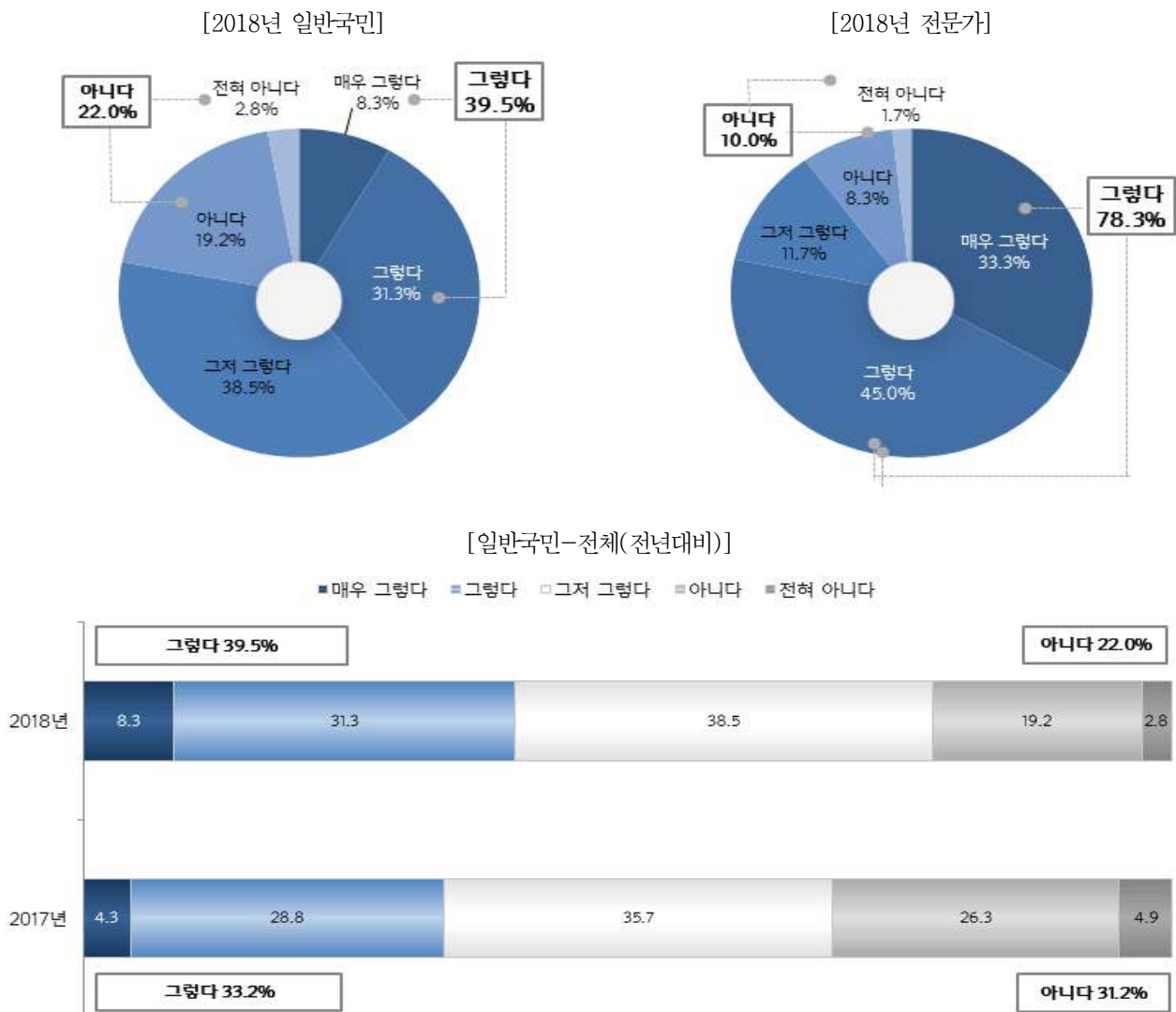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종합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체		1,260	27.1	51.5	19.4	1.7	0.2	78.7	19.4	2.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5.5	52.3	20.1	1.8	0.3	77.8	20.1	2.1
	전문가	60	60.0	35.0	5.0	0.0	0.0	95.0	5.0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33.1	50.2	15.5	0.7	0.5	83.3	15.5	1.2
	중	564	23.0	51.2	23.9	1.6	0.2	74.3	23.9	1.8
	하	210	16.7	59.5	19.0	4.8	0.0	76.2	19.0	4.8
성별	남성	720	28.8	50.1	19.0	1.8	0.3	78.9	19.0	2.1
	여성	480	20.6	55.6	21.7	1.9	0.2	76.3	21.7	2.1
연령별	20대 이하	299	20.7	54.8	22.4	2.0	0.0	75.6	22.4	2.0
	30대	273	24.2	51.3	22.3	1.8	0.4	75.5	22.3	2.2
	40대	316	26.3	52.5	18.4	2.2	0.6	78.8	18.4	2.8
	50대	312	30.4	50.6	17.6	1.3	0.0	81.1	17.6	1.3
지역별	서울	237	27.0	56.1	16.0	0.8	0.0	83.1	16.0	0.8
	경기/인천	389	26.5	49.9	21.9	1.0	0.8	76.3	21.9	1.8
	부산/울산/경남	183	21.9	48.6	24.0	5.5	0.0	70.5	24.0	5.5
	대구/경북	114	41.2	49.1	8.8	0.9	0.0	90.4	8.8	0.9
	광주/전라	114	13.2	60.5	24.6	1.8	0.0	73.7	24.6	1.8
	대전/충청/세종	128	20.3	53.9	23.4	2.3	0.0	74.2	23.4	2.3
	강원	35	31.4	51.4	17.1	0.0	0.0	82.9	17.1	0.0
지역크기	대도시	542	29.0	54.1	15.9	1.1	0.0	83.0	15.9	1.1
	중소도시	579	21.9	50.4	24.5	2.6	0.5	72.4	24.5	3.1
	읍/면	79	27.8	54.4	16.5	1.3	0.0	82.3	16.5	1.3
직업별	농/어/임업	10	30.0	60.0	10.0	0.0	0.0	90.0	10.0	0.0
	자영업자	260	27.7	55.8	15.0	1.2	0.4	83.5	15.0	1.5
	판매/서비스직	238	21.0	56.7	21.0	1.3	0.0	77.7	21.0	1.3
	사무/기술직	386	27.2	49.0	20.5	2.8	0.5	76.2	20.5	3.4
	전문/자유직	27	37.0	37.0	25.9	0.0	0.0	74.1	25.9	0.0
	전업주부	147	24.5	49.7	24.5	1.4	0.0	74.1	24.5	1.4
	학생	111	20.7	56.8	19.8	2.7	0.0	77.5	19.8	2.7
	무직/기타	21	33.3	33.3	33.3	0.0	0.0	66.7	33.3	0.0
학력별	중졸이하	21	38.1	38.1	23.8	0.0	0.0	76.2	23.8	0.0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9.9	54.1	22.8	3.1	0.0	74.0	22.8	3.1
	전문대(중퇴/졸업)	308	26.9	52.6	19.8	0.6	0.0	79.5	19.8	0.6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26.2	52.6	18.9	1.7	0.6	78.8	18.9	2.4
	대학원 이상	24	70.8	29.2	0.0	0.0	0.0	100.0	0.0	0.0
생활수준 별	상	110	37.3	39.1	22.7	0.9	0.0	76.4	22.7	0.9
	중	680	26.0	51.3	21.5	0.9	0.3	77.4	21.5	1.2
	하	410	21.5	57.6	17.1	3.7	0.2	79.0	17.1	3.9

5.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주한미군으로 인해 안보비용이 절약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39.5%, 전문가 78.3%로 전문가에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주한미군으로 인해 안보비용이 절약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39.5%로 ‘아니다’(22.0%)는 응답보다 17.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그렇다’(39.5%)는 응답은 6.3%p(2017년 33.2%) 증가하였고, ‘아니다’(22.0%)는 응답은 9.2%p(2017년 3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주한미군으로 인해 안보비용이 절약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78.3%로 ‘아니다’(10.0%)는 응답보다 68.3%p 높게 나타남.

<그림 2-5>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특성별 분석]

- ‘주한미군으로 인해 안보비용이 절약된다’는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로 ‘상’, 성별로 ‘남성’, 직업별로 ‘전문/자유직(n=27)’,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2-5>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종합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전체		1,260	9.4	31.9	37.2	18.7	2.8	41.3	37.2	21.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8.3	31.3	38.5	19.2	2.8	39.5	38.5	22.0
	전문가	60	33.3	45.0	11.7	8.3	1.7	78.3	11.7	1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11.0	34.3	33.1	18.3	3.3	45.3	33.1	21.6
	중	564	6.9	29.3	42.4	18.6	2.8	36.2	42.4	21.5
	하	210	6.2	30.5	39.0	22.4	1.9	36.7	39.0	24.3
성별	남성	720	10.8	31.8	35.4	19.3	2.6	42.6	35.4	21.9
	여성	480	4.4	30.4	43.1	19.0	3.1	34.8	43.1	22.1
연령별	20대 이하	299	10.4	28.1	37.8	21.7	2.0	38.5	37.8	23.7
	30대	273	8.4	28.9	41.0	18.3	3.3	37.4	41.0	21.6
	40대	316	6.3	33.5	37.3	19.6	3.2	39.9	37.3	22.8
	50대	312	8.0	34.0	38.1	17.0	2.9	42.0	38.1	19.9
지역별	서울	237	9.7	34.2	40.1	14.3	1.7	43.9	40.1	16.0
	경기/인천	389	8.5	33.2	39.3	16.2	2.8	41.6	39.3	19.0
	부산/울산/경남	183	4.9	33.9	44.8	16.4	0.0	38.8	44.8	16.4
	대구/경북	114	4.4	37.7	41.2	14.0	2.6	42.1	41.2	16.7
	광주/전라	114	14.0	14.9	20.2	41.2	9.6	28.9	20.2	50.9
	대전/충청/세종	128	5.5	27.3	38.3	25.8	3.1	32.8	38.3	28.9
지역크기	강원	35	17.1	22.9	37.1	20.0	2.9	40.0	37.1	22.9
	대도시	542	6.1	31.4	40.2	19.7	2.6	37.5	40.2	22.3
	중소도시	579	9.7	32.3	38.0	17.4	2.6	42.0	38.0	20.0
직업별	읍/면	79	12.7	22.8	30.4	27.8	6.3	35.4	30.4	34.2
	농/어/임업	10	10.0	10.0	40.0	30.0	10.0	20.0	40.0	40.0
	자영업자	260	8.5	23.1	42.3	23.1	3.1	31.5	42.3	26.2
	판매/서비스직	238	7.1	37.0	39.5	13.4	2.9	44.1	39.5	16.4
	사무/기술직	386	9.1	32.1	37.6	18.4	2.8	41.2	37.6	21.2
	전문/자유직	27	22.2	25.9	25.9	18.5	7.4	48.1	25.9	25.9
	전업주부	147	4.8	36.1	38.1	19.7	1.4	40.8	38.1	21.1
	학생	111	9.0	32.4	36.0	20.7	1.8	41.4	36.0	22.5
학력별	무직/기타	21	4.8	28.6	28.6	33.3	4.8	33.3	28.6	38.1
	중졸이하	21	4.8	38.1	42.9	14.3	0.0	42.9	42.9	14.3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5.8	29.9	45.1	17.1	2.1	35.7	45.1	19.2
	전문대(중퇴/졸업)	308	7.5	33.4	39.3	17.5	2.3	40.9	39.3	19.8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9.7	31.1	33.0	22.3	3.9	40.8	33.0	26.2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33.3	20.8	25.0	16.7	4.2	54.2	25.0	20.8
	상	110	13.6	42.7	30.0	13.6	0.0	56.4	30.0	13.6
	중	680	8.4	29.9	40.9	18.1	2.8	38.2	40.9	20.9
하	410	6.6	30.5	36.8	22.4	3.7	37.1	36.8	26.1	

6.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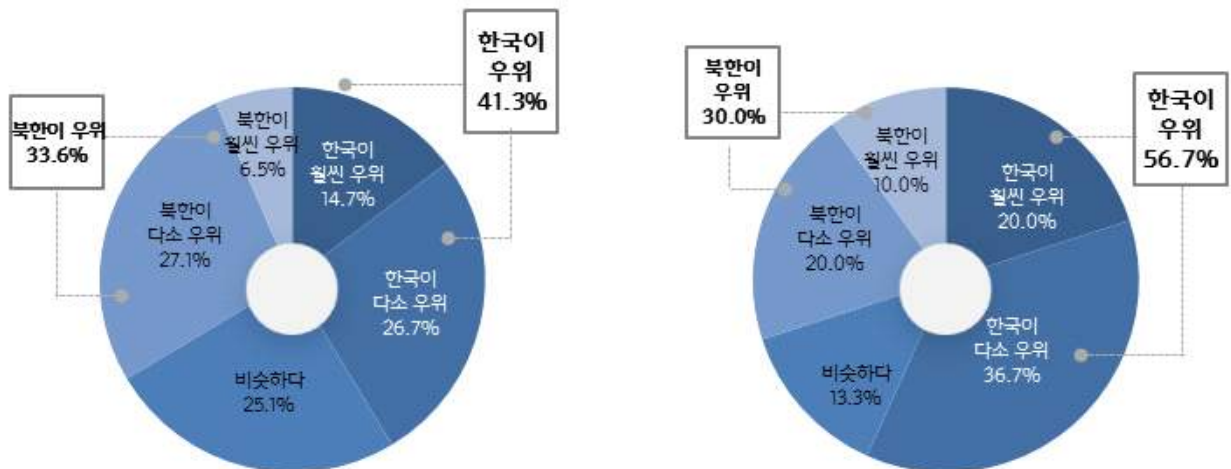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우위’라는 응답은 일반국민 41.3%, 전문가 56.7%로 나타남.

- [일반국민]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우위’라는 응답이 41.3%로 ‘북한우위’(33.6%)라는 응답보다 7.7%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한국우위’(41.3%)라는 응답은 9.7%p(2017년 31.6%) 증가하였고, ‘북한우위’(33.6%)라는 응답은 11.5%p(2017년 4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우위’라는 응답이 56.7%로 ‘북한우위’(30.0%)라는 응답보다 26.7%p 높게 나타남.

<그림 2-6>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한국우위’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서울’, ‘경기/인천’,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n=24),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2-6>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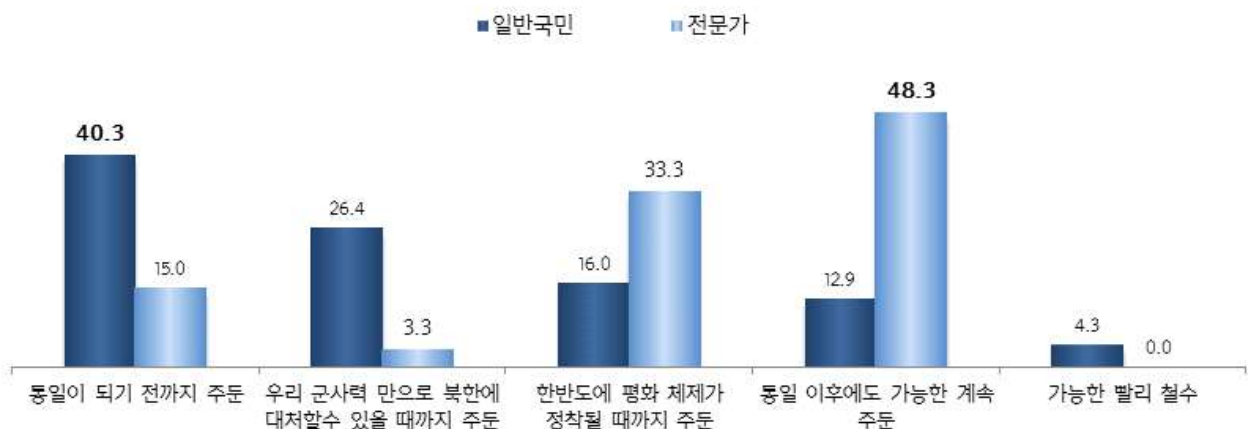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한국이 훨씬 우위	한국이 다소 우위	비슷 하다	북한이 다소 우위	북한이 훨씬 우위	종합		
								한국이 우위	비슷	북한이 우위
전체		1,260	14.9	27.1	24.5	26.7	6.7	42.1	24.5	33.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4.7	26.7	25.1	27.1	6.5	41.3	25.1	33.6
	전문가	60	20.0	36.7	13.3	20.0	10.0	56.7	13.3	3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21.6	27.9	22.5	18.1	9.9	49.5	22.5	27.9
	중	564	10.8	29.4	28.7	27.5	3.5	40.2	28.7	31.0
	하	210	11.0	16.7	20.5	44.3	7.6	27.6	20.5	51.9
성별	남성	720	16.3	26.8	24.3	25.6	7.1	43.1	24.3	32.6
	여성	480	12.3	26.5	26.3	29.4	5.6	38.8	26.3	35.0
연령별	20대 이하	299	16.1	24.7	27.8	24.7	6.7	40.8	27.8	31.4
	30대	273	15.4	28.6	23.8	26.0	6.2	44.0	23.8	32.2
	40대	316	14.6	25.3	23.7	31.6	4.7	39.9	23.7	36.4
	50대	312	12.8	28.2	25.0	25.6	8.3	41.0	25.0	34.0
지역별	서울	237	15.2	41.4	17.7	19.0	6.8	56.5	17.7	25.7
	경기/인천	389	25.2	30.1	21.1	18.3	5.4	55.3	21.1	23.7
	부산/울산/경남	183	4.4	14.8	30.6	45.9	4.4	19.1	30.6	50.3
	대구/경북	114	7.0	23.7	25.4	36.0	7.9	30.7	25.4	43.9
	광주/전라	114	14.9	16.7	26.3	26.3	15.8	31.6	26.3	42.1
	대전/충청/세종	128	1.6	18.8	42.2	34.4	3.1	20.3	42.2	37.5
지역크기	강원	35	20.0	22.9	22.9	28.6	5.7	42.9	22.9	34.3
	대도시	542	12.2	30.3	24.2	26.2	7.2	42.4	24.2	33.4
	중소도시	579	17.8	25.0	23.3	28.0	5.9	42.8	23.3	33.9
직업별	읍/면	79	8.9	13.9	44.3	26.6	6.3	22.8	44.3	32.9
	농/어/임업	10	0.0	30.0	30.0	30.0	10.0	30.0	30.0	40.0
	자영업자	260	12.3	28.8	25.8	25.8	7.3	41.2	25.8	33.1
	판매/서비스직	238	16.8	26.9	25.2	23.9	7.1	43.7	25.2	31.1
	사무/기술직	386	14.8	23.3	26.9	28.0	7.0	38.1	26.9	35.0
	전문/자유직	27	18.5	37.0	11.1	29.6	3.7	55.6	11.1	33.3
	전업주부	147	16.3	27.9	20.4	29.3	6.1	44.2	20.4	35.4
	학생	111	14.4	28.8	25.2	28.8	2.7	43.2	25.2	31.5
학력별	무직/기타	21	9.5	23.8	28.6	33.3	4.8	33.3	28.6	38.1
	중졸이하	21	14.3	19.0	38.1	19.0	9.5	33.3	38.1	28.6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0.2	23.6	24.7	34.6	6.8	33.9	24.7	41.5
	전문대(중퇴/졸업)	308	13.3	36.4	23.4	21.4	5.5	49.7	23.4	26.9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18.5	22.5	26.8	25.3	6.9	41.0	26.8	32.2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29.2	37.5	8.3	20.8	4.2	66.7	8.3	25.0
	상	110	27.3	31.8	22.7	14.5	3.6	59.1	22.7	18.2
	중	680	15.3	29.6	25.0	25.1	5.0	44.9	25.0	30.1
하	410	10.2	20.5	25.9	33.7	9.8	30.7	25.9	43.4	

7. 주한미군 주둔시기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일반국민은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40.3%), 전문가는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해야 한다’(48.3%)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견에 대해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2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40.3%)는 응답이 6.7%p(2017년 33.6%) 증가하였고,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26.4%)는 응답이 9.3%p(2017년 3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견에 대해 ‘통일이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해야 한다’가 4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33.3%),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7> 주한미군의 주둔시기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해야한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지역크기가 클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2-7> 주한미군 주둔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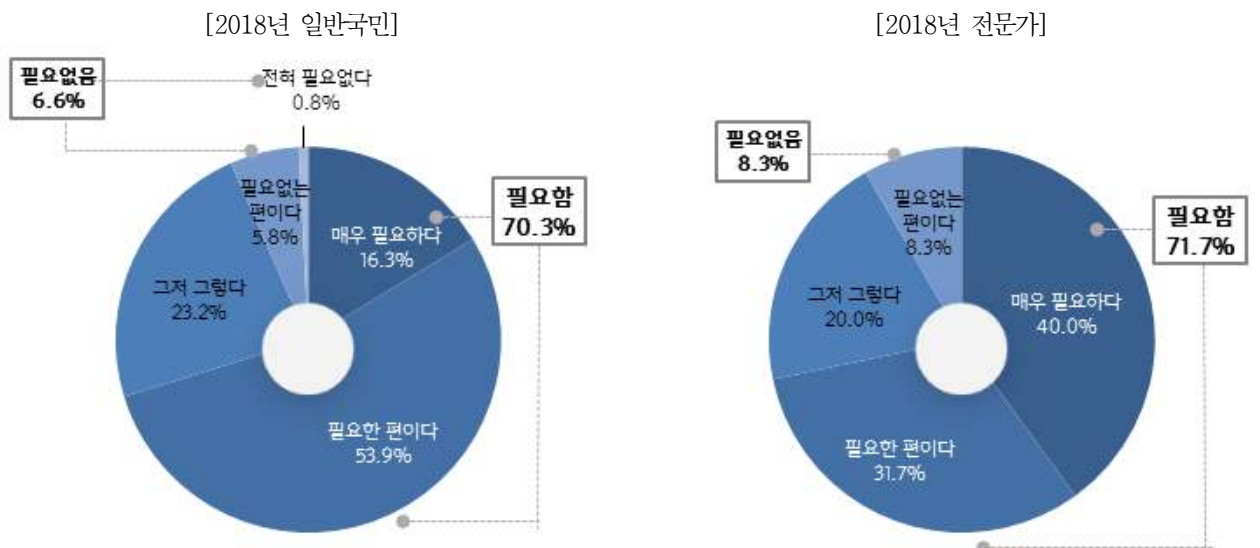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	우리의 군사력 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	가능한 빨리 철수
전체		1,260	39.1	25.3	16.8	14.6	4.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0.3	26.4	16.0	12.9	4.3
	전문가	60	15.0	3.3	33.3	48.3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40.6	23.2	13.6	16.4	6.1
	중	564	42.9	27.3	16.3	9.9	3.5
	하	210	32.9	30.5	20.0	13.8	2.9
성별	남성	720	40.4	24.6	15.6	14.6	4.9
	여성	480	40.2	29.2	16.7	10.4	3.5
연령별	20대 이하	299	37.8	29.4	16.1	12.4	4.3
	30대	273	42.5	26.0	14.7	12.1	4.8
	40대	316	40.2	24.1	14.9	15.5	5.4
	50대	312	41.0	26.3	18.3	11.5	2.9
지역별	서울	237	42.2	23.2	16.0	16.0	2.5
	경기/인천	389	41.1	23.4	17.2	15.7	2.6
	부산/울산/경남	183	39.9	33.3	22.4	1.6	2.7
	대구/경북	114	44.7	19.3	12.3	22.8	0.9
	광주/전라	114	27.2	34.2	11.4	2.6	24.6
	대전/충청/세종 강원	128 35	47.7 22.9	27.3 40.0	7.8 25.7	15.6 11.4	1.6 0.0
지역크기	대도시	542	43.0	26.0	14.8	11.6	4.6
	중소도시	579	38.2	26.9	17.4	14.3	3.1
	읍/면	79	38.0	25.3	13.9	11.4	11.4
직업별	농/어/임업	10	40.0	20.0	20.0	20.0	0.0
	자영업자	260	38.1	27.7	12.3	15.4	6.5
	판매/서비스직	238	42.9	26.5	13.9	12.2	4.6
	사무/기술직	386	38.1	29.5	17.1	11.1	4.1
	전문/자유직	27	33.3	3.7	33.3	25.9	3.7
	전업주부	147	46.9	21.8	14.3	14.3	2.7
	학생	111	39.6	26.1	23.4	8.1	2.7
	무직/기타	21	47.6	19.0	14.3	19.0	0.0
학력별	중졸이하	21	33.3	28.6	9.5	28.6	0.0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40.4	29.4	14.7	12.3	3.1
	전문대(중퇴/졸업)	308	45.1	24.0	14.9	11.7	4.2
	4년제대학(중퇴/졸업)	466	37.6	26.6	18.0	12.2	5.6
	대학원 이상	24	37.5	4.2	16.7	37.5	4.2
생활수준 별	상	110	46.4	18.2	14.5	17.3	3.6
	중	680	43.1	25.7	13.7	13.4	4.1
	하	410	34.1	29.8	20.2	11.0	4.9

8.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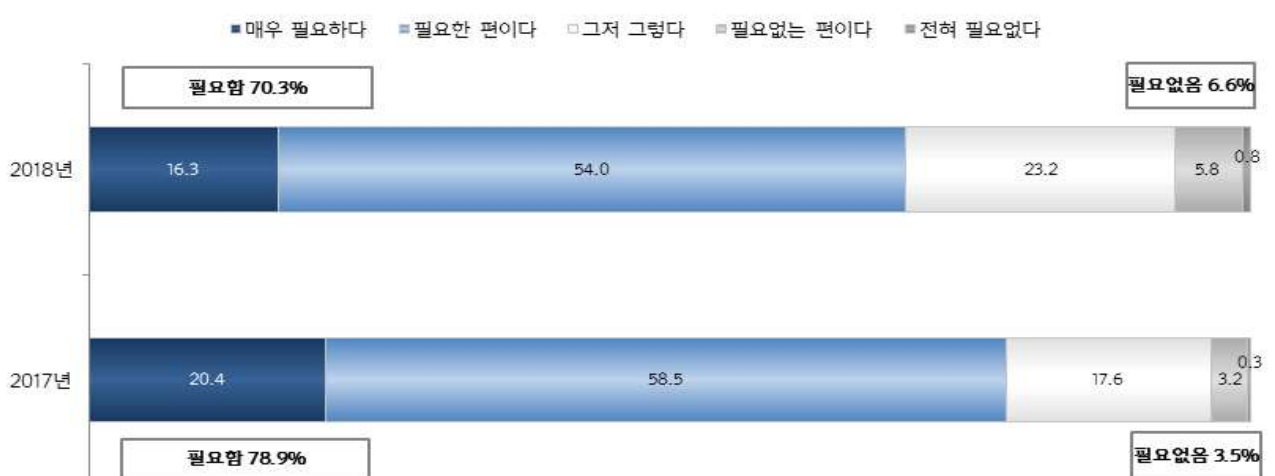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70.3%, 전문가 71.7%로 나타남.

- [일반국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3%로 '필요없다'(6.6%)는 응답보다 63.7%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필요하다'(70.3%)는 응답은 8.6%p(2017년 78.9%) 감소하였고, '필요없다'(6.6%)는 응답은 3.1%p(2017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1.7%로 '필요없다'(8.3%)는 응답보다 63.4%p 높게 나타남.

<그림 2-8>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한·미 연합 훈련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로 ‘상’, 성별로 ‘여성’, 지역별로 ‘대구/경북’, 학력별로 중졸이하(n=21)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2-8>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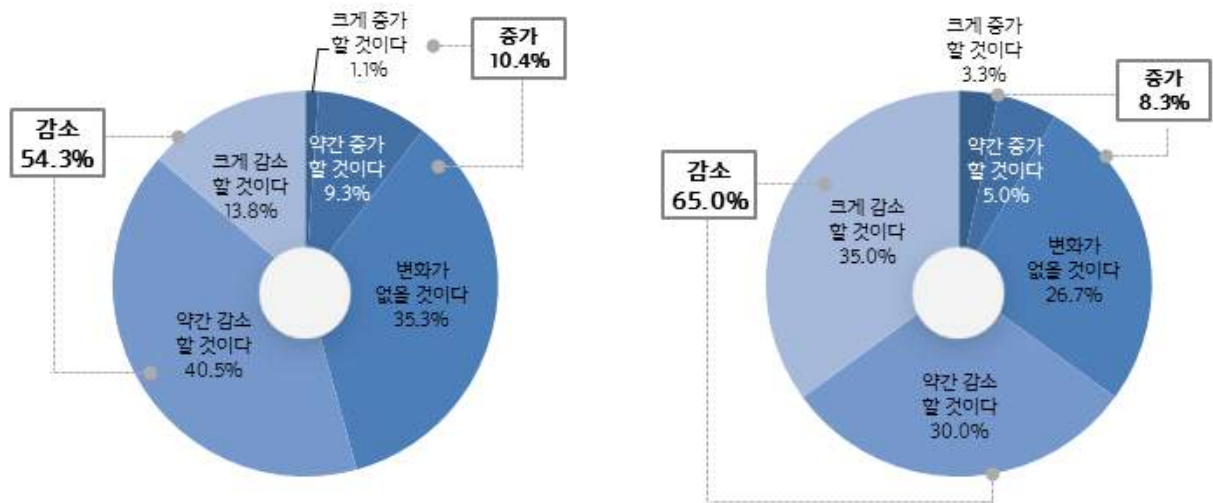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필요없는 편이다	전혀 필요없다	종합		
								필요함	그저 그렇다	필요없음
전체		1,260	17.4	52.9	23.0	6.0	0.7	70.3	23.0	6.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6.3	54.0	23.2	5.8	0.8	70.3	23.2	6.6
	전문가	60	40.0	31.7	20.0	8.3	0.0	71.7	20.0	8.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21.8	50.5	21.6	5.2	0.9	72.3	21.6	6.1
	중	564	12.4	56.4	24.5	6.0	0.7	68.8	24.5	6.7
	하	210	15.2	54.8	22.9	6.7	0.5	70.0	22.9	7.1
성별	남성	720	18.9	50.0	23.3	7.1	0.7	68.9	23.3	7.8
	여성	480	12.3	60.0	22.9	4.0	0.8	72.3	22.9	4.8
연령별	20대 이하	299	15.7	55.5	21.7	7.0	0.0	71.2	21.7	7.0
	30대	273	14.7	56.4	21.2	6.6	1.1	71.1	21.2	7.7
	40대	316	14.9	52.5	27.2	3.8	1.6	67.4	27.2	5.4
	50대	312	19.6	51.9	22.1	6.1	0.3	71.5	22.1	6.4
지역별	서울	237	16.5	53.6	26.2	3.0	0.8	70.0	26.2	3.8
	경기/인천	389	16.5	56.0	22.1	4.4	1.0	72.5	22.1	5.4
	부산/울산/경남	183	17.5	47.5	24.6	10.4	0.0	65.0	24.6	10.4
	대구/경북	114	21.9	59.6	13.2	4.4	0.9	81.6	13.2	5.3
	광주/전라	114	3.5	54.4	25.4	14.9	1.8	57.9	25.4	16.7
	대전/충청/세종	128	14.8	56.3	25.0	3.9	0.0	71.1	25.0	3.9
지역크기	강원	35	34.3	40.0	25.7	0.0	0.0	74.3	25.7	0.0
	대도시	542	18.3	54.4	21.8	4.8	0.7	72.7	21.8	5.5
	중소도시	579	14.7	52.8	24.7	6.9	0.9	67.5	24.7	7.8
	읍/면	79	13.9	59.5	21.5	5.1	0.0	73.4	21.5	5.1
	농/어/임업	10	10.0	50.0	30.0	10.0	0.0	60.0	30.0	10.0
	자영업자	260	18.5	48.8	25.8	5.8	1.2	67.3	25.8	6.9
직업별	판매/서비스직	238	16.4	51.7	26.9	5.0	0.0	68.1	26.9	5.0
	사무/기술직	386	14.2	57.0	21.2	6.5	1.0	71.2	21.2	7.5
	전문/자유직	27	25.9	51.9	18.5	0.0	3.7	77.8	18.5	3.7
	전업주부	147	16.3	57.8	19.0	6.1	0.7	74.1	19.0	6.8
	학생	111	16.2	55.0	23.4	5.4	0.0	71.2	23.4	5.4
	무직/기타	21	14.3	61.9	14.3	9.5	0.0	76.2	14.3	9.5
	중졸이하	21	19.0	61.9	9.5	9.5	0.0	81.0	9.5	9.5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5.2	51.4	26.8	6.6	0.0	66.7	26.8	6.6
학력별	전문대(중퇴/졸업)	308	16.6	56.5	21.8	4.9	0.3	73.1	21.8	5.2
	4년제대학(중퇴/졸업)	466	15.5	55.4	21.9	5.8	1.5	70.8	21.9	7.3
	대학원 이상	24	41.7	29.2	20.8	4.2	4.2	70.8	20.8	8.3
	대학원 이상	24	41.7	29.2	20.8	4.2	4.2	70.8	20.8	8.3
생활수준 별	상	110	18.2	52.7	23.6	5.5	0.0	70.9	23.6	5.5
	중	680	19.1	50.7	23.2	5.7	1.2	69.9	23.2	6.9
	하	410	11.0	59.8	22.9	6.1	0.2	70.7	22.9	6.3

9.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이 '감소할 것이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54.3%, 전문가 65.0%로 나타남.

- [일반국민]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이 '감소할 것이다'는 응답이 54.3%로 '증가할 것이다'(10.4%)는 응답보다 43.9%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감소할 것이다(54.3%)는 응답은 1.8%p(2017년 56.1%), '증가할 것이다(10.4%)는 응답은 8.1%p(2017년 1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이 '감소할 것이다'는 응답이 65.0%로 '증가할 것이다'(8.3%)는 응답보다 56.7%p 높게 나타남.

<그림 2-9>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로 ‘하’, 지역별로 ‘대구/경북’,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n=24),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2-9>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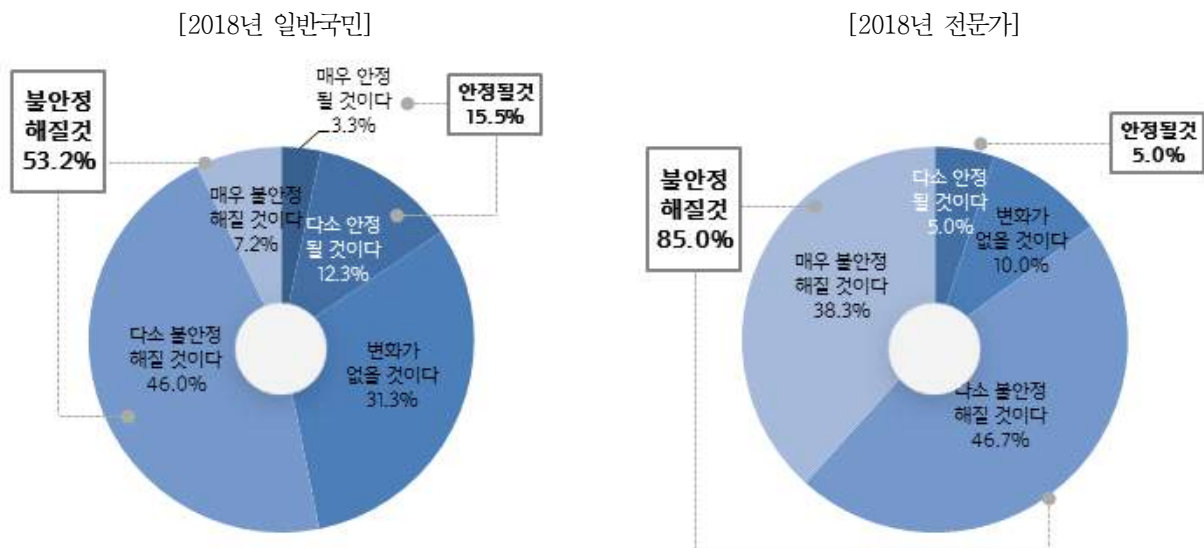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크게 증가할 것이다	약간 증가할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약간 감소할 것이다	크게 감소할 것이다	종합		
								증가	변화없음	감소
전체		1,260	1.2	9.1	34.8	40.0	14.8	10.3	34.8	54.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1	9.3	35.3	40.5	13.8	10.4	35.3	54.3
	전문가	60	3.3	5.0	26.7	30.0	35.0	8.3	26.7	6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1.2	6.8	38.3	37.6	16.2	8.0	38.3	53.8
	중	564	0.7	11.3	36.3	39.7	11.9	12.1	36.3	51.6
	하	210	1.9	9.0	26.2	48.6	14.3	11.0	26.2	62.9
성별	남성	720	1.1	9.9	35.7	38.3	15.0	11.0	35.7	53.3
	여성	480	1.0	8.5	34.6	43.8	12.1	9.6	34.6	55.8
연령별	20대 이하	299	0.7	10.4	37.5	38.1	13.4	11.0	37.5	51.5
	30대	273	0.4	8.8	34.4	42.9	13.6	9.2	34.4	56.4
	40대	316	0.9	9.2	34.8	40.5	14.6	10.1	34.8	55.1
	50대	312	2.2	9.0	34.3	40.7	13.8	11.2	34.3	54.5
지역별	서울	237	2.5	9.7	33.3	40.1	14.3	12.2	33.3	54.4
	경기/인천	389	0.8	5.7	36.2	42.7	14.7	6.4	36.2	57.3
	부산/울산/경남	183	0.5	25.1	26.8	41.0	6.6	25.7	26.8	47.5
	대구/경북	114	0.9	6.1	21.9	57.0	14.0	7.0	21.9	71.1
	광주/전라	114	0.0	0.9	71.9	16.7	10.5	0.9	71.9	27.2
	대전/충청/세종	128	0.8	7.0	27.3	42.2	22.7	7.8	27.3	64.8
지역크기	강원	35	2.9	11.4	34.3	34.3	17.1	14.3	34.3	51.4
	대도시	542	1.5	12.4	34.9	37.5	13.8	13.8	34.9	51.3
	중소도시	579	0.7	5.9	35.9	45.6	11.9	6.6	35.9	57.5
직업별	읍/면	79	1.3	13.9	32.9	24.1	27.8	15.2	32.9	51.9
	농/어/임업	10	10.0	0.0	70.0	0.0	20.0	10.0	70.0	20.0
	자영업자	260	2.7	5.4	43.1	36.9	11.9	8.1	43.1	48.8
	판매/서비스직	238	0.4	9.7	38.7	37.8	13.4	10.1	38.7	51.3
	사무/기술직	386	0.3	10.4	29.8	43.3	16.3	10.6	29.8	59.6
	전문/자유직	27	3.7	18.5	22.2	44.4	11.1	22.2	22.2	55.6
	전업주부	147	1.4	11.6	32.7	42.9	11.6	12.9	32.7	54.4
	학생	111	0.0	10.8	31.5	46.8	10.8	10.8	31.5	57.7
학력별	무직/기타	21	0.0	4.8	38.1	28.6	28.6	4.8	38.1	57.1
	중졸이하	21	4.8	14.3	14.3	61.9	4.8	19.0	14.3	66.7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0	8.7	37.3	42.3	10.8	9.7	37.3	53.0
	전문대(중퇴/졸업)	308	0.6	12.3	37.0	36.4	13.6	13.0	37.0	50.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0.9	7.9	34.8	40.8	15.7	8.8	34.8	56.4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8.3	4.2	8.3	41.7	37.5	12.5	8.3	79.2
	상	110	0.9	10.0	30.9	39.1	19.1	10.9	30.9	58.2
	중	680	1.0	7.6	37.2	37.8	16.3	8.7	37.2	54.1
하	410	1.2	12.0	33.2	45.4	8.3	13.2	33.2	53.7	

10.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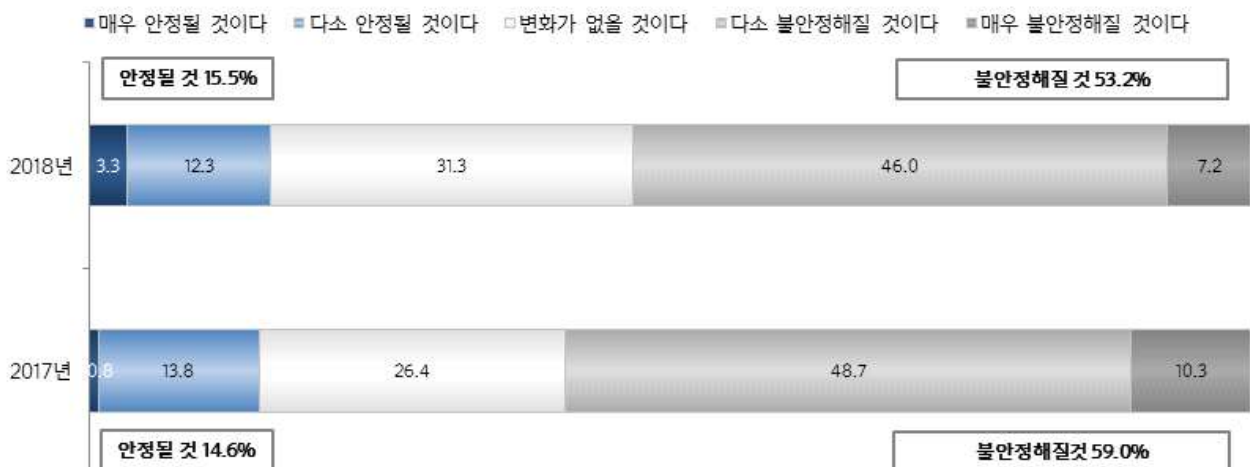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질 것이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53.2%, 전문가 85.0%로 나타남.

- [일반국민]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질 것이다’는 응답이 53.2%로 ‘안정될 것이다’는 응답 15.5% 보다 37.7%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불안정해질 것이다’(53.2%)는 응답은 5.8%p(2017년 59.0%) 감소하였고, ‘안정될 것이다’(15.5%)는 응답은 0.9%p(2017년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질 것이다’는 응답이 85.0%로 ‘안정될 것이다’는 응답 5.0% 보다 80.0%p 높게 나타남.

<그림 2-10>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의 변화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불안정해질 것이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대구/경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2-10>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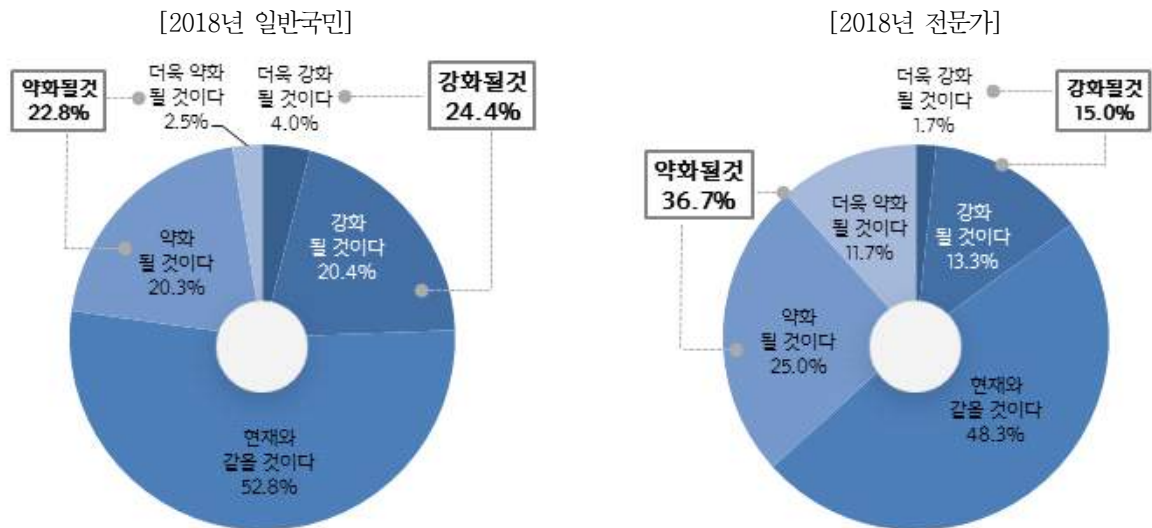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안정될 것이다	다소 안정될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소 불안정 해질 것이다	매우 불안정 해질 것이다	종합			
							안정될 것	변화없음	불안정해 질 것	
전체	1,260	3.1	11.9	30.3	46.0	8.7	15.0	30.3	54.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3	12.3	31.3	46.0	7.2	15.5	31.3	53.2
	전문가	60	0.0	5.0	10.0	46.7	38.3	5.0	10.0	8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4.7	13.4	33.6	38.7	9.6	18.1	33.6	48.4
	중	564	2.1	12.1	33.2	47.7	5.0	14.2	33.2	52.7
	하	210	3.3	10.5	21.9	56.2	8.1	13.8	21.9	64.3
성별	남성	720	3.8	10.1	31.7	45.7	8.8	13.9	31.7	54.4
	여성	480	2.5	15.4	30.8	46.5	4.8	17.9	30.8	51.3
연령별	20대 이하	299	3.7	12.7	32.8	43.8	7.0	16.4	32.8	50.8
	30대	273	2.2	13.6	30.8	45.8	7.7	15.8	30.8	53.5
	40대	316	4.1	11.7	29.7	50.3	4.1	15.8	29.7	54.4
	50대	312	2.9	11.2	32.1	43.9	9.9	14.1	32.1	53.8
지역별	서울	237	3.0	13.1	31.2	44.3	8.4	16.0	31.2	52.7
	경기/인천	389	4.9	16.2	33.2	38.8	6.9	21.1	33.2	45.8
	부산/울산/경남	183	0.5	6.6	25.7	66.1	1.1	7.1	25.7	67.2
	대구/경북	114	0.9	4.4	17.5	62.3	14.9	5.3	17.5	77.2
	광주/전라	114	9.6	19.3	57.0	14.0	0.0	28.9	57.0	14.0
	대전/충청/세종	128	0.0	7.8	25.0	55.5	11.7	7.8	25.0	67.2
지역크기	강원	35	0.0	11.4	25.7	48.6	14.3	11.4	25.7	62.9
	대도시	542	1.5	11.1	29.0	51.8	6.6	12.5	29.0	58.5
직업별	중소도시	579	4.5	14.2	33.9	40.1	7.4	18.7	33.9	47.5
	읍/면	79	6.3	6.3	29.1	49.4	8.9	12.7	29.1	58.2
	농/어/임업	10	0.0	10.0	30.0	50.0	10.0	10.0	30.0	60.0
지역별	자영업자	260	2.7	12.7	35.4	41.9	7.3	15.4	35.4	49.2
	판매/서비스직	238	1.3	16.0	30.3	48.3	4.2	17.2	30.3	52.5
	사무/기술직	386	4.4	10.4	26.9	49.7	8.5	14.8	26.9	58.3
	전문/자유직	27	11.1	3.7	29.6	48.1	7.4	14.8	29.6	55.6
	전업주부	147	2.7	16.3	32.7	41.5	6.8	19.0	32.7	48.3
	학생	111	3.6	8.1	36.9	44.1	7.2	11.7	36.9	51.4
	무직/기타	21	4.8	4.8	38.1	38.1	14.3	9.5	38.1	52.4
학력별	중졸이하	21	14.3	4.8	14.3	57.1	9.5	19.0	14.3	66.7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3.4	10.2	32.5	47.8	6.0	13.6	32.5	53.8
	전문대(중퇴/졸업)	308	2.6	15.9	32.5	42.5	6.5	18.5	32.5	49.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3.0	11.2	31.8	46.6	7.5	14.2	31.8	54.1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4.2	25.0	4.2	41.7	25.0	29.2	4.2	66.7
	상	110	5.5	20.9	26.4	40.0	7.3	26.4	26.4	47.3
	중	680	3.4	12.4	33.1	43.8	7.4	15.7	33.1	51.2
하	410	2.4	9.8	29.8	51.2	6.8	12.2	29.8	58.0	

1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에 대해 일반국민은 ‘강화될 것이다’(24.4%), 전문가는 ‘약화될 것이다’(36.7%)가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에 대해 ‘강화될 것이다’는 응답이 24.4%로 ‘약화될 것이다’(22.8%)는 응답보다 1.6%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강화될 것이다’(24.4%)는 응답은 2.2%p(2017년 26.6%), ‘약화될 것이다’(22.8%)는 응답은 (2017년 23.8%) 1.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에 대해 ‘약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6.7%로 ‘강화될 것이다’(15.0%)는 응답보다 21.7%p 높게 나타남.

<그림 2-1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대구/경북’, ‘서울’,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n=24),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2-1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단위[%]		사례수 (명)	더욱 강화 될 것이다	강화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을 것이다	약화 될 것이다	더욱 약화 될 것이다	종합		
								강화될 것	변화없음	약화될 것
전체		1,260	3.9	20.1	52.5	20.6	2.9	24.0	52.5	23.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0	20.4	52.8	20.3	2.5	24.4	52.8	22.8
	전문가	60	1.7	13.3	48.3	25.0	11.7	15.0	48.3	36.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5.9	20.0	55.6	15.3	3.3	25.8	55.6	18.5
	중	564	2.8	22.9	53.2	19.0	2.1	25.7	53.2	21.1
	하	210	3.3	14.8	45.7	34.3	1.9	18.1	45.7	36.2
성별	남성	720	5.0	21.4	51.9	18.9	2.8	26.4	51.9	21.7
	여성	480	2.5	19.0	54.0	22.5	2.1	21.5	54.0	24.6
연령별	20대 이하	299	4.3	19.4	52.8	21.1	2.3	23.7	52.8	23.4
	30대	273	4.0	23.4	53.1	16.8	2.6	27.5	53.1	19.4
	40대	316	3.8	18.0	54.1	21.2	2.8	21.8	54.1	24.1
	50대	312	3.8	21.2	51.0	21.8	2.2	25.0	51.0	24.0
지역별	서울	237	7.2	21.9	51.9	16.0	3.0	29.1	51.9	19.0
	경기/인천	389	6.4	21.6	55.0	15.2	1.8	28.0	55.0	17.0
	부산/울산/경남	183	1.1	20.2	37.2	39.9	1.6	21.3	37.2	41.5
	대구/경북	114	0.9	29.8	48.2	20.2	0.9	30.7	48.2	21.1
	광주/전라	114	0.9	19.3	74.6	5.3	0.0	20.2	74.6	5.3
	대전/충청/세종	128	0.8	9.4	51.6	29.7	8.6	10.2	51.6	38.3
지역크기	강원	35	2.9	11.4	62.9	20.0	2.9	14.3	62.9	22.9
	대도시	542	4.4	20.7	50.7	21.4	2.8	25.1	50.7	24.2
직업별	중소도시	579	4.0	19.9	54.9	18.8	2.4	23.8	54.9	21.2
	읍/면	79	1.3	22.8	50.6	24.1	1.3	24.1	50.6	25.3
	농/어/임업	10	20.0	10.0	60.0	10.0	0.0	30.0	60.0	10.0
직업별	자영업자	260	4.2	13.1	60.8	18.8	3.1	17.3	60.8	21.9
	판매/서비스직	238	2.9	21.0	54.2	19.3	2.5	23.9	54.2	21.8
	사무/기술직	386	4.1	24.1	47.7	22.3	1.8	28.2	47.7	24.1
	전문/자유직	27	7.4	22.2	44.4	22.2	3.7	29.6	44.4	25.9
	전업주부	147	2.7	25.2	49.7	21.1	1.4	27.9	49.7	22.4
	학생	111	5.4	19.8	52.3	18.9	3.6	25.2	52.3	22.5
	무직/기타	21	0.0	9.5	61.9	19.0	9.5	9.5	61.9	28.6
학력별	중졸이하	21	4.8	23.8	33.3	28.6	9.5	28.6	33.3	38.1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4.2	18.9	53.8	21.8	1.3	23.1	53.8	23.1
	전문대(중퇴/졸업)	308	3.9	21.4	56.8	15.6	2.3	25.3	56.8	17.9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3.9	20.0	51.3	21.7	3.2	23.8	51.3	24.9
	대학원 이상	24	4.2	37.5	29.2	25.0	4.2	41.7	29.2	29.2
생활수준 별	상	110	7.3	41.8	38.2	10.0	2.7	49.1	38.2	12.7
	중	680	4.3	18.2	55.7	18.8	2.9	22.5	55.7	21.8
	하	410	2.7	18.3	51.7	25.6	1.7	21.0	51.7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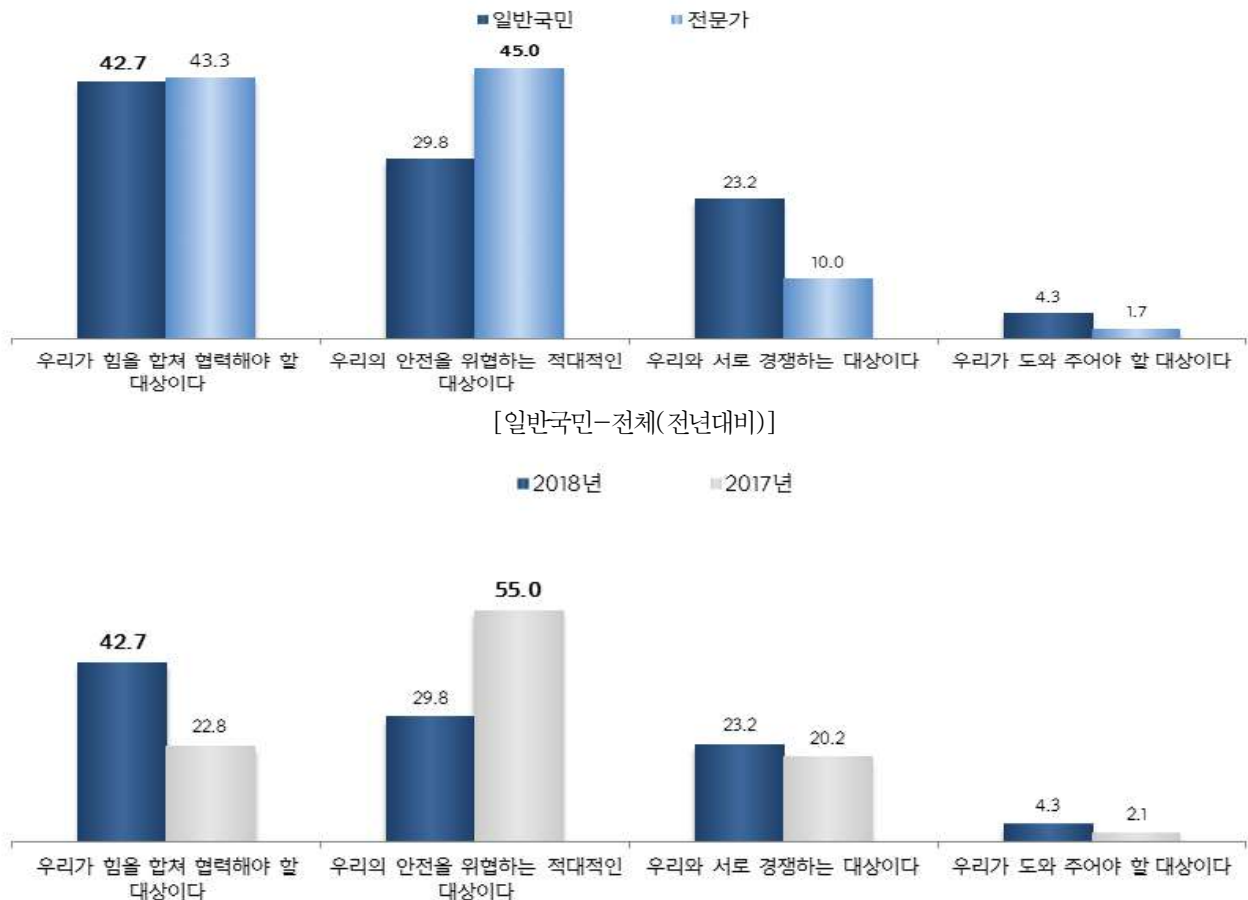
III 북한 관련 사항

1.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으로 일반국민은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42.7%), 전문가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45.0%)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는 응답이 4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2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42.7%)는 응답은 19.9%p(2017년 22.8%) 증가하였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29.8%)는 응답은 25.2%p(2017년 5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라는 응답이 45.0%로 가장 높고,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4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특성별 분석]

-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할 대상이다’는 본인 안보 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지역별로 ‘광주/전라’ 등에서 높게 나타남
-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지역크기가 작을수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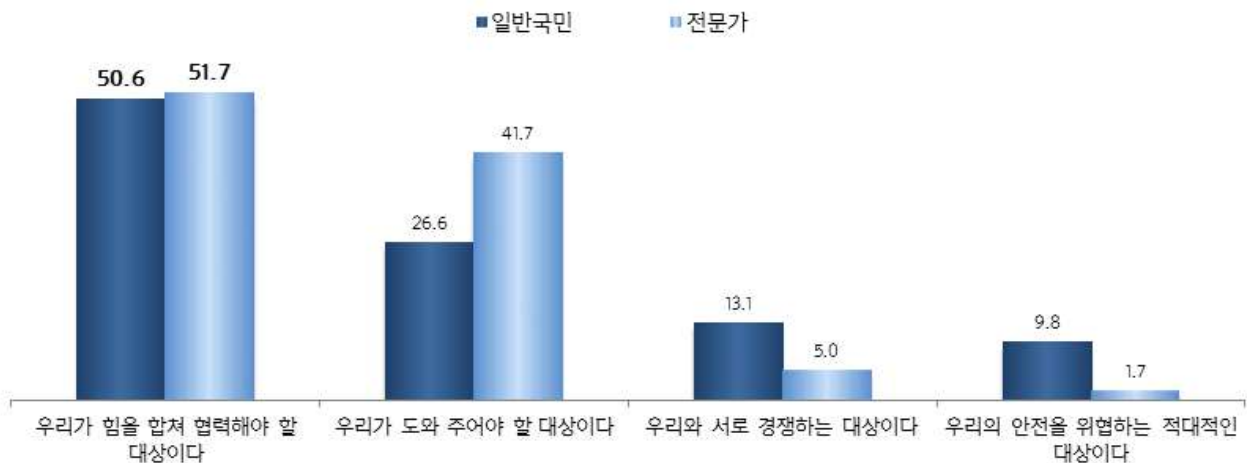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	우리가 도와 주어야 할 대상이다
전체		1,260	42.7	30.6	22.5	4.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2.7	29.8	23.2	4.3
	전문가	60	43.3	45.0	10.0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40.8	28.9	25.6	4.7
	중	564	43.1	28.9	24.1	3.9
	하	210	45.2	34.3	15.7	4.8
성별	남성	720	41.1	31.4	22.9	4.6
	여성	480	45.0	27.5	23.5	4.0
연령별	20대 이하	299	44.5	30.4	22.7	2.3
	30대	273	40.7	34.4	21.2	3.7
	40대	316	42.7	26.9	24.7	5.7
	50대	312	42.6	28.2	23.7	5.4
지역별	서울	237	33.8	33.3	30.8	2.1
	경기/인천	389	39.6	28.0	29.0	3.3
	부산/울산/경남	183	53.0	22.4	18.0	6.6
	대구/경북	114	46.5	36.0	9.6	7.9
	광주/전라	114	61.4	17.5	14.0	7.0
	대전/충청/세종	128	33.6	43.0	20.3	3.1
	강원	35	42.9	37.1	17.1	2.9
지역크기	대도시	542	46.9	28.4	22.0	2.8
	중소도시	579	39.0	30.4	25.2	5.4
	읍/면	79	40.5	35.4	16.5	7.6
직업별	농/어/임업	10	30.0	20.0	20.0	30.0
	자영업자	260	42.3	28.1	23.8	5.8
	판매/서비스직	238	40.8	29.0	28.2	2.1
	사무/기술직	386	44.6	31.1	20.7	3.6
	전문/자유직	27	44.4	40.7	7.4	7.4
	전업주부	147	40.8	27.9	24.5	6.8
	학생	111	45.0	29.7	23.4	1.8
	무직/기타	21	38.1	42.9	14.3	4.8
학력별	중졸이하	21	38.1	33.3	9.5	19.0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40.7	27.3	27.0	5.0
	전문대(중퇴/졸업)	308	42.9	28.9	25.3	2.9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44.2	32.2	19.7	3.9
	대학원 이상	24	45.8	33.3	12.5	8.3
생활수준 별	상	110	42.7	24.5	28.2	4.5
	중	680	42.2	29.0	24.6	4.3
	하	410	43.4	32.7	19.5	4.4

2.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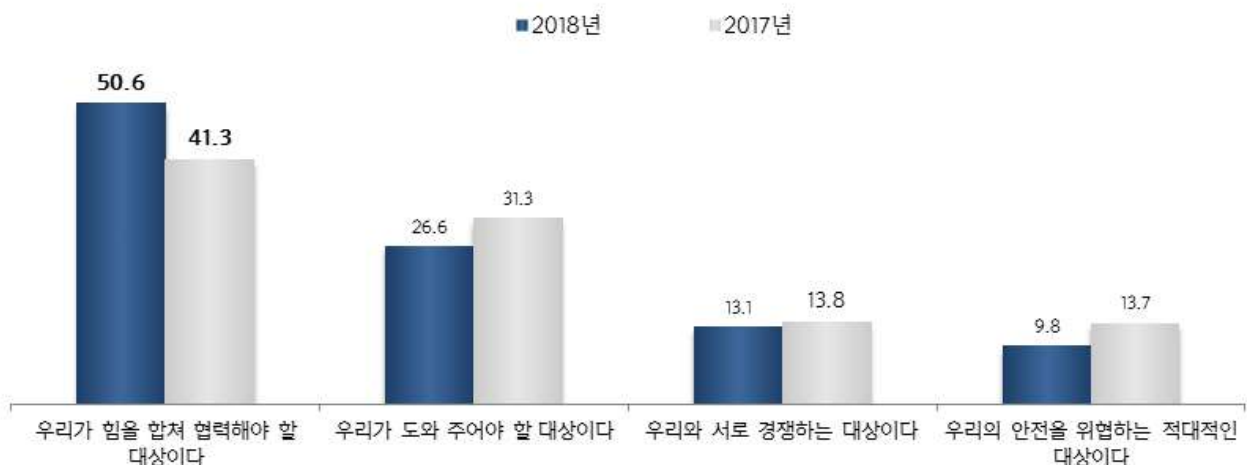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50.6%, 전문가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는 응답이 50.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2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50.6%)는 응답은 9.3%p(2017년 41.3%) 증가하였고,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26.6%)는 응답은 4.7%p(2017년 3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4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는 응답은, 성별로 ‘여성’, 지역별로 ‘광주/전라’, 지역크기가 클수록, 학력별로 ‘전문대’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3-2>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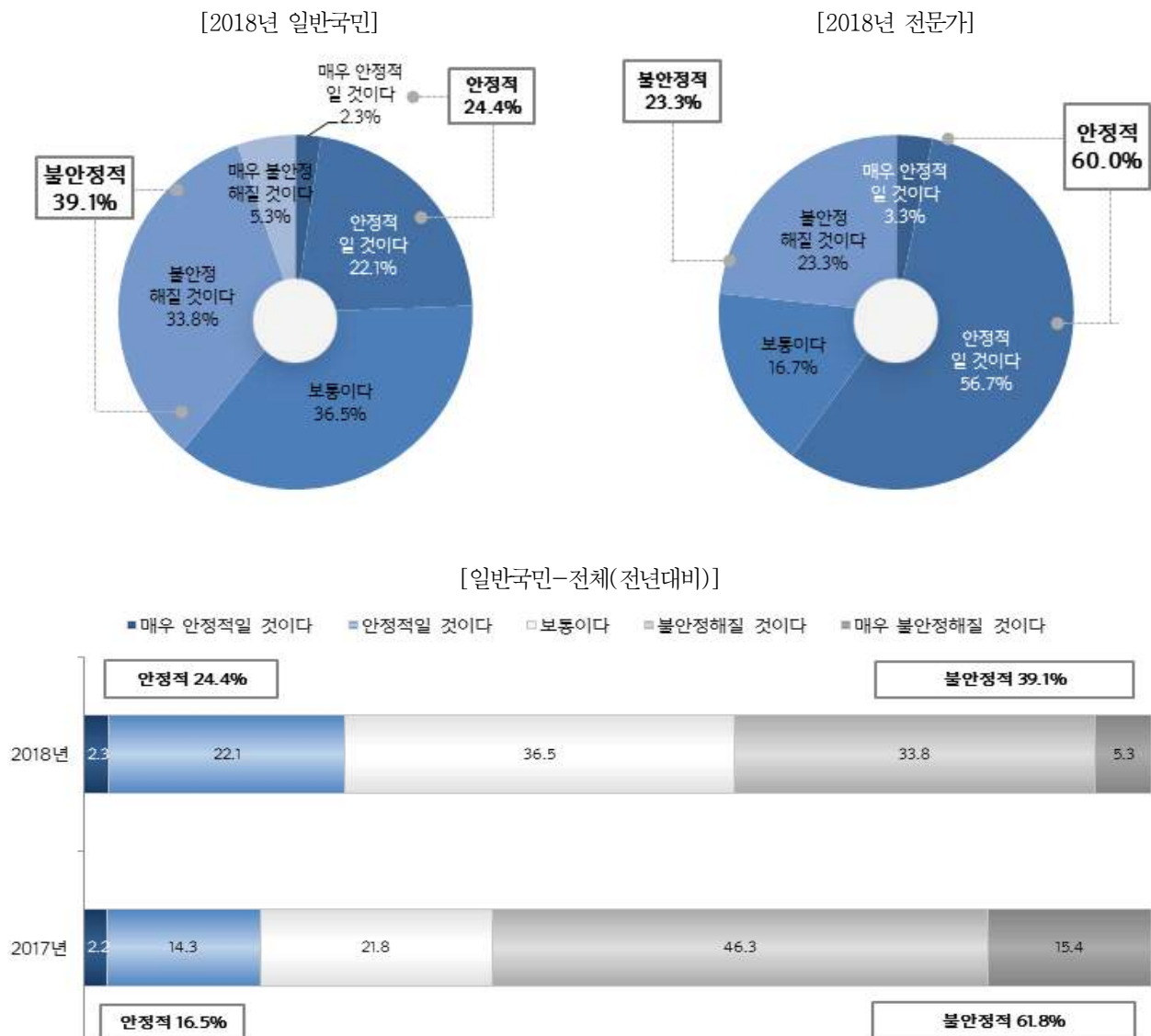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가 도와 주어야 할 대상이다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
전체		1,260	50.6	27.3	12.7	9.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0.6	26.6	13.1	9.8
	전문가	60	51.7	41.7	5.0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50.9	22.1	14.8	12.2
	중	564	52.8	28.0	12.4	6.7
	하	210	43.8	31.9	11.4	12.9
성별	남성	720	49.3	26.8	13.1	10.8
	여성	480	52.5	26.3	13.1	8.1
연령별	20대 이하	299	52.5	24.7	15.4	7.4
	30대	273	53.1	22.7	12.8	11.4
	40대	316	47.5	31.6	11.7	9.2
	50대	312	49.7	26.6	12.5	11.2
지역별	서울	237	50.2	24.9	12.7	12.2
	경기/인천	389	55.3	20.3	14.1	10.3
	부산/울산/경남	183	42.6	44.3	9.8	3.3
	대구/경북	114	32.5	47.4	5.3	14.9
	광주/전라	114	67.5	10.5	16.7	5.3
	대전/충청/세종	128	49.2	20.3	21.1	9.4
	강원	35	51.4	22.9	5.7	20.0
지역크기	대도시	542	53.9	24.2	11.6	10.3
	중소도시	579	49.1	28.8	13.8	8.3
	읍/면	79	39.2	26.6	17.7	16.5
직업별	농/어/임업	10	30.0	40.0	10.0	20.0
	자영업자	260	54.2	25.0	12.7	8.1
	판매/서비스직	238	55.0	18.9	16.4	9.7
	사무/기술직	386	48.4	29.0	12.7	9.8
	전문/자유직	27	51.9	37.0	3.7	7.4
	전업주부	147	44.9	32.7	10.9	11.6
	학생	111	55.0	23.4	11.7	9.9
	무직/기타	21	19.0	42.9	23.8	14.3
학력별	중졸이하	21	33.3	33.3	19.0	14.3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47.0	26.0	14.4	12.6
	전문대(중퇴/졸업)	308	58.8	18.8	14.9	7.5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49.8	31.3	10.3	8.6
	대학원 이상	24	33.3	37.5	16.7	12.5
생활수준 별	상	110	49.1	32.7	13.6	4.5
	중	680	55.7	21.9	13.2	9.1
	하	410	42.4	32.7	12.7	12.2

3.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향후 5년 내 김정은 체제전망에 대해 일반국민은 ‘불안정적이다’(39.1%)는 응답이, 전문가는 ‘안정적이다’(60.0%)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김정은 체제에 대한 향후(5년 내외) 전망에 대해 ‘불안정적일 것이다’는 응답이 39.1%로 ‘안정적일 것이다’(24.4%) 응답보다 14.7%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안정적일 것이다’(24.4%)는 응답은 7.9%p(2017년 16.5%) 증가하였고, ‘불안정적일 것이다’(39.1%)는 응답은 22.7%p(2017년 6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김정은 체제에 대한 향후(5년 내외) 전망이 ‘안정적일 것이다’는 응답이 60.0%로 ‘불안정적일 것이다’(23.3%)는 응답보다 36.7%p 높게 나타남.

<그림 3-3>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특성별 분석]

- 김정은 체제에 대한 향후(5년 내외) 전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불안정적’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전문/자유직(n=27)’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3-3>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안정적일 것이다	안정적일 것이다	보통이다	불안정 해질 것이다	매우 불안정 해질 것이다	종합			
							안정적	보통	불안정적	
전체	1,260	2.4	23.7	35.6	33.3	5.1	26.1	35.6	38.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3	22.1	36.5	33.8	5.3	24.4	36.5	39.1
	전문가	60	3.3	56.7	16.7	23.3	0.0	60.0	16.7	23.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1.9	29.1	35.4	26.1	7.5	31.0	35.4	33.6
	중	564	2.7	19.0	37.4	37.9	3.0	21.6	37.4	41.0
	하	210	2.4	16.2	36.2	38.1	7.1	18.6	36.2	45.2
성별	남성	720	2.6	23.5	35.3	33.1	5.6	26.1	35.3	38.6
	여성	480	1.9	20.0	38.3	34.8	5.0	21.9	38.3	39.8
연령별	20대 이하	299	2.7	20.4	37.1	33.4	6.4	23.1	37.1	39.8
	30대	273	2.9	22.3	31.9	37.0	5.9	25.3	31.9	42.9
	40대	316	1.6	21.8	38.6	34.2	3.8	23.4	38.6	38.0
	50대	312	2.2	23.7	37.8	30.8	5.4	26.0	37.8	36.2
지역별	서울	237	2.1	25.3	38.8	30.8	3.0	27.4	38.8	33.8
	경기/인천	389	2.1	32.9	37.5	23.7	3.9	35.0	37.5	27.5
	부산/울산/경남	183	5.5	7.1	27.9	50.8	8.7	12.6	27.9	59.6
	대구/경북	114	0.0	26.3	37.7	33.3	2.6	26.3	37.7	36.0
	광주/전라	114	2.6	11.4	36.0	40.4	9.6	14.0	36.0	50.0
	대전/충청/세종	128	0.8	10.2	43.0	39.8	6.3	10.9	43.0	46.1
지역크기	강원	35	2.9	22.9	28.6	34.3	11.4	25.7	28.6	45.7
	대도시	542	3.3	19.9	33.6	38.6	4.6	23.2	33.6	43.2
직업별	중소도시	579	1.2	26.3	39.0	28.2	5.4	27.5	39.0	33.5
	읍/면	79	3.8	6.3	38.0	41.8	10.1	10.1	38.0	51.9
	농/어/임업	10	10.0	60.0	20.0	10.0	0.0	70.0	20.0	10.0
직업별	자영업자	260	1.9	20.4	40.8	30.8	6.2	22.3	40.8	36.9
	판매/서비스직	238	2.1	20.6	40.3	32.4	4.6	22.7	40.3	37.0
	사무/기술직	386	3.4	24.6	32.4	35.8	3.9	28.0	32.4	39.6
	전문/자유직	27	3.7	25.9	14.8	51.9	3.7	29.6	14.8	55.6
	전업주부	147	0.7	17.7	36.1	39.5	6.1	18.4	36.1	45.6
	학생	111	1.8	22.5	39.6	26.1	9.9	24.3	39.6	36.0
	무직/기타	21	0.0	19.0	38.1	38.1	4.8	19.0	38.1	42.9
	학력별	중졸이하	21	9.5	4.8	42.9	42.9	0.0	14.3	42.9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8	19.9	39.4	33.3	5.5	21.8	39.4	38.8
전문대(중퇴/졸업)		308	2.6	23.1	35.1	33.4	5.8	25.6	35.1	39.3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1.9	23.6	35.6	33.9	4.9	25.5	35.6	38.8
대학원 이상		24	8.3	29.2	20.8	33.3	8.3	37.5	20.8	41.7
생활수준 별	상	110	3.6	26.4	32.7	34.5	2.7	30.0	32.7	37.3
	중	680	2.8	23.8	40.3	28.5	4.6	26.6	40.3	33.1
	하	410	1.2	18.0	31.2	42.2	7.3	19.3	31.2	49.5

[특성별 분석]

-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2~3년내)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낮음’이라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농/어/임업(n=10),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4>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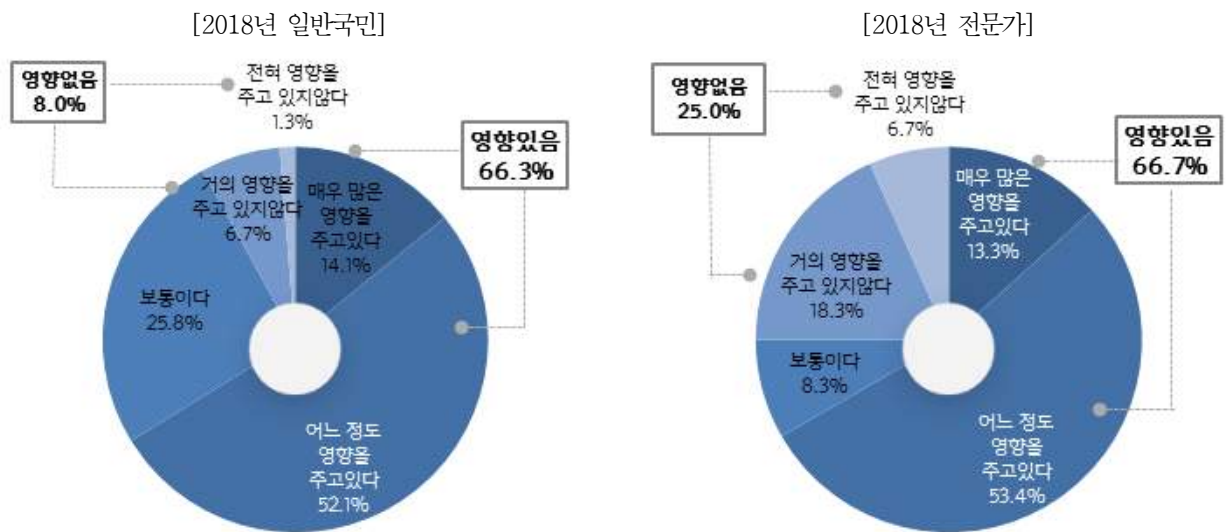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능성이 높다	보통이다	가능성이 낮다	가능성이 매우 낮다	종합			
								높음	보통	낮음	
전체		1,260	4.8	16.5	28.3	35.4	15.0	21.3	28.3	50.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8	17.0	28.7	34.9	14.6	21.8	28.7	49.5	
	전문가	60	3.3	6.7	21.7	45.0	23.3	10.0	21.7	68.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6.8	17.4	26.3	31.5	18.1	24.2	26.3	49.5	
	중	564	3.2	16.0	31.6	37.4	11.9	19.1	31.6	49.3	
	하	210	5.2	19.0	25.7	35.2	14.8	24.3	25.7	50.0	
성별	남성	720	4.7	18.2	25.4	35.1	16.5	22.9	25.4	51.7	
	여성	480	5.0	15.2	33.5	34.6	11.7	20.2	33.5	46.3	
연령별	20대 이하	299	5.4	17.4	28.4	34.4	14.4	22.7	28.4	48.8	
	30대	273	5.9	19.8	27.8	31.1	15.4	25.6	27.8	46.5	
	40대	316	3.8	16.5	26.9	39.2	13.6	20.3	26.9	52.8	
	50대	312	4.5	14.7	31.4	34.3	15.1	19.2	31.4	49.4	
지역별	서울	237	6.3	20.7	28.3	36.7	8.0	27.0	28.3	44.7	
	경기/인천	389	4.4	18.3	30.8	34.2	12.3	22.6	30.8	46.5	
	부산/울산/경남	183	0.5	18.0	37.2	36.6	7.7	18.6	37.2	44.3	
	대구/경북	114	4.4	7.0	16.7	45.6	26.3	11.4	16.7	71.9	
	광주/전라	114	8.8	12.3	12.3	26.3	40.4	21.1	12.3	66.7	
	대전/충청/세종	128	7.0	19.5	33.6	28.1	11.7	26.6	33.6	39.8	
지역크기	강원	35	2.9	11.4	37.1	40.0	8.6	14.3	37.1	48.6	
	대도시	542	3.5	18.1	28.2	35.6	14.6	21.6	28.2	50.2	
	중소도시	579	5.7	16.1	30.2	35.4	12.6	21.8	30.2	48.0	
	읍/면	79	7.6	16.5	20.3	26.6	29.1	24.1	20.3	55.7	
	직업별	농/어/임업	10	0.0	0.0	20.0	50.0	30.0	0.0	20.0	80.0
		자영업자	260	4.6	16.2	26.9	33.5	18.8	20.8	26.9	52.3
판매/서비스직		238	7.6	20.6	25.6	34.5	11.8	28.2	25.6	46.2	
사무/기술직		386	4.1	16.3	30.6	33.7	15.3	20.5	30.6	49.0	
전문/자유직		27	0.0	3.7	33.3	51.9	11.1	3.7	33.3	63.0	
전업주부		147	2.7	15.6	36.1	32.7	12.9	18.4	36.1	45.6	
학생		111	5.4	21.6	19.8	42.3	10.8	27.0	19.8	53.2	
무직/기타		21	9.5	9.5	42.9	28.6	9.5	19.0	42.9	38.1	
학력별	중졸이하	21	0.0	23.8	42.9	19.0	14.3	23.8	42.9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5.8	15.0	33.6	34.1	11.5	20.7	33.6	45.7	
	전문대(중퇴/졸업)	308	5.2	17.2	23.4	39.0	15.3	22.4	23.4	54.2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4.3	17.6	28.1	33.0	17.0	21.9	28.1	50.0	
	대학원 이상	24	0.0	29.2	16.7	45.8	8.3	29.2	16.7	54.2	
생활수준 별	상	110	3.6	27.3	30.9	28.2	10.0	30.9	30.9	38.2	
	중	680	4.0	15.6	30.0	36.2	14.3	19.6	30.0	50.4	
	하	410	6.6	16.6	25.9	34.6	16.3	23.2	25.9	51.0	

5.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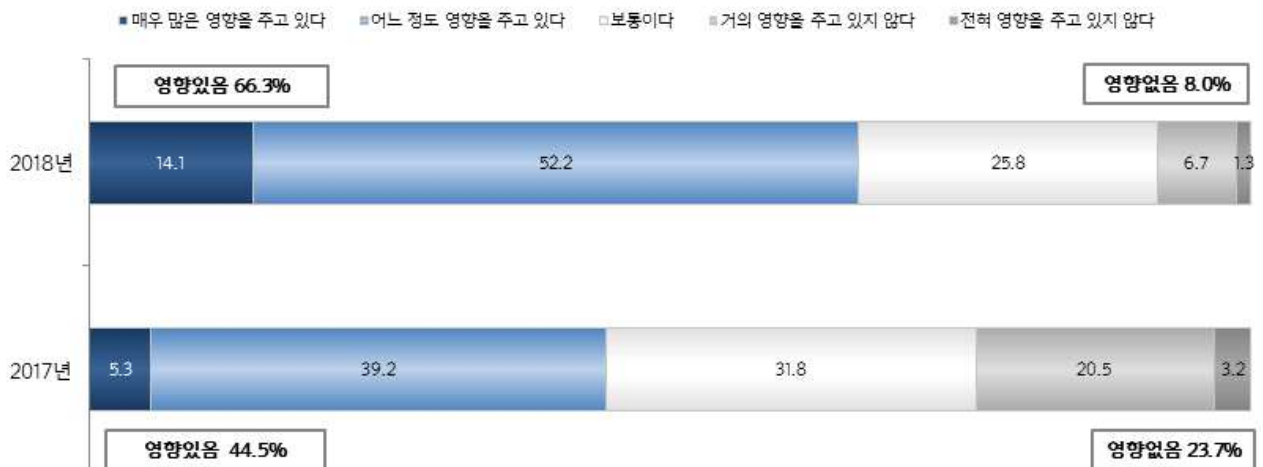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66.3%, 전문가 66.7%로 나타남.

- [일반국민]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66.3%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8.0%)는 응답보다 58.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영향을 준다’(66.3%)는 응답은 21.8%p(2017년 44.5%) 증가하였고, ‘영향 없다’(8.0%)는 응답은 15.7%p(2017년 23.7%) 감소하였음.
- [전문가]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66.7%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25.0%)는 응답보다 41.7%p 높게 나타남.

<그림 3-5>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지역별로 '강원',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n=24)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3-5>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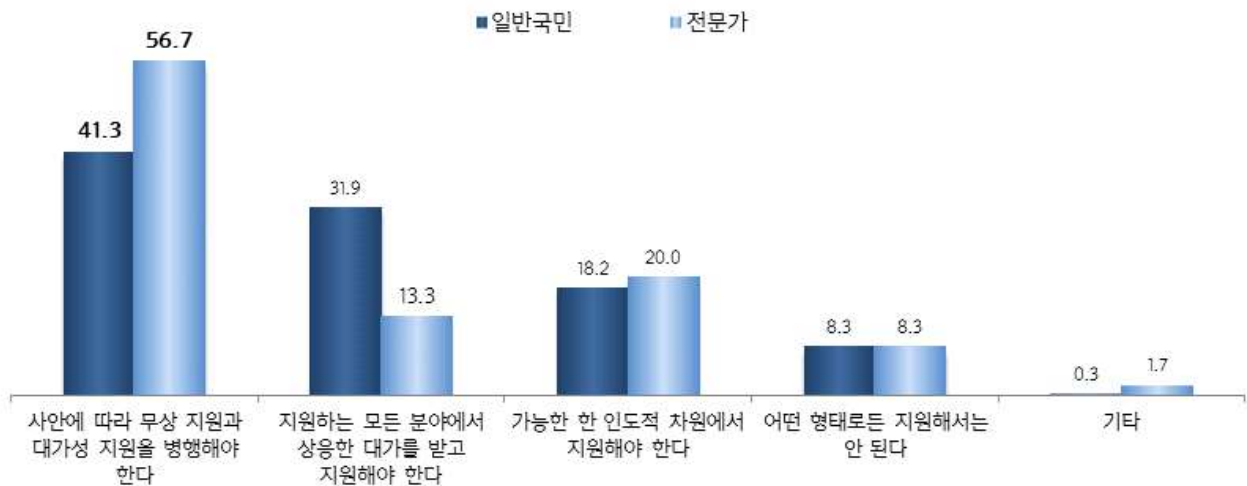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보통이다	거의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종합			
							영향있음	보통	영향없음	
전체	1,260	14.0	52.2	24.9	7.2	1.6	66.3	24.9	8.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4.1	52.2	25.8	6.7	1.3	66.3	25.8	8.0
	전문가	60	13.3	53.3	8.3	18.3	6.7	66.7	8.3	2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17.4	48.1	25.4	7.0	2.1	65.5	25.4	9.2
	중	564	11.7	54.1	26.6	6.9	0.7	65.8	26.6	7.6
	하	210	13.8	55.2	24.3	5.2	1.4	69.0	24.3	6.7
성별	남성	720	14.9	51.8	23.6	8.3	1.4	66.7	23.6	9.7
	여성	480	12.9	52.7	29.0	4.2	1.3	65.6	29.0	5.4
연령별	20대 이하	299	10.4	55.2	27.1	5.4	2.0	65.6	27.1	7.4
	30대	273	17.2	48.7	25.6	7.7	0.7	65.9	25.6	8.4
	40대	316	14.6	50.0	26.9	7.9	0.6	64.6	26.9	8.5
	50대	312	14.4	54.5	23.4	5.8	1.9	68.9	23.4	7.7
지역별	서울	237	17.3	50.6	19.4	11.0	1.7	67.9	19.4	12.7
	경기/인천	389	19.8	47.0	25.4	5.4	2.3	66.8	25.4	7.7
	부산/울산/경남	183	11.5	55.7	24.6	8.2	0.0	67.2	24.6	8.2
	대구/경북	114	3.5	65.8	24.6	4.4	1.8	69.3	24.6	6.1
	광주/전라	114	15.8	47.4	34.2	2.6	0.0	63.2	34.2	2.6
	대전/충청/세종	128	3.1	53.9	36.7	6.3	0.0	57.0	36.7	6.3
지역크기	강원	35	11.4	65.7	14.3	5.7	2.9	77.1	14.3	8.6
	대도시	542	13.5	53.0	23.8	8.5	1.3	66.4	23.8	9.8
	중소도시	579	16.1	50.6	26.8	5.0	1.6	66.7	26.8	6.6
직업별	읍/면	79	3.8	58.2	31.6	6.3	0.0	62.0	31.6	6.3
	농/어/임업	10	30.0	40.0	20.0	10.0	0.0	70.0	20.0	10.0
	자영업자	260	13.8	50.8	26.2	7.3	1.9	64.6	26.2	9.2
	판매/서비스직	238	11.8	54.6	28.2	5.0	0.4	66.4	28.2	5.5
	사무/기술직	386	16.3	51.8	22.0	8.8	1.0	68.1	22.0	9.8
	전문/자유직	27	29.6	40.7	22.2	3.7	3.7	70.4	22.2	7.4
	전업주부	147	12.2	49.7	33.3	4.1	0.7	61.9	33.3	4.8
	학생	111	10.8	58.6	22.5	5.4	2.7	69.4	22.5	8.1
학력별	무직/기타	21	4.8	52.4	33.3	4.8	4.8	57.1	33.3	9.5
	중졸이하	21	4.8	57.1	19.0	9.5	9.5	61.9	19.0	19.0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1.8	48.6	31.8	6.8	1.0	60.4	31.8	7.9
	전문대(중퇴/졸업)	308	13.6	56.2	25.6	4.2	0.3	69.8	25.6	4.5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15.2	52.6	22.5	7.9	1.7	67.8	22.5	9.7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41.7	45.8	0.0	8.3	4.2	87.5	0.0	12.5
	상	110	15.5	57.3	21.8	4.5	0.9	72.7	21.8	5.5
	중	680	13.5	49.6	28.1	7.4	1.5	63.1	28.1	8.8
하	410	14.6	55.1	22.9	6.1	1.2	69.8	22.9	7.3	

6.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으로 '사안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41.3%, 전문가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으로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3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41.3%)는 응답은 6.7%p(2017년 3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으로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5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능한 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2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6>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학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6>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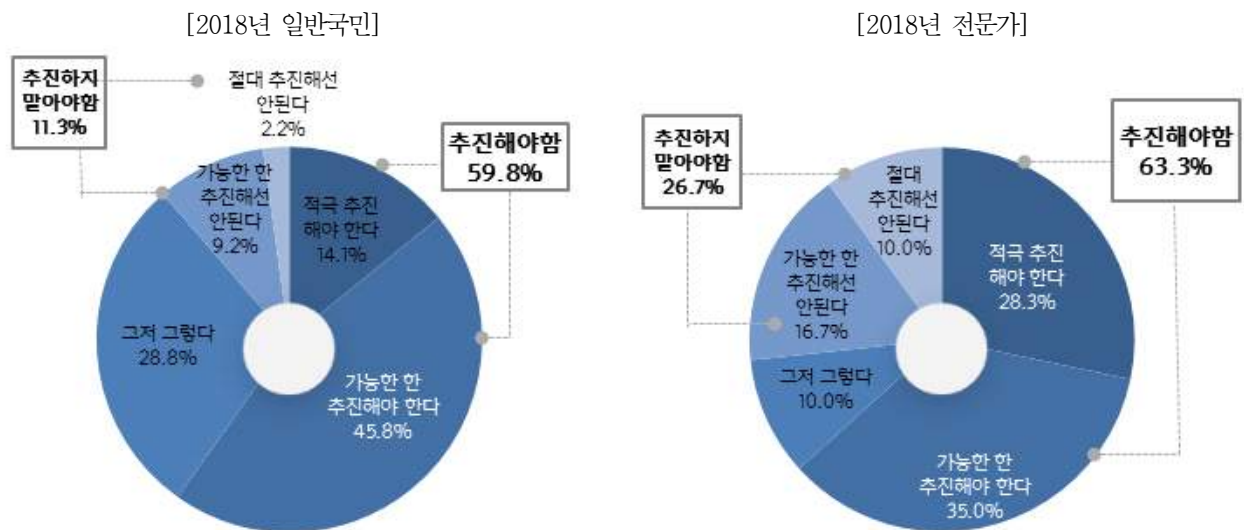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	가능한 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지원 해서는 안 된다	기타	
전체		1,260	42.1	31.0	18.3	8.3	0.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1.3	31.9	18.2	8.3	0.3	
	전문가	60	56.7	13.3	20.0	8.3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38.0	31.7	20.4	9.2	0.7	
	중	564	47.0	31.4	14.5	6.9	0.2	
	하	210	32.9	33.8	23.3	10.0	0.0	
성별	남성	720	41.3	31.8	17.2	9.4	0.3	
	여성	480	41.5	32.1	19.6	6.5	0.4	
연령별	20대 이하	299	40.1	35.1	17.1	7.7	0.0	
	30대	273	44.0	31.5	17.6	6.6	0.4	
	40대	316	44.6	30.4	16.5	7.9	0.6	
	50대	312	36.9	30.8	21.5	10.6	0.3	
지역별	서울	237	46.8	25.7	19.4	7.2	0.8	
	경기/인천	389	43.7	26.2	24.7	5.1	0.3	
	부산/울산/경남	183	36.6	36.1	18.6	8.7	0.0	
	대구/경북	114	56.1	26.3	11.4	6.1	0.0	
	광주/전라	114	21.9	51.8	15.8	10.5	0.0	
	대전/충청/세종	128	35.2	39.8	4.7	19.5	0.8	
지역크기	강원	35	40.0	40.0	14.3	5.7	0.0	
	대도시	542	41.0	34.9	14.6	9.2	0.4	
	중소도시	579	43.9	27.5	21.8	6.6	0.3	
	읍/면	79	25.3	44.3	16.5	13.9	0.0	
	직업별	농/어/임업	10	20.0	60.0	10.0	10.0	0.0
		자영업자	260	41.5	29.6	18.1	10.0	0.8
판매/서비스직		238	42.0	33.2	16.4	8.4	0.0	
사무/기술직		386	43.0	32.4	17.4	7.3	0.0	
전문/자유직		27	25.9	29.6	33.3	7.4	3.7	
전업주부		147	38.8	32.0	20.4	8.2	0.7	
학생		111	45.9	28.8	18.9	6.3	0.0	
학력별	무직/기타	21	23.8	42.9	19.0	14.3	0.0	
	중졸이하	21	33.3	38.1	23.8	4.8	0.0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41.5	30.4	18.9	9.2	0.0	
	전문대(중퇴/졸업)	308	42.2	33.4	16.6	7.8	0.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41.2	32.6	17.8	7.9	0.4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37.5	16.7	29.2	8.3	8.3	
	상	110	46.4	25.5	19.1	8.2	0.9	
	중	680	43.7	31.9	16.2	7.9	0.3	
하	410	36.1	33.7	21.2	8.8	0.2		

7. 금강산 관광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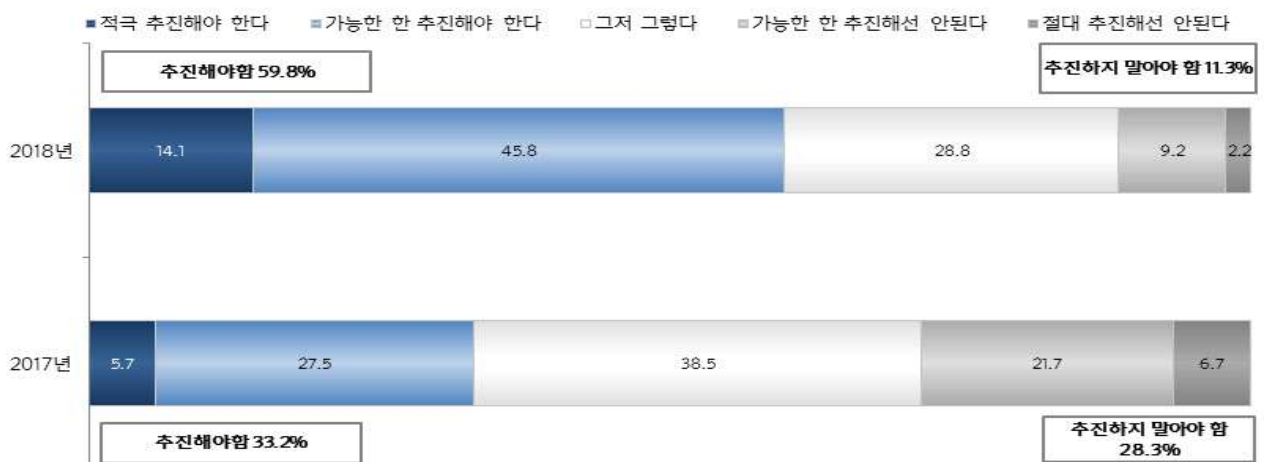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59.8%, 전문가 63.3%로 나타남.

- [일반국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9.8%로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11.3%)는 응답보다 48.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추진해야 한다'(59.8%)는 응답은 26.6%p(2017년 33.2%) 증가하였고,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11.3%)는 응답은 17.0%p(2017년 28.3%) 감소하였음.
- [전문가]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63.3%로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 26.7%보다 36.6%p 높게 나타남.

<그림 3-7> 금강산 관광 재개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농/어/임업'(n=10)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3-7> 금강산 관광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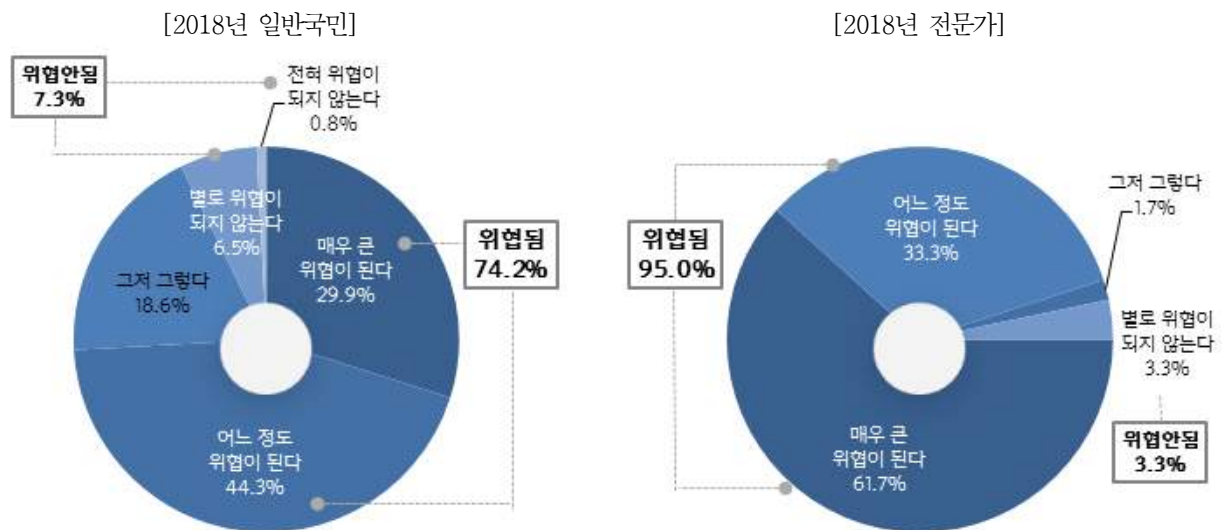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가능한 한 추진해야 한다	그저 그렇다	가능한 한 추진해선 안된다	절대 추진해선 안된다	종합			
								추진 해야 함	그저 그렇다	추진하지 말아야 함	
전체		1,260	14.8	45.2	27.9	9.5	2.5	60.0	27.9	12.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4.1	45.8	28.8	9.2	2.2	59.8	28.8	11.3	
	전문가	60	28.3	35.0	10.0	16.7	10.0	63.3	10.0	26.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15.7	44.1	30.8	5.6	3.8	59.9	30.8	9.4	
	중	564	12.2	47.0	29.4	9.8	1.6	59.2	29.4	11.3	
	하	210	15.7	45.7	23.3	14.8	0.5	61.4	23.3	15.2	
성별	남성	720	15.1	45.8	27.9	8.2	2.9	61.0	27.9	11.1	
	여성	480	12.5	45.6	30.2	10.6	1.0	58.1	30.2	11.7	
연령별	20대 이하	299	14.7	45.8	29.4	8.0	2.0	60.5	29.4	10.0	
	30대	273	14.7	45.1	29.3	9.5	1.5	59.7	29.3	11.0	
	40대	316	13.0	45.9	29.7	9.5	1.9	58.9	29.7	11.4	
	50대	312	14.1	46.2	26.9	9.6	3.2	60.3	26.9	12.8	
지역별	서울	237	11.8	44.7	29.5	10.5	3.4	56.5	29.5	13.9	
	경기/인천	389	18.0	47.0	25.7	5.7	3.6	65.0	25.7	9.3	
	부산/울산/경남	183	9.8	61.7	20.2	7.7	0.5	71.6	20.2	8.2	
	대구/경북	114	13.2	44.7	27.2	14.0	0.9	57.9	27.2	14.9	
	광주/전라	114	15.8	41.2	37.7	5.3	0.0	57.0	37.7	5.3	
	대전/충청/세종	128	9.4	31.3	39.1	19.5	0.8	40.6	39.1	20.3	
지역크기	강원	35	22.9	25.7	42.9	5.7	2.9	48.6	42.9	8.6	
	대도시	542	13.1	49.1	27.7	8.3	1.8	62.2	27.7	10.1	
	중소도시	579	15.4	44.2	28.7	9.3	2.4	59.6	28.7	11.7	
	읍/면	79	11.4	34.2	38.0	13.9	2.5	45.6	38.0	16.5	
	직업별	농/어/임업	10	50.0	40.0	0.0	0.0	10.0	90.0	0.0	10.0
		자영업자	260	15.8	42.3	29.6	8.8	3.5	58.1	29.6	12.3
판매/서비스직		238	9.2	49.2	31.1	9.2	1.3	58.4	31.1	10.5	
사무/기술직		386	13.7	46.6	28.2	9.6	1.8	60.4	28.2	11.4	
전문/자유직		27	29.6	25.9	33.3	11.1	0.0	55.6	33.3	11.1	
전업주부		147	10.2	47.6	28.6	12.9	0.7	57.8	28.6	13.6	
학생		111	18.9	50.5	23.4	4.5	2.7	69.4	23.4	7.2	
무직/기타		21	19.0	23.8	42.9	4.8	9.5	42.9	42.9	14.3	
학력별	중졸이하	21	14.3	38.1	23.8	23.8	0.0	52.4	23.8	23.8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0.0	46.7	29.1	12.3	1.8	56.7	29.1	14.2	
	전문대(중퇴/졸업)	308	15.6	49.7	25.3	7.8	1.6	65.3	25.3	9.4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16.1	42.5	31.5	7.3	2.6	58.6	31.5	9.9	
	대학원 이상	24	20.8	50.0	20.8	0.0	8.3	70.8	20.8	8.3	
생활수준 별	상	110	12.7	46.4	29.1	9.1	2.7	59.1	29.1	11.8	
	중	680	14.6	42.8	31.5	9.1	2.1	57.4	31.5	11.2	
	하	410	13.7	50.5	24.4	9.3	2.2	64.1	24.4	11.5	

8. 북한 핵무기 보유에 따른 안보위협

북한 핵무기 보유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74.2%, 전문가 95.0%로 나타남.

- [일반국민] 북한 핵무기 보유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이 74.2%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7.3%)는 응답보다 66.9%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위협이 된다'(74.2%)는 응답은 5.6%p(2017년 79.8%) 감소하였고, '위협이 되지 않는다'(7.3%)는 응답은 2.8%p(2017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북한 핵무기 보유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이 95.0%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3.3%)는 응답보다 91.7%p 높게 나타남.

<그림 3-8> 북한 핵무기 보유에 따른 안보위협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북한 핵무기 보유가 한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정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협이 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강원’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3-8> 북한 핵무기 보유에 따른 안보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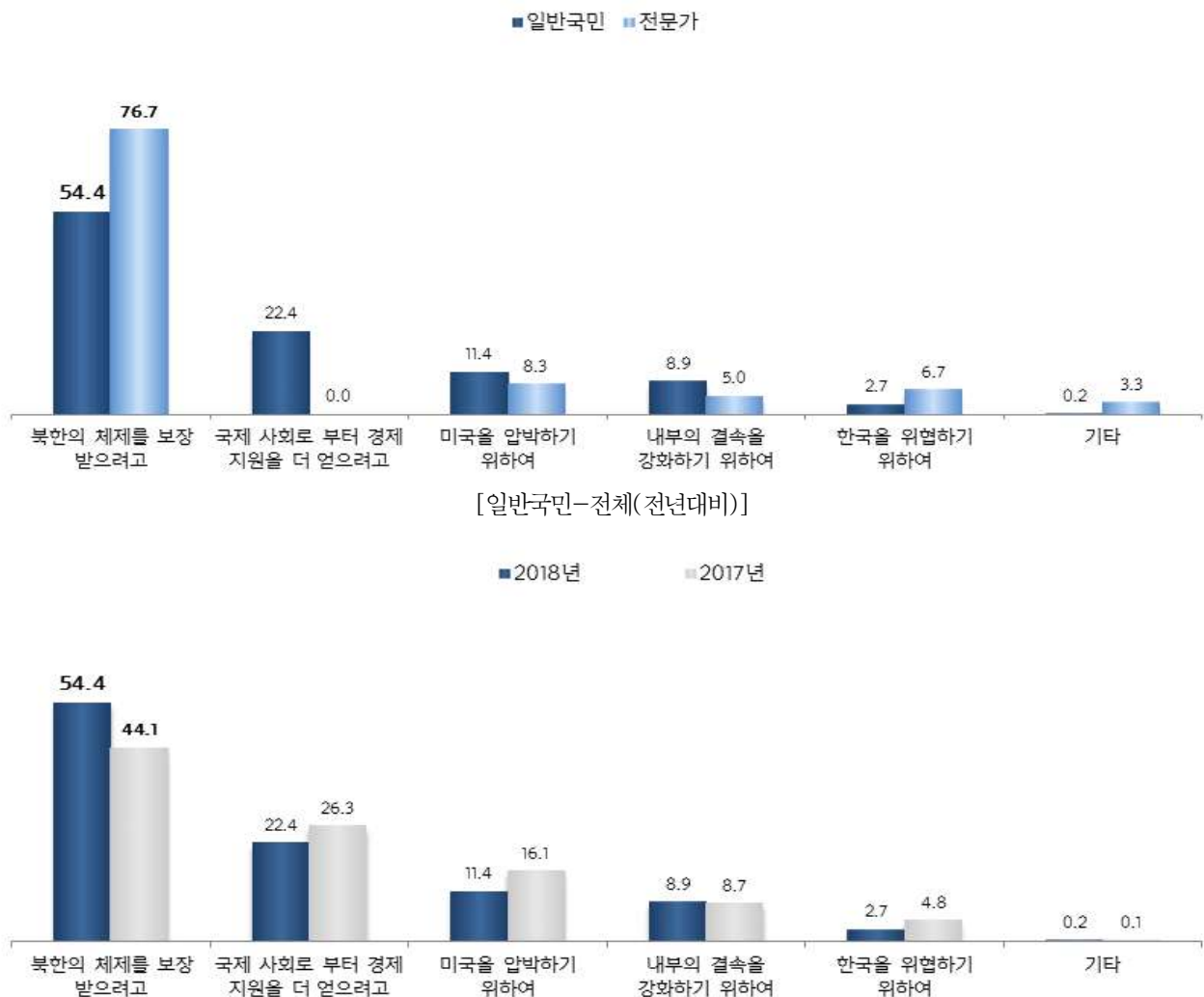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큰 위협이 된다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	그저 그렇다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종합			
							위협됨	그저 그렇다	위협 안됨	
전체	1,260	31.4	43.7	17.8	6.3	0.7	75.2	17.8	7.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9.9	44.3	18.6	6.5	0.8	74.2	18.6	7.3
	전문가	60	61.7	33.3	1.7	3.3	0.0	95.0	1.7	3.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31.5	38.3	22.1	7.3	0.9	69.7	22.1	8.2
	중	564	29.4	45.9	18.3	5.7	0.7	75.4	18.3	6.4
	하	210	28.1	51.9	12.4	7.1	0.5	80.0	12.4	7.6
성별	남성	720	31.9	41.8	19.3	6.3	0.7	73.8	19.3	6.9
	여성	480	26.9	47.9	17.5	6.9	0.8	74.8	17.5	7.7
연령별	20대 이하	299	27.8	47.8	18.7	5.7	0.0	75.6	18.7	5.7
	30대	273	30.8	43.6	17.2	6.6	1.8	74.4	17.2	8.4
	40대	316	31.0	43.0	18.7	7.0	0.3	74.1	18.7	7.3
	50대	312	30.1	42.6	19.6	6.7	1.0	72.8	19.6	7.7
지역별	서울	237	31.6	43.9	17.7	6.3	0.4	75.5	17.7	6.8
	경기/인천	389	34.4	42.4	13.9	8.0	1.3	76.9	13.9	9.3
	부산/울산/경남	183	19.7	55.2	16.4	8.2	0.5	74.9	16.4	8.7
	대구/경북	114	40.4	41.2	12.3	5.3	0.9	81.6	12.3	6.1
	광주/전라	114	11.4	36.0	46.5	6.1	0.0	47.4	46.5	6.1
	대전/충청/세종	128	30.5	46.9	19.5	3.1	0.0	77.3	19.5	3.1
지역크기	강원	35	45.7	37.1	14.3	0.0	2.9	82.9	14.3	2.9
	대도시	542	33.0	40.8	19.9	5.4	0.9	73.8	19.9	6.3
	중소도시	579	27.5	48.0	16.2	7.6	0.7	75.5	16.2	8.3
직업별	읍/면	79	26.6	40.5	26.6	6.3	0.0	67.1	26.6	6.3
	농/어/임업	10	40.0	60.0	0.0	0.0	0.0	100.0	0.0	0.0
	자영업자	260	30.0	37.3	25.0	6.5	1.2	67.3	25.0	7.7
	판매/서비스직	238	28.2	43.3	18.5	8.8	1.3	71.4	18.5	10.1
	사무/기술직	386	30.8	47.4	17.1	4.1	0.5	78.2	17.1	4.7
	전문/자유직	27	44.4	33.3	7.4	11.1	3.7	77.8	7.4	14.8
	전업주부	147	29.9	44.9	16.3	8.8	0.0	74.8	16.3	8.8
	학생	111	25.2	50.5	18.9	5.4	0.0	75.7	18.9	5.4
학력별	무직/기타	21	33.3	52.4	4.8	9.5	0.0	85.7	4.8	9.5
	중졸이하	21	28.6	38.1	4.8	23.8	4.8	66.7	4.8	28.6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28.6	44.6	20.2	6.3	0.3	73.2	20.2	6.6
	전문대(중퇴/졸업)	308	27.9	45.5	19.8	5.8	1.0	73.4	19.8	6.8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31.1	45.1	17.2	6.0	0.6	76.2	17.2	6.7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54.2	12.5	16.7	12.5	4.2	66.7	16.7	16.7
	상	110	30.0	45.5	13.6	9.1	1.8	75.5	13.6	10.9
	중	680	30.0	42.6	20.7	5.9	0.7	72.6	20.7	6.6
하	410	29.8	46.6	16.3	6.8	0.5	76.3	16.3	7.3	

9.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 받으려고'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54.4%, 전문가 76.7%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 받으려고'라는 응답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더 얻으려고'(2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북한의 체제를 보장 받으려고'(54.4%)라는 응답은 10.3%p(2017년 44.1%) 증가하였고,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더 얻으려고'(22.4%)라는 응답은 3.9%p(2017년 2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 받으려고'라는 응답이 7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하여'(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9>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특성별 분석]

-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북한의 체제를 보장 받으려고’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강원’, 직업별로 ‘전문/자유직(n=27)’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3-9>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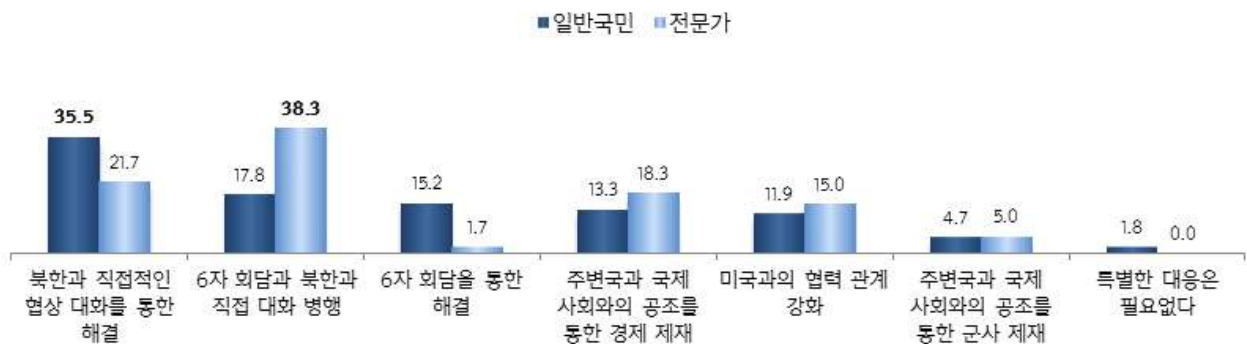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북한의 체제를 보장 받으려고	국제 사회로 부터 경제 지원을 더 얻으려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하여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을 위협하기 위하여	기타	
전체		1,260	55.5	21.3	11.3	8.7	2.9	0.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4.4	22.4	11.4	8.9	2.7	0.2	
	전문가	60	76.7	0.0	8.3	5.0	6.7	3.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58.9	17.6	10.3	10.8	1.9	0.5	
	중	564	53.7	22.0	12.2	8.9	3.2	0.0	
	하	210	47.1	33.3	11.4	5.2	2.9	0.0	
성별	남성	720	57.2	21.3	10.4	8.5	2.4	0.3	
	여성	480	50.2	24.2	12.9	9.6	3.1	0.0	
연령별	20대 이하	299	56.2	18.4	12.4	9.7	3.3	0.0	
	30대	273	52.4	20.5	12.8	10.3	3.7	0.4	
	40대	316	55.7	25.3	9.5	7.9	1.3	0.3	
	50대	312	53.2	25.0	11.2	8.0	2.6	0.0	
지역별	서울	237	52.7	24.1	10.5	8.0	4.2	0.4	
	경기/인천	389	56.3	19.5	10.8	9.3	3.9	0.3	
	부산/울산/경남	183	48.1	33.9	12.6	4.9	0.5	0.0	
	대구/경북	114	54.4	21.9	10.5	12.3	0.9	0.0	
	광주/전라	114	63.2	9.6	15.8	8.8	2.6	0.0	
	대전/충청/세종	128	50.0	25.8	10.9	13.3	0.0	0.0	
지역크기	강원	35	65.7	14.3	8.6	5.7	5.7	0.0	
	대도시	542	57.6	20.7	11.3	7.4	2.8	0.4	
	중소도시	579	52.2	23.5	11.9	9.8	2.6	0.0	
	읍/면	79	49.4	26.6	8.9	12.7	2.5	0.0	
	직업별	농/어/임업	10	30.0	50.0	10.0	10.0	0.0	0.0
		자영업자	260	55.0	24.2	9.6	7.7	3.5	0.0
판매/서비스직		238	56.7	17.6	15.1	6.7	3.4	0.4	
사무/기술직		386	56.2	22.5	10.1	9.6	1.6	0.0	
전문/자유직		27	59.3	25.9	0.0	11.1	0.0	3.7	
전업주부		147	44.9	27.2	14.3	11.6	2.0	0.0	
학생		111	55.9	17.1	11.7	9.9	5.4	0.0	
학력별	무직/기타	21	52.4	28.6	9.5	9.5	0.0	0.0	
	중졸이하	21	52.4	19.0	9.5	4.8	14.3	0.0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43.0	32.3	13.6	8.1	2.9	0.0	
	전문대(중퇴/졸업)	308	54.9	22.1	10.4	9.7	2.6	0.3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62.4	15.5	10.9	9.0	2.1	0.0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75.0	8.3	0.0	12.5	0.0	4.2	
	상	110	57.3	15.5	9.1	16.4	0.9	0.9	
	중	680	56.0	21.3	11.8	7.9	2.8	0.1	
	하	410	51.0	26.1	11.5	8.5	2.9	0.0	

10.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일반국민은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35.5%), 전문가는 ‘6자 회담과 북한과의 직접 대화 병행’(38.3%)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응답이 3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1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35.5%)이라는 응답은 14.6%p(2017년 20.9%) 증가하였고,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17.8%)이라는 응답은 6.2%p(2017년 2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이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2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0>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응답은 성별로 ‘여성’, 지역별로 ‘광주/전라’, 직업별로 ‘전업주부’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0>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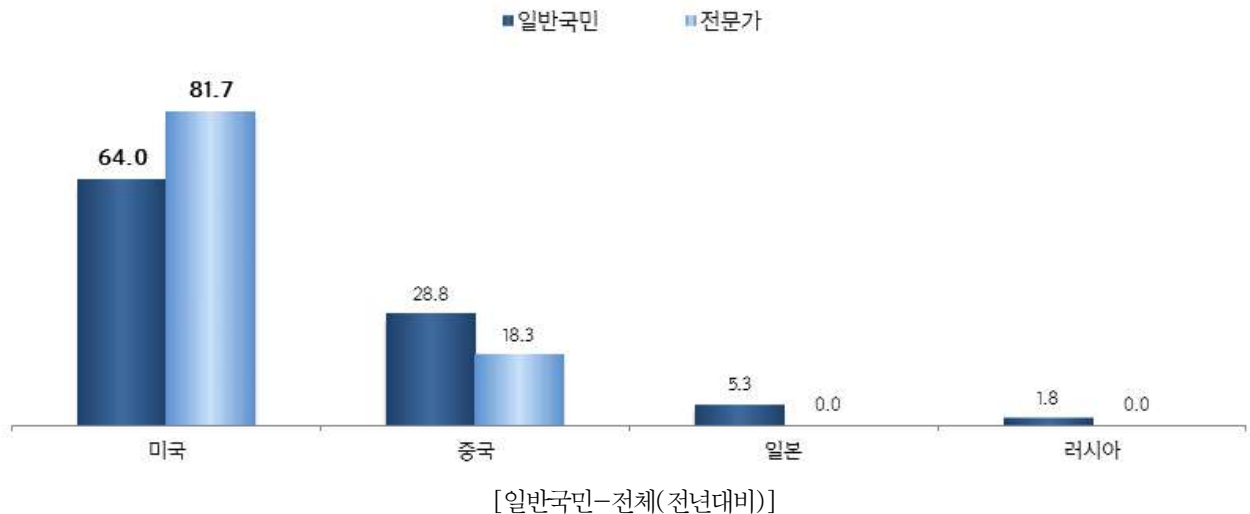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	6자 회담을 통한 해결	주변국과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경제 제재	미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	주변국과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군사 제재	특별한 대응은 필요없다
전체		1,260	34.8	18.7	14.5	13.5	12.1	4.7	1.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5.5	17.8	15.2	13.3	11.9	4.7	1.8
	전문가	60	21.7	38.3	1.7	18.3	15.0	5.0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36.2	16.7	15.7	14.1	9.9	5.6	1.9
	중	564	35.3	19.1	14.5	12.8	12.8	4.1	1.4
	하	210	34.8	16.2	15.7	12.9	13.8	4.3	2.4
성별	남성	720	33.3	18.1	15.1	13.3	13.1	5.3	1.8
	여성	480	38.8	17.3	15.2	13.1	10.2	3.8	1.7
연령별	20대 이하	299	36.8	16.7	15.7	11.4	13.0	4.3	2.0
	30대	273	35.5	19.0	15.4	11.7	13.2	4.4	0.7
	40대	316	34.8	17.7	15.5	16.8	9.2	4.4	1.6
	50대	312	34.9	17.6	14.1	12.8	12.5	5.4	2.6
지역별	서울	237	27.4	23.6	16.9	12.7	11.0	7.2	1.3
	경기/인천	389	37.3	18.8	16.5	10.8	11.3	2.8	2.6
	부산/울산/경남	183	42.1	13.1	20.8	18.6	1.6	3.8	0.0
	대구/경북	114	29.8	20.2	7.0	13.2	21.9	3.5	4.4
	광주/전라	114	57.0	12.3	7.9	7.9	2.6	9.6	2.6
	대전/충청/세종	128	20.3	10.2	15.6	21.9	29.7	2.3	0.0
	강원	35	40.0	28.6	8.6	2.9	11.4	8.6	0.0
지역크기	대도시	542	34.1	18.6	16.1	14.2	9.8	6.3	0.9
	중소도시	579	35.4	17.6	14.3	12.8	14.5	3.1	2.2
	읍/면	79	45.6	12.7	15.2	10.1	7.6	5.1	3.8
직업별	농/어/임업	10	40.0	10.0	10.0	10.0	20.0	10.0	0.0
	자영업자	260	37.7	16.9	14.2	11.9	10.4	6.2	2.7
	판매/서비스직	238	34.5	16.0	19.7	10.9	13.9	3.8	1.3
	사무/기술직	386	31.3	21.2	13.7	15.0	13.0	4.4	1.3
	전문/자유직	27	33.3	29.6	11.1	11.1	11.1	0.0	3.7
	전업주부	147	44.2	14.3	12.2	15.0	8.2	5.4	0.7
	학생	111	36.9	13.5	18.0	11.7	12.6	3.6	3.6
	무직/기타	21	28.6	19.0	14.3	23.8	9.5	4.8	0.0
학력별	중졸이하	21	33.3	14.3	23.8	4.8	9.5	4.8	9.5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39.1	13.4	15.7	13.6	10.8	5.5	1.8
	전문대(중퇴/졸업)	308	32.8	20.8	14.9	12.7	14.0	4.2	0.6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35.2	18.7	14.8	14.4	10.7	4.1	2.1
	대학원 이상	24	20.8	33.3	8.3	0.0	29.2	8.3	0.0
생활수준 별	상	110	37.3	16.4	19.1	9.1	14.5	2.7	0.9
	중	680	34.9	18.7	14.9	13.8	11.5	4.4	1.9
	하	410	36.1	16.6	14.6	13.4	12.0	5.6	1.7

11.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

북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일반 국민 64.0%, 전문가 8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북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6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28.8%), '일본'(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미국'(64.0%)이라는 응답은 11.2%p(2017년 52.8%) 증가하였고, '중국'(28.8%)이라는 응답은 10.8%p(2017년 3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북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8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18.3%)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1>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특성별 분석]

- 북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미국’ 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로 ‘하’, 성별로 ‘여성’, 지역별로 ‘경기·인천’, 직업별로 ‘사무/기술직’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1>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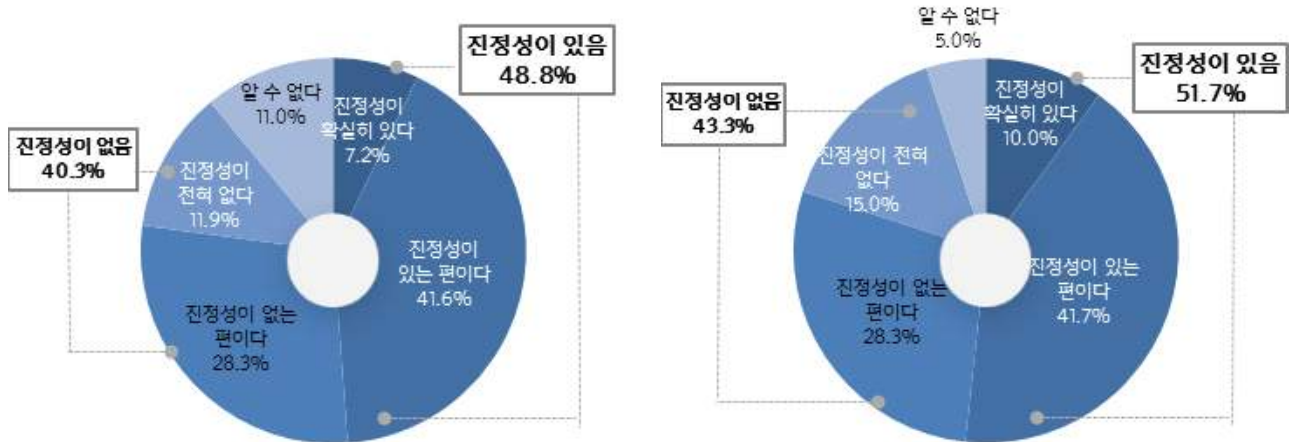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전체		1,260	64.8	28.3	5.0	1.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64.0	28.8	5.3	1.8	
	전문가	60	81.7	18.3	0.0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64.8	27.9	5.2	2.1	
	중	564	62.9	29.8	5.0	2.0	
	하	210	65.2	27.6	6.2	1.0	
성별	남성	720	63.8	28.9	5.6	1.8	
	여성	480	64.4	28.5	4.8	1.9	
연령별	20대 이하	299	62.9	28.1	6.4	2.3	
	30대	273	68.5	24.9	5.1	1.5	
	40대	316	61.7	33.2	3.5	1.6	
	50대	312	63.5	28.2	6.1	1.9	
지역별	서울	237	62.4	27.8	6.3	3.4	
	경기·인천	389	72.0	19.3	7.5	0.8	
	부산/울산/경남	183	59.6	35.5	2.2	2.7	
	대구/경북	114	56.1	39.5	4.4	0.0	
	광주/전라	114	50.0	43.9	2.6	3.5	
	대전/충청/세종	128	68.0	25.8	4.7	1.6	
지역크기	강원	35	65.7	31.4	2.9	0.0	
	대도시	542	60.1	33.4	4.1	2.2	
	중소도시	579	69.8	21.6	7.1	1.4	
	읍/면	79	48.1	49.4	0.0	2.5	
	직업별	농/어/임업	10	40.0	60.0	0.0	0.0
		자영업자	260	61.9	31.5	4.2	1.9
		판매/서비스직	238	62.6	25.6	10.1	1.7
사무/기술직		386	67.4	27.2	4.1	1.3	
전문/자유직		27	63.0	29.6	0.0	7.4	
전업주부		147	62.6	31.3	4.1	2.0	
학생		111	65.8	27.9	3.6	1.8	
학력별	무직/기타	21	57.1	28.6	9.5	4.8	
	중졸이하	21	52.4	47.6	0.0	0.0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66.1	26.8	4.5	2.6	
	전문대(중퇴/졸업)	308	64.0	27.9	6.2	1.6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62.0	30.9	5.4	1.5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79.2	12.5	8.3	0.0	
	상	110	63.6	26.4	7.3	1.8	
	중	680	68.7	24.6	5.7	0.9	
	하	410	56.3	36.3	3.9	3.4	

12. 북한 핵무기 폐기의 진정성

북한 핵무기 폐기의 진정성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48.8%, 전문가 51.7%로 나타남.

- [일반국민] 북한 핵무기 폐기의 진정성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는 응답이 48.8%로 '진정성이 없다'(40.3%)는 응답보다 8.5%p 높게 나타남.
- [전문가] 북한 핵무기 폐기의 진정성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는 응답이 51.7%로 '진정성이 없다'(43.3%)는 응답보다 8.4%p 높게 나타남.

<그림 3-12> 북한 핵무기 폐기의 진정성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특성별 분석]

-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폐기의 진정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진정성이 있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광주/전라’, 직업별로 ‘농/어/임업 종사자(n=10),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2> 북한 핵무기 폐기의 진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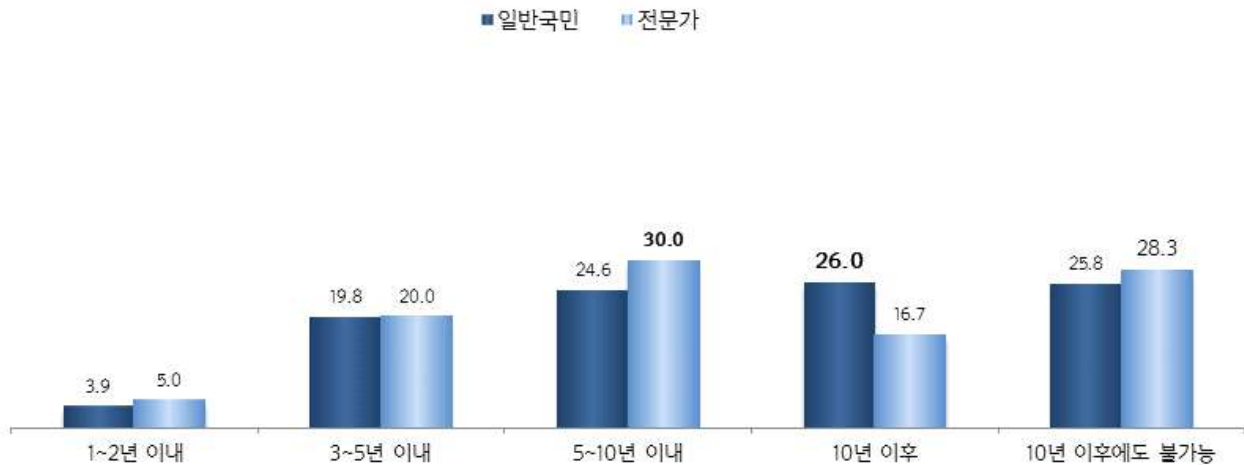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진정성이 확실히 있다	진정성이 있는 편이다	진정성이 없는 편이다	진정성이 전혀 없다	알 수 없다	종합			
							진정성이 있음	진정성이 없음	알 수 없다	
전체	1,260	7.3	41.6	28.3	12.1	10.7	48.9	40.4	10.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7.2	41.6	28.3	11.9	11.0	48.8	40.3	11.0
	전문가	60	10.0	41.7	28.3	15.0	5.0	51.7	43.3	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11.3	47.2	21.8	11.0	8.7	58.5	32.9	8.7
	중	564	4.6	43.3	30.7	9.4	12.1	47.9	40.1	12.1
	하	210	5.7	25.7	35.2	20.5	12.9	31.4	55.7	12.9
성별	남성	720	6.8	42.9	26.8	13.6	9.9	49.7	40.4	9.9
	여성	480	7.7	39.6	30.6	9.4	12.7	47.3	40.0	12.7
연령별	20대 이하	299	7.7	40.1	29.4	11.0	11.7	47.8	40.5	11.7
	30대	273	6.6	43.2	28.2	11.4	10.6	49.8	39.6	10.6
	40대	316	6.0	46.2	25.0	11.7	11.1	52.2	36.7	11.1
	50대	312	8.3	36.9	30.8	13.5	10.6	45.2	44.2	10.6
지역별	서울	237	6.3	40.1	31.6	8.4	13.5	46.4	40.1	13.5
	경기/인천	389	12.1	49.6	20.1	9.0	9.3	61.7	29.0	9.3
	부산/울산/경남	183	1.1	23.5	43.2	17.5	14.8	24.6	60.7	14.8
	대구/경북	114	0.9	41.2	21.9	12.3	23.7	42.1	34.2	23.7
	광주/전라	114	14.0	50.9	21.9	8.8	4.4	64.9	30.7	4.4
	대전/충청/세종	128	1.6	35.9	37.5	22.7	2.3	37.5	60.2	2.3
지역크기	강원	35	8.6	48.6	28.6	8.6	5.7	57.1	37.1	5.7
	대도시	542	4.2	41.0	30.3	13.8	10.7	45.2	44.1	10.7
직업별	중소도시	579	9.8	43.5	26.1	9.8	10.7	53.4	35.9	10.7
	읍/면	79	7.6	31.6	31.6	13.9	15.2	39.2	45.6	15.2
	농/어/임업	10	0.0	60.0	20.0	0.0	20.0	60.0	20.0	20.0
	자영업자	260	7.7	40.4	26.9	13.8	11.2	48.1	40.8	11.2
	판매/서비스직	238	4.2	44.5	27.7	13.9	9.7	48.7	41.6	9.7
	사무/기술직	386	8.8	40.9	29.3	11.4	9.6	49.7	40.7	9.6
	전문/자유직	27	11.1	40.7	33.3	3.7	11.1	51.9	37.0	11.1
학력별	전업주부	147	6.8	38.8	30.6	8.2	15.6	45.6	38.8	15.6
	학생	111	7.2	45.0	25.2	11.7	10.8	52.3	36.9	10.8
	무직/기타	21	4.8	28.6	33.3	19.0	14.3	33.3	52.4	14.3
	중졸이하	21	19.0	28.6	14.3	14.3	23.8	47.6	28.6	23.8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5.8	35.7	29.9	15.0	13.6	41.5	44.9	13.6
생활수준 별	전문대(중퇴/졸업)	308	7.1	44.8	27.6	11.7	8.8	51.9	39.3	8.8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7.3	43.8	29.2	9.7	10.1	51.1	38.8	10.1
	대학원 이상	24	16.7	62.5	8.3	8.3	4.2	79.2	16.7	4.2
생활수준 별	상	110	8.2	49.1	30.9	5.5	6.4	57.3	36.4	6.4
	중	680	6.5	45.3	26.6	10.3	11.3	51.8	36.9	11.3
	하	410	8.0	33.4	30.5	16.3	11.7	41.5	46.8	11.7

13.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에 대해 일반국민은 '10년 이후'(26.0%), 전문가는 '5~10년 이내' (30.0%) 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에 대해 '10년 이후'라는 응답이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년 이후에도 불가능'(25.8%), '5~10년 이내'(2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에 대해 '5~10년 이내'라는 응답이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년 이후에도 불가능'(28.3%), '3~5년 이내'(2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3>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특성별 분석]

-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10년 이후에도 불가능'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무직/기타(n=21)'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3>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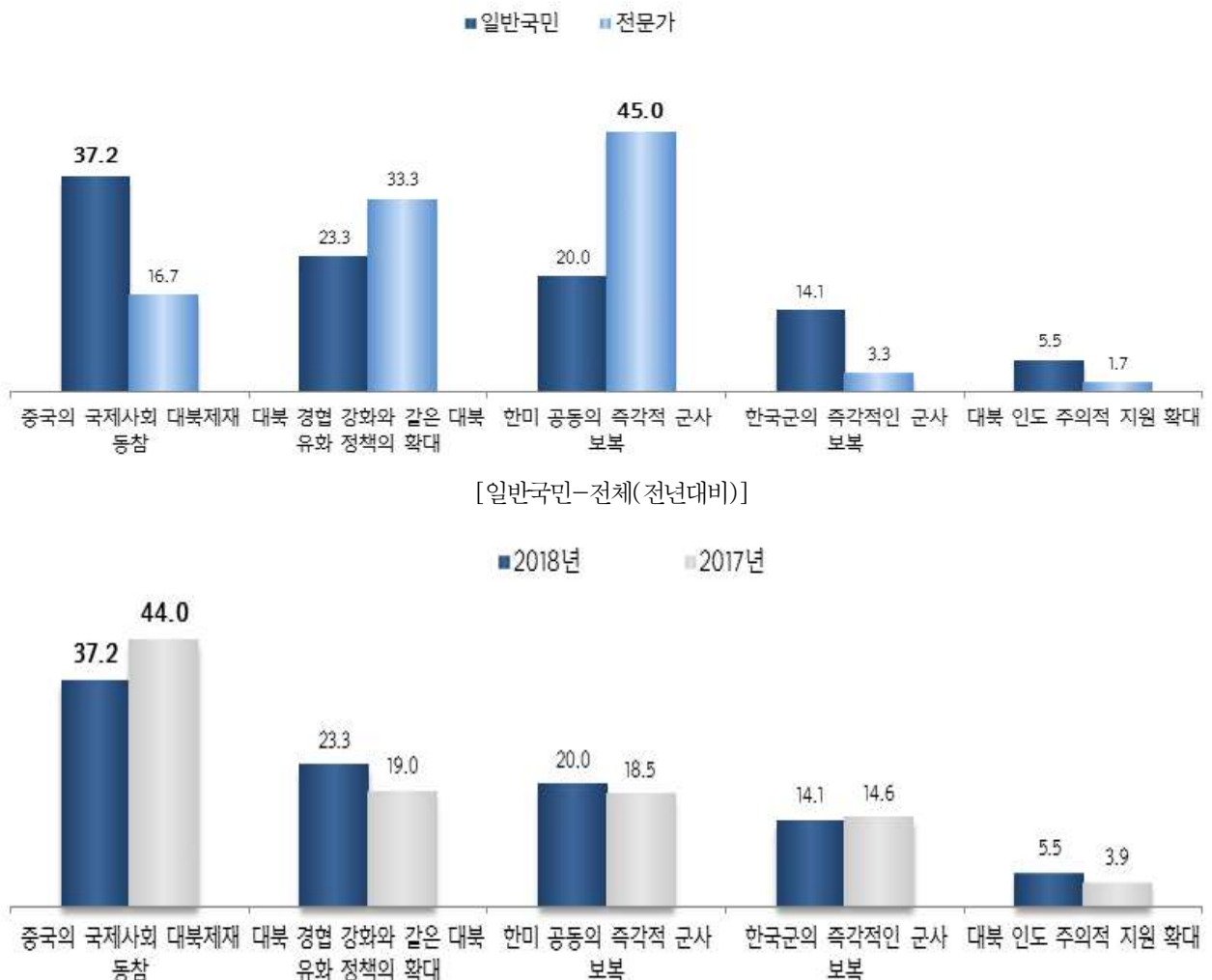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1~2년 이내	3~5년 이내	5~10년 이내	10년 이후	10년 이후에도 불가능
전체		1,260	4.0	19.8	24.8	25.6	25.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9	19.8	24.6	26.0	25.8
	전문가	60	5.0	20.0	30.0	16.7	28.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5.2	24.6	23.5	23.5	23.2
	중	564	3.2	17.7	26.6	28.5	23.9
	하	210	3.3	15.2	21.4	24.3	35.7
성별	남성	720	3.5	19.4	25.6	26.7	24.9
	여성	480	4.6	20.2	23.1	25.0	27.1
연령별	20대 이하	299	3.3	15.4	29.1	31.4	20.7
	30대	273	3.7	20.5	24.5	27.5	23.8
	40대	316	4.4	23.1	21.5	23.1	27.8
	50대	312	4.2	19.9	23.4	22.4	30.1
지역별	서울	237	3.8	15.6	21.9	33.3	25.3
	경기/인천	389	3.6	25.4	32.4	21.3	17.2
	부산/울산/경남	183	2.7	8.2	13.7	37.2	38.3
	대구/경북	114	2.6	21.9	23.7	17.5	34.2
	광주/전라	114	11.4	32.5	14.9	14.9	26.3
	대전/충청/세종	128	0.0	11.7	31.3	28.1	28.9
	강원	35	8.6	25.7	22.9	25.7	17.1
지역크기	대도시	542	3.3	17.0	23.2	29.0	27.5
	중소도시	579	4.1	21.1	25.7	24.5	24.5
	읍/면	79	6.3	29.1	25.3	16.5	22.8
직업별	농/어/임업	10	0.0	40.0	30.0	20.0	10.0
	자영업자	260	4.2	21.9	19.2	22.3	32.3
	판매/서비스직	238	4.2	20.2	27.3	27.3	21.0
	사무/기술직	386	4.7	19.2	24.1	26.9	25.1
	전문/자유직	27	7.4	14.8	22.2	37.0	18.5
	전업주부	147	3.4	19.0	25.2	25.2	27.2
	학생	111	0.9	15.3	34.2	27.0	22.5
	무직/기타	21	0.0	23.8	14.3	28.6	33.3
학력별	중졸이하	21	4.8	19.0	9.5	19.0	47.6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2.6	13.9	21.8	29.4	32.3
	전문대(중퇴/졸업)	308	3.2	17.5	29.2	26.3	23.7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4.7	25.8	24.5	24.0	21.0
	대학원 이상	24	16.7	25.0	25.0	12.5	20.8
생활수준 별	상	110	6.4	24.5	23.6	19.1	26.4
	중	680	3.5	18.2	25.6	29.4	23.2
	하	410	3.9	21.0	23.2	22.2	29.8

14.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일반국민은 ‘중국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동참’(37.2%), 전문가는 ‘한미 공동의 즉각적 군사 보복’(45.0%)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중국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동참’이라는 응답이 37.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북 경험 강화와 같은 대북 유화 정책의 확대’(2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중국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동참’(37.2%)이라는 응답은 6.8%p(2017년 44.0%) 감소하였고, ‘대북 경험 강화와 같은 대북 유화 정책의 확대’(23.3%)이라는 응답은 4.3%p(2017년 1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한미 공동의 즉각적 군사보복’이라는 응답이 4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북 경험 강화와 같은 대북 유화 정책의 확대’(3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4>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특성별 분석]

-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동참’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로 ‘하’, 성별로 ‘여성’, 지역별로 ‘광주/전라’, 직업별로 ‘농/어/임업 (n=10)’,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4>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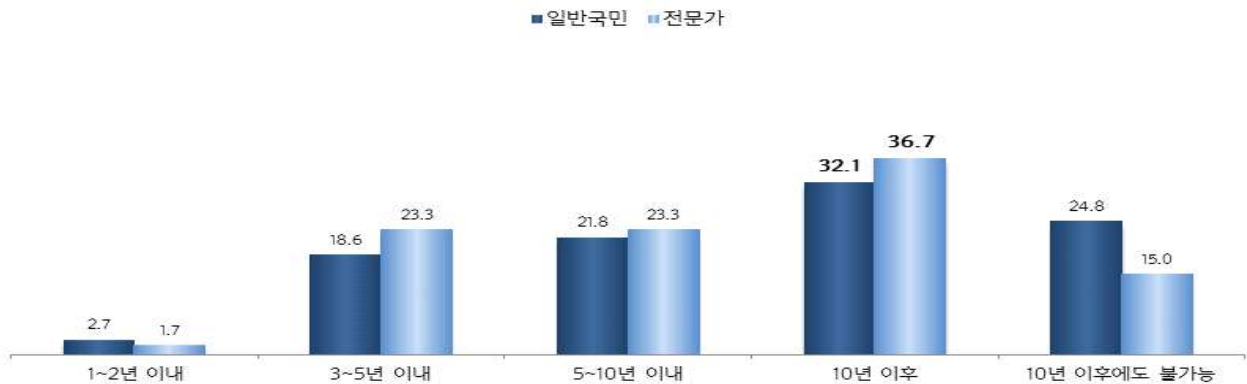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중국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동참	대북 경협 강화와 같은 대북 유화 정책의 확대	한미 공동의 즉각적 군사 보복	한국군의 즉각적인 군사 보복	대북 인도 주의적 지원 확대	
전체		1,260	36.2	23.7	21.2	13.6	5.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7.2	23.3	20.0	14.1	5.5	
	전문가	60	16.7	33.3	45.0	3.3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37.3	25.1	18.5	14.8	4.2	
	중	564	36.9	22.2	22.7	13.8	4.4	
	하	210	37.6	22.4	15.7	13.3	11.0	
성별	남성	720	37.1	22.6	20.6	14.4	5.3	
	여성	480	37.3	24.2	19.2	13.5	5.8	
연령별	20대 이하	299	35.8	22.1	23.4	14.7	4.0	
	30대	273	37.0	22.7	18.7	14.3	7.3	
	40대	316	38.9	24.1	19.0	12.3	5.7	
	50대	312	36.9	24.0	18.9	15.1	5.1	
지역별	서울	237	29.1	23.2	23.6	18.1	5.9	
	경기/인천	389	27.2	24.9	26.7	16.7	4.4	
	부산/울산/경남	183	41.0	24.0	11.5	13.1	10.4	
	대구/경북	114	60.5	19.3	14.9	3.5	1.8	
	광주/전라	114	67.5	11.4	4.4	8.8	7.9	
	대전/충청/세종	128	26.6	28.9	25.8	15.6	3.1	
지역크기	강원	35	45.7	31.4	11.4	8.6	2.9	
	대도시	542	37.6	21.4	20.1	16.1	4.8	
	중소도시	579	34.5	24.9	20.7	13.0	6.9	
	읍/면	79	53.2	24.1	13.9	8.9	0.0	
	직업별	농/어/임업	10	50.0	30.0	10.0	0.0	10.0
		자영업자	260	36.9	21.2	18.5	15.4	8.1
판매/서비스직		238	31.5	21.0	26.5	18.9	2.1	
사무/기술직		386	37.0	25.4	18.1	13.0	6.5	
전문/자유직		27	44.4	37.0	11.1	3.7	3.7	
전업주부		147	42.2	23.1	19.7	11.6	3.4	
학생		111	38.7	24.3	19.8	11.7	5.4	
무직/기타		21	47.6	9.5	19.0	14.3	9.5	
학력별	중졸이하	21	28.6	33.3	9.5	14.3	14.3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33.6	24.9	21.3	12.9	7.3	
	전문대(중퇴/졸업)	308	38.0	18.5	20.5	19.2	3.9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39.9	24.0	19.7	11.4	4.9	
	대학원 이상	24	37.5	33.3	8.3	20.8	0.0	
생활수준 별	상	110	31.8	23.6	16.4	25.5	2.7	
	중	680	34.6	24.7	23.2	13.1	4.4	
	하	410	42.9	20.7	15.6	12.7	8.0	

15. 한반도의 평화체제로 전환 시기

한반도의 평화체제로 전환 시기에 대해 '10년 이후'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32.1%, 전문가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시기에 대해 '10년 이후'라는 응답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년 이후에도 불가능'(24.8%), '5~10년 이내'(2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시기에 대해 '10년 이후'이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5년 이내'(23.3%), '5~10년 이내'(2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5> 한반도의 평화체제로 전환 시기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특성별 분석]

-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시기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10년 이후’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 별로 ‘중’,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서울’, 직업별로 ‘무직/기타(n=21)’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5>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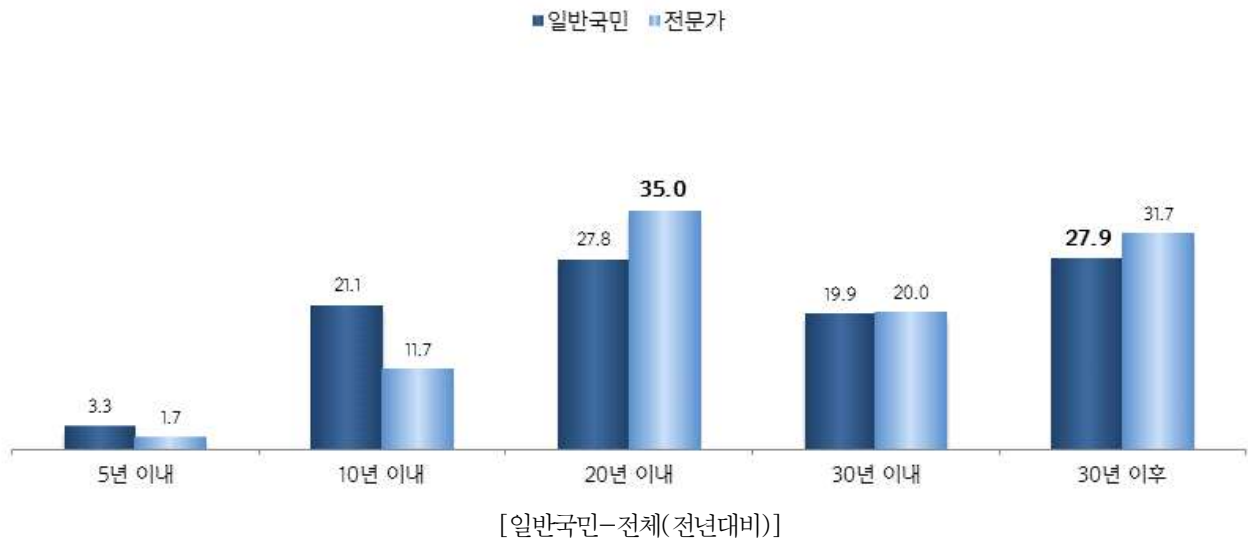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1~2년 이내	3~5년 이내	5~10년 이내	10년 이후	10년 이후에도 불가능
전체		1,260	2.6	18.8	21.9	32.3	24.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7	18.6	21.8	32.1	24.8
	전문가	60	1.7	23.3	23.3	36.7	1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3.5	23.9	23.2	27.2	22.1
	중	564	2.3	16.1	21.8	35.6	24.1
	하	210	1.9	14.3	19.0	32.4	32.4
성별	남성	720	2.6	18.2	20.4	33.6	25.1
	여성	480	2.7	19.2	24.0	29.8	24.4
연령별	20대 이하	299	2.7	17.4	21.1	34.1	24.7
	30대	273	2.9	16.8	24.5	33.3	22.3
	40대	316	3.8	19.3	22.2	30.7	24.1
	50대	312	1.3	20.5	19.9	30.4	27.9
지역별	서울	237	0.8	17.3	16.0	40.9	24.9
	경기/인천	389	3.6	23.4	29.0	32.4	11.6
	부산/울산/경남	183	1.6	4.9	16.9	37.2	39.3
	대구/경북	114	0.9	17.5	19.3	23.7	38.6
	광주/전라	114	8.8	36.0	22.8	9.6	22.8
	대전/충청/세종	128	0.0	13.3	15.6	34.4	36.7
	강원	35	5.7	11.4	34.3	34.3	14.3
지역크기	대도시	542	1.7	17.9	20.1	32.7	27.7
	중소도시	579	3.1	19.3	22.8	33.2	21.6
	읍/면	79	6.3	17.7	26.6	20.3	29.1
직업별	농/어/임업	10	10.0	40.0	10.0	20.0	20.0
	자영업자	260	3.1	22.3	18.5	28.8	27.3
	판매/서비스직	238	2.1	18.9	22.3	36.1	20.6
	사무/기술직	386	2.6	15.5	24.1	32.4	25.4
	전문/자유직	27	0.0	22.2	25.9	37.0	14.8
	전업주부	147	3.4	16.3	23.1	31.3	25.9
	학생	111	2.7	18.9	22.5	29.7	26.1
	무직/기타	21	0.0	23.8	4.8	38.1	33.3
학력별	중졸이하	21	9.5	9.5	19.0	19.0	42.9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8	12.6	16.0	39.4	30.2
	전문대(중퇴/졸업)	308	2.3	18.5	26.0	31.5	21.8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3.4	23.8	22.5	27.9	22.3
	대학원 이상	24	0.0	20.8	50.0	16.7	12.5
생활수준 별	상	110	5.5	26.4	25.5	21.8	20.9
	중	680	2.2	17.8	21.6	35.9	22.5
	하	410	2.7	17.8	21.2	28.5	29.8

16. 한반도 통일 전망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해 일반국민은 ‘30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27.9%로 가장 높고, 전문가는 ‘20년 이내’라는 응답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해 ‘30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0년 이내’(27.8%), ‘10년 이내’(2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30년 이후’(27.9%)라는 응답은 7.7%p(2017년 35.6%) 감소하였고, ‘10년 이내’(21.1%)라는 응답은 4.8%p(2017년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해 ‘20년 이내’이라는 응답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0년 이후’(31.7%), ‘30년 이내’(2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6> 한반도 통일 전망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특성별 분석]

-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20년 이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로 ‘중’,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강원’, 직업별로 ‘사무/기술직’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6> 한반도 통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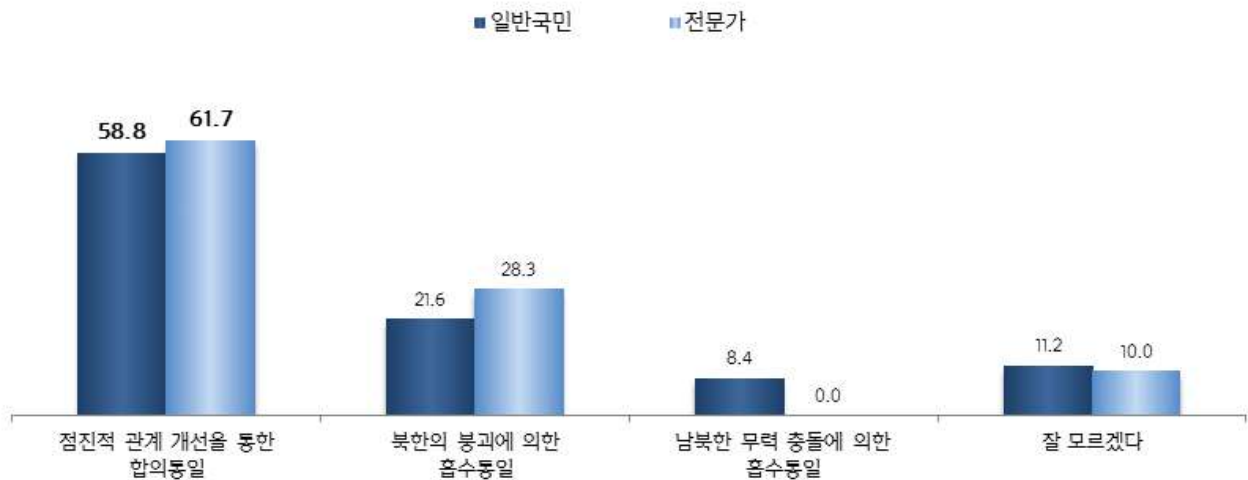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후
전체		1,260	3.2	20.6	28.2	19.9	28.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3	21.1	27.8	19.9	27.9
	전문가	60	1.7	11.7	35.0	20.0	3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3.5	24.4	27.5	18.8	25.8
	중	564	3.2	21.5	28.9	20.7	25.7
	하	210	2.9	13.3	25.7	20.0	38.1
성별	남성	720	2.9	20.1	29.9	19.9	27.2
	여성	480	3.8	22.5	24.8	20.0	29.0
연령별	20대 이하	299	2.0	19.4	30.4	21.7	26.4
	30대	273	4.8	20.9	27.1	17.9	29.3
	40대	316	4.1	19.0	26.6	21.8	28.5
	50대	312	2.2	25.0	27.2	17.9	27.6
지역별	서울	237	2.1	21.9	19.4	21.5	35.0
	경기/인천	389	3.1	28.0	27.8	17.7	23.4
	부산/울산/경남	183	1.1	6.0	32.8	31.1	29.0
	대구/경북	114	0.9	12.3	32.5	13.2	41.2
	광주/전라	114	13.2	29.8	18.4	17.5	21.1
	대전/충청/세종	128	1.6	21.1	36.7	18.8	21.9
	강원	35	5.7	17.1	42.9	8.6	25.7
지역크기	대도시	542	1.8	19.0	26.2	24.0	29.0
	중소도시	579	3.6	23.5	28.2	18.3	26.4
	읍/면	79	10.1	17.7	36.7	3.8	31.6
직업별	농/어/임업	10	0.0	50.0	20.0	20.0	10.0
	자영업자	260	0.8	22.7	28.1	16.2	32.3
	판매/서비스직	238	5.0	21.0	25.2	21.0	27.7
	사무/기술직	386	4.1	17.9	30.8	23.6	23.6
	전문/자유직	27	3.7	29.6	22.2	14.8	29.6
	전업주부	147	3.4	23.1	27.9	15.0	30.6
	학생	111	2.7	21.6	26.1	21.6	27.9
	무직/기타	21	0.0	19.0	19.0	19.0	42.9
학력별	중졸이하	21	9.5	9.5	14.3	19.0	47.6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8	17.1	26.5	19.9	34.6
	전문대(중퇴/졸업)	308	3.2	22.4	28.9	20.8	24.7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4.1	23.2	28.5	19.5	24.7
	대학원 이상	24	4.2	37.5	33.3	16.7	8.3
생활수준 별	상	110	5.5	33.6	25.5	16.4	19.1
	중	680	2.5	18.1	30.9	22.2	26.3
	하	410	3.9	22.7	23.4	17.1	32.9

17. 한반도 통일 방식

한반도 통일 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58.8%, 전문가 61.7%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한반도 통일 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이라는 응답이 5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2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58.8%)이라는 응답은 22.5%p(2017년 36.3%) 증가하였고,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21.6%)라는 응답은 20.4%p(2017년 4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반도 통일 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이라는 응답이 6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2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7> 한반도 통일 방식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한반도 통일 방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7> 한반도 통일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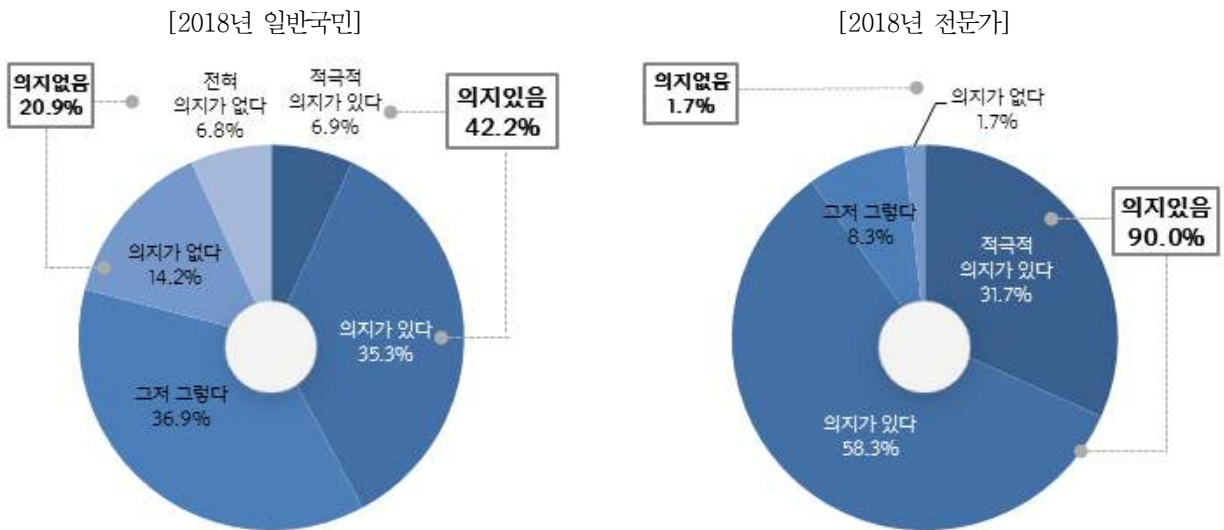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남북한 무력 충돌에 의한 흡수통일	잘 모르겠다
전체		1,260	59.0	21.9	8.0	11.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8.8	21.6	8.4	11.2
	전문가	60	61.7	28.3	0.0	1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55.9	26.5	8.0	9.6
	중	564	58.2	20.6	10.1	11.2
	하	210	66.7	14.3	4.8	14.3
성별	남성	720	57.5	23.8	8.8	10.0
	여성	480	60.8	18.3	7.9	12.9
연령별	20대 이하	299	59.5	22.4	8.0	10.0
	30대	273	58.6	22.0	7.7	11.7
	40대	316	59.5	19.9	7.9	12.7
	50대	312	57.7	22.1	9.9	10.3
지역별	서울	237	54.9	21.1	10.1	13.9
	경기/인천	389	54.5	23.1	10.5	11.8
	부산/울산/경남	183	75.4	12.0	7.1	5.5
	대구/경북	114	53.5	15.8	2.6	28.1
	광주/전라	114	73.7	13.2	7.0	6.1
	대전/충청/세종	128	48.4	41.4	7.8	2.3
	강원	35	54.3	31.4	5.7	8.6
지역크기	대도시	542	65.1	17.2	7.6	10.1
	중소도시	579	53.9	25.0	9.8	11.2
	읍/면	79	51.9	26.6	3.8	17.7
직업별	농/어/임업	10	80.0	0.0	0.0	20.0
	자영업자	260	62.7	17.3	8.5	11.5
	판매/서비스직	238	52.9	22.3	11.8	13.0
	사무/기술직	386	60.1	24.9	6.2	8.8
	전문/자유직	27	63.0	25.9	3.7	7.4
	전업주부	147	57.1	21.8	8.2	12.9
	학생	111	60.4	17.1	11.7	10.8
	무직/기타	21	42.9	33.3	4.8	19.0
학력별	중졸이하	21	47.6	14.3	9.5	28.6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58.8	15.0	11.8	14.4
	전문대(중퇴/졸업)	308	58.4	22.1	8.8	10.7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59.9	25.8	5.8	8.6
	대학원 이상	24	54.2	45.8	0.0	0.0
생활수준 별	상	110	49.1	34.5	10.0	6.4
	중	680	59.4	20.3	9.4	10.9
	하	410	60.5	20.2	6.3	12.9

18. 통일비용 지불 의지

통일비용 지불 의지에 대해 '의지가 있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42.2%, 전문가 9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통일비용 지불 의지에 대해 '의지가 있다'는 응답이 42.2%로 '의지가 없다'(20.9%)는 응답보다 21.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의지가 있다'(42.2%)는 응답은 2.4%p(2017년 39.8%) 증가하였고, '의지가 없다'(20.9%)는 응답은 3.9%p(2017년 2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통일비용 지불 의향에 대해 '의지가 있다'는 응답이 90.0%로 '의지가 없다'(1.7%)는 응답보다 88.3%p 높게 나타남.

<그림 3-18> 통일비용 지불 의향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통일비용 지불 의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의지가 있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 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경기/인천’, 직업별로 ‘전문/자유직’(n=27)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8> 통일비용 지불 의향

단위[%]		사례수 (명)	적극적 의지가 있다	의지가 있다	그저 그렇다	의지가 없다	전혀 의지가 없다	종합		
								의지있음	그저 그렇다	의지없음
전체		1,260	8.1	36.3	35.6	13.6	6.4	44.4	35.6	20.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6.9	35.3	36.9	14.2	6.8	42.2	36.9	20.9
	전문가	60	31.7	58.3	8.3	1.7	0.0	90.0	8.3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12.4	46.5	23.7	11.3	6.1	58.9	23.7	17.4
	중	564	3.5	31.0	46.6	13.8	5.0	34.6	46.6	18.8
	하	210	4.8	23.8	37.6	21.0	12.9	28.6	37.6	33.8
성별	남성	720	7.6	34.9	36.5	14.4	6.5	42.5	36.5	21.0
	여성	480	5.8	35.8	37.5	13.8	7.1	41.7	37.5	20.8
연령별	20대 이하	299	7.7	35.1	37.8	13.0	6.4	42.8	37.8	19.4
	30대	273	7.3	35.9	38.5	9.5	8.8	43.2	38.5	18.3
	40대	316	6.3	39.2	32.9	14.9	6.6	45.6	32.9	21.5
	50대	312	6.4	30.8	38.8	18.6	5.4	37.2	38.8	24.0
지역별	서울	237	8.9	42.2	29.1	10.1	9.7	51.1	29.1	19.8
	경기/인천	389	9.8	42.2	29.3	11.6	7.2	51.9	29.3	18.8
	부산/울산/경남	183	1.6	22.4	43.7	27.9	4.4	24.0	43.7	32.2
	대구/경북	114	3.5	23.7	52.6	14.0	6.1	27.2	52.6	20.2
	광주/전라	114	6.1	43.0	35.1	8.8	7.0	49.1	35.1	15.8
	대전/충청/세종	128	6.3	21.9	53.9	16.4	1.6	28.1	53.9	18.0
지역크기	강원	35	5.7	40.0	31.4	8.6	14.3	45.7	31.4	22.9
	대도시	542	6.1	33.4	36.3	16.4	7.7	39.5	36.3	24.2
	중소도시	579	7.9	36.3	37.0	13.0	5.9	44.2	37.0	18.8
직업별	읍/면	79	5.1	40.5	40.5	7.6	6.3	45.6	40.5	13.9
	농/어/임업	10	30.0	0.0	60.0	10.0	0.0	30.0	60.0	10.0
	자영업자	260	4.6	36.2	35.4	17.7	6.2	40.8	35.4	23.8
	판매/서비스직	238	5.9	37.8	36.1	11.8	8.4	43.7	36.1	20.2
	사무/기술직	386	8.5	33.4	38.9	13.2	6.0	42.0	38.9	19.2
	전문/자유직	27	18.5	51.9	18.5	7.4	3.7	70.4	18.5	11.1
	전업주부	147	4.1	36.1	38.1	15.0	6.8	40.1	38.1	21.8
	학생	111	6.3	35.1	36.9	14.4	7.2	41.4	36.9	21.6
학력별	무직/기타	21	14.3	19.0	33.3	19.0	14.3	33.3	33.3	33.3
	중졸이하	21	14.3	28.6	19.0	38.1	0.0	42.9	19.0	38.1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5.8	26.2	46.7	15.0	6.3	32.0	46.7	21.3
	전문대(중퇴/졸업)	308	4.9	38.3	35.7	12.3	8.8	43.2	35.7	21.1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8.2	40.6	31.3	13.7	6.2	48.7	31.3	20.0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20.8	41.7	20.8	12.5	4.2	62.5	20.8	16.7
	상	110	8.2	50.9	26.4	10.9	3.6	59.1	26.4	14.5
	중	680	7.2	32.8	40.3	12.8	6.9	40.0	40.3	19.7
하	410	6.1	35.1	34.1	17.3	7.3	41.2	34.1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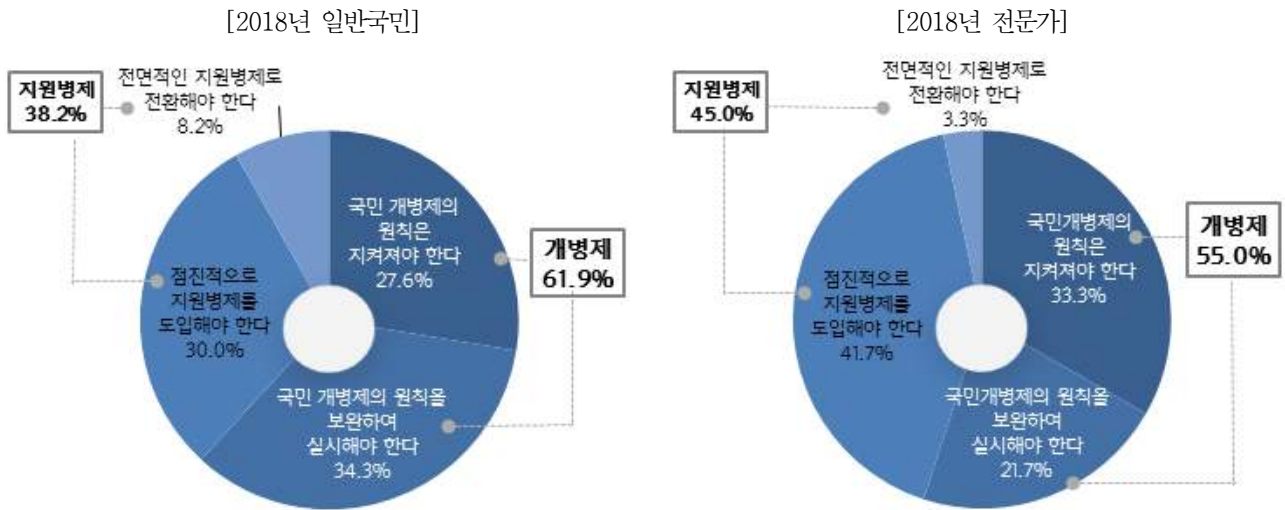
IV 병역제도 및 병역문화

1. 국민개병제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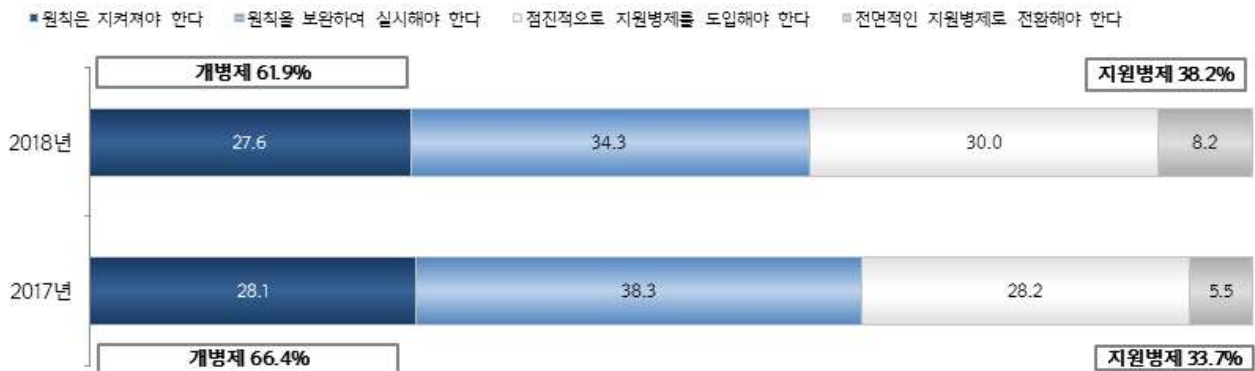
국민개병제에 대해 일반국민은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34.3%), 전문가는 ‘점진적으로 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한다’(41.7%)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으로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점진적으로 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한다’(3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국민개병제를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4.0%p(2017년 38.3%) 감소, ‘점진적으로 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1.8%p(2017년 28.2%) 증가하였음.
- [전문가]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으로 ‘점진적으로 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민개병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3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로 ‘중’,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경기/인천’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4-1>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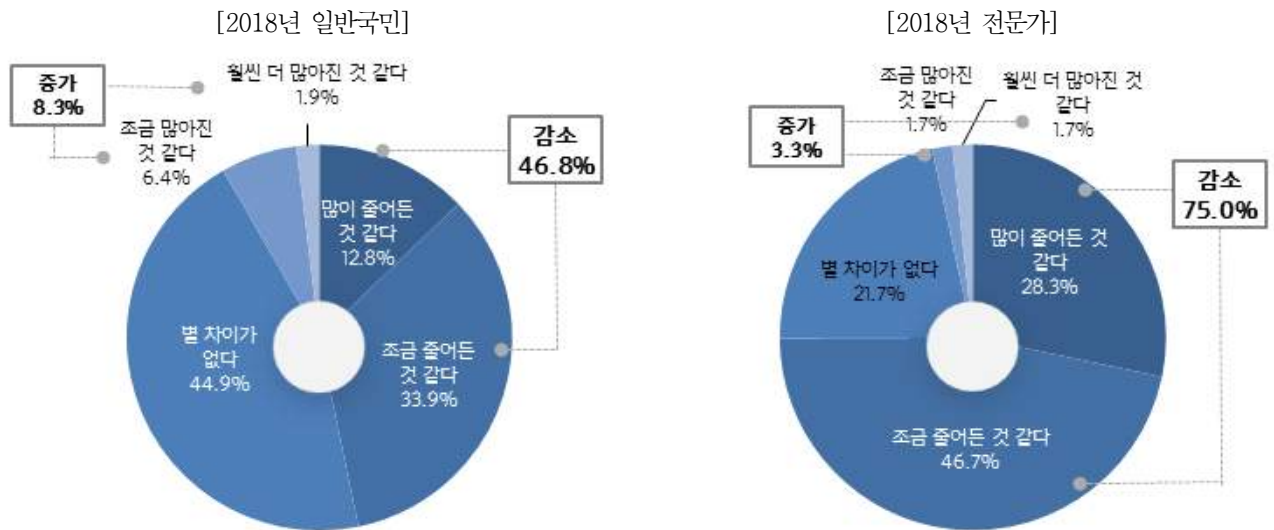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국민 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	점진적 으로 지원 병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 개병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전면적인 지원 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종합			
						개병제	지원병제		
전체	1,260	33.7	30.6	27.9	7.9	64.3	58.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4.3	30.0	27.6	8.2	64.3	57.6	
	전문가	60	21.7	41.7	33.3	3.3	63.4	7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31.2	28.9	28.4	11.5	60.1	57.3	
	중	564	38.7	29.3	26.2	5.9	68.0	55.5	
	하	210	28.6	34.3	29.5	7.6	62.9	63.8	
성별	남성	720	31.8	31.3	28.1	8.9	63.1	59.4	
	여성	480	37.9	28.1	26.9	7.1	66.0	55.0	
연령별	20대 이하	299	33.8	31.8	25.1	9.4	65.6	56.9	
	30대	273	34.4	32.2	26.0	7.3	66.6	58.2	
	40대	316	34.2	30.4	27.5	7.9	64.6	57.9	
	50대	312	34.6	26.0	31.4	8.0	60.6	57.4	
지역별	서울	237	34.2	30.0	27.4	8.4	64.2	57.4	
	경기/인천	389	38.8	29.0	22.6	9.5	67.8	51.6	
	부산/울산/경남	183	32.8	36.1	26.8	4.4	68.9	62.9	
	대구/경북	114	34.2	14.9	49.1	1.8	49.1	64.0	
	광주/전라	114	28.9	29.8	24.6	16.7	58.7	54.4	
	대전/충청/세종	128	30.5	34.4	25.8	9.4	64.9	60.2	
지역크기	강원	35	22.9	42.9	34.3	0.0	65.8	77.2	
	대도시	542	33.9	27.9	29.3	8.9	61.8	57.2	
	중소도시	579	35.8	32.5	24.2	7.6	68.3	56.7	
	읍/면	79	25.3	26.6	40.5	7.6	51.9	67.1	
	직업별	농/어/임업	10	50.0	0.0	40.0	10.0	50.0	40.0
		자영업자	260	30.0	30.4	30.4	9.2	60.4	60.8
판매/서비스직		238	34.9	27.7	26.5	10.9	62.6	54.2	
사무/기술직		386	34.7	33.4	26.2	5.7	68.1	59.6	
전문/자유직		27	33.3	37.0	25.9	3.7	70.3	62.9	
전업주부		147	40.8	25.9	25.2	8.2	66.7	51.1	
학생		111	32.4	27.9	29.7	9.9	60.3	57.6	
무직/기타		21	28.6	33.3	33.3	4.8	61.9	66.6	
학력별	중졸이하	21	38.1	14.3	38.1	9.5	52.4	52.4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34.4	28.3	28.3	8.9	62.7	56.6	
	전문대(중퇴/졸업)	308	35.7	30.8	26.0	7.5	66.5	56.8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33.3	31.3	27.7	7.7	64.6	59.0	
대학원 이상	24	29.2	33.3	25.0	12.5	62.5	58.3		
생활수준 별	상	110	36.4	31.8	25.5	6.4	68.2	57.3	
	중	680	31.6	30.4	28.4	9.6	62.0	58.8	
	하	410	38.0	28.8	26.8	6.3	66.8	55.6	

2.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에 대해 ‘줄어 든 것 같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46.8%, 전문가 75.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에 대해 ‘줄어 든 것 같다’는 응답이 46.8%로 ‘많아진 것 같다’는 응답(8.3%)보다 38.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줄어 든 것 같다’(46.8%)는 응답은 4.0%p(2017년 42.8%) 증가하였고, ‘많아진 것 같다’(8.3%)는 0.3%p (2017년 8.6%) 감소하였음.
- [전문가]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에 대해 ‘줄어 든 것 같다’는 응답이 75.0%로 ‘많아진 것 같다’는 응답(3.3%)보다 71.7%p 높게 나타남.

<그림 4-2>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줄어든 것 같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로 ‘상’,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4-2>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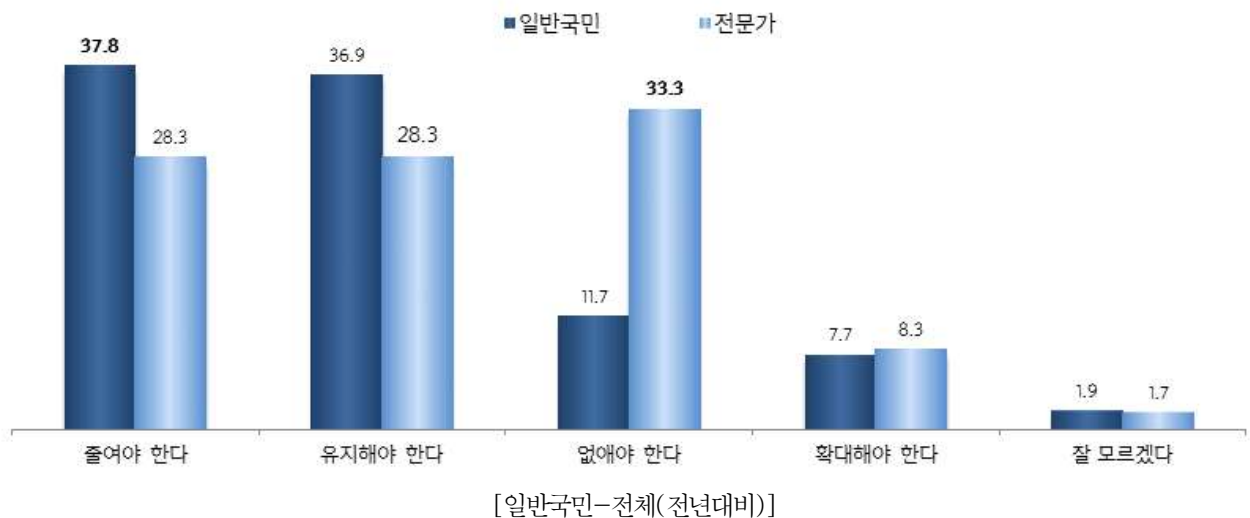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조금 줄어든 것 같다	별 차이가 없다	조금 많아진 것 같다	훨씬 더 많아진 것 같다	종합			
								감소	차이 없음	증가	
전체		1,260	13.6	34.5	43.8	6.2	1.9	48.1	43.8	8.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2.8	33.9	44.9	6.4	1.9	46.8	44.9	8.3	
	전문가	60	28.3	46.7	21.7	1.7	1.7	75.0	21.7	3.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15.5	34.3	43.9	4.2	2.1	49.8	43.9	6.3	
	중	564	11.0	33.3	45.6	8.3	1.8	44.3	45.6	10.1	
	하	210	12.4	34.8	45.2	5.7	1.9	47.1	45.2	7.6	
성별	남성	720	14.9	33.9	43.1	6.5	1.7	48.8	43.1	8.2	
	여성	480	9.8	34.0	47.7	6.3	2.3	43.8	47.7	8.5	
연령별	20대 이하	299	16.4	31.8	43.8	6.4	1.7	48.2	43.8	8.0	
	30대	273	11.7	32.2	46.9	7.0	2.2	44.0	46.9	9.2	
	40대	316	9.2	36.4	46.5	6.0	1.9	45.6	46.5	7.9	
	50대	312	14.1	34.9	42.6	6.4	1.9	49.0	42.6	8.3	
지역별	서울	237	8.0	36.7	46.0	6.3	3.0	44.7	46.0	9.3	
	경기/인천	389	15.4	32.1	45.2	4.6	2.6	47.6	45.2	7.2	
	부산/울산/경남	183	7.1	31.7	41.0	18.0	2.2	38.8	41.0	20.2	
	대구/경북	114	7.0	34.2	51.8	5.3	1.8	41.2	51.8	7.0	
	광주/전라	114	13.2	28.1	57.9	0.9	0.0	41.2	57.9	0.9	
	대전/충청/세종	128	21.1	45.3	32.0	1.6	0.0	66.4	32.0	1.6	
지역크기	강원	35	34.3	22.9	37.1	5.7	0.0	57.1	37.1	5.7	
	대도시	542	10.5	31.0	46.5	9.4	2.6	41.5	46.5	12.0	
	중소도시	579	15.5	36.8	42.1	4.0	1.6	52.3	42.1	5.5	
	읍/면	79	8.9	32.9	54.4	3.8	0.0	41.8	54.4	3.8	
	직업별	농/어/임업	10	10.0	70.0	10.0	10.0	0.0	80.0	10.0	10.0
		자영업자	260	11.2	30.8	51.2	3.8	3.1	41.9	51.2	6.9
판매/서비스직		238	13.9	38.7	41.2	4.2	2.1	52.5	41.2	6.3	
사무/기술직		386	14.0	34.2	44.0	7.5	0.3	48.2	44.0	7.8	
전문/자유직		27	14.8	37.0	33.3	7.4	7.4	51.9	33.3	14.8	
전업주부		147	9.5	32.7	45.6	8.8	3.4	42.2	45.6	12.2	
학생		111	15.3	30.6	42.3	9.9	1.8	45.9	42.3	11.7	
무직/기타		21	9.5	19.0	66.7	4.8	0.0	28.6	66.7	4.8	
학력별	중졸이하	21	4.8	23.8	38.1	33.3	0.0	28.6	38.1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1.0	34.4	48.0	4.2	2.4	45.4	48.0	6.6	
	전문대(중퇴/졸업)	308	14.3	33.4	43.5	6.5	2.3	47.7	43.5	8.8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13.1	34.1	44.4	7.1	1.3	47.2	44.4	8.4	
	대학원 이상	24	25.0	37.5	29.2	4.2	4.2	62.5	29.2	8.3	
생활수준 별	상	110	14.5	29.1	45.5	10.9	0.0	43.6	45.5	10.9	
	중	680	14.4	33.5	43.7	5.7	2.6	47.9	43.7	8.4	
	하	410	9.8	35.9	46.8	6.3	1.2	45.6	46.8	7.6	

3. 예술·체육 특기자의 병역특례

예술·체육 특기자의 병역특례에 대해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37.8%, ‘없애야 한다’는 응답은 전문가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예술·체육 특기자의 병역특례에 대해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유지해야 한다’(36.9%), ‘없애야 한다’(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36.9%)은 11.3%p(2017년 48.2%) 감소하였고, ‘줄여야 한다’(37.8%)는 응답은 6.6%p(2017년 3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예술·체육 특기자의 병역특례에 대해 ‘없애야 한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유지해야 한다’(28.3%), ‘줄여야 한다’(2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 예술·체육 특기자의 병역특례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특성별 분석]

- 예술·체육 특기자의 병역특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전문/자유직’(n=27)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4-3> 예술·체육 특기자의 병역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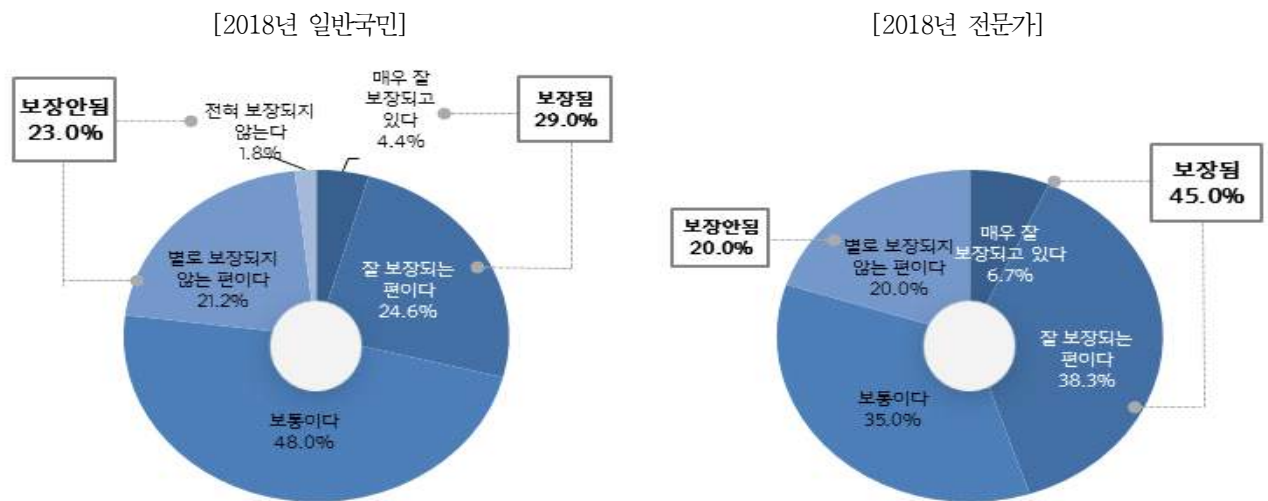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줄여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확대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1,260	37.3	36.5	11.6	12.7	1.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7.8	36.9	11.8	11.7	1.9
	전문가	60	28.3	28.3	8.3	33.3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37.8	38.0	12.0	10.6	1.6
	중	564	40.2	37.6	10.3	10.1	1.8
	하	210	31.0	32.9	15.2	18.1	2.9
성별	남성	720	39.0	33.5	13.3	12.9	1.3
	여성	480	35.8	42.1	9.4	9.8	2.9
연령별	20대 이하	299	31.1	40.5	15.1	11.4	2.0
	30대	273	42.1	32.6	12.1	11.7	1.5
	40대	316	39.9	35.1	10.4	12.0	2.5
	50대	312	38.1	39.1	9.6	11.5	1.6
지역별	서울	237	35.9	39.7	7.6	15.2	1.7
	경기/인천	389	37.0	39.1	12.1	8.7	3.1
	부산/울산/경남	183	45.4	27.9	12.0	13.7	1.1
	대구/경북	114	16.7	44.7	24.6	11.4	2.6
	광주/전라	114	46.5	28.9	15.8	8.8	0.0
	대전/충청/세종	128	43.8	38.3	0.0	16.4	1.6
	강원	35	37.1	37.1	22.9	2.9	0.0
지역크기	대도시	542	39.7	33.8	10.5	14.8	1.3
	중소도시	579	35.9	40.9	12.3	8.3	2.6
	읍/면	79	38.0	29.1	16.5	15.2	1.3
직업별	농/어/임업	10	50.0	30.0	20.0	0.0	0.0
	자영업자	260	40.8	40.0	6.5	11.5	1.2
	판매/서비스직	238	41.6	34.0	12.2	11.3	0.8
	사무/기술직	386	37.8	33.9	14.5	11.4	2.3
	전문/자유직	27	22.2	48.1	14.8	11.1	3.7
	전업주부	147	38.8	38.1	9.5	11.6	2.0
	학생	111	25.2	43.2	14.4	14.4	2.7
	무직/기타	21	28.6	33.3	14.3	14.3	9.5
학력별	중졸이하	21	28.6	52.4	9.5	0.0	9.5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35.7	35.7	10.5	16.3	1.8
	전문대(중퇴/졸업)	308	41.2	34.4	11.7	10.4	2.3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37.8	39.3	12.7	8.8	1.5
	대학원 이상	24	33.3	29.2	16.7	20.8	0.0
생활수준 별	상	110	34.5	37.3	13.6	11.8	2.7
	중	680	37.9	39.0	12.4	9.0	1.8
	하	410	38.3	33.4	10.2	16.1	2.0

4. 군내의 인권 보장 정도

군내의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한 의견으로 일반국민은 ‘보장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29.0%, 전문가 45.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군내의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한 의견으로 ‘보장된다’는 응답이 29.0%로 ‘보장되지 않는다(23.0%)’는 응답보다 6.0%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23.0%)은 11.6%p(2017년 34.6%) 감소하였고, ‘보장된다’(29.0%)는 응답은 7.6%p(2017년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군내의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한 의견으로 ‘보장된다’는 응답이 45.0%로 ‘보장되지 않는다’(20.0%)는 응답보다 25.0%p 높게 나타남.

<그림 4-4> 군내의 인권 보장 정도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군내의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전문/자유직’(n=27),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4-4> 군 내의 인권 보장 정도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	잘 보장되는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보장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종합			
							보장됨	보통	보장안됨	
전체	1,260	4.5	25.2	47.4	21.1	1.7	29.8	47.4	22.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4	24.6	48.0	21.2	1.8	29.0	48.0	23.0
	전문가	60	6.7	38.3	35.0	20.0	0.0	45.0	35.0	2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5.2	28.4	47.4	17.4	1.6	33.6	47.4	19.0
	중	564	3.5	23.6	50.9	20.7	1.2	27.1	50.9	22.0
	하	210	5.2	19.5	41.4	30.0	3.8	24.8	41.4	33.8
성별	남성	720	5.7	23.8	47.8	20.8	1.9	29.4	47.8	22.8
	여성	480	2.5	25.8	48.3	21.7	1.7	28.3	48.3	23.3
연령별	20대 이하	299	4.7	21.4	41.5	28.8	3.7	26.1	41.5	32.4
	30대	273	4.8	26.0	45.4	21.6	2.2	30.8	45.4	23.8
	40대	316	4.1	24.4	49.7	20.9	0.9	28.5	49.7	21.8
	50대	312	4.2	26.6	54.8	13.8	0.6	30.8	54.8	14.4
지역별	서울	237	4.6	19.0	50.2	24.1	2.1	23.6	50.2	26.2
	경기/인천	389	5.1	27.5	45.8	18.8	2.8	32.6	45.8	21.6
	부산/울산/경남	183	1.1	9.3	49.2	39.9	0.5	10.4	49.2	40.4
	대구/경북	114	2.6	28.9	50.9	14.0	3.5	31.6	50.9	17.5
	광주/전라	114	4.4	21.9	67.5	6.1	0.0	26.3	67.5	6.1
	대전/충청/세종	128	8.6	43.8	32.0	15.6	0.0	52.3	32.0	15.6
	강원	35	2.9	34.3	37.1	22.9	2.9	37.1	37.1	25.7
지역크기	대도시	542	3.3	21.4	51.1	22.3	1.8	24.7	51.1	24.2
	중소도시	579	5.7	28.3	44.6	19.3	2.1	34.0	44.6	21.4
	읍/면	79	2.5	19.0	51.9	26.6	0.0	21.5	51.9	26.6
직업별	농/어/임업	10	0.0	30.0	50.0	10.0	10.0	30.0	50.0	20.0
	자영업자	260	3.8	23.8	57.7	12.7	1.9	27.7	57.7	14.6
	판매/서비스직	238	6.3	26.9	50.0	14.3	2.5	33.2	50.0	16.8
	사무/기술직	386	4.9	24.9	43.3	25.6	1.3	29.8	43.3	26.9
	전문/자유직	27	3.7	18.5	33.3	44.4	0.0	22.2	33.3	44.4
	전업주부	147	3.4	25.2	52.4	18.4	0.7	28.6	52.4	19.0
	학생	111	1.8	23.4	35.1	36.0	3.6	25.2	35.1	39.6
	무직/기타	21	4.8	9.5	47.6	38.1	0.0	14.3	47.6	38.1
학력별	중졸이하	21	9.5	23.8	52.4	9.5	4.8	33.3	52.4	14.3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5.2	22.6	54.1	17.6	0.5	27.8	54.1	18.1
	전문대(중퇴/졸업)	308	4.9	27.6	47.4	18.5	1.6	32.5	47.4	20.1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3.0	23.6	44.4	26.0	3.0	26.6	44.4	29.0
	대학원 이상	24	8.3	37.5	25.0	29.2	0.0	45.8	25.0	29.2
생활수준 별	상	110	4.5	21.8	39.1	31.8	2.7	26.4	39.1	34.5
	중	680	5.1	27.1	46.3	19.3	2.2	32.2	46.3	21.5
	하	410	3.2	21.2	53.2	21.5	1.0	24.4	53.2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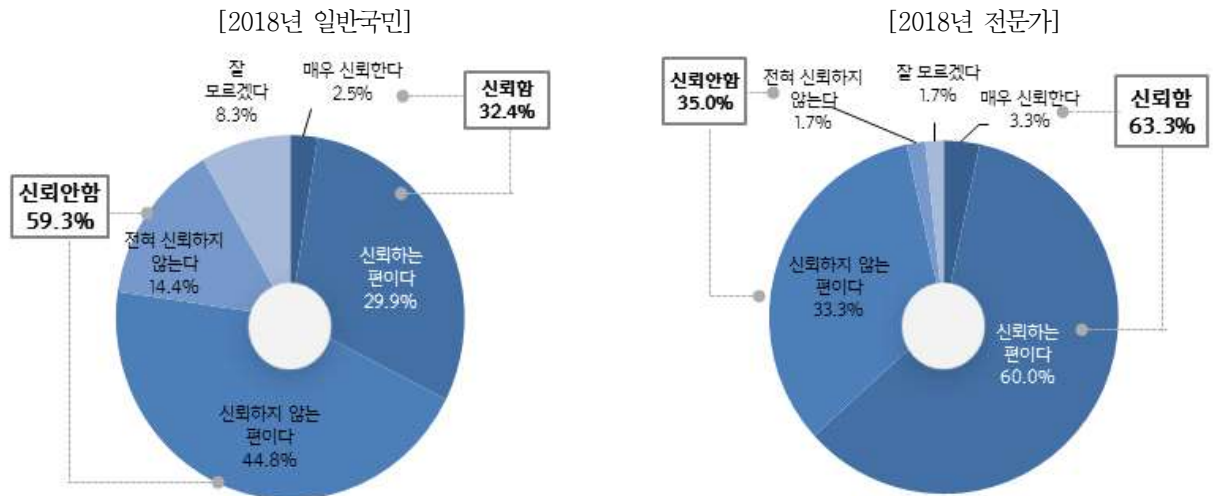
V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

1.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일반국민은 ‘신뢰한다’는 응답이 32.4%로 나타났고, 전문가는 ‘신뢰 한다’는 응답이 63.3%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부의 각종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9.3%로 ‘신뢰한다’(32.4%)는 응답보다 26.9%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신뢰하지 않는다’(59.3%)는 응답은 0.6%p(2017년 59.9%) 감소하였고, ‘신뢰한다’는 응답(32.4%)도 1.9%p(2017년 34.3%) 감소하였음.
- [전문가] 국방부의 각종발표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63.3%로 ‘신뢰하지 않는다’(35.0%)는 응답보다 28.3%p 높게 나타남.

<그림 5-1>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국방부의 각종발표에 대한 신뢰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역별로 ‘서울’,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5-1>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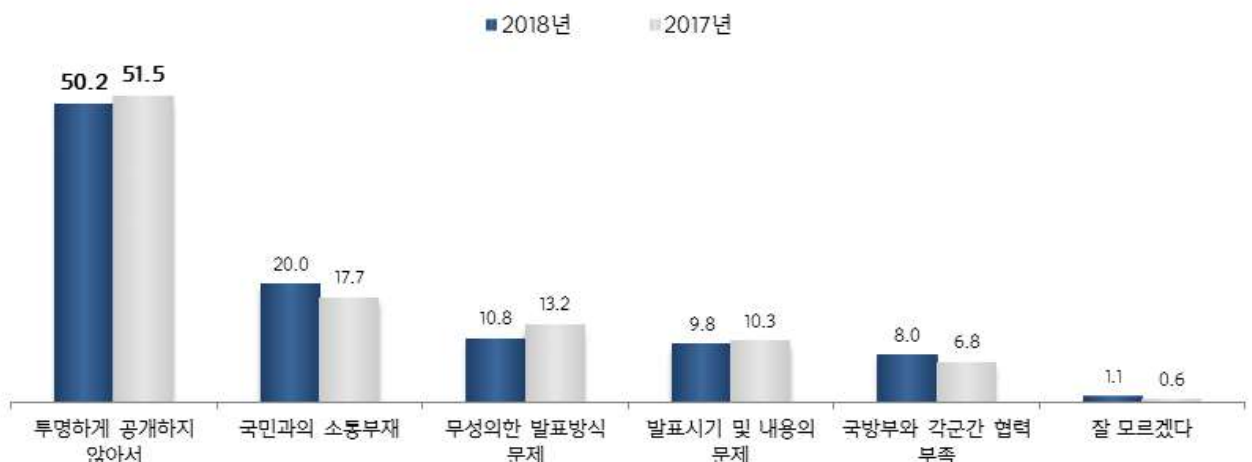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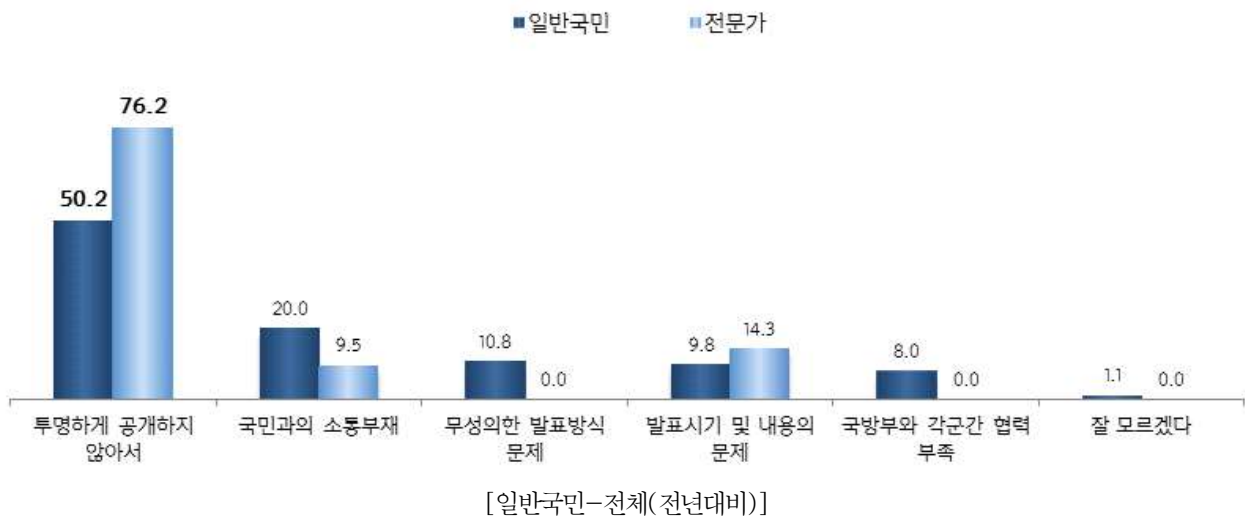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신뢰 한다	신뢰 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신뢰 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신뢰 하지 않는다	종합		
								신뢰함	신뢰 안함	잘 모르겠다
전체		1,260	2.5	31.3	44.3	13.8	8.0	33.9	58.1	8.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5	29.9	44.8	14.4	8.3	32.4	59.3	8.3
	전문가	60	3.3	60.0	33.3	1.7	1.7	63.3	35.0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3.1	33.6	42.5	14.6	6.3	36.6	57.0	6.3
	중	564	2.3	29.4	45.9	13.7	8.7	31.7	59.6	8.7
	하	210	1.9	23.8	46.7	16.2	11.4	25.7	62.9	11.4
성별	남성	720	2.8	29.2	44.9	16.4	6.8	31.9	61.3	6.8
	여성	480	2.1	31.0	44.8	11.5	10.6	33.1	56.3	10.6
연령별	20대 이하	299	3.3	25.8	46.8	14.7	9.4	29.1	61.5	9.4
	30대	273	2.2	28.9	47.3	13.9	7.7	31.1	61.2	7.7
	40대	316	2.2	32.3	45.3	13.3	7.0	34.5	58.5	7.0
	50대	312	2.2	32.4	40.4	15.7	9.3	34.6	56.1	9.3
지역별	서울	237	1.7	23.6	54.0	11.4	9.3	25.3	65.4	9.3
	경기/인천	389	2.8	32.6	45.5	12.1	6.9	35.5	57.6	6.9
	부산/울산/경남	183	0.0	23.5	43.2	14.8	18.6	23.5	57.9	18.6
	대구/경북	114	0.9	38.6	48.2	5.3	7.0	39.5	53.5	7.0
	광주/전라	114	10.5	24.6	40.4	19.3	5.3	35.1	59.6	5.3
	대전/충청/세종	128	0.8	35.9	29.7	32.0	1.6	36.7	61.7	1.6
지역크기	강원	35	2.9	42.9	42.9	8.6	2.9	45.7	51.4	2.9
	대도시	542	1.3	23.2	48.0	15.7	11.8	24.5	63.7	11.8
	중소도시	579	2.9	37.1	42.8	11.9	5.2	40.1	54.7	5.2
직업별	읍/면	79	7.6	22.8	38.0	24.1	7.6	30.4	62.0	7.6
	농/어/임업	10	10.0	50.0	30.0	10.0	0.0	60.0	40.0	0.0
	자영업자	260	1.9	30.8	44.6	16.9	5.8	32.7	61.5	5.8
	판매/서비스직	238	2.9	30.3	46.6	12.6	7.6	33.2	59.2	7.6
	사무/기술직	386	2.3	32.1	44.6	12.4	8.5	34.5	57.0	8.5
	전문/자유직	27	0.0	48.1	40.7	11.1	0.0	48.1	51.9	0.0
	전업주부	147	2.0	27.9	44.2	13.6	12.2	29.9	57.8	12.2
	학생	111	4.5	19.8	43.2	21.6	10.8	24.3	64.9	10.8
학력별	무직/기타	21	0.0	9.5	57.1	14.3	19.0	9.5	71.4	19.0
	중졸이하	21	9.5	42.9	14.3	19.0	14.3	52.4	33.3	14.3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2.4	27.8	45.4	14.2	10.2	30.2	59.6	10.2
	전문대(중퇴/졸업)	308	2.9	24.4	49.0	17.9	5.8	27.3	66.9	5.8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1.9	33.5	44.0	12.0	8.6	35.4	56.0	8.6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4.2	54.2	25.0	16.7	0.0	58.3	41.7	0.0
	상	110	4.5	31.8	45.5	13.6	4.5	36.4	59.1	4.5
	중	680	2.1	31.3	45.0	14.1	7.5	33.4	59.1	7.5
하	410	2.7	27.1	44.4	15.1	10.7	29.8	59.5	10.7	

1-1. 국방부 발표에 신뢰하지 않는 이유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일반 국민 50.2%, 전문가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0.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민과의 소통부재’(20.0%), ‘무성의한 발표방식 문제’(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50.2%)라는 응답은 1.3%p(2017년 51.5%), ‘무성의한 발표방식 문제’(10.8%)라는 응답은 2.4%p(2017년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76.2%로 가장 높고, ‘발표시기 및 내용의 문제’(14.3%)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1> 국방부 발표에 신뢰하지 않는 이유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특성별 분석]

-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의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전문/자유직’(n=14),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1> 국방부 발표에 신뢰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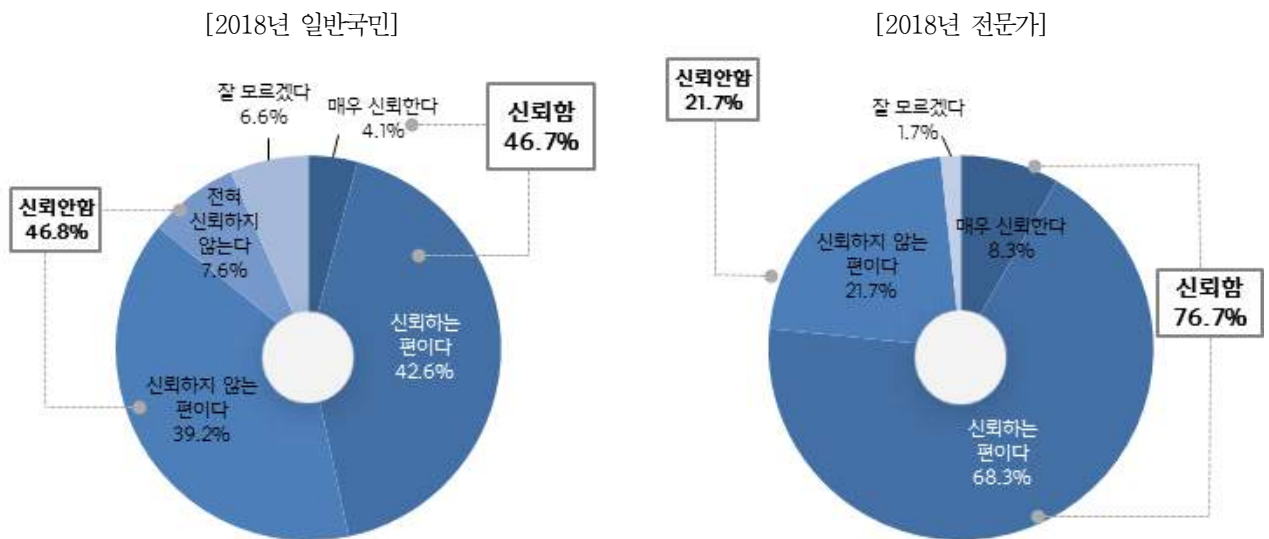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국민과의 소통부재	무성의한 발표 방식의 문제	발표시기 및 내용의 문제	국방부와 각군간 협력 부족	잘 모르겠다
전체		732	51.0	19.7	10.5	10.0	7.8	1.1
대상별	일반국민	711	50.2	20.0	10.8	9.8	8.0	1.1
	전문가	21	76.2	9.5	0.0	14.3	0.0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243	53.9	20.6	7.4	7.8	9.1	1.2
	중	336	50.0	19.0	11.6	11.0	8.0	0.3
	하	132	43.9	21.2	15.2	10.6	6.1	3.0
성별	남성	441	53.3	17.0	12.2	9.1	7.5	0.9
	여성	270	45.2	24.8	8.5	11.1	8.9	1.5
연령별	20대 이하	184	50.0	20.1	9.2	10.9	9.2	0.5
	30대	167	49.1	24.0	10.2	7.8	7.8	1.2
	40대	185	53.5	18.4	11.4	9.2	6.5	1.1
	50대	175	48.0	17.7	12.6	11.4	8.6	1.7
지역별	서울	155	44.5	23.9	8.4	7.1	14.2	1.9
	경기/인천	224	50.9	23.2	6.7	10.7	6.7	1.8
	부산/울산/경남	106	41.5	17.0	25.5	12.3	3.8	0.0
	대구/경북	61	67.2	19.7	6.6	3.3	1.6	1.6
	광주/전라	68	54.4	8.8	10.3	8.8	17.6	0.0
	대전/충청/세종	79	59.5	15.2	11.4	12.7	1.3	0.0
	강원	18	27.8	27.8	11.1	22.2	11.1	0.0
지역크기	대도시	345	53.3	19.4	9.9	8.7	7.5	1.2
	중소도시	317	44.5	22.1	12.0	11.4	8.8	1.3
	읍/면	49	65.3	10.2	10.2	8.2	6.1	0.0
직업별	농/어/임업	4	25.0	0.0	0.0	25.0	50.0	0.0
	자영업자	160	58.1	16.9	8.8	6.9	8.1	1.3
	판매/서비스직	141	39.0	24.1	10.6	11.3	14.2	0.7
	사무/기술직	220	53.6	19.1	15.5	7.3	3.6	0.9
	전문/자유직	14	64.3	14.3	0.0	21.4	0.0	0.0
	전업주부	85	41.2	24.7	8.2	15.3	9.4	1.2
	학생	72	52.8	19.4	5.6	13.9	5.6	2.8
	무직/기타	15	53.3	13.3	20.0	0.0	13.3	0.0
학력별	중졸이하	7	42.9	0.0	0.0	0.0	28.6	28.6
	고등학교(중퇴/졸업)	227	44.1	18.5	15.9	11.5	9.3	0.9
	전문대(중퇴/졸업)	206	50.5	21.8	9.7	8.3	9.2	0.5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261	55.6	19.5	8.0	10.0	5.7	1.1
	대학원 이상	10	50.0	40.0	0.0	10.0	0.0	0.0
생활수준 별	상	65	43.1	21.5	9.2	15.4	10.8	0.0
	중	402	52.0	19.7	10.4	8.5	8.2	1.2
	하	244	49.2	20.1	11.9	10.7	7.0	1.2

2. 군에 대한 신뢰도

군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일반국민은 ‘신뢰한다’는 응답이 46.7%로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76.7%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46.7%로 ‘신뢰하지 않는다’(46.8%)는 응답과 유사하게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신뢰하지 않는다’(46.8%)는 응답은 2.3%p(2017년 49.1%) 감소하였고, ‘신뢰한다’(46.7%)는 응답은 0.7%p(2017년 4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76.7%로 ‘신뢰하지 않는다’(21.7%)는 응답보다 55.0%p 높게 나타남.

<그림 5-2> 군에 대한 신뢰도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군에 대한 신뢰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중’, 성별로는 ‘남성’,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에서 높게 나타남.

<표 5-2> 군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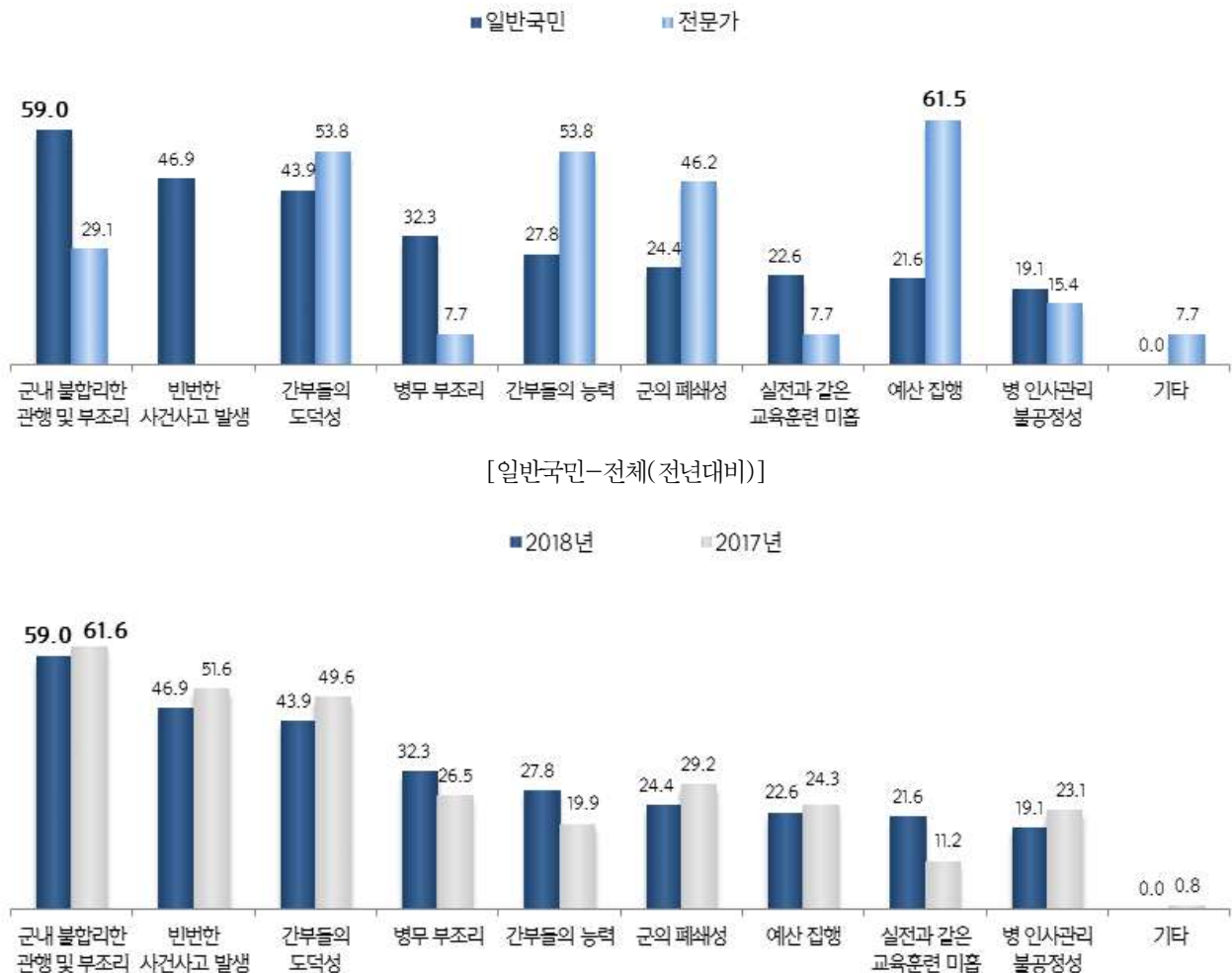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신뢰한다	신뢰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종합			
								신뢰함	신뢰안함	잘 모르겠다	
전체		1,260	4.3	43.8	38.3	7.2	6.3	48.1	45.6	6.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1	42.6	39.2	7.6	6.6	46.7	46.8	6.6	
	전문가	60	8.3	68.3	21.7	0.0	1.7	76.7	21.7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5.6	50.7	32.4	7.7	3.5	56.3	40.1	3.5	
	중	564	2.7	39.0	44.0	6.9	7.4	41.7	50.9	7.4	
	하	210	4.8	35.7	40.0	9.0	10.5	40.5	49.0	10.5	
성별	남성	720	5.3	41.7	39.3	8.3	5.4	46.9	47.6	5.4	
	여성	480	2.3	44.0	39.0	6.5	8.3	46.3	45.4	8.3	
연령별	20대 이하	299	4.3	39.8	38.1	8.0	9.7	44.1	46.2	9.7	
	30대	273	4.4	41.8	41.0	7.3	5.5	46.2	48.4	5.5	
	40대	316	4.1	42.7	39.6	8.5	5.1	46.8	48.1	5.1	
	50대	312	3.5	45.8	38.1	6.4	6.1	49.4	44.6	6.1	
지역별	서울	237	4.2	36.3	48.1	4.6	6.8	40.5	52.7	6.8	
	경기/인천	389	5.9	41.9	41.4	5.7	5.1	47.8	47.0	5.1	
	부산/울산/경남	183	0.5	28.4	43.7	10.4	16.9	29.0	54.1	16.9	
	대구/경북	114	0.9	48.2	45.6	1.8	3.5	49.1	47.4	3.5	
	광주/전라	114	7.0	56.1	21.9	12.3	2.6	63.2	34.2	2.6	
	대전/충청/세종	128	3.9	56.3	20.3	16.4	3.1	60.2	36.7	3.1	
지역크기	강원	35	2.9	54.3	34.3	5.7	2.9	57.1	40.0	2.9	
	대도시	542	3.0	38.7	41.9	7.0	9.4	41.7	48.9	9.4	
	중소도시	579	5.2	45.6	37.7	7.3	4.3	50.8	44.9	4.3	
	읍/면	79	3.8	46.8	31.6	13.9	3.8	50.6	45.6	3.8	
	직업별	농/어/임업	10	0.0	80.0	20.0	0.0	0.0	80.0	20.0	0.0
		자영업자	260	3.8	46.2	39.2	7.7	3.1	50.0	46.9	3.1
판매/서비스직		238	3.8	41.2	40.3	9.2	5.5	45.0	49.6	5.5	
사무/기술직		386	5.7	42.0	39.1	6.2	7.0	47.7	45.3	7.0	
전문/자유직		27	7.4	44.4	33.3	7.4	7.4	51.9	40.7	7.4	
전업주부		147	2.0	45.6	35.4	9.5	7.5	47.6	44.9	7.5	
학생		111	2.7	32.4	45.0	7.2	12.6	35.1	52.3	12.6	
무직/기타		21	0.0	38.1	38.1	4.8	19.0	38.1	42.9	19.0	
학력별	중졸이하	21	0.0	47.6	42.9	0.0	9.5	47.6	42.9	9.5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3.7	38.1	40.9	8.1	9.2	41.7	49.1	9.2	
	전문대(중퇴/졸업)	308	2.9	41.9	41.2	8.8	5.2	44.8	50.0	5.2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4.7	45.9	37.1	6.9	5.4	50.6	44.0	5.4	
	대학원 이상	24	16.7	54.2	20.8	4.2	4.2	70.8	25.0	4.2	
생활수준 별	상	110	4.5	48.2	36.4	7.3	3.6	52.7	43.6	3.6	
	중	680	3.2	43.7	40.3	7.4	5.4	46.9	47.6	5.4	
	하	410	5.4	39.3	38.0	8.0	9.3	44.6	46.1	9.3	

2-1.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일반국민은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라는 응답이 5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는 ‘예산집행’이라는 응답이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가 5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빈번한 사건사고 발생’(46.9%), ‘간부들의 도덕성’(4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59.0%)라는 응답은 2.6%p(2017년 61.6%) 감소하였고, ‘빈번한 사건사고 발생’(46.9%)라는 응답은 4.7%p(2017년 51.6%) 감소하였음.
- [전문가]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예산 집행’이라는 응답이 각각 6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간부들의 능력’과 ‘간부들의 도덕성’(5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2-2>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특성별 분석]

-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로 ‘중’,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경기/인천’, 직업별로 ‘학생’, 생활수준별로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5-2-2>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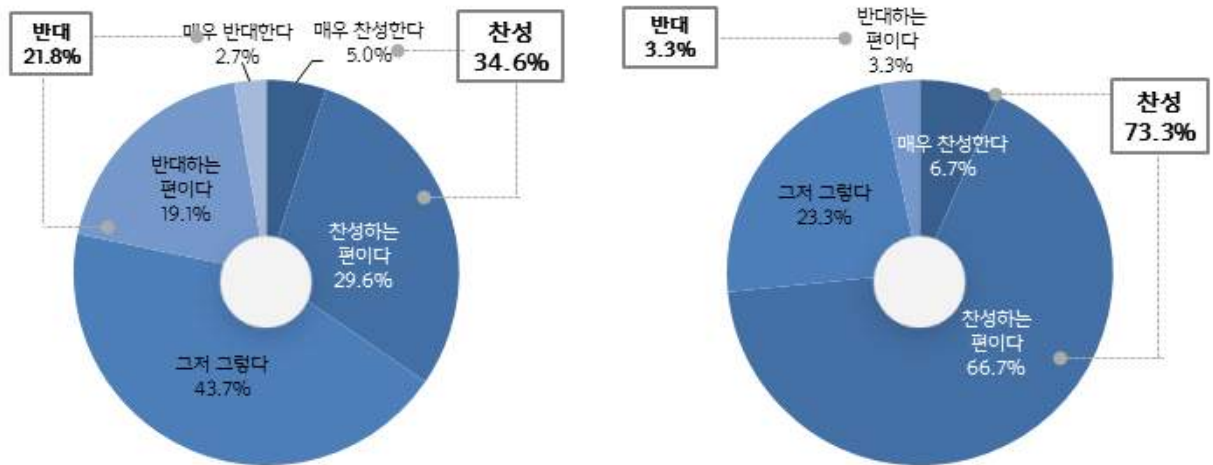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빈번한 사건·사고 발생	간부들의 도덕성	병무 부조리 (병역 기피 등)	간부들의 능력 (전문성)	군의 폐쇄성	예산 집행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 미흡	병인사관 리 불공정성	기타	
전체		574	58.2	45.8	44.1	31.7	28.4	24.9	22.5	22.3	19.0	0.2	
대상별	일반국민	561	59.0	46.9	43.9	32.3	27.8	24.4	21.6	22.6	19.1	0.0	
	전문가	13	23.1	0.0	53.8	7.7	53.8	46.2	61.5	7.7	15.4	7.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171	56.1	40.9	48.0	26.3	33.3	26.9	25.1	19.9	21.6	2.9	
	중	287	62.0	45.6	42.2	32.4	26.8	23.3	20.2	27.9	16.4	0.3	
	하	103	55.3	60.2	41.7	41.7	21.4	23.3	19.4	12.6	22.3	0.6	
성별	남성	343	56.6	44.9	40.8	32.7	30.0	24.2	24.5	23.6	19.5	1.4	
	여성	218	62.8	50.0	48.6	31.7	24.3	24.8	17.0	21.1	18.3	0.0	
연령별	20대 이하	138	54.3	51.4	41.3	33.3	26.1	21.7	22.5	23.2	21.7	1.3	
	30대	132	58.3	41.7	48.5	32.6	26.5	18.9	26.5	26.5	18.2	0.7	
	40대	152	62.5	44.1	40.1	32.9	29.6	28.9	21.7	21.1	18.4	0.6	
	50대	139	60.4	50.4	46.0	30.2	28.8	27.3	15.8	20.1	18.0	0.8	
지역별	서울	125	60.8	46.4	55.2	24.8	25.6	19.2	21.6	25.6	17.6	1.8	
	경기/인천	183	67.8	41.5	39.9	30.1	40.4	20.2	18.6	20.8	17.5	1.1	
	부산/울산/경남	99	63.6	52.5	38.4	40.4	17.2	25.3	15.2	24.2	19.2	0.7	
	대구/경북	54	29.6	42.6	42.6	53.7	13.0	22.2	29.6	29.6	37.0	0.0	
	광주/전라	39	48.7	41.0	64.1	17.9	28.2	41.0	30.8	17.9	10.3	0.0	
	대전/충청/세종	47	53.2	59.6	29.8	29.8	27.7	44.7	23.4	17.0	14.9	0.0	
지역크기	강원	14	57.1	71.4	28.6	35.7	14.3	14.3	42.9	14.3	21.4	0.0	
	대도시	265	58.1	43.0	47.2	32.1	20.8	23.4	26.0	27.5	18.9	1.1	
	중소도시	260	59.6	48.1	43.1	32.7	36.5	21.9	17.7	17.3	20.8	0.7	
	읍/면	36	61.1	66.7	25.0	30.6	16.7	50.0	16.7	25.0	8.3	0.0	
	직업별	농/어/임업	2	50.0	0.0	50.0	50.0	50.0	50.0	0.0	50.0	0.0	0.0
		자영업자	122	66.4	44.3	40.2	28.7	30.3	27.9	19.7	21.3	18.9	1.3
판매/서비스직		118	60.2	51.7	50.8	24.6	37.3	16.9	19.5	21.2	16.1	0.8	
사무/기술직		175	54.9	41.7	44.6	34.9	23.4	29.1	27.4	22.9	18.3	0.6	
전문/자유직		11	45.5	27.3	54.5	45.5	9.1	36.4	36.4	27.3	18.2	0.0	
전업주부		66	54.5	51.5	48.5	34.8	27.3	21.2	13.6	25.8	22.7	0.0	
학생		58	67.2	55.2	31.0	43.1	15.5	17.2	17.2	22.4	24.1	2.1	
무직/기타		9	22.2	66.7	22.2	22.2	55.6	33.3	33.3	22.2	22.2	0.0	
학력별	중졸이하	9	55.6	44.4	55.6	22.2	44.4	0.0	11.1	22.2	44.4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7	62.6	54.0	43.9	32.6	21.9	24.1	16.0	24.1	18.2	1.0	
	전문대(중퇴/졸업)	154	57.1	40.9	43.5	34.4	35.1	22.7	20.8	24.0	19.5	0.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205	59.0	45.4	43.4	29.8	26.8	27.8	26.8	20.0	18.0	1.5	
	대학원 이상	6	0.0	33.3	50.0	66.7	33.3	0.0	50.0	33.3	33.3	0.0	
생활수준별	상	48	54.2	47.9	45.8	27.1	25.0	27.1	18.8	37.5	12.5	0.0	
	중	324	63.6	47.5	36.4	32.4	28.1	24.1	23.5	24.1	18.5	0.8	
	하	189	52.4	45.5	56.1	33.3	28.0	24.3	19.0	16.4	21.7	1.0	

3.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세금상승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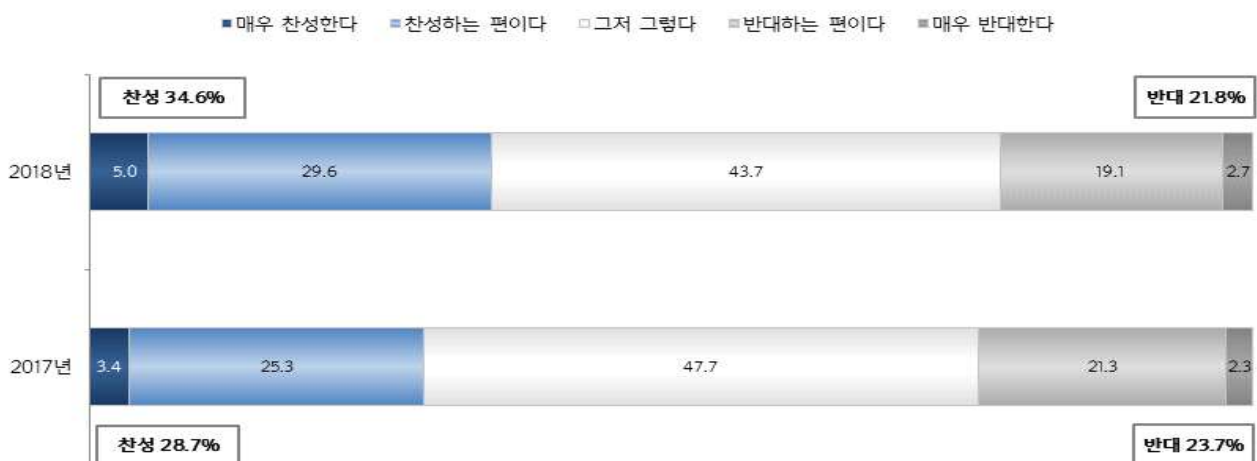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34.6%, 전문가 73.3%로 나타남.

- [일반국민]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34.6%로 '반대한다'(21.8%)는 의견보다 보다 12.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찬성한다'(34.6%)는 응답은 5.9%p(2017년 28.7%) 증가하였고, '반대한다'(21.8%)는 응답은 1.9%p (2017년 2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3.3%로 '반대한다'(3.3%)는 의견보다 보다 70.0%p 높게 나타남.

<그림 5-3>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세금상승 의견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서울’, ‘경기/인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5-3>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세금상승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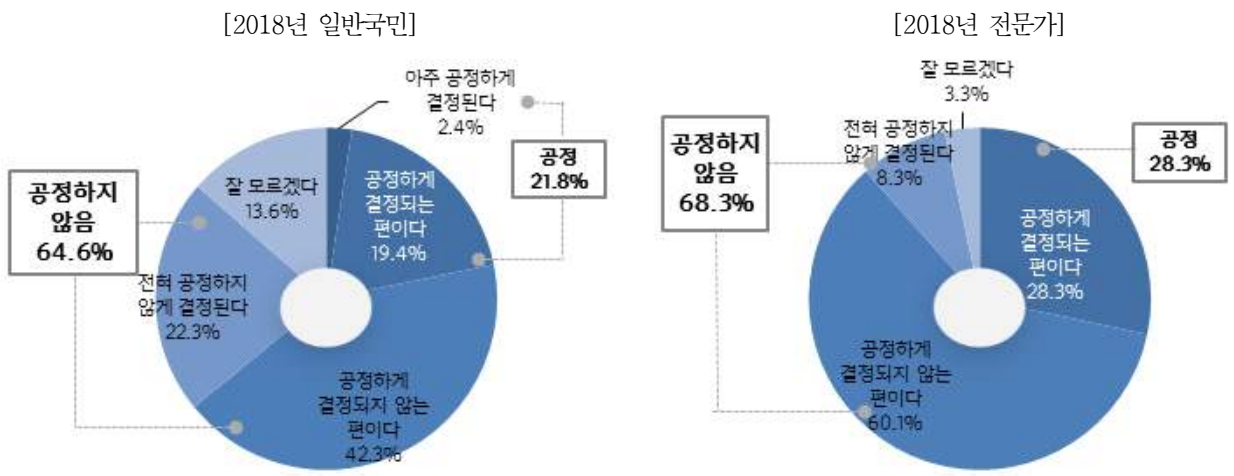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종합		
								찬성	그저 그렇다	반대
전체		1,260	5.1	31.3	42.7	18.3	2.5	36.4	42.7	20.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0	29.6	43.7	19.1	2.7	34.6	43.7	21.8
	전문가	60	6.7	66.7	23.3	3.3	0.0	73.3	23.3	3.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7.7	35.0	35.4	19.5	2.3	42.7	35.4	21.8
	중	564	3.5	27.1	49.5	17.4	2.5	30.7	49.5	19.9
	하	210	3.3	25.2	44.8	22.9	3.8	28.6	44.8	26.7
성별	남성	720	6.4	29.2	43.2	18.5	2.8	35.6	43.2	21.3
	여성	480	2.9	30.2	44.4	20.0	2.5	33.1	44.4	22.5
연령별	20대 이하	299	5.7	26.8	46.8	15.7	5.0	32.4	46.8	20.7
	30대	273	4.8	28.9	41.8	22.7	1.8	33.7	41.8	24.5
	40대	316	4.7	32.0	44.9	16.5	1.9	36.7	44.9	18.4
	50대	312	4.8	30.4	41.0	21.8	1.9	35.3	41.0	23.7
지역별	서울	237	6.3	35.9	35.0	21.1	1.7	42.2	35.0	22.8
	경기/인천	389	6.9	35.2	37.3	18.0	2.6	42.2	37.3	20.6
	부산/울산/경남	183	0.0	25.1	44.3	30.6	0.0	25.1	44.3	30.6
	대구/경북	114	0.9	18.4	64.9	12.3	3.5	19.3	64.9	15.8
	광주/전라	114	7.0	25.4	45.6	13.2	8.8	32.5	45.6	21.9
	대전/충청/세종	128	6.3	18.8	60.2	14.8	0.0	25.0	60.2	14.8
지역크기	강원	35	2.9	37.1	34.3	14.3	11.4	40.0	34.3	25.7
	대도시	542	3.7	26.9	43.5	22.1	3.7	30.6	43.5	25.8
	중소도시	579	6.4	32.6	42.8	16.1	2.1	39.0	42.8	18.1
직업별	읍/면	79	3.8	25.3	50.6	20.3	0.0	29.1	50.6	20.3
	농/어/임업	10	10.0	40.0	50.0	0.0	0.0	50.0	50.0	0.0
	자영업자	260	6.9	25.8	45.0	20.4	1.9	32.7	45.0	22.3
	판매/서비스직	238	3.4	29.8	41.6	21.4	3.8	33.2	41.6	25.2
	사무/기술직	386	4.9	31.1	43.5	18.9	1.6	36.0	43.5	20.5
	전문/자유직	27	11.1	22.2	40.7	22.2	3.7	33.3	40.7	25.9
	전업주부	147	2.0	35.4	44.2	17.0	1.4	37.4	44.2	18.4
	학생	111	6.3	25.2	44.1	16.2	8.1	31.5	44.1	24.3
학력별	무직/기타	21	4.8	33.3	47.6	14.3	0.0	38.1	47.6	14.3
	중졸이하	21	19.0	14.3	52.4	14.3	0.0	33.3	52.4	14.3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4.7	27.0	42.8	23.6	1.8	31.8	42.8	25.5
	전문대(중퇴/졸업)	308	4.9	26.3	46.8	18.8	3.2	31.2	46.8	22.1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4.1	33.9	42.7	16.1	3.2	38.0	42.7	19.3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16.7	41.7	29.2	12.5	0.0	58.3	29.2	12.5
	상	110	4.5	36.4	40.9	12.7	5.5	40.9	40.9	18.2
	중	680	4.9	29.3	45.9	16.8	3.2	34.1	45.9	20.0
하	410	5.4	28.3	40.7	24.6	1.0	33.7	40.7	25.6	

4.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64.6%, 전문가 68.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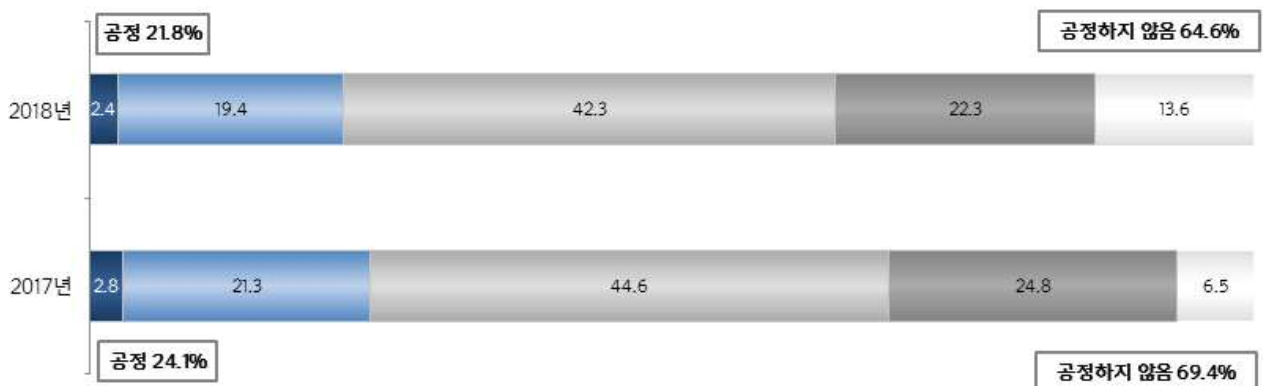
- [일반국민]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64.6%로 ‘공정하다’(21.8%)는 응답보다 42.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공정하다’(21.8%)는 응답은 2.3%p(2017년 24.1%) 감소하였고 ‘공정하지 않다’(64.6%)는 응답도 4.8%p(2017년 6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68.3%로 ‘공정하다’(28.3%)는 응답보다 40.0%p 높게 나타남.

<그림 5-4>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 아주 공정하게 결정된다 ■ 공정하게 결정되는 편이다 ■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는 편이다 ■ 전혀 공정하지 않게 결정된다 ■ 잘 모르겠다



[특성별 분석]

-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직업별로 ‘무직/기타(n=21)’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5-4>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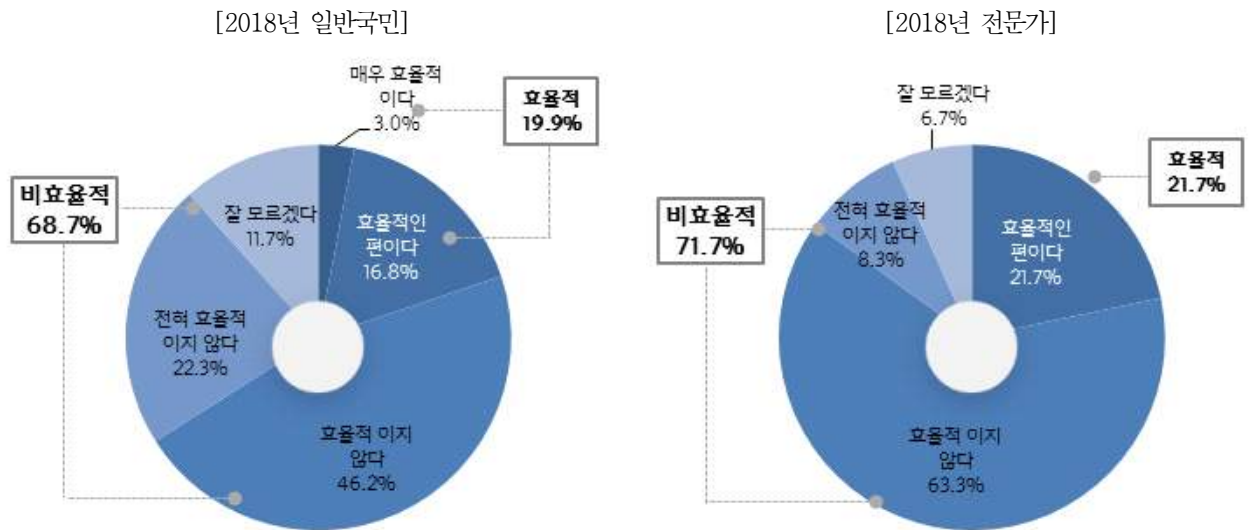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공정하게 결정된다	공정하게 결정되는 편이다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공정하지 않게 결정된다	잘 모르 겠다	종합			
								공정	공정 하지 않음	잘 모름	
전체		1,260	2.3	19.8	43.1	21.7	13.1	22.1	64.8	13.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4	19.4	42.3	22.3	13.6	21.8	64.6	13.6	
	전문가	60	0.0	28.3	60.0	8.3	3.3	28.3	68.3	3.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3.5	21.8	46.5	20.4	7.7	25.4	66.9	7.7	
	중	564	1.4	18.3	42.9	22.0	15.4	19.7	64.9	15.4	
	하	210	2.9	17.6	31.9	27.1	20.5	20.5	59.0	20.5	
성별	남성	720	2.4	18.8	41.5	25.1	12.2	21.1	66.7	12.2	
	여성	480	2.5	20.4	43.3	18.1	15.6	22.9	61.5	15.6	
연령별	20대 이하	299	2.3	21.4	37.1	22.1	17.1	23.7	59.2	17.1	
	30대	273	2.6	17.9	40.7	26.4	12.5	20.5	67.0	12.5	
	40대	316	1.9	17.1	50.3	19.9	10.8	19.0	70.3	10.8	
	50대	312	2.9	21.2	40.4	21.5	14.1	24.0	61.9	14.1	
지역별	서울	237	0.8	24.1	44.7	19.8	10.5	24.9	64.6	10.5	
	경기/인천	389	3.6	20.3	45.0	19.3	11.8	23.9	64.3	11.8	
	부산/울산/경남	183	1.6	21.9	35.0	20.8	20.8	23.5	55.7	20.8	
	대구/경북	114	0.0	11.4	32.5	15.8	40.4	11.4	48.2	40.4	
	광주/전라	114	7.9	14.9	44.7	31.6	0.9	22.8	76.3	0.9	
	대전/충청/세종	128	0.8	16.4	39.8	39.1	3.9	17.2	78.9	3.9	
지역크기	강원	35	0.0	17.1	65.7	11.4	5.7	17.1	77.1	5.7	
	대도시	542	1.3	19.0	42.3	24.5	12.9	20.3	66.8	12.9	
	중소도시	579	3.5	21.6	43.5	18.0	13.5	25.0	61.5	13.5	
	읍/면	79	2.5	6.3	32.9	39.2	19.0	8.9	72.2	19.0	
	직업별	농/어/임업	10	10.0	20.0	30.0	30.0	10.0	30.0	60.0	10.0
		자영업자	260	1.2	17.7	45.8	24.2	11.2	18.8	70.0	11.2
		판매/서비스직	238	4.2	25.6	42.4	18.9	8.8	29.8	61.3	8.8
사무/기술직		386	1.6	18.7	42.5	24.6	12.7	20.2	67.1	12.7	
전문/자유직		27	0.0	14.8	48.1	14.8	22.2	14.8	63.0	22.2	
전업주부		147	3.4	21.1	41.5	15.6	18.4	24.5	57.1	18.4	
학생		111	3.6	14.4	35.1	23.4	23.4	18.0	58.6	23.4	
무직/기타		21	0.0	4.8	33.3	42.9	19.0	4.8	76.2	19.0	
학력별	중졸이하	21	9.5	28.6	33.3	4.8	23.8	38.1	38.1	23.8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2.4	17.1	40.9	23.1	16.5	19.4	64.0	16.5	
	전문대(중퇴/졸업)	308	2.9	22.7	44.8	19.8	9.7	25.6	64.6	9.7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1.9	19.3	42.5	23.0	13.3	21.2	65.5	13.3	
	대학원 이상	24	0.0	8.3	33.3	45.8	12.5	8.3	79.2	12.5	
생활수준 별	상	110	6.4	25.5	40.0	18.2	10.0	31.8	58.2	10.0	
	중	680	2.2	20.6	45.0	20.4	11.8	22.8	65.4	11.8	
	하	410	1.7	15.9	38.3	26.6	17.6	17.6	64.9	17.6	

5.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비효율적이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68.7%, 전문가 71.7%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비효율적이다’는 응답이 68.7%로 ‘효율적이다’(19.9%)는 응답보다 48.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효율적이다’(19.9%)는 응답은 3.3%p(2017년 23.2%) 감소하였고, ‘비효율적이다’(68.7%)는 응답도 2.6%p(2017년 7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비효율적이다’는 응답이 71.7%로 ‘효율적이다’(21.7%)는 응답보다 50.0%p 높게 나타남.

<그림 5-5>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비효율적이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지역크기가 클수록, 직업별로 '무직/기타'(n=21)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5-5>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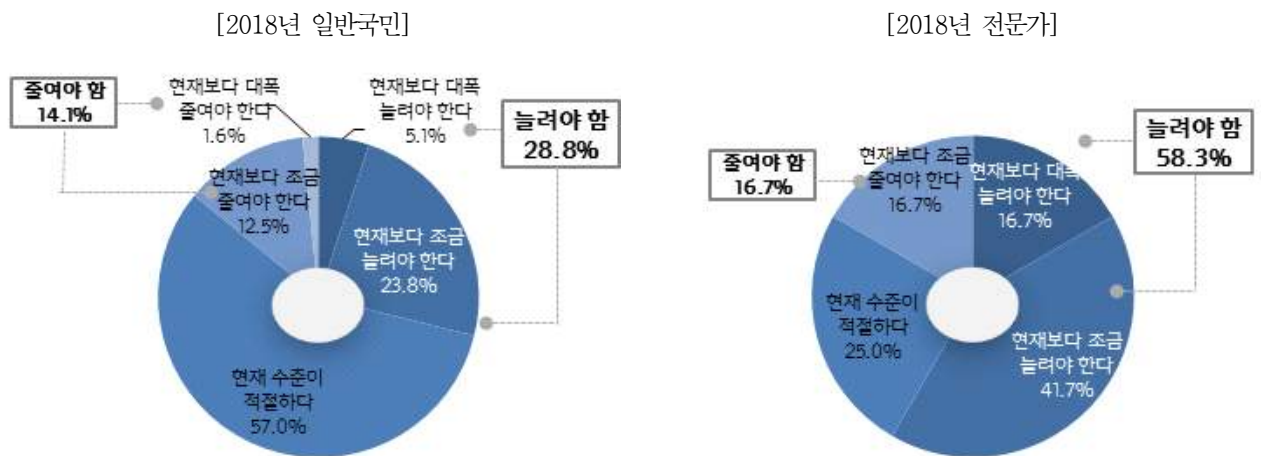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효율적 이다	효율 적인 편이다	보통 이다	효율적 이지 않다	전혀 효율적 이지 않다	종합			
								효율적	비효율적	잘 모르겠다	
전체		1,260	2.9	17.1	47.1	21.7	11.2	20.0	68.8	11.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0	16.9	46.3	22.4	11.4	19.9	68.7	11.4	
	전문가	60	0.0	21.7	63.3	8.3	6.7	21.7	71.7	6.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4.7	20.2	48.8	20.4	5.9	24.9	69.2	5.9	
	중	564	2.1	14.0	48.4	22.3	13.1	16.1	70.7	13.1	
	하	210	1.9	18.1	35.2	26.7	18.1	20.0	61.9	18.1	
성별	남성	720	2.9	16.9	46.7	24.4	9.0	19.9	71.1	9.0	
	여성	480	3.1	16.9	45.6	19.4	15.0	20.0	65.0	15.0	
연령별	20대 이하	299	3.0	16.7	44.5	22.4	13.4	19.7	66.9	13.4	
	30대	273	4.0	16.8	46.5	22.0	10.6	20.9	68.5	10.6	
	40대	316	3.8	13.9	53.2	19.9	9.2	17.7	73.1	9.2	
	50대	312	1.3	20.2	40.7	25.3	12.5	21.5	66.0	12.5	
지역별	서울	237	2.5	18.1	48.5	21.1	9.7	20.7	69.6	9.7	
	경기/인천	389	4.4	14.4	49.1	21.6	10.5	18.8	70.7	10.5	
	부산/울산/경남	183	1.6	18.6	36.6	25.7	17.5	20.2	62.3	17.5	
	대구/경북	114	0.0	9.6	43.0	19.3	28.1	9.6	62.3	28.1	
	광주/전라	114	7.9	20.2	53.5	18.4	0.0	28.1	71.9	0.0	
	대전/충청/세종	128	0.8	21.9	39.8	32.0	5.5	22.7	71.9	5.5	
지역크기	강원	35	0.0	22.9	60.0	11.4	5.7	22.9	71.4	5.7	
	대도시	542	2.2	14.9	47.4	24.9	10.5	17.2	72.3	10.5	
	중소도시	579	3.5	19.5	46.5	19.3	11.2	23.0	65.8	11.2	
	읍/면	79	5.1	11.4	36.7	27.8	19.0	16.5	64.6	19.0	
	직업별	농/어/임업	10	0.0	20.0	40.0	30.0	10.0	20.0	70.0	10.0
		자영업자	260	1.5	13.8	47.3	27.3	10.0	15.4	74.6	10.0
판매/서비스직		238	2.9	22.3	48.7	18.1	8.0	25.2	66.8	8.0	
사무/기술직		386	3.9	16.6	47.7	21.2	10.6	20.5	68.9	10.6	
전문/자유직		27	3.7	11.1	51.9	11.1	22.2	14.8	63.0	22.2	
전업주부		147	3.4	19.7	41.5	19.0	16.3	23.1	60.5	16.3	
학생		111	3.6	14.4	39.6	27.0	15.3	18.0	66.7	15.3	
무직/기타		21	0.0	0.0	42.9	42.9	14.3	0.0	85.7	14.3	
학력별	중졸이하	21	4.8	19.0	33.3	19.0	23.8	23.8	52.4	23.8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2.9	17.8	40.7	24.9	13.6	20.7	65.6	13.6	
	전문대(중퇴/졸업)	308	4.9	11.7	50.6	22.7	10.1	16.6	73.4	10.1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1.9	19.7	47.4	21.0	9.9	21.7	68.5	9.9	
	대학원 이상	24	0.0	12.5	66.7	8.3	12.5	12.5	75.0	12.5	
생활수준 별	상	110	6.4	19.1	50.9	16.4	7.3	25.5	67.3	7.3	
	중	680	3.5	16.8	49.3	20.7	9.7	20.3	70.0	9.7	
	하	410	1.2	16.6	40.0	26.8	15.4	17.8	66.8	15.4	

6. 한국의 국방비 수준

한국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28.8%, 전문가 58.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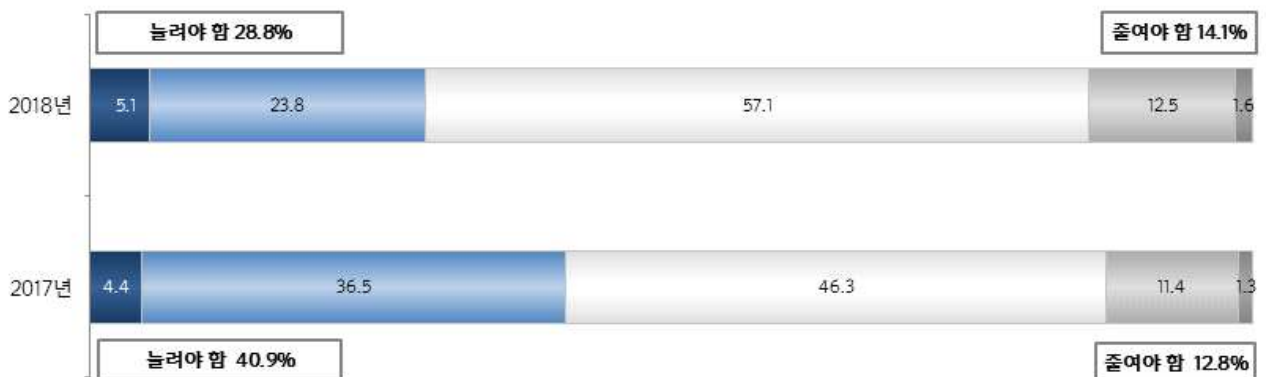
- [일반국민] 한국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28.8%로 '줄여야 한다'(14.1%)는 응답보다 14.7%p 높게 나타남. (적절함 : 57.0%)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늘려야 한다'(28.8%)는 응답은 12.1%p(2017년 40.9%) 감소하였고, '줄여야 한다'(14.1%)는 응답은 1.3%p(2017년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국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58.3%로 '줄여야 한다'(16.7%)는 응답보다 41.6%p 높게 나타남. (적절함 : 25.0%)

<그림 5-6> 한국의 국방비 수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 현재보다 조금 늘려야 한다 □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 ■ 현재보다 조금 줄여야 한다 ■ 현재보다 대폭 줄여야 한다



[특성별 분석]

- 한국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경기/인천', 직업별로 '판매/서비스직',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n=24)'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5-6> 한국의 국방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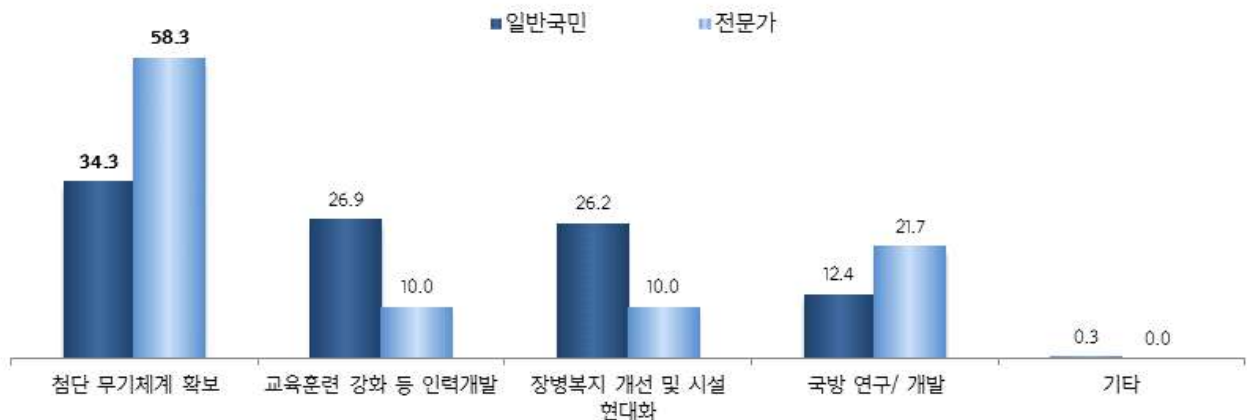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현재	현재	현재	현재	현재	종합			
		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보다 조금 늘려야 한다	수준이 적절 하다	보다 조금 줄여야 한다	보다 대폭 줄여야 한다	늘려야 함	적절함	줄여야 함	
전체	1,260	5.6	24.6	55.6	12.7	1.5	30.2	55.6	14.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1	23.8	57.1	12.5	1.6	28.8	57.1	14.1
	전문가	60	16.7	41.7	25.0	16.7	0.0	58.3	25.0	16.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8.2	28.4	52.1	9.6	1.6	36.6	52.1	11.3
	중	564	2.8	19.9	62.8	13.3	1.2	22.7	62.8	14.5
	하	210	4.8	24.8	51.9	16.2	2.4	29.5	51.9	18.6
성별	남성	720	6.7	25.1	56.0	11.0	1.3	31.8	56.0	12.2
	여성	480	2.7	21.7	58.8	14.8	2.1	24.4	58.8	16.9
연령별	20대 이하	299	4.3	23.4	56.9	13.0	2.3	27.8	56.9	15.4
	30대	273	4.8	23.4	57.9	12.8	1.1	28.2	57.9	13.9
	40대	316	6.3	25.6	55.7	11.7	0.6	32.0	55.7	12.3
	50대	312	4.8	22.4	58.0	12.5	2.2	27.2	58.0	14.7
지역별	서울	237	5.5	30.0	52.7	10.1	1.7	35.4	52.7	11.8
	경기/인천	389	9.3	26.7	50.4	12.1	1.5	36.0	50.4	13.6
	부산/울산/경남	183	1.6	14.8	57.9	25.7	0.0	16.4	57.9	25.7
	대구/경북	114	3.5	16.7	71.1	7.0	1.8	20.2	71.1	8.8
	광주/전라	114	1.8	16.7	67.5	8.8	5.3	18.4	67.5	14.0
	대전/충청/세종	128	0.0	28.1	63.3	8.6	0.0	28.1	63.3	8.6
지역크기	강원	35	8.6	25.7	54.3	8.6	2.9	34.3	54.3	11.4
	대도시	542	3.9	21.4	59.6	13.1	2.0	25.3	59.6	15.1
	중소도시	579	6.9	26.4	54.2	11.4	1.0	33.3	54.2	12.4
직업별	읍/면	79	0.0	20.3	60.8	16.5	2.5	20.3	60.8	19.0
	농/어/임업	10	10.0	10.0	80.0	0.0	0.0	20.0	80.0	0.0
	자영업자	260	7.3	22.3	52.3	16.5	1.5	29.6	52.3	18.1
	판매/서비스직	238	4.6	27.3	58.4	6.7	2.9	31.9	58.4	9.7
	사무/기술직	386	4.9	23.6	59.3	11.1	1.0	28.5	59.3	12.2
	전문/자유직	27	7.4	18.5	66.7	7.4	0.0	25.9	66.7	7.4
	전업주부	147	3.4	27.2	53.1	13.6	2.7	30.6	53.1	16.3
	학생	111	2.7	18.0	60.4	18.9	0.0	20.7	60.4	18.9
학력별	무직/기타	21	4.8	23.8	47.6	23.8	0.0	28.6	47.6	23.8
	중졸이하	21	14.3	19.0	52.4	14.3	0.0	33.3	52.4	14.3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4.2	21.0	57.5	15.5	1.8	25.2	57.5	17.3
	전문대(중퇴/졸업)	308	3.9	20.1	60.7	12.7	2.6	24.0	60.7	15.3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5.4	27.7	55.8	10.3	0.9	33.0	55.8	11.2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20.8	41.7	33.3	4.2	0.0	62.5	33.3	4.2
	상	110	11.8	31.8	42.7	12.7	0.9	43.6	42.7	13.6
	중	680	4.3	22.6	60.1	11.2	1.8	26.9	60.1	12.9
하	410	4.6	23.4	55.9	14.6	1.5	28.0	55.9	16.1	

7.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향후 국방비를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의견으로 '첨단 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34.3%, 전문가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향후 국방비를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의견으로 '첨단 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26.9%),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 현대화'(2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첨단 무기체계 확보'(34.3%)라는 응답은 4.2%p(2017년 38.5%) 감소하였고,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26.9%)이라는 응답은 4.4%p(2017년 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향후 국방비를 투자해야 할 분야로 '첨단 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이 5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방 연구/개발'(2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7>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향후 국방비를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첨단 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전문/자유직’(n=27),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 현대화’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직업별로 ‘무직/기타’(n=2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5-7>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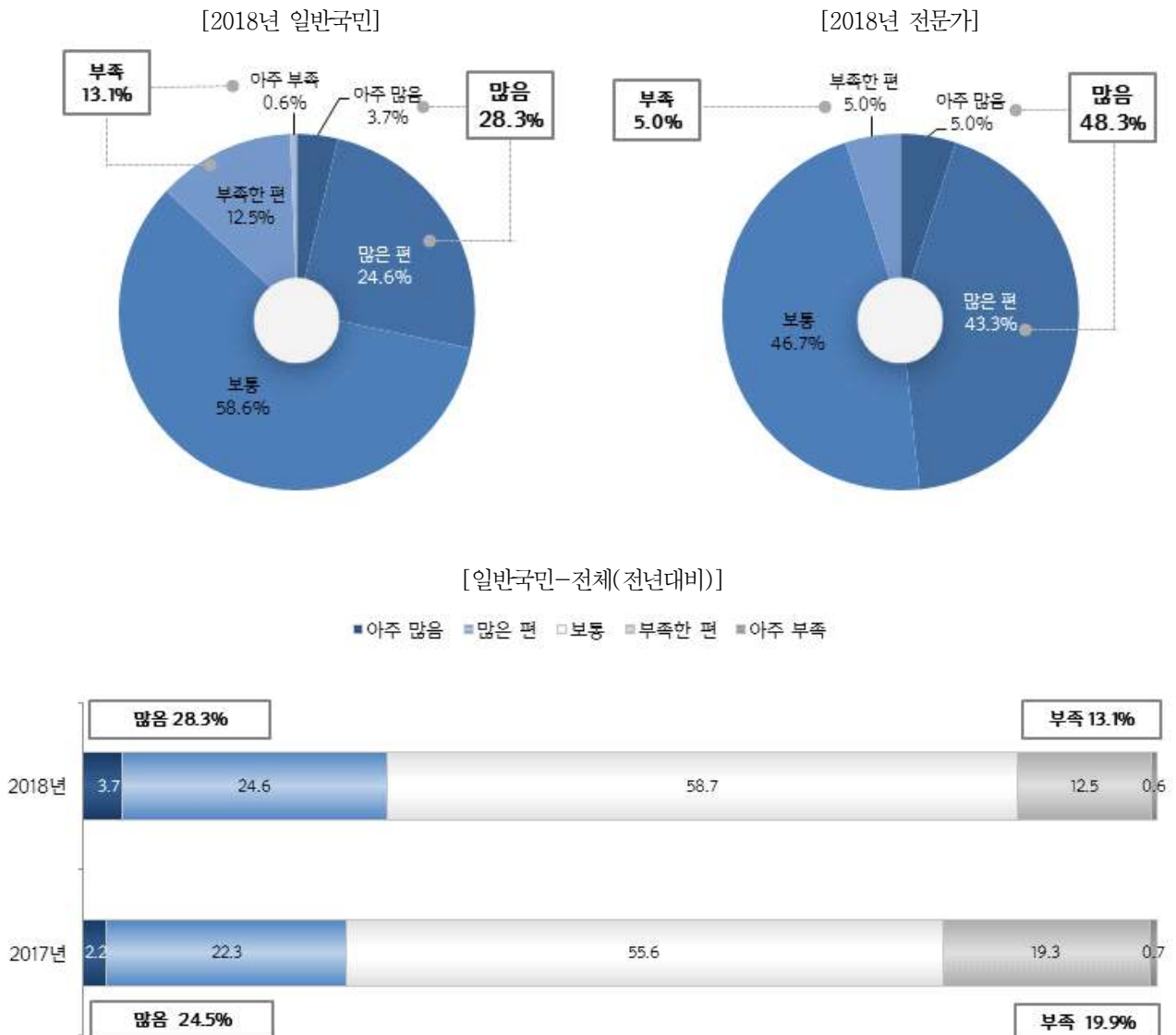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첨단 무기체계 확보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 현대화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	국방 연구/ 개발	기타
전체		1,260	35.4	26.1	25.4	12.9	0.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4.3	26.9	26.2	12.4	0.3
	전문가	60	58.3	10.0	10.0	21.7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37.1	23.9	24.6	14.1	0.2
	중	564	34.8	27.3	27.0	10.8	0.2
	하	210	27.1	31.9	27.1	13.3	0.5
성별	남성	720	36.8	25.4	24.4	12.9	0.4
	여성	480	30.4	29.2	28.8	11.7	0.0
연령별	20대 이하	299	27.4	35.1	25.8	11.4	0.3
	30대	273	34.8	23.1	28.2	13.2	0.7
	40대	316	37.0	26.3	25.3	11.4	0.0
	50대	312	37.5	23.1	25.6	13.8	0.0
지역별	서울	237	32.9	27.0	32.1	8.0	0.0
	경기/인천	389	30.6	27.2	30.6	10.8	0.8
	부산/울산/경남	183	32.2	21.9	29.5	16.4	0.0
	대구/경북	114	52.6	20.2	14.9	12.3	0.0
	광주/전라	114	22.8	36.8	15.8	24.6	0.0
	대전/충청/세종	128	41.4	32.0	14.8	11.7	0.0
	강원	35	45.7	20.0	31.4	2.9	0.0
지역크기	대도시	542	37.8	24.2	23.6	14.0	0.4
	중소도시	579	29.9	28.5	29.9	11.7	0.0
	읍/면	79	41.8	34.2	16.5	6.3	1.3
직업별	농/어/임업	10	10.0	30.0	20.0	40.0	0.0
	자영업자	260	35.8	26.5	24.6	13.1	0.0
	판매/서비스직	238	32.4	28.6	29.4	9.7	0.0
	사무/기술직	386	36.0	23.6	27.5	12.2	0.8
	전문/자유직	27	40.7	29.6	18.5	11.1	0.0
	전업주부	147	32.7	28.6	24.5	14.3	0.0
	학생	111	33.3	31.5	21.6	13.5	0.0
	무직/기타	21	23.8	33.3	33.3	9.5	0.0
학력별	중졸이하	21	33.3	28.6	19.0	19.0	0.0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33.3	27.3	27.6	11.8	0.0
	전문대(중퇴/졸업)	308	36.4	25.6	26.6	11.4	0.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32.4	28.1	25.5	13.3	0.6
	대학원 이상	24	58.3	12.5	16.7	12.5	0.0
생활수준 별	상	110	37.3	24.5	29.1	9.1	0.0
	중	680	36.0	26.0	26.8	10.7	0.4
	하	410	30.5	29.0	24.4	16.1	0.0

8.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으로 '많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28.3%, 전문가 48.3%로 나타남.

- [일반국민]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으로 '많다'는 응답이 28.3%로 '부족하다'(13.1%)는 응답보다 15.2%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많다(28.3%)는 응답은 3.8%p(2017년 24.5%) 증가하였고, '부족하다(13.1%)는 응답은 6.8%p(2017년 1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으로 '많다'는 응답이 48.3%로 '부족하다'(5.0%)는 응답보다 43.3%p 높게 나타남.

<그림 5-8> 현재 병력수에 대한 인식



[특성별 분석]

-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많다’는 응답은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광주/전라’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5-8>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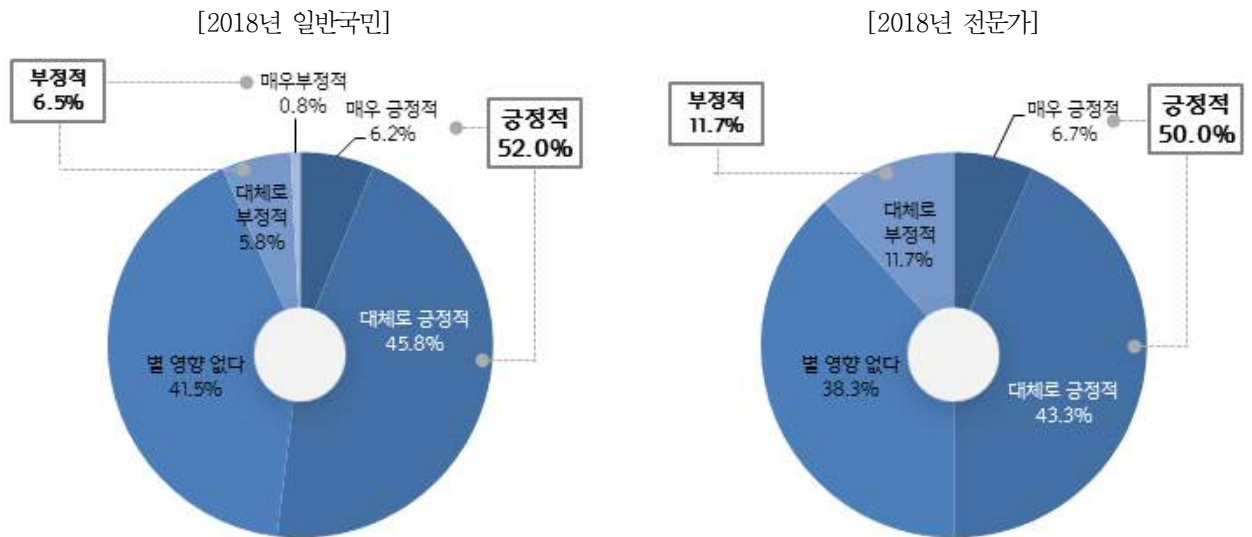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아주 많다	많은 편이다	보통이다	부족한 편이다	아주 부족 하다	종합			
								많음	보통	부족함	
전체		1,260	3.7	25.5	58.1	12.1	0.6	29.2	58.1	12.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7	24.6	58.7	12.5	0.6	28.3	58.7	13.1	
	전문가	60	5.0	43.3	46.7	5.0	0.0	48.3	46.7	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6.3	26.1	55.9	11.3	0.5	32.4	55.9	11.7	
	중	564	2.1	21.5	64.5	11.7	0.2	23.6	64.5	11.9	
	하	210	2.4	30.0	48.6	17.1	1.9	32.4	48.6	19.0	
성별	남성	720	3.5	24.0	57.2	14.7	0.6	27.5	57.2	15.3	
	여성	480	4.0	25.4	60.8	9.2	0.6	29.4	60.8	9.8	
연령별	20대 이하	299	2.7	27.8	59.2	9.7	0.7	30.4	59.2	10.4	
	30대	273	4.8	24.2	55.3	15.4	0.4	28.9	55.3	15.8	
	40대	316	3.5	22.8	61.4	12.0	0.3	26.3	61.4	12.3	
	50대	312	3.8	23.7	58.3	13.1	1.0	27.6	58.3	14.1	
지역별	서울	237	2.1	21.9	59.9	16.0	0.0	24.1	59.9	16.0	
	경기/인천	389	3.3	28.5	56.6	11.1	0.5	31.9	56.6	11.6	
	부산/울산/경남	183	0.0	28.4	55.2	16.4	0.0	28.4	55.2	16.4	
	대구/경북	114	2.6	10.5	70.2	14.0	2.6	13.2	70.2	16.7	
	광주/전라	114	17.5	25.4	55.3	1.8	0.0	43.0	55.3	1.8	
	대전/충청/세종	128	0.8	25.8	57.8	14.1	1.6	26.6	57.8	15.6	
지역크기	강원	35	5.7	17.1	68.6	8.6	0.0	22.9	68.6	8.6	
	대도시	542	3.5	20.8	59.8	15.3	0.6	24.4	59.8	15.9	
	중소도시	579	3.8	28.0	57.3	10.2	0.7	31.8	57.3	10.9	
	읍/면	79	3.8	25.3	60.8	10.1	0.0	29.1	60.8	10.1	
	직업별	농/어/임업	10	0.0	0.0	70.0	10.0	20.0	0.0	70.0	30.0
		자영업자	260	4.6	21.5	61.9	11.9	0.0	26.2	61.9	11.9
판매/서비스직		238	4.6	26.1	55.5	13.0	0.8	30.7	55.5	13.9	
사무/기술직		386	2.8	25.6	56.0	15.3	0.3	28.5	56.0	15.5	
전문/자유직		27	0.0	25.9	66.7	7.4	0.0	25.9	66.7	7.4	
전업주부		147	5.4	23.1	61.2	8.8	1.4	28.6	61.2	10.2	
학생		111	1.8	30.6	58.6	9.0	0.0	32.4	58.6	9.0	
무직/기타		21	0.0	14.3	71.4	14.3	0.0	14.3	71.4	14.3	
학력별	중졸이하	21	4.8	28.6	42.9	19.0	4.8	33.3	42.9	23.8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3.9	23.1	58.8	13.4	0.8	27.0	58.8	14.2	
	전문대(중퇴/졸업)	308	5.8	26.0	55.5	12.3	0.3	31.8	55.5	12.7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2.1	24.5	61.6	11.6	0.2	26.6	61.6	11.8	
	대학원 이상	24	0.0	29.2	54.2	12.5	4.2	29.2	54.2	16.7	
생활수준 별	상	110	1.8	32.7	52.7	11.8	0.9	34.5	52.7	12.7	
	중	680	3.8	22.4	62.6	10.6	0.6	26.2	62.6	11.2	
	하	410	3.9	26.1	53.7	15.9	0.5	30.0	53.7	16.3	

9.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52.0%, 전문가 5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52.0%로 ‘부정적이다’는 응답 6.5% 보다 45.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긍정적이다’(52.0%)는 응답은 5.6%p(2017년 57.6%) 감소하였고, ‘부정적이다’(6.5%)는 응답은 0.1%p(2017년 6.4%) 증가하였음.
- [전문가]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50.0%로 ‘부정적이다’는 응답 11.7% 보다 38.3%p 높게 나타남.

<그림 5-9>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긍정적이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로 ‘하’,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강원’, 직업별로 ‘농/어/임업’(n=10),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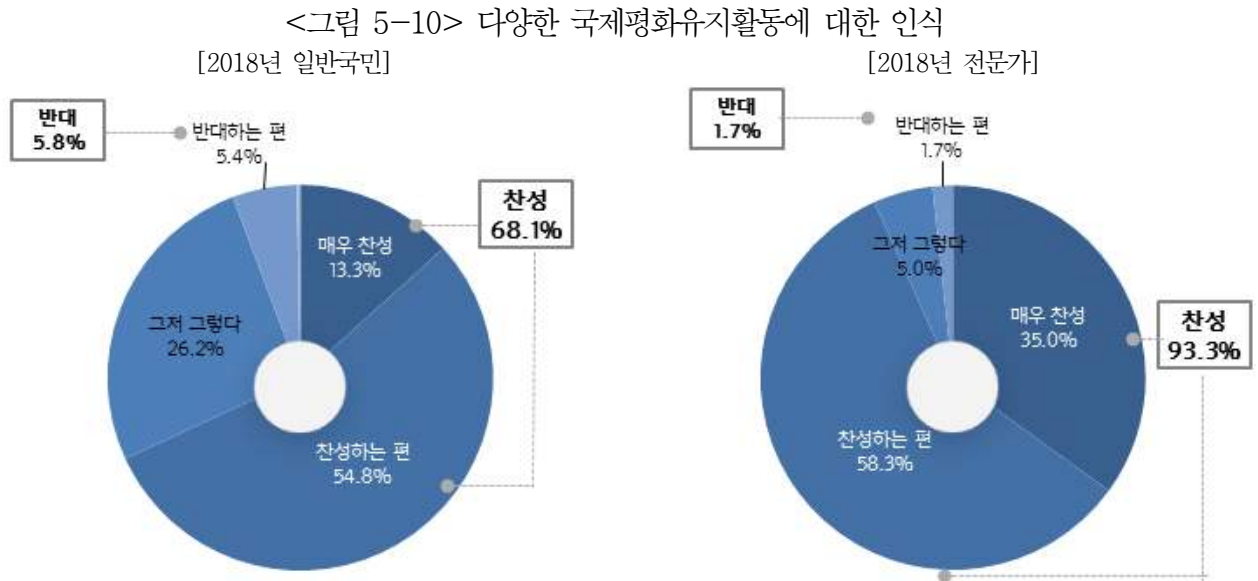
<표 5-9>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긍정적 이다	대체로 긍정적 이다	별 영향 없다	대체로 부정적 이다	매우 부정적 이다	종합		
								긍정적	영향 없음	부정적
전체		1,260	6.2	45.7	41.3	6.0	0.7	51.9	41.3	6.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6.2	45.8	41.5	5.8	0.8	52.0	41.5	6.5
	전문가	60	6.7	43.3	38.3	11.7	0.0	50.0	38.3	1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8.7	43.7	40.8	5.6	1.2	52.3	40.8	6.8
	중	564	4.4	44.9	44.7	5.7	0.4	49.3	44.7	6.0
	하	210	5.7	52.9	34.3	6.2	1.0	58.6	34.3	7.1
성별	남성	720	6.8	47.6	38.6	5.8	1.1	54.4	38.6	6.9
	여성	480	5.2	43.1	45.8	5.6	0.2	48.3	45.8	5.8
연령별	20대 이하	299	6.4	42.5	44.1	6.4	0.7	48.8	44.1	7.0
	30대	273	7.0	45.1	41.8	5.9	0.4	52.0	41.8	6.2
	40대	316	8.2	43.7	42.7	4.1	1.3	51.9	42.7	5.4
	50대	312	3.2	51.9	37.5	6.7	0.6	55.1	37.5	7.4
지역별	서울	237	8.4	45.1	38.8	7.6	0.0	53.6	38.8	7.6
	경기/인천	389	4.4	44.0	46.8	2.8	2.1	48.3	46.8	4.9
	부산/울산/경남	183	4.9	53.0	35.0	7.1	0.0	57.9	35.0	7.1
	대구/경북	114	2.6	43.9	49.1	3.5	0.9	46.5	49.1	4.4
	광주/전라	114	7.9	24.6	52.6	14.9	0.0	32.5	52.6	14.9
	대전/충청/세종	128	8.6	60.9	28.9	1.6	0.0	69.5	28.9	1.6
	강원	35	14.3	54.3	20.0	11.4	0.0	68.6	20.0	11.4
지역크기	대도시	542	7.4	42.4	42.8	7.2	0.2	49.8	42.8	7.4
	중소도시	579	4.5	49.7	40.2	4.1	1.4	54.2	40.2	5.5
	읍/면	79	10.1	40.5	41.8	7.6	0.0	50.6	41.8	7.6
직업별	농/어/임업	10	30.0	50.0	20.0	0.0	0.0	80.0	20.0	0.0
	자영업자	260	3.1	45.8	43.1	6.5	1.5	48.8	43.1	8.1
	판매/서비스직	238	8.0	45.4	40.8	5.5	0.4	53.4	40.8	5.9
	사무/기술직	386	7.0	51.0	37.3	4.4	0.3	58.0	37.3	4.7
	전문/자유직	27	7.4	70.4	18.5	3.7	0.0	77.8	18.5	3.7
	전업주부	147	4.8	38.1	49.7	6.8	0.7	42.9	49.7	7.5
	학생	111	5.4	33.3	49.5	9.9	1.8	38.7	49.5	11.7
	무직/기타	21	9.5	42.9	47.6	0.0	0.0	52.4	47.6	0.0
학력별	중졸이하	21	9.5	42.9	33.3	4.8	9.5	52.4	33.3	14.3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5.8	44.9	42.8	6.6	0.0	50.7	42.8	6.6
	전문대(중퇴/졸업)	308	5.2	45.5	42.2	6.2	1.0	50.6	42.2	7.1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7.1	45.7	41.6	4.7	0.9	52.8	41.6	5.6
	대학원 이상	24	4.2	70.8	16.7	8.3	0.0	75.0	16.7	8.3
생활수준 별	상	110	9.1	50.0	31.8	9.1	0.0	59.1	31.8	9.1
	중	680	7.4	45.9	40.9	4.7	1.2	53.2	40.9	5.9
	하	410	3.4	44.6	45.1	6.6	0.2	48.0	45.1	6.8

10.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68.1%, 전문가 93.3%로 나타남.

- [일반국민]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68.1%로 ‘반대한다’(5.8%)는 응답보다 62.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68.1%)은 0.7%p(2017년 68.8%) 감소하였고, ‘반대한다’(5.8%)는 응답은 1.0%p(2017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93.3%로 ‘반대한다’(1.7%)는 응답보다 91.7%p 높게 나타남.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지역별로 ‘강원’, 직업별로 ‘농/어/임업’(n=10)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0>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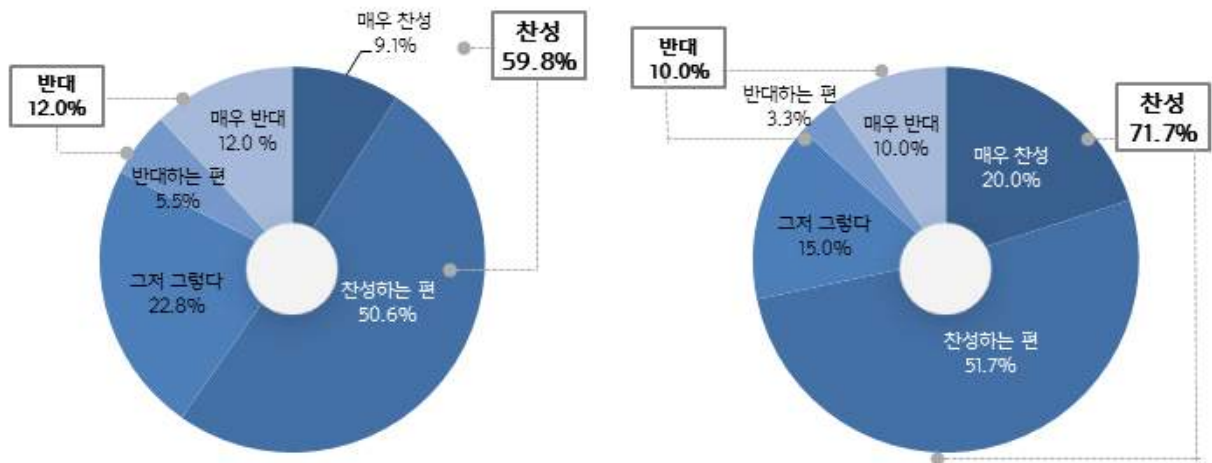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한다	찬성 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반대 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 한다	종합			
								찬성	그저 그렇다	반대	
전체		1,260	14.4	54.9	25.2	5.2	0.3	69.3	25.2	5.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3.3	54.8	26.2	5.4	0.3	68.1	26.2	5.8	
	전문가	60	35.0	58.3	5.0	1.7	0.0	93.3	5.0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19.0	54.7	23.5	2.1	0.7	73.7	23.5	2.8	
	중	564	9.6	56.6	28.0	5.7	0.2	66.1	28.0	5.9	
	하	210	11.9	50.0	26.7	11.4	0.0	61.9	26.7	11.4	
성별	남성	720	16.0	51.7	27.2	4.6	0.6	67.6	27.2	5.1	
	여성	480	9.4	59.4	24.6	6.7	0.0	68.8	24.6	6.7	
연령별	20대 이하	299	11.7	59.2	24.1	5.0	0.0	70.9	24.1	5.0	
	30대	273	17.2	49.8	30.0	2.9	0.0	67.0	30.0	2.9	
	40대	316	13.3	52.5	27.5	5.7	0.9	65.8	27.5	6.6	
	50대	312	11.5	57.1	23.4	7.7	0.3	68.6	23.4	8.0	
지역별	서울	237	17.3	53.2	26.6	2.1	0.8	70.5	26.6	3.0	
	경기/인천	389	13.4	58.4	25.7	2.1	0.5	71.7	25.7	2.6	
	부산/울산/경남	183	9.8	40.4	25.7	24.0	0.0	50.3	25.7	24.0	
	대구/경북	114	7.0	66.7	26.3	0.0	0.0	73.7	26.3	0.0	
	광주/전라	114	14.0	54.4	28.1	3.5	0.0	68.4	28.1	3.5	
	대전/충청/세종	128	10.2	58.6	28.9	2.3	0.0	68.8	28.9	2.3	
지역크기	강원	35	34.3	48.6	14.3	2.9	0.0	82.9	14.3	2.9	
	대도시	542	13.1	54.1	25.3	7.2	0.4	67.2	25.3	7.6	
	중소도시	579	13.3	55.3	26.8	4.3	0.3	68.6	26.8	4.7	
	읍/면	79	15.2	55.7	27.8	1.3	0.0	70.9	27.8	1.3	
	직업별	농/어/임업	10	30.0	70.0	0.0	0.0	0.0	100.0	0.0	0.0
		자영업자	260	12.3	61.9	20.8	4.2	0.8	74.2	20.8	5.0
		판매/서비스직	238	14.3	51.3	31.9	2.1	0.4	65.5	31.9	2.5
사무/기술직		386	13.0	52.3	28.5	6.0	0.3	65.3	28.5	6.2	
전문/자유직		27	25.9	40.7	33.3	0.0	0.0	66.7	33.3	0.0	
전업주부		147	10.9	55.1	23.1	10.9	0.0	66.0	23.1	10.9	
학생		111	15.3	55.9	21.6	7.2	0.0	71.2	21.6	7.2	
무직/기타		21	4.8	52.4	33.3	9.5	0.0	57.1	33.3	9.5	
학력별	중졸이하	21	14.3	33.3	28.6	14.3	9.5	47.6	28.6	23.8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9.4	56.2	25.7	8.4	0.3	65.6	25.7	8.7	
	전문대(중퇴/졸업)	308	11.0	52.6	33.8	2.6	0.0	63.6	33.8	2.6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17.2	55.8	22.3	4.5	0.2	73.0	22.3	4.7	
	대학원 이상	24	29.2	58.3	8.3	4.2	0.0	87.5	8.3	4.2	
생활수준 별	상	110	17.3	51.8	25.5	5.5	0.0	69.1	25.5	5.5	
	중	680	13.8	57.1	25.1	3.5	0.4	70.9	25.1	4.0	
	하	410	11.5	51.7	28.0	8.5	0.2	63.2	28.0	8.8	

11. 아랍에미리트(UAE)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인식

아랍에미리트(UAE)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인식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59.8%, 전문가 71.7%로 나타남.

- [일반국민] 아랍에미리트(UAE)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인식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9.8%로 ‘반대한다’(12.0%)는 응답보다 47.8%p 높게 나타남.
- [전문가] 아랍에미리트(UAE)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인식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1.7%로 ‘반대한다’(10.0%)는 응답보다 61.7%p 높게 나타남.

<그림 5-11> 아랍에미리트(UAE)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인식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특성별 분석]

- 아랍에미리트(UAE)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인식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광주/전라’, 직업별로 ‘농/어/임업’(n=10)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1> 아랍에미리트(UAE)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인식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한다	찬성 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반대 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 한다	종합			
								찬성	그저 그렇다	반대	
전체		1,260	9.6	50.7	22.4	5.4	11.9	60.3	27.8	11.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9.1	50.7	22.8	5.5	12.0	59.8	28.3	12.0	
	전문가	60	20.0	51.7	15.0	3.3	10.0	71.7	18.3	1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13.4	52.3	21.4	3.5	9.4	65.7	24.9	9.4	
	중	564	6.4	50.4	23.8	5.1	14.4	56.7	28.9	14.4	
	하	210	7.6	48.1	22.9	10.5	11.0	55.7	33.3	11.0	
성별	남성	720	11.5	51.4	22.5	5.7	8.9	62.9	28.2	8.9	
	여성	480	5.4	49.6	23.1	5.2	16.7	55.0	28.3	16.7	
연령별	20대 이하	299	10.0	49.5	22.7	5.0	12.7	59.5	27.8	12.7	
	30대	273	11.0	49.5	21.6	4.0	13.9	60.4	25.6	13.9	
	40대	316	7.9	51.9	22.5	6.0	11.7	59.8	28.5	11.7	
	50대	312	7.7	51.6	24.0	6.7	9.9	59.3	30.8	9.9	
지역별	서울	237	10.5	51.1	21.9	2.5	13.9	61.6	24.5	13.9	
	경기/인천	389	8.2	51.4	22.4	4.4	13.6	59.6	26.7	13.6	
	부산/울산/경남	183	6.6	37.2	33.3	16.9	6.0	43.7	50.3	6.0	
	대구/경북	114	2.6	58.8	14.9	0.9	22.8	61.4	15.8	22.8	
	광주/전라	114	14.9	63.2	19.3	0.9	1.8	78.1	20.2	1.8	
	대전/충청/세종	128	9.4	48.4	23.4	7.8	10.9	57.8	31.3	10.9	
지역크기	강원	35	22.9	51.4	11.4	0.0	14.3	74.3	11.4	14.3	
	대도시	542	8.1	50.6	22.0	7.9	11.4	58.7	29.9	11.4	
	중소도시	579	9.5	50.8	24.4	3.1	12.3	60.3	27.5	12.3	
	읍/면	79	12.7	50.6	16.5	6.3	13.9	63.3	22.8	13.9	
	직업별	농/어/임업	10	10.0	80.0	10.0	0.0	0.0	90.0	10.0	0.0
		자영업자	260	6.9	53.8	23.1	6.2	10.0	60.8	29.2	10.0
판매/서비스직		238	11.8	55.9	18.9	5.0	8.4	67.6	23.9	8.4	
사무/기술직		386	9.3	50.5	22.5	5.4	12.2	59.8	28.0	12.2	
전문/자유직		27	18.5	51.9	11.1	0.0	18.5	70.4	11.1	18.5	
전업주부		147	6.1	44.2	28.6	6.1	15.0	50.3	34.7	15.0	
학생		111	9.9	41.4	27.0	4.5	17.1	51.4	31.5	17.1	
무직/기타		21	4.8	33.3	23.8	14.3	23.8	38.1	38.1	23.8	
학력별	중졸이하	21	4.8	33.3	14.3	14.3	33.3	38.1	28.6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5.5	47.5	30.4	7.1	9.4	53.0	37.5	9.4	
	전문대(중퇴/졸업)	308	10.1	55.5	16.9	3.2	14.3	65.6	20.1	14.3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10.3	50.9	21.5	5.4	12.0	61.2	26.8	12.0	
	대학원 이상	24	33.3	50.0	8.3	4.2	4.2	83.3	12.5	4.2	
생활수준 별	상	110	7.3	47.3	25.5	6.4	13.6	54.5	31.8	13.6	
	중	680	10.7	51.3	22.4	3.7	11.9	62.1	26.0	11.9	
	하	410	6.8	50.5	22.7	8.3	11.7	57.3	31.0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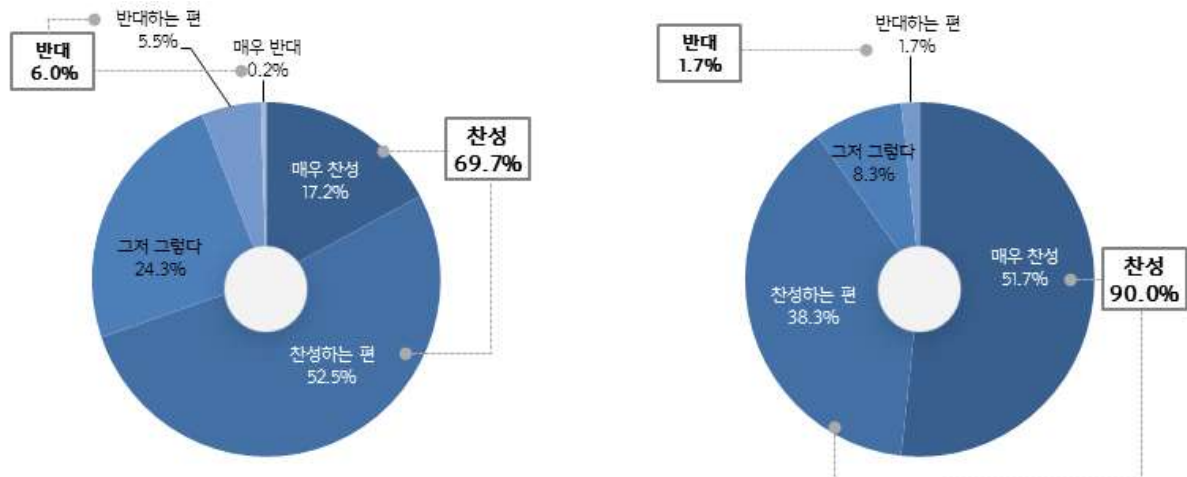
12. 한국군의 해외파병 필요성

12-1. 국제평화유지활동을 통한 국가위상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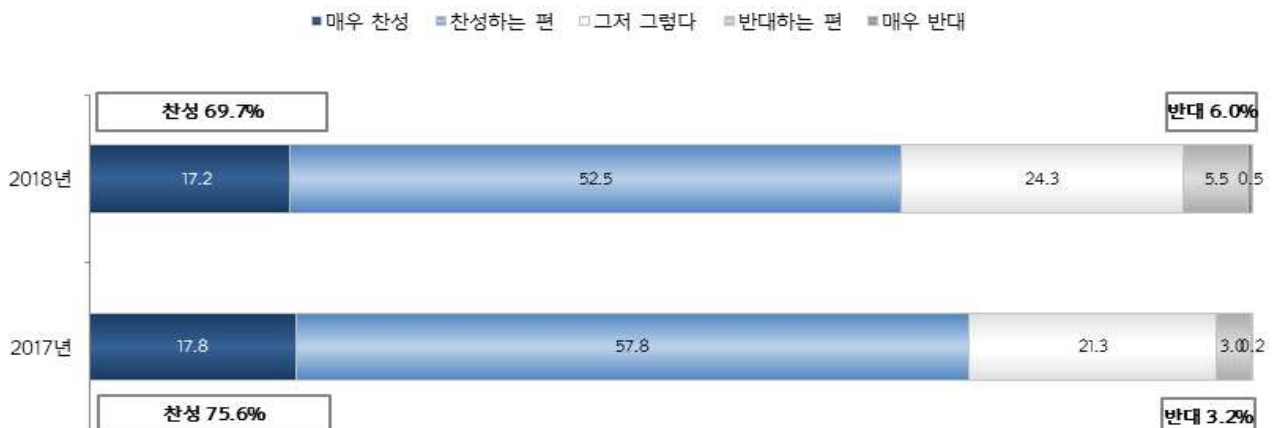
국제평화유지활동을 통한 국가위상 증진을 위해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69.7%, 전문가 9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제평화유지활동을 통한 국가위상 증진을 위해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9.7%로 '반대'한다는 응답 6.0% 보다 63.7%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찬성'(69.7%)이라는 응답은 5.9%p(2017년 75.6%) 감소하였고 '반대'(6.0%)라는 응답은 2.8%p(2017년 3.2%) 증가하였음.
- [전문가] 국제평화유지활동을 통한 국가위상 증진을 위해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90.0%로 '반대'한다는 응답 1.7% 보다 88.3%p 높게 나타남.

<그림 5-12-1> 한국군의 해외파병 필요성 - 국제평화유지활동을 통한 국가위상 증진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국제평화유지활동을 통한 국가위상 증진을 위해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농/어/임업'(n=10)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2-1> 한국군의 해외파병 필요성 - 국제평화유지활동을 통한 국가위상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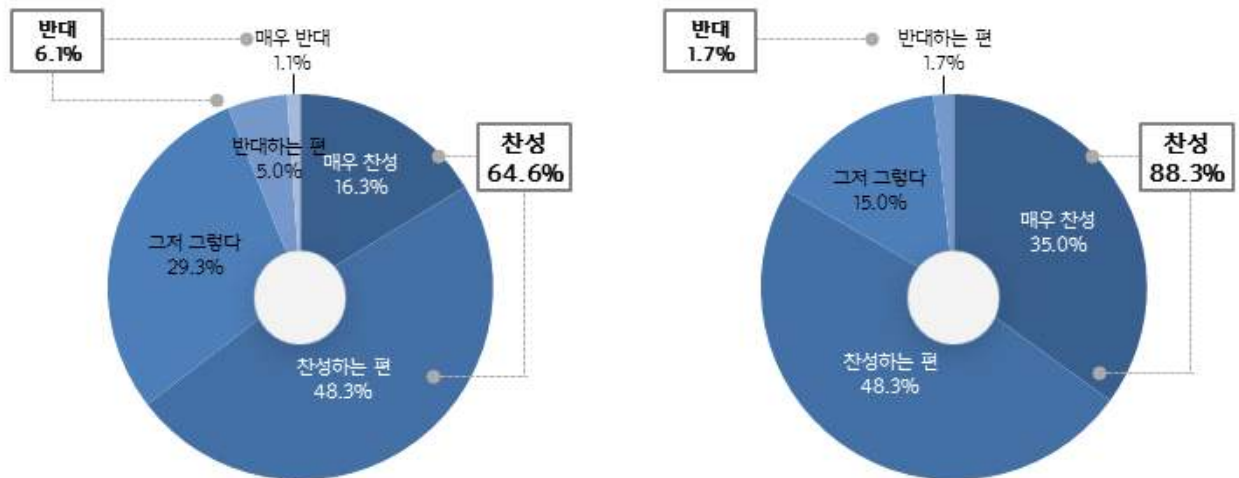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그저 그렇다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0	18.8	51.8	23.6	5.3	0.5	70.6	23.6	5.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7.2	52.5	24.3	5.5	0.5	69.7	24.3	6.0	
	전문가	60	51.7	38.3	8.3	1.7	0.0	90.0	8.3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20.7	54.9	19.7	4.2	0.5	75.6	19.7	4.7	
	중	564	13.1	54.6	27.0	4.8	0.5	67.7	27.0	5.3	
	하	210	21.0	41.9	26.7	10.0	0.5	62.9	26.7	10.5	
성별	남성	720	18.2	52.8	23.1	5.6	0.4	71.0	23.1	6.0	
	여성	480	15.6	52.1	26.3	5.4	0.6	67.7	26.3	6.0	
연령별	20대 이하	299	14.0	54.5	25.4	6.0	0.0	68.6	25.4	6.0	
	30대	273	21.2	46.2	28.2	4.4	0.0	67.4	28.2	4.4	
	40대	316	16.5	52.5	25.0	5.4	0.6	69.0	25.0	6.0	
	50대	312	17.3	56.1	19.2	6.1	1.3	73.4	19.2	7.4	
지역별	서울	237	15.6	59.5	21.1	3.4	0.4	75.1	21.1	3.8	
	경기/인천	389	13.6	60.4	22.4	2.8	0.8	74.0	22.4	3.6	
	부산/울산/경남	183	8.7	38.8	39.3	13.1	0.0	47.5	39.3	13.1	
	대구/경북	114	23.7	59.6	15.8	0.9	0.0	83.3	15.8	0.9	
	광주/전라	114	23.7	40.4	16.7	17.5	1.8	64.0	16.7	19.3	
	대전/충청/세종	128	27.3	43.0	28.1	1.6	0.0	70.3	28.1	1.6	
지역크기	강원	35	31.4	40.0	28.6	0.0	0.0	71.4	28.6	0.0	
	대도시	542	17.2	50.9	26.6	5.0	0.4	68.1	26.6	5.4	
	중소도시	579	16.2	55.6	21.8	5.9	0.5	71.8	21.8	6.4	
	읍/면	79	24.1	40.5	27.8	6.3	1.3	64.6	27.8	7.6	
	직업별	농/어/임업	10	50.0	30.0	20.0	0.0	0.0	80.0	20.0	0.0
		자영업자	260	20.0	58.8	16.2	5.0	0.0	78.8	16.2	5.0
판매/서비스직		238	19.3	52.9	23.1	3.8	0.8	72.3	23.1	4.6	
사무/기술직		386	14.0	51.6	26.9	7.0	0.5	65.5	26.9	7.5	
전문/자유직		27	25.9	37.0	37.0	0.0	0.0	63.0	37.0	0.0	
전업주부		147	14.3	51.0	29.9	4.1	0.7	65.3	29.9	4.8	
학생		111	17.1	47.7	25.2	9.0	0.9	64.9	25.2	9.9	
무직/기타		21	9.5	52.4	33.3	4.8	0.0	61.9	33.3	4.8	
학력별	중졸이하	21	4.8	47.6	38.1	4.8	4.8	52.4	38.1	9.5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5.7	51.7	25.7	6.3	0.5	67.5	25.7	6.8	
	전문대(중퇴/졸업)	308	18.5	52.3	25.3	3.9	0.0	70.8	25.3	3.9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17.0	53.4	23.0	6.2	0.4	70.4	23.0	6.7	
	대학원 이상	24	37.5	54.2	4.2	0.0	4.2	91.7	4.2	4.2	
생활수준 별	상	110	20.9	50.0	23.6	4.5	0.9	70.9	23.6	5.5	
	중	680	17.5	55.1	22.6	4.1	0.6	72.6	22.6	4.7	
	하	410	15.6	48.8	27.3	8.0	0.2	64.4	27.3	8.3	

12-2. 국가이익 창출 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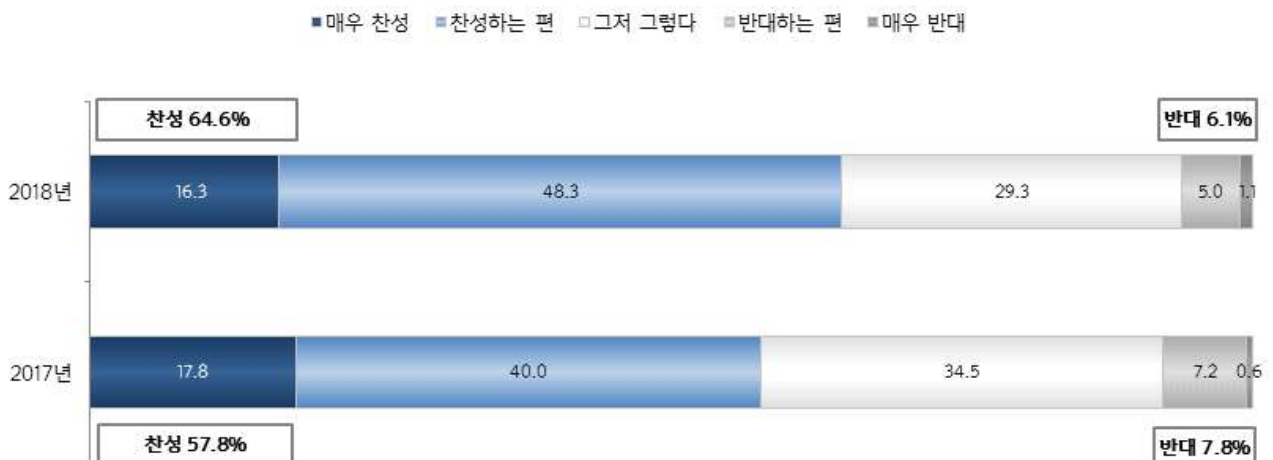
국가이익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64.6%, 전문가 88.3%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가이익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6%로 '반대한다'(6.1%)는 응답보다 58.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찬성한다'(64.6%)는 응답은 6.8%p(2017년 57.8%) 증가하였으며, '반대한다'(6.1%)는 응답은 1.7%p (2017년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국가이익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8.3%로 '반대한다'(1.7%)는 응답보다 86.6%p 높게 나타남.

<그림 5-12-2> 한국군의 해외파병 필요성 - 국가이익 창출 기반 강화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국가이익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자영업자’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2-2> 한국군의 해외파병 필요성 - 국가이익 창출 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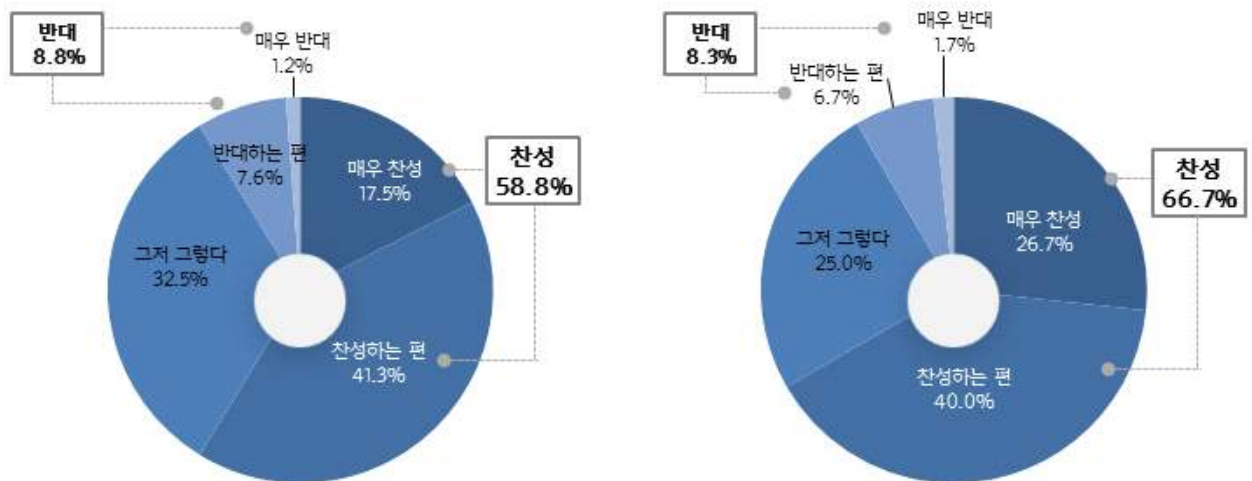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그저 그렇다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0	17.1	48.3	28.7	4.8	1.0	65.5	28.7	5.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6.3	48.3	29.3	5.0	1.1	64.6	29.3	6.1	
	전문가	60	35.0	48.3	15.0	1.7	0.0	83.3	15.0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19.7	51.2	24.2	3.8	1.2	70.9	24.2	4.9	
	중	564	11.9	50.9	31.2	5.1	0.9	62.8	31.2	6.0	
	하	210	21.0	35.7	34.8	7.1	1.4	56.7	34.8	8.6	
성별	남성	720	17.6	48.2	27.4	5.4	1.4	65.8	27.4	6.8	
	여성	480	14.2	48.5	32.3	4.4	0.6	62.7	32.3	5.0	
연령별	20대 이하	299	17.7	45.8	30.4	5.0	1.0	63.5	30.4	6.0	
	30대	273	17.9	48.4	27.5	4.8	1.5	66.3	27.5	6.2	
	40대	316	13.6	49.4	30.4	5.7	0.9	63.0	30.4	6.6	
	50대	312	16.0	49.7	28.8	4.5	1.0	65.7	28.8	5.4	
지역별	서울	237	21.9	44.7	28.7	3.8	0.8	66.7	28.7	4.6	
	경기/인천	389	14.1	49.1	32.6	3.9	0.3	63.2	32.6	4.1	
	부산/울산/경남	183	9.3	38.3	42.1	10.4	0.0	47.5	42.1	10.4	
	대구/경북	114	14.0	67.5	17.5	0.9	0.0	81.6	17.5	0.9	
	광주/전라	114	13.2	46.5	21.1	10.5	8.8	59.6	21.1	19.3	
	대전/충청/세종	128	26.6	51.6	19.5	2.3	0.0	78.1	19.5	2.3	
지역크기	강원	35	17.1	48.6	31.4	2.9	0.0	65.7	31.4	2.9	
	대도시	542	17.0	48.3	30.6	3.3	0.7	65.3	30.6	4.1	
	중소도시	579	15.5	47.8	28.8	7.1	0.7	63.4	28.8	7.8	
	읍/면	79	16.5	51.9	24.1	1.3	6.3	68.4	24.1	7.6	
	직업별	농/어/임업	10	20.0	40.0	20.0	20.0	0.0	60.0	20.0	20.0
		자영업자	260	18.8	50.4	27.7	2.7	0.4	69.2	27.7	3.1
판매/서비스직		238	19.3	46.2	29.4	4.2	0.8	65.5	29.4	5.0	
사무/기술직		386	12.4	52.6	27.5	6.2	1.3	65.0	27.5	7.5	
전문/자유직		27	22.2	29.6	40.7	3.7	3.7	51.9	40.7	7.4	
전업주부		147	13.6	48.3	32.7	4.8	0.7	61.9	32.7	5.4	
학생		111	18.0	41.4	31.5	6.3	2.7	59.5	31.5	9.0	
무직/기타		21	19.0	33.3	38.1	9.5	0.0	52.4	38.1	9.5	
학력별	중졸이하	21	9.5	52.4	28.6	9.5	0.0	61.9	28.6	9.5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3.6	42.5	35.7	7.3	0.8	56.2	35.7	8.1	
	전문대(중퇴/졸업)	308	19.8	52.6	23.7	2.9	1.0	72.4	23.7	3.9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15.7	50.0	28.3	4.5	1.5	65.7	28.3	6.0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29.2	50.0	20.8	0.0	0.0	79.2	20.8	0.0	
	상	110	15.5	45.5	31.8	5.5	1.8	60.9	31.8	7.3	
	중	680	19.0	49.1	27.2	4.1	0.6	68.1	27.2	4.7	
하	410	12.0	47.8	32.2	6.3	1.7	59.8	32.2	8.0		

12-3. 한-미동맹 관계 강화

한-미동맹 관계 강화를 위해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58.8%, 전문가 66.7%로 나타남.

- [일반국민] 한-미동맹 관계 강화를 위해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8.8%로 ‘반대한다’(8.8%)는 응답보다 50.0%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찬성한다’(58.8%)는 응답은 4.5%p(2017년 54.3%) 증가하였고, ‘반대한다’(8.8%)는 응답은 2.3%p(2017년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미동맹 관계 강화를 위해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6.7%로 ‘반대한다’(8.3%)는 응답보다 58.4%p 높게 나타남.

<그림 5-12-3> 한국군의 해외파병 필요성 - 한-미동맹 관계 강화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한·미동맹 관계 강화를 위해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자영업자’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2-3> 한국군의 해외파병 필요성 - 한·미동맹 관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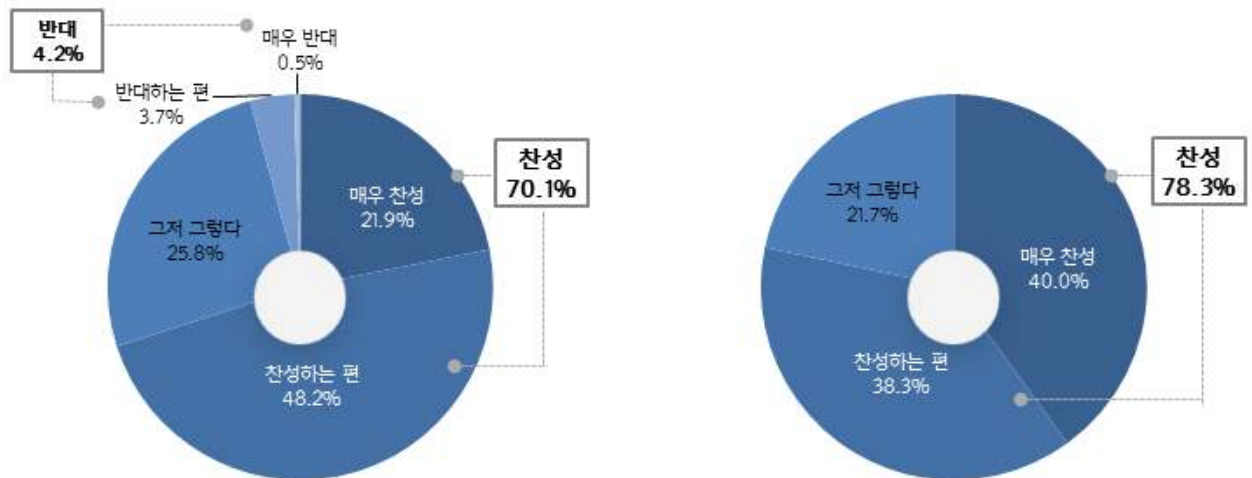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그저 그렇다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0	17.9	41.2	32.1	7.5	1.2	59.1	32.1	8.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7.5	41.3	32.5	7.6	1.2	58.8	32.5	8.8
	전문가	60	26.7	40.0	25.0	6.7	1.7	66.7	25.0	8.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22.1	45.3	24.6	6.1	1.9	67.4	24.6	8.0
	중	564	14.5	39.9	38.1	6.9	0.5	54.4	38.1	7.4
	하	210	16.2	36.7	33.3	12.4	1.4	52.9	33.3	13.8
성별	남성	720	18.3	41.8	30.8	7.6	1.4	60.1	30.8	9.0
	여성	480	16.3	40.4	35.0	7.5	0.8	56.7	35.0	8.3
연령별	20대 이하	299	15.7	41.8	35.8	6.7	0.0	57.5	35.8	6.7
	30대	273	20.1	38.1	30.8	9.9	1.1	58.2	30.8	11.0
	40대	316	16.1	39.6	32.6	9.2	2.5	55.7	32.6	11.7
	50대	312	18.3	45.2	30.8	4.8	1.0	63.5	30.8	5.8
지역별	서울	237	19.4	43.0	30.8	5.5	1.3	62.4	30.8	6.8
	경기/인천	389	13.9	44.2	36.5	4.6	0.8	58.1	36.5	5.4
	부산/울산/경남	183	14.2	31.1	38.3	15.8	0.5	45.4	38.3	16.4
	대구/경북	114	36.0	46.5	16.7	0.0	0.9	82.5	16.7	0.9
	광주/전라	114	6.1	40.4	25.4	22.8	5.3	46.5	25.4	28.1
	대전/충청/세종	128	21.9	43.0	31.3	3.9	0.0	64.8	31.3	3.9
지역크기	강원	35	22.9	28.6	48.6	0.0	0.0	51.4	48.6	0.0
	대도시	542	17.7	43.2	30.4	7.7	0.9	60.9	30.4	8.7
	중소도시	579	16.8	40.8	33.5	7.6	1.4	57.5	33.5	9.0
직업별	읍/면	79	21.5	31.6	39.2	6.3	1.3	53.2	39.2	7.6
	농/어/임업	10	30.0	10.0	20.0	40.0	0.0	40.0	20.0	40.0
	자영업자	260	16.5	50.0	29.2	3.1	1.2	66.5	29.2	4.2
	판매/서비스직	238	15.1	43.3	35.3	5.0	1.3	58.4	35.3	6.3
	사무/기술직	386	19.4	34.7	33.7	10.4	1.8	54.1	33.7	12.2
	전문/자유직	27	14.8	48.1	29.6	7.4	0.0	63.0	29.6	7.4
	전업주부	147	17.0	46.3	26.5	10.2	0.0	63.3	26.5	10.2
	학생	111	17.1	38.7	36.0	7.2	0.9	55.9	36.0	8.1
학력별	무직/기타	21	23.8	14.3	52.4	9.5	0.0	38.1	52.4	9.5
	중졸이하	21	14.3	47.6	23.8	14.3	0.0	61.9	23.8	14.3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5.7	42.5	31.2	9.7	0.8	58.3	31.2	10.5
	전문대(중퇴/졸업)	308	18.8	40.9	34.4	4.9	1.0	59.7	34.4	5.8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17.8	39.5	33.5	7.7	1.5	57.3	33.5	9.2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25.0	54.2	16.7	0.0	4.2	79.2	16.7	4.2
	상	110	20.9	48.2	22.7	8.2	0.0	69.1	22.7	8.2
	중	680	17.5	46.0	30.6	4.6	1.3	63.5	30.6	5.9
하	410	16.6	31.5	38.3	12.4	1.2	48.0	38.3	13.7	

12-4. 인도적 차원

해당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70.1%, 전문가 78.3%로 나타남.

- [일반국민] 인도적 차원에서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0.1%로 '반대한다'(4.2%)는 응답보다 65.9%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찬성한다'(70.1%)는 응답은 1.3%p(2017년 71.4%) 감소하였고, '반대한다'(4.2%)는 응답은 (2017년 4.2%)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인도적 차원에서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8.3%로 나타났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없음.

<그림 5-12-4> 한국군의 해외파병 필요성 - 해당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인도적 차원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인도적 차원에서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하’,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농/어/임업(n=10)’ 등에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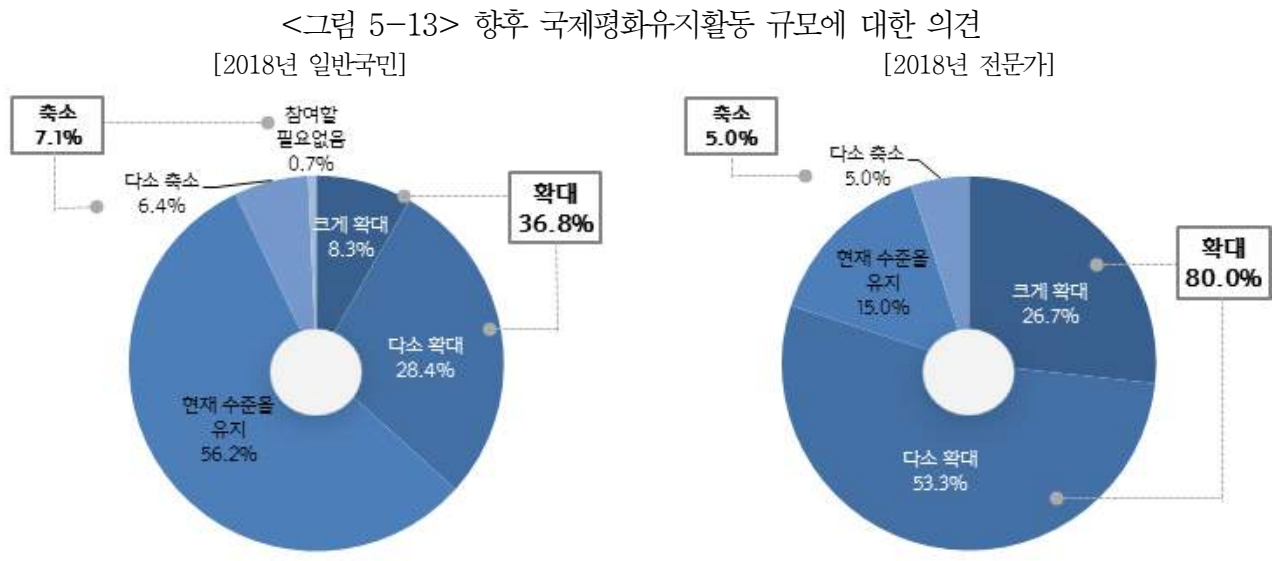
<표 5-12-4> 한국군의 해외파병 필요성 - 해당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인도적 차원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그저 그렇다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0	22.8	47.7	25.6	3.5	0.5	70.5	25.6	4.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1.9	48.2	25.8	3.7	0.5	70.1	25.8	4.2	
	전문가	60	40.0	38.3	21.7	0.0	0.0	78.3	21.7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26.3	43.9	25.8	3.3	0.7	70.2	25.8	4.0	
	중	564	17.9	50.4	27.5	4.1	0.2	68.3	27.5	4.3	
	하	210	23.8	51.0	21.0	3.3	1.0	74.8	21.0	4.3	
성별	남성	720	23.9	48.1	24.0	3.5	0.6	71.9	24.0	4.0	
	여성	480	19.0	48.3	28.3	4.0	0.4	67.3	28.3	4.4	
연령별	20대 이하	299	23.4	48.8	23.4	4.0	0.3	72.2	23.4	4.3	
	30대	273	25.6	45.4	24.5	4.0	0.4	71.1	24.5	4.4	
	40대	316	19.0	49.1	26.3	5.4	0.3	68.0	26.3	5.7	
	50대	312	20.2	49.0	28.5	1.3	1.0	69.2	28.5	2.2	
지역별	서울	237	22.8	48.9	25.7	2.5	0.0	71.7	25.7	2.5	
	경기/인천	389	20.3	42.9	32.1	3.6	1.0	63.2	32.1	4.6	
	부산/울산/경남	183	17.5	63.9	14.8	3.8	0.0	81.4	14.8	3.8	
	대구/경북	114	24.6	63.2	12.3	0.0	0.0	87.7	12.3	0.0	
	광주/전라	114	25.4	29.8	29.8	13.2	1.8	55.3	29.8	14.9	
	대전/충청/세종	128	25.0	45.3	28.9	0.8	0.0	70.3	28.9	0.8	
지역크기	강원	35	25.7	40.0	31.4	2.9	0.0	65.7	31.4	2.9	
	대도시	542	23.1	52.2	22.1	2.4	0.2	75.3	22.1	2.6	
	중소도시	579	20.0	45.3	29.7	4.5	0.5	65.3	29.7	5.0	
	읍/면	79	27.8	41.8	21.5	6.3	2.5	69.6	21.5	8.9	
	직업별	농/어/임업	10	40.0	50.0	10.0	0.0	0.0	90.0	10.0	0.0
		자영업자	260	23.5	46.5	27.3	2.3	0.4	70.0	27.3	2.7
판매/서비스직		238	20.6	43.3	30.7	5.0	0.4	63.9	30.7	5.5	
사무/기술직		386	21.2	53.6	21.0	3.6	0.5	74.9	21.0	4.1	
전문/자유직		27	25.9	63.0	7.4	3.7	0.0	88.9	7.4	3.7	
전업주부		147	20.4	45.6	30.6	3.4	0.0	66.0	30.6	3.4	
학생		111	21.6	43.2	28.8	5.4	0.9	64.9	28.8	6.3	
무직/기타		21	28.6	47.6	19.0	0.0	4.8	76.2	19.0	4.8	
학력별	중졸이하	21	14.3	61.9	23.8	0.0	0.0	76.2	23.8	0.0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8.6	47.8	30.2	2.9	0.5	66.4	30.2	3.4	
	전문대(중퇴/졸업)	308	22.1	49.0	25.0	3.2	0.6	71.1	25.0	3.9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24.2	47.4	23.0	4.9	0.4	71.7	23.0	5.4	
대학원 이상	24	33.3	45.8	20.8	0.0	0.0	79.2	20.8	0.0		
생활수준 별	상	110	25.5	47.3	22.7	3.6	0.9	72.7	22.7	4.5	
	중	680	24.1	44.3	28.5	2.8	0.3	68.4	28.5	3.1	
	하	410	17.3	54.9	22.0	5.1	0.7	72.2	22.0	5.9	

13. 향후 국제평화유지활동 규모에 대한 의견

향후 국제평화유지활동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36.8%, 전문가 8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향후 국제평화유지활동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6.8%로 ‘축소해야 한다’(7.1%)는 응답보다 29.7%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확대해야 한다’(36.8%)는 응답은 0.5%p(2017년 36.3%) 증가하였고, ‘축소해야 한다’(7.1%)는 응답도 1.6%p(2017년 5.5%) 증가하였음.
- [전문가] 향후 국제평화유지활동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80.0%로 ‘축소해야 한다’(5.0%)는 응답보다 75.0%p 높게 나타남.



[특성별 분석]

- 향후 국제평화유지활동 규모에 대한 의견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로 '상',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강원', 직업별로 '전문/자유직(n=27)',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5-14> 향후 국제평화유지활동 규모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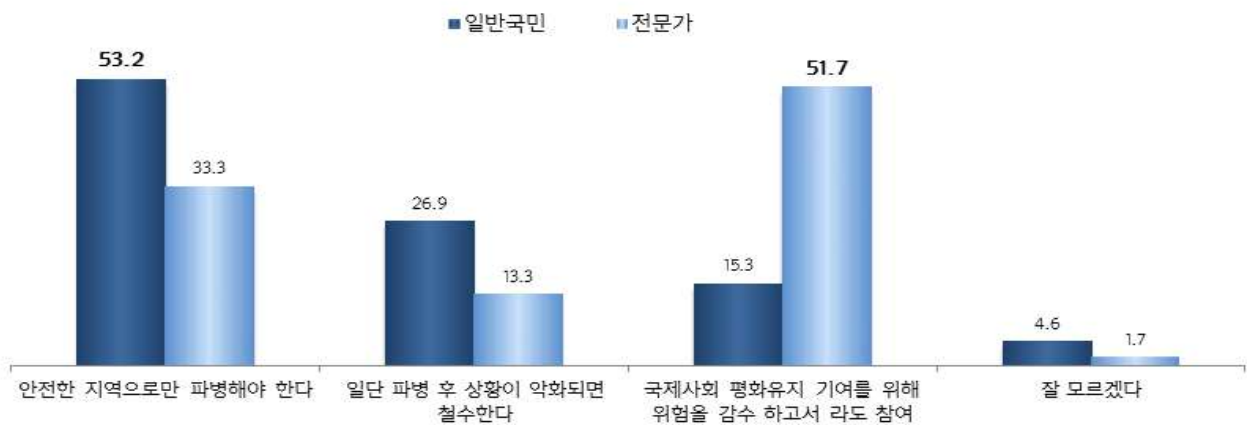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크게 확대 해야 한다	다소 확대 해야 한다	현재 수준을 유지 해야 한다	다소 축소 해야 한다	참여할 필요가 없다	종합			
							확대	유지	축소	
전체	1,260	9.2	29.6	54.2	6.3	0.6	38.8	54.2	7.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8.3	28.4	56.2	6.4	0.7	36.8	56.2	7.1
	전문가	60	26.7	53.3	15.0	5.0	0.0	80.0	15.0	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12.7	27.2	55.2	4.9	0.0	39.9	55.2	4.9
	중	564	5.5	28.9	57.8	6.7	1.1	34.4	57.8	7.8
	하	210	7.1	29.5	53.8	8.6	1.0	36.7	53.8	9.5
성별	남성	720	9.7	29.4	54.3	5.8	0.7	39.2	54.3	6.5
	여성	480	6.3	26.9	59.0	7.3	0.6	33.1	59.0	7.9
연령별	20대 이하	299	7.4	29.8	56.9	5.4	0.7	37.1	56.9	6.0
	30대	273	11.4	27.5	55.3	5.1	0.7	38.8	55.3	5.9
	40대	316	6.6	30.1	54.4	7.9	0.9	36.7	54.4	8.9
	50대	312	8.3	26.3	58.0	7.1	0.3	34.6	58.0	7.4
지역별	서울	237	7.6	29.1	59.9	2.5	0.8	36.7	59.9	3.4
	경기/인천	389	10.5	29.6	54.5	4.6	0.8	40.1	54.5	5.4
	부산/울산/경남	183	4.9	36.6	37.7	20.2	0.5	41.5	37.7	20.8
	대구/경북	114	5.3	31.6	61.4	1.8	0.0	36.8	61.4	1.8
	광주/전라	114	10.5	16.7	62.3	9.6	0.9	27.2	62.3	10.5
	대전/충청/세종	128	6.3	19.5	72.7	1.6	0.0	25.8	72.7	1.6
지역크기	강원	35	17.1	28.6	48.6	2.9	2.9	45.7	48.6	5.7
	대도시	542	7.6	30.8	53.1	7.6	0.9	38.4	53.1	8.5
	중소도시	579	9.5	26.9	57.9	5.4	0.3	36.4	57.9	5.7
직업별	읍/면	79	5.1	22.8	64.6	6.3	1.3	27.8	64.6	7.6
	농/어/임업	10	0.0	40.0	60.0	0.0	0.0	40.0	60.0	0.0
	자영업자	260	7.7	26.5	60.4	5.0	0.4	34.2	60.4	5.4
	판매/서비스직	238	8.0	29.8	56.7	4.6	0.8	37.8	56.7	5.5
	사무/기술직	386	9.6	26.2	54.7	8.8	0.8	35.8	54.7	9.6
	전문/자유직	27	11.1	40.7	40.7	3.7	3.7	51.9	40.7	7.4
	전업주부	147	7.5	32.0	54.4	6.1	0.0	39.5	54.4	6.1
	학생	111	7.2	27.9	57.7	6.3	0.9	35.1	57.7	7.2
학력별	무직/기타	21	9.5	33.3	47.6	9.5	0.0	42.9	47.6	9.5
	중졸이하	21	4.8	33.3	42.9	14.3	4.8	38.1	42.9	19.0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5.5	27.0	58.8	7.9	0.8	32.5	58.8	8.7
	전문대(중퇴/졸업)	308	9.1	24.0	62.0	4.5	0.3	33.1	62.0	4.9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8.6	32.6	51.9	6.2	0.6	41.2	51.9	6.9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41.7	20.8	33.3	4.2	0.0	62.5	33.3	4.2
	상	110	11.8	42.7	41.8	2.7	0.9	54.5	41.8	3.6
	중	680	9.6	29.3	56.3	4.6	0.3	38.8	56.3	4.9
하	410	5.4	23.2	59.8	10.5	1.2	28.5	59.8	11.7	

14. 위협 지역 파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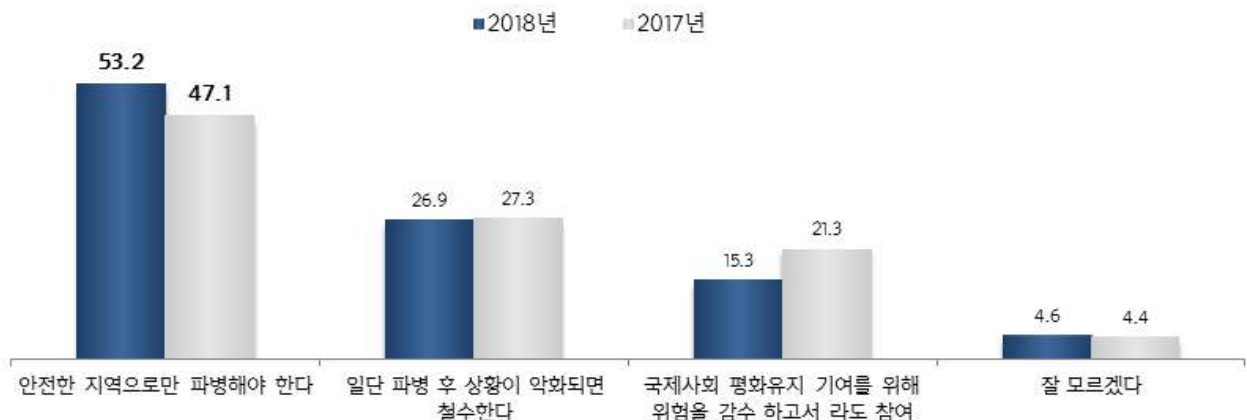
위협 지역에 파병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일반국민은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53.2%), 전문가는 ‘국제사회 평화유지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참여해야 한다’(51.7%)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위협 지역에 파병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는 응답이 53.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단 파병 후 상황이 악화되면 철수한다’(26.9%), ‘국제사회 평화유지 위해서는 위험 감수해서라도 참여해야 한다’(1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53.2%)는 응답은 6.1%p(2017년 47.1%) 증가하였고, ‘일단 파병 후 상황이 악화되면 철수한다’(26.9%)는 응답은 0.4%p(2017년 2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국제사회 평화유지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3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4> 위협 지역 파병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위험 지역 파병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는 의견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전업주부’에서 높게 나타남.
- ‘국제사회 평화유지 기여를 위해 위험을 감수 하고서라도 참여해야한다’는 의견은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강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5-14> 위험 지역 파병

단위[%]		사례수 (명)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	일단 파병 후 상황이 악화되면 철수한다	국제사회 평화유지 기여를 위해 위험을 감수 하고서라도 참여	잘 모르겠다
전체		1,260	52.2	26.3	17.1	4.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3.2	26.9	15.3	4.6
	전문가	60	33.3	13.3	51.7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54.2	25.1	17.4	3.3
	중	564	53.0	28.5	14.5	3.9
	하	210	51.4	26.2	13.3	9.0
성별	남성	720	51.1	27.6	18.3	2.9
	여성	480	56.3	25.8	10.8	7.1
연령별	20대 이하	299	53.2	29.1	12.4	5.4
	30대	273	53.5	26.7	14.7	5.1
	40대	316	53.5	27.8	14.6	4.1
	50대	312	52.6	24.0	19.6	3.8
지역별	서울	237	47.7	27.4	19.0	5.9
	경기/인천	389	57.1	21.9	15.4	5.7
	부산/울산/경남	183	65.6	21.3	8.2	4.9
	대구/경북	114	42.1	27.2	23.7	7.0
	광주/전라	114	61.4	28.9	9.6	0.0
	대전/충청/세종	128	40.6	46.1	11.7	1.6
	강원	35	37.1	31.4	31.4	0.0
지역크기	대도시	542	55.4	27.5	12.2	5.0
	중소도시	579	52.5	24.5	18.3	4.7
	읍/면	79	43.0	40.5	15.2	1.3
직업별	농/어/임업	10	30.0	60.0	10.0	0.0
	자영업자	260	51.5	28.8	16.9	2.7
	판매/서비스직	238	51.7	30.3	14.3	3.8
	사무/기술직	386	55.7	22.0	17.1	5.2
	전문/자유직	27	33.3	29.6	22.2	14.8
	전업주부	147	58.5	25.2	10.2	6.1
	학생	111	51.4	31.5	12.6	4.5
	무직/기타	21	52.4	23.8	19.0	4.8
학력별	중졸이하	21	57.1	23.8	14.3	4.8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55.6	25.2	15.2	3.9
	전문대(중퇴/졸업)	308	53.6	29.5	13.6	3.2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51.3	27.3	15.5	6.0
	대학원 이상	24	41.7	16.7	37.5	4.2
생활수준 별	상	110	55.5	22.7	14.5	7.3
	중	680	53.4	26.9	15.0	4.7
	하	410	52.2	28.0	16.1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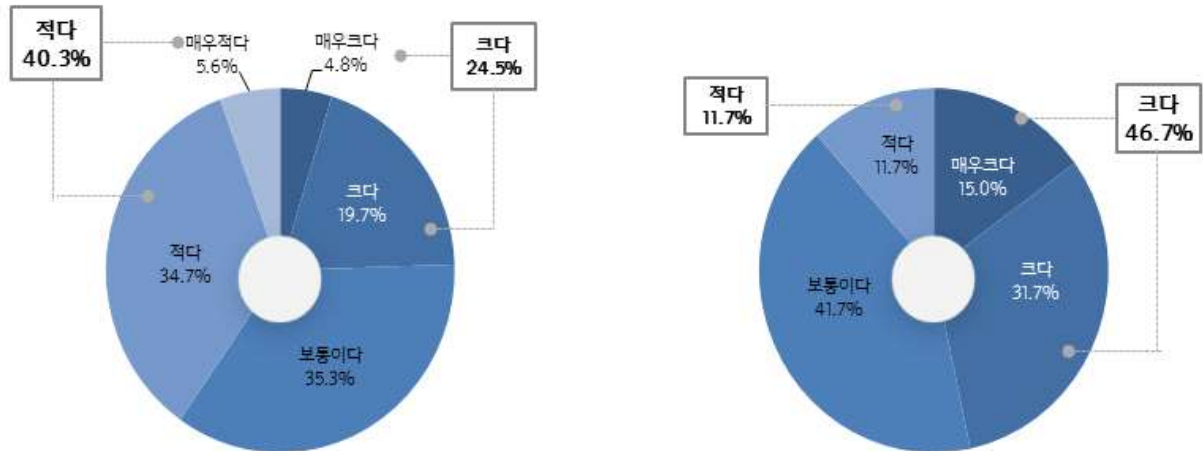
15.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15-1. 테러

테러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해 일반국민은 '적다'는 응답이 40.3%로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는 '크다'는 응답이 46.7%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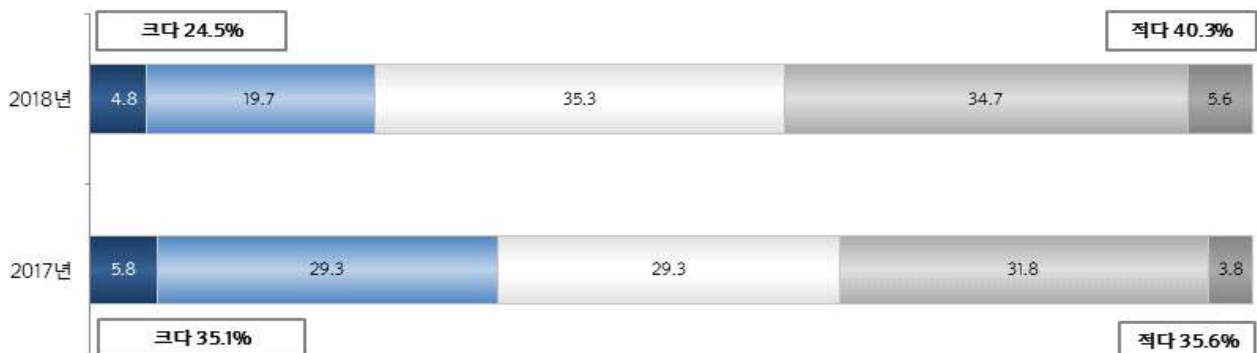
- [일반국민] 테러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적다'라는 응답이 40.3%로 '크다'(24.5%)는 응답보다 15.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크다'(24.5%)는 응답은 10.6%p(2017년 35.1%) 감소하였고, '적다'(40.3%)는 응답은 4.7%p (2017년 35.6%) 증가하였음.
- [전문가] 테러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이 46.7%로 '적다'(11.7%)는 응답보다 35.0%p 높게 나타남.

<그림 5-15-1>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테러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 매우크다 ■ 크다 ■ 보통이다 ■ 적다 ■ 매우적다



[특성별 분석]

-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중 테러 부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크다’는 의견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강원’, 직업별로 ‘농/어/임업’(n=10),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5-15-1>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테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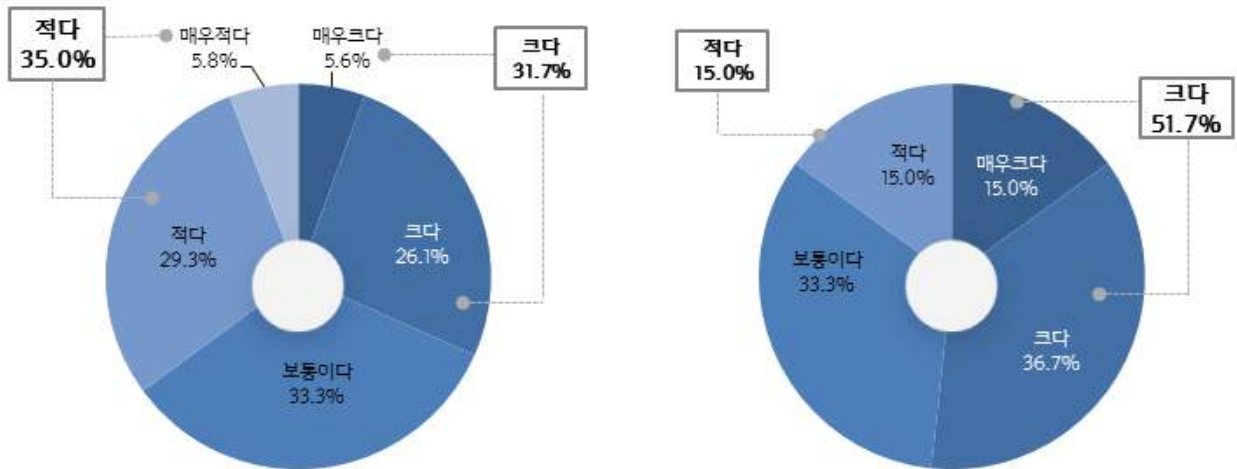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크다	크다	보통 이다	적다	매우 적다	종합			
								크다	보통	적다	
전체		1,260	5.3	20.2	35.6	33.6	5.3	25.6	35.6	38.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8	19.7	35.3	34.7	5.6	24.5	35.3	40.3	
	전문가	60	15.0	31.7	41.7	11.7	0.0	46.7	41.7	1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5.4	21.1	33.6	35.0	4.9	26.5	33.6	39.9	
	중	564	3.9	20.4	36.2	33.0	6.6	24.3	36.2	39.5	
	하	210	6.2	14.8	36.2	38.6	4.3	21.0	36.2	42.9	
성별	남성	720	4.2	19.7	35.1	34.2	6.8	23.9	35.1	41.0	
	여성	480	5.8	19.6	35.4	35.4	3.8	25.4	35.4	39.2	
연령별	20대 이하	299	5.4	18.1	33.4	36.5	6.7	23.4	33.4	43.1	
	30대	273	7.3	16.1	38.5	33.7	4.4	23.4	38.5	38.1	
	40대	316	2.5	24.1	36.1	31.6	5.7	26.6	36.1	37.3	
	50대	312	4.5	19.9	33.3	36.9	5.4	24.4	33.3	42.3	
지역별	서울	237	7.2	21.9	33.8	34.2	3.0	29.1	33.8	37.1	
	경기/인천	389	5.7	17.7	31.9	38.8	5.9	23.4	31.9	44.7	
	부산/울산/경남	183	2.7	32.2	42.1	22.4	0.5	35.0	42.1	23.0	
	대구/경북	114	2.6	5.3	24.6	63.2	4.4	7.9	24.6	67.5	
	광주/전라	114	5.3	23.7	50.9	17.5	2.6	28.9	50.9	20.2	
	대전/충청/세종	128	2.3	9.4	35.2	32.0	21.1	11.7	35.2	53.1	
지역크기	강원	35	5.7	31.4	31.4	28.6	2.9	37.1	31.4	31.4	
	대도시	542	5.4	22.5	37.3	29.9	5.0	27.9	37.3	34.9	
	중소도시	579	4.3	17.6	32.0	40.6	5.5	21.9	32.0	46.1	
	읍/면	79	5.1	15.2	45.6	24.1	10.1	20.3	45.6	34.2	
	직업별	농/어/임업	10	20.0	30.0	20.0	10.0	20.0	50.0	20.0	30.0
	자영업자	260	3.8	23.1	35.8	32.3	5.0	26.9	35.8	37.3	
판매/서비스직	238	5.0	21.4	38.2	31.1	4.2	26.5	38.2	35.3		
사무/기술직	386	4.7	17.6	36.8	35.5	5.4	22.3	36.8	40.9		
전문/자유직	27	7.4	25.9	44.4	22.2	0.0	33.3	44.4	22.2		
전업주부	147	5.4	18.4	27.2	41.5	7.5	23.8	27.2	49.0		
학생	111	4.5	15.3	32.4	40.5	7.2	19.8	32.4	47.7		
무직/기타	21	4.8	14.3	33.3	38.1	9.5	19.0	33.3	47.6		
학력별	중졸이하	21	4.8	14.3	19.0	52.4	9.5	19.0	19.0	61.9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5.8	19.9	33.1	36.5	4.7	25.7	33.1	41.2	
	전문대(중퇴/졸업)	308	4.5	17.5	38.0	34.4	5.5	22.1	38.0	39.9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4.1	21.2	35.8	32.6	6.2	25.3	35.8	38.8	
대학원 이상	24	8.3	16.7	37.5	33.3	4.2	25.0	37.5	37.5		
생활수준 별	상	110	8.2	26.4	30.9	32.7	1.8	34.5	30.9	34.5	
	중	680	5.1	19.4	35.6	33.2	6.6	24.6	35.6	39.9	
	하	410	3.4	18.3	35.9	37.6	4.9	21.7	35.9	42.4	

15-2. 해적, 마약, 조직범죄

해적, 마약, 조직범죄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해 일반국민은 '적다'는 응답이 35.0%로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는 '크다'는 응답이 51.7%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해적, 마약, 조직범죄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적다'는 응답이 35.0%로 '크다'(31.7%)보다 3.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크다'(31.7%)는 응답은 2.4%p(2017년 29.3%) 증가하였고, '적다'(35.0%)는 응답도 1.5%p (2017년 33.5%) 증가하였음.
- [전문가] 해적, 마약, 조직범죄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이 51.7%로 '적다'(15.0%)보다 36.7%p 높게 나타남.

<그림 5-15-2>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해적, 마약, 조직범죄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중 해적, 마약, 조직범죄 부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크다’는 의견에서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광주/전라’, 직업별로 ‘농/어/임업’(n=10)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5-2>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해적, 마약, 조직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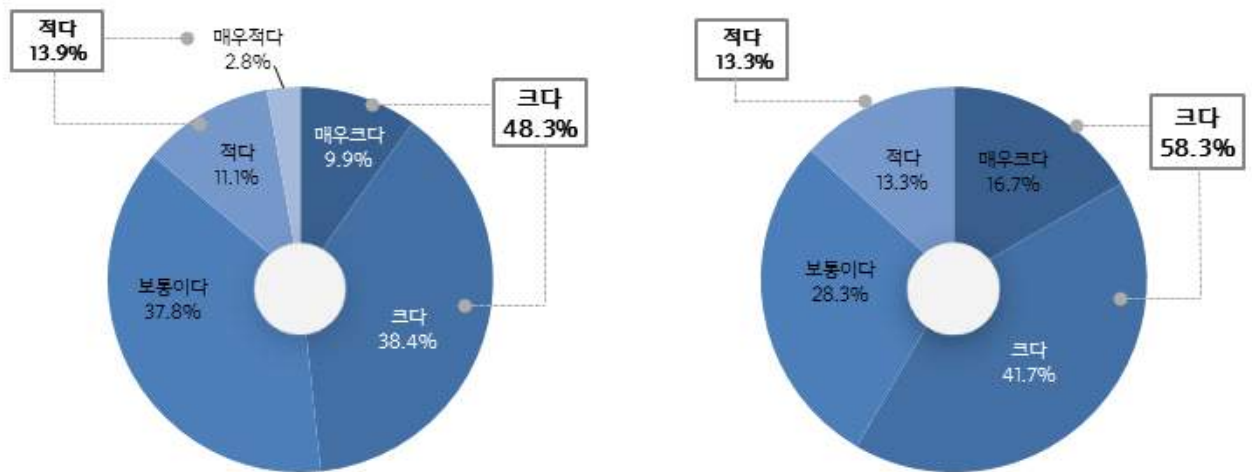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크다	크다	보통 이다	적다	매우 적다	종합		
								크다	보통	적다
전체		1,260	6.0	26.6	33.3	28.6	5.5	32.6	33.3	34.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6	26.1	33.3	29.3	5.8	31.7	33.3	35.0
	전문가	60	15.0	36.7	33.3	15.0	0.0	51.7	33.3	1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5.9	29.1	32.2	25.8	7.0	35.0	32.2	32.9
	중	564	5.1	24.8	34.0	30.3	5.7	30.0	34.0	36.0
	하	210	6.2	23.3	33.8	33.3	3.3	29.5	33.8	36.7
성별	남성	720	5.6	25.1	31.1	31.4	6.8	30.7	31.1	38.2
	여성	480	5.6	27.5	36.7	26.0	4.2	33.1	36.7	30.2
연령별	20대 이하	299	5.7	21.4	34.4	34.1	4.3	27.1	34.4	38.5
	30대	273	7.3	27.5	31.5	28.6	5.1	34.8	31.5	33.7
	40대	316	6.3	25.6	34.2	28.2	5.7	32.0	34.2	33.9
	50대	312	3.2	29.8	33.0	26.3	7.7	33.0	33.0	34.0
지역별	서울	237	6.3	22.4	38.0	29.1	4.2	28.7	38.0	33.3
	경기/인천	389	2.3	26.5	35.2	30.8	5.1	28.8	35.2	36.0
	부산/울산/경남	183	6.0	26.8	42.1	25.1	0.0	32.8	42.1	25.1
	대구/경북	114	1.8	14.0	36.0	36.8	11.4	15.8	36.0	48.2
	광주/전라	114	14.9	57.0	14.0	11.4	2.6	71.9	14.0	14.0
	대전/충청/세종	128	8.6	13.3	19.5	42.2	16.4	21.9	19.5	58.6
지역크기	강원	35	5.7	28.6	40.0	20.0	5.7	34.3	40.0	25.7
	대도시	542	5.7	23.8	38.2	26.9	5.4	29.5	38.2	32.3
	중소도시	579	5.5	25.9	29.9	33.3	5.4	31.4	29.9	38.7
직업별	읍/면	79	5.1	43.0	25.3	15.2	11.4	48.1	25.3	26.6
	농/어/임업	10	20.0	20.0	20.0	30.0	10.0	40.0	20.0	40.0
	자영업자	260	3.8	31.9	35.4	23.8	5.0	35.8	35.4	28.8
	판매/서비스직	238	5.9	26.9	35.7	25.2	6.3	32.8	35.7	31.5
	사무/기술직	386	5.7	22.5	32.4	34.2	5.2	28.2	32.4	39.4
	전문/자유직	27	14.8	22.2	33.3	25.9	3.7	37.0	33.3	29.6
	전업주부	147	5.4	28.6	31.3	27.2	7.5	34.0	31.3	34.7
	학생	111	6.3	19.8	32.4	36.0	5.4	26.1	32.4	41.4
학력별	무직/기타	21	0.0	33.3	23.8	33.3	9.5	33.3	23.8	42.9
	중졸이하	21	0.0	19.0	23.8	52.4	4.8	19.0	23.8	57.1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5.5	27.6	32.3	28.3	6.3	33.1	32.3	34.6
	전문대(중퇴/졸업)	308	3.9	30.2	33.4	26.6	5.8	34.1	33.4	32.5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6.7	23.0	34.3	30.5	5.6	29.6	34.3	36.1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12.5	16.7	37.5	33.3	0.0	29.2	37.5	33.3
	상	110	8.2	22.7	33.6	32.7	2.7	30.9	33.6	35.5
	중	680	5.3	25.4	33.2	29.7	6.3	30.7	33.2	36.0
하	410	5.4	28.0	33.4	27.6	5.6	33.4	33.4	33.2	

15-3. 자연재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해 ‘크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48.3%, 전문가 58.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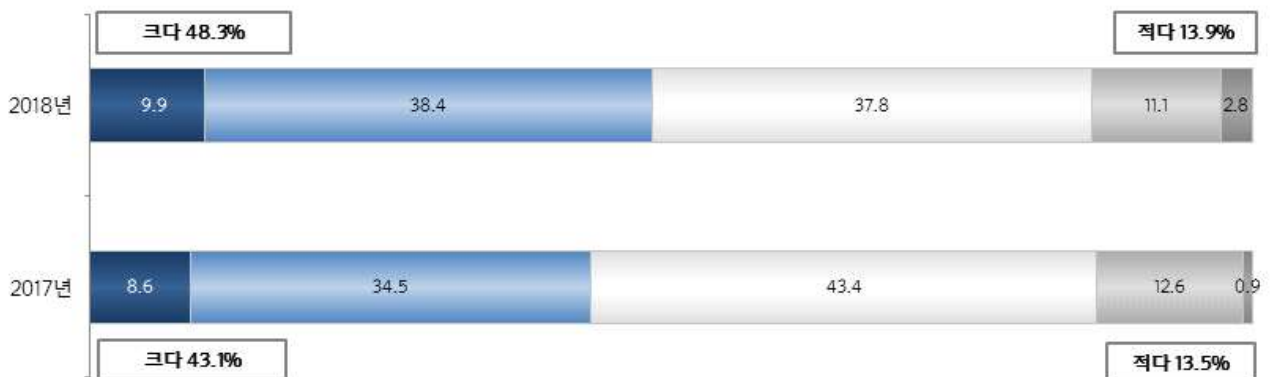
- [일반국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이 48.3%로 ‘적다’(13.9%)는 응답보다 34.4%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크다’(48.3%)는 응답은 5.2%p(2017년 43.1%) 증가하였고, ‘적다’(13.9%)는 응답도 0.4%p(2017년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이 58.3%로 ‘적다’(13.3%)는 응답보다 45.0%p 높게 나타남.

<그림 5-15-3>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자연재해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 매우크다 ■ 크다 □ 보통이다 ■ 적다 ■ 매우적다



[특성별 분석]

-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중 자연재해 부분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크다’는 의견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사무/기술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5-15-3>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자연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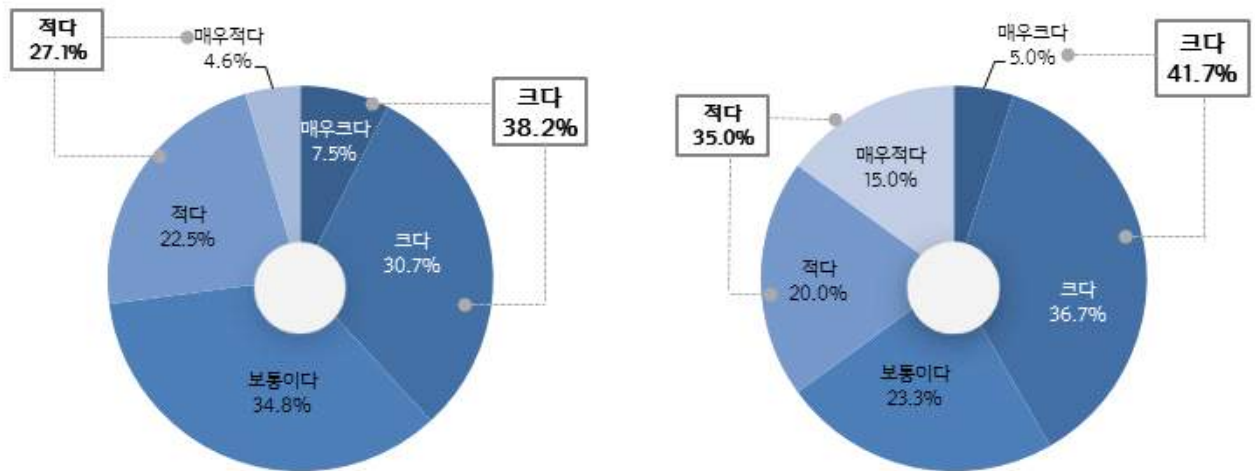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크다	크다	보통 이다	적다	매우 적다	종합		
								크다	보통	적다
전체		1,260	10.2	38.6	37.3	11.2	2.7	48.8	37.3	13.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9.9	38.4	37.8	11.1	2.8	48.3	37.8	13.9
	전문가	60	16.7	41.7	28.3	13.3	0.0	58.3	28.3	13.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12.4	33.1	38.0	13.8	2.6	45.5	38.0	16.4
	중	564	8.7	40.6	37.1	10.8	2.8	49.3	37.1	13.7
	하	210	8.1	43.3	39.0	6.2	3.3	51.4	39.0	9.5
성별	남성	720	10.0	36.1	37.9	12.4	3.6	46.1	37.9	16.0
	여성	480	9.8	41.9	37.5	9.2	1.7	51.7	37.5	10.8
연령별	20대 이하	299	10.4	38.1	39.5	10.0	2.0	48.5	39.5	12.0
	30대	273	16.1	38.1	32.6	10.6	2.6	54.2	32.6	13.2
	40대	316	8.5	38.0	37.7	12.0	3.8	46.5	37.7	15.8
	50대	312	5.4	39.4	40.7	11.5	2.9	44.9	40.7	14.4
지역별	서울	237	8.4	34.6	37.1	16.0	3.8	43.0	37.1	19.8
	경기/인천	389	10.3	35.2	37.3	14.1	3.1	45.5	37.3	17.2
	부산/울산/경남	183	14.8	47.5	30.6	5.5	1.6	62.3	30.6	7.1
	대구/경북	114	1.8	43.0	44.7	10.5	0.0	44.7	44.7	10.5
	광주/전라	114	9.6	32.5	44.7	8.8	4.4	42.1	44.7	13.2
	대전/충청/세종	128	9.4	43.8	38.3	5.5	3.1	53.1	38.3	8.6
지역크기	강원	35	20.0	37.1	37.1	2.9	2.9	57.1	37.1	5.7
	대도시	542	9.2	39.9	37.1	11.1	2.8	49.1	37.1	13.8
	중소도시	579	10.0	38.7	37.5	11.6	2.2	48.7	37.5	13.8
직업별	읍/면	79	13.9	26.6	44.3	7.6	7.6	40.5	44.3	15.2
	농/어/임업	10	10.0	40.0	30.0	0.0	20.0	50.0	30.0	20.0
	자영업자	260	6.2	31.9	45.8	13.5	2.7	38.1	45.8	16.2
	판매/서비스직	238	10.9	38.2	37.0	9.7	4.2	49.2	37.0	13.9
	사무/기술직	386	11.9	42.0	32.9	10.6	2.6	53.9	32.9	13.2
	전문/자유직	27	14.8	29.6	33.3	22.2	0.0	44.4	33.3	22.2
	전업주부	147	11.6	40.1	36.1	10.2	2.0	51.7	36.1	12.2
	학생	111	6.3	43.2	39.6	9.0	1.8	49.5	39.6	10.8
학력별	무직/기타	21	9.5	28.6	47.6	14.3	0.0	38.1	47.6	14.3
	중졸이하	21	4.8	28.6	47.6	14.3	4.8	33.3	47.6	19.0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9.2	38.8	40.2	9.4	2.4	48.0	40.2	11.8
	전문대(중퇴/졸업)	308	10.1	33.8	39.0	14.0	3.2	43.8	39.0	17.2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10.3	41.0	35.0	10.7	3.0	51.3	35.0	13.7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16.7	50.0	29.2	4.2	0.0	66.7	29.2	4.2
	상	110	9.1	50.0	30.9	8.2	1.8	59.1	30.9	10.0
	중	680	12.2	38.7	34.6	12.1	2.5	50.9	34.6	14.6
하	410	6.3	34.9	44.9	10.2	3.7	41.2	44.9	13.9	

15-4. 원전사고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해 '크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38.2%, 전문가 41.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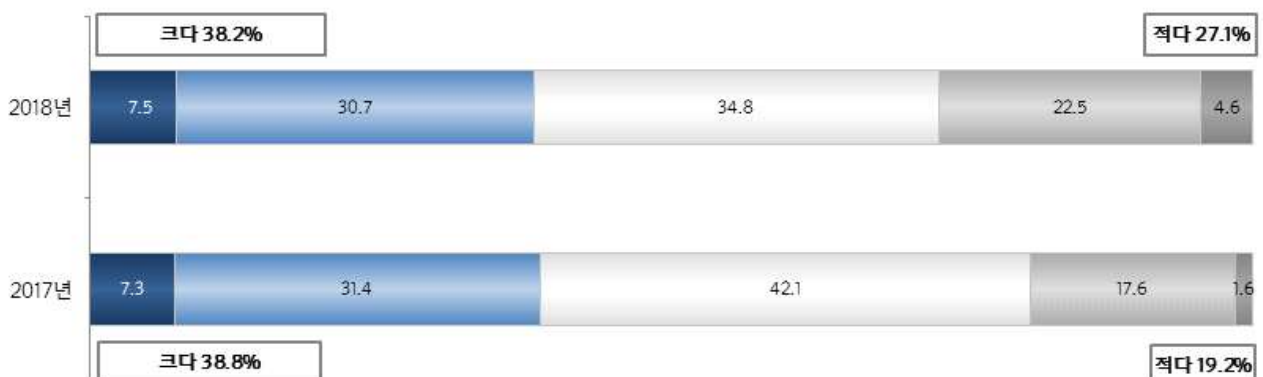
- [일반국민]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이 38.2%로 '적다'(27.1%)는 응답보다 11.1%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크다'(38.2%)는 응답은 0.6%p(2017년 38.8%) 감소하였고, '적다'(27.1%)는 응답은 7.9%p (2017년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이 41.7%로 '적다'(35.0%)는 응답보다 6.7%p 높게 나타남.

<그림 5-15-4>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원전 사고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 매우크다 ■ 크다 ■ 보통이다 ■ 적다 ■ 매우적다



[특성별 분석]

-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중 원전사고 부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크다’는 의견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사무/기술직’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5-4>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원전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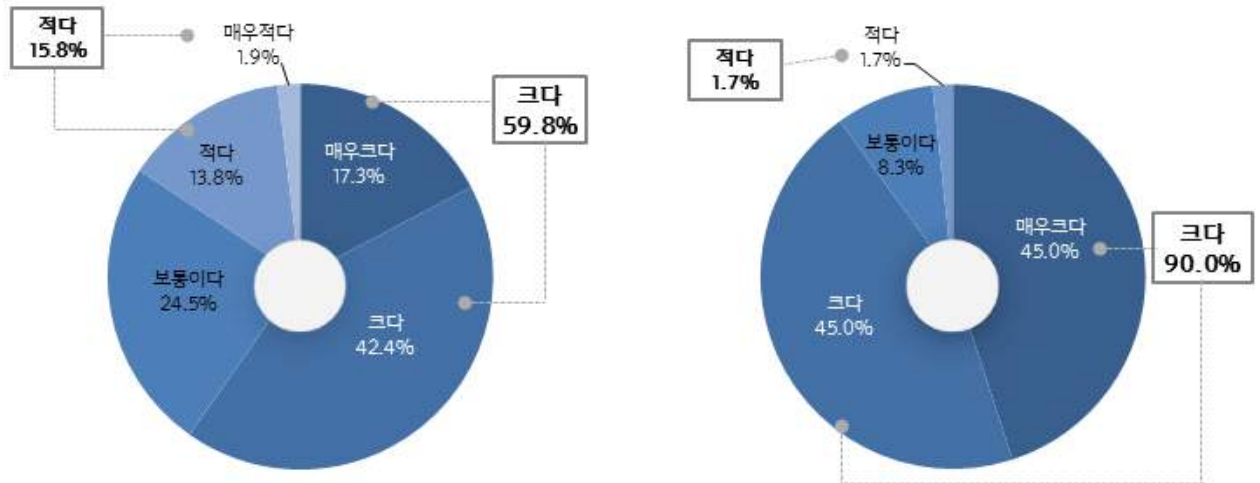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크다	크다	보통 이다	적다	매우 적다	종합		
								크다	보통	적다
전체		1,260	7.4	31.0	34.2	22.4	5.1	38.3	34.2	27.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7.5	30.7	34.8	22.5	4.6	38.2	34.8	27.1
	전문가	60	5.0	36.7	23.3	20.0	15.0	41.7	23.3	3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9.4	25.4	33.1	26.1	6.1	34.7	33.1	32.2
	중	564	6.7	31.7	35.5	23.2	2.8	38.5	35.5	26.1
	하	210	5.7	38.6	36.2	13.3	6.2	44.3	36.2	19.5
성별	남성	720	7.5	29.6	33.2	24.7	5.0	37.1	33.2	29.7
	여성	480	7.5	32.3	37.1	19.2	4.0	39.8	37.1	23.1
연령별	20대 이하	299	8.4	30.8	37.1	21.4	2.3	39.1	37.1	23.7
	30대	273	10.6	28.9	31.9	22.3	6.2	39.6	31.9	28.6
	40대	316	6.3	32.0	34.8	21.2	5.7	38.3	34.8	26.9
	50대	312	5.1	30.8	34.9	25.0	4.2	35.9	34.9	29.2
지역별	서울	237	7.6	29.5	32.9	26.2	3.8	37.1	32.9	30.0
	경기/인천	389	6.2	31.9	32.9	22.9	6.2	38.0	32.9	29.0
	부산/울산/경남	183	12.6	50.8	27.9	7.1	1.6	63.4	27.9	8.7
	대구/경북	114	1.8	14.0	24.6	55.3	4.4	15.8	24.6	59.6
	광주/전라	114	15.8	22.8	48.2	9.6	3.5	38.6	48.2	13.2
	대전/충청/세종	128	2.3	20.3	51.6	19.5	6.3	22.7	51.6	25.8
지역크기	강원	35	5.7	37.1	31.4	20.0	5.7	42.9	31.4	25.7
	대도시	542	10.9	28.6	35.2	22.1	3.1	39.5	35.2	25.3
	중소도시	579	4.5	32.5	33.9	23.7	5.5	37.0	33.9	29.2
직업별	읍/면	79	6.3	31.6	38.0	16.5	7.6	38.0	38.0	24.1
	농/어/임업	10	10.0	20.0	50.0	10.0	10.0	30.0	50.0	20.0
	자영업자	260	6.2	27.3	37.3	25.0	4.2	33.5	37.3	29.2
	판매/서비스직	238	8.0	30.3	33.6	24.8	3.4	38.2	33.6	28.2
	사무/기술직	386	7.5	34.5	31.1	22.0	4.9	42.0	31.1	26.9
	전문/자유직	27	7.4	25.9	37.0	22.2	7.4	33.3	37.0	29.6
	전업주부	147	6.8	29.3	39.5	18.4	6.1	36.1	39.5	24.5
	학생	111	10.8	29.7	37.8	19.8	1.8	40.5	37.8	21.6
학력별	무직/기타	21	4.8	33.3	23.8	23.8	14.3	38.1	23.8	38.1
	중졸이하	21	4.8	28.6	38.1	23.8	4.8	33.3	38.1	28.6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6.0	36.7	32.5	20.7	3.9	42.8	32.5	24.7
	전문대(중퇴/졸업)	308	8.1	24.4	34.4	29.2	3.9	32.5	34.4	33.1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7.9	29.4	37.8	19.5	5.4	37.3	37.8	24.9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16.7	41.7	12.5	20.8	8.3	58.3	12.5	29.2
	상	110	12.7	42.7	30.9	11.8	1.8	55.5	30.9	13.6
	중	680	7.8	26.5	37.5	22.8	5.4	34.3	37.5	28.2
하	410	5.6	34.4	31.2	24.9	3.9	40.0	31.2	28.8	

15-5. 사이버테러

사이버테러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해 '크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59.8%, 전문가 9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사이버테러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이 59.8%로 '적다'(15.8%)는 응답보다 44.0%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크다'(59.8%)는 응답은 3.4%p(2017년 56.4%) 증가하였고, '적다'(15.8%)는 응답도 3.4%p (2017년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사이버테러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이 90.0%로 '적다'(1.7%)는 응답보다 88.3%p 높게 나타남.

<그림 5-15-5>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사이버 테러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중 사이버테러 부분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크다’는 의견이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로 ‘상’,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무직/기타(n=21)’,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5-15-5>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사이버테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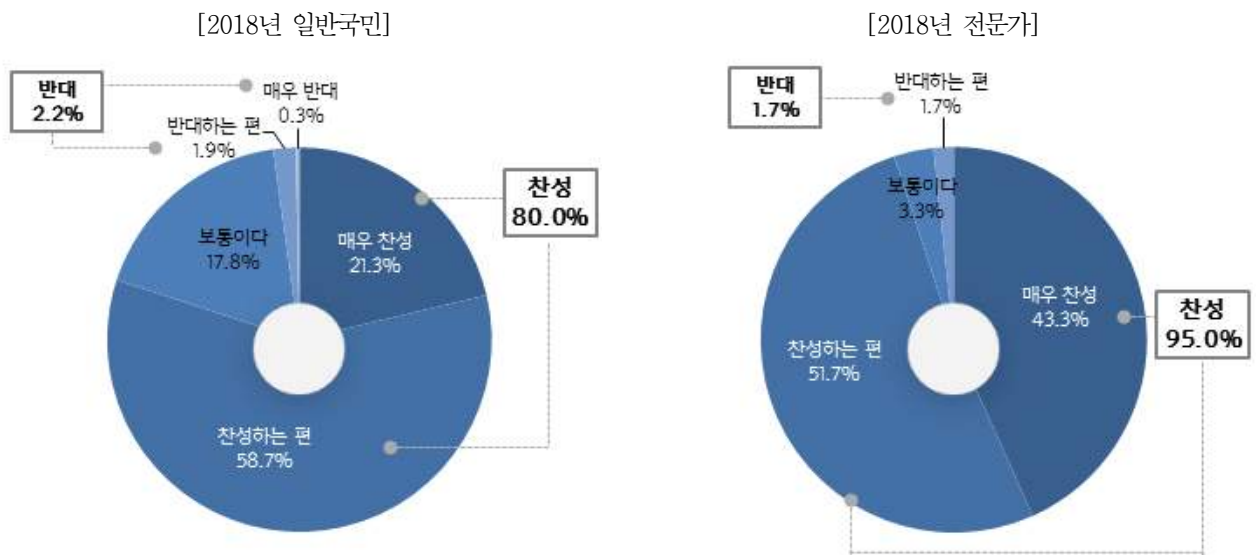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크다	크다	보통 이다	적다	매우 적다	종합		
								크다	보통	적다
전체		1,260	18.7	42.5	23.7	13.3	1.8	61.2	23.7	15.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7.3	42.4	24.5	13.8	1.9	59.8	24.5	15.8
	전문가	60	45.0	45.0	8.3	1.7	0.0	90.0	8.3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19.2	42.7	21.6	14.8	1.6	62.0	21.6	16.4
	중	564	14.7	42.6	27.0	13.7	2.1	57.3	27.0	15.8
	하	210	20.5	41.4	23.8	12.4	1.9	61.9	23.8	14.3
성별	남성	720	17.8	42.1	25.4	13.2	1.5	59.9	25.4	14.7
	여성	480	16.7	42.9	23.1	14.8	2.5	59.6	23.1	17.3
연령별	20대 이하	299	17.7	46.2	21.4	13.4	1.3	63.9	21.4	14.7
	30대	273	21.2	39.9	21.6	14.3	2.9	61.2	21.6	17.2
	40대	316	15.2	42.1	26.9	14.2	1.6	57.3	26.9	15.8
	50대	312	15.7	41.3	27.6	13.5	1.9	57.1	27.6	15.4
지역별	서울	237	18.6	35.9	24.9	19.4	1.3	54.4	24.9	20.7
	경기/인천	389	18.0	44.5	23.7	10.8	3.1	62.5	23.7	13.9
	부산/울산/경남	183	25.1	51.9	20.2	2.7	0.0	77.0	20.2	2.7
	대구/경북	114	9.6	35.1	23.7	27.2	4.4	44.7	23.7	31.6
	광주/전라	114	14.0	48.2	21.9	14.9	0.9	62.3	21.9	15.8
	대전/충청/세종	128	10.2	37.5	34.4	17.2	0.8	47.7	34.4	18.0
지역크기	강원	35	22.9	37.1	28.6	8.6	2.9	60.0	28.6	11.4
	대도시	542	20.8	39.9	24.5	13.5	1.3	60.7	24.5	14.8
	중소도시	579	14.5	43.4	25.9	14.2	2.1	57.9	25.9	16.2
직업별	읍/면	79	13.9	53.2	13.9	13.9	5.1	67.1	13.9	19.0
	농/어/임업	10	30.0	30.0	20.0	10.0	10.0	60.0	20.0	20.0
	자영업자	260	13.5	43.5	30.0	11.5	1.5	56.9	30.0	13.1
	판매/서비스직	238	16.0	46.2	23.1	13.9	0.8	62.2	23.1	14.7
	사무/기술직	386	20.5	38.1	24.9	14.8	1.8	58.5	24.9	16.6
	전문/자유직	27	37.0	22.2	22.2	14.8	3.7	59.3	22.2	18.5
	전업주부	147	17.7	42.9	18.4	17.7	3.4	60.5	18.4	21.1
	학생	111	12.6	50.5	22.5	12.6	1.8	63.1	22.5	14.4
학력별	무직/기타	21	14.3	52.4	23.8	4.8	4.8	66.7	23.8	9.5
	중졸이하	21	4.8	42.9	28.6	23.8	0.0	47.6	28.6	23.8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4.2	42.0	25.5	15.2	3.1	56.2	25.5	18.4
	전문대(중퇴/졸업)	308	15.9	39.0	26.6	17.2	1.3	54.9	26.6	18.5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20.2	44.4	23.2	10.7	1.5	64.6	23.2	12.2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41.7	54.2	4.2	0.0	0.0	95.8	4.2	0.0
	상	110	29.1	39.1	23.6	7.3	0.9	68.2	23.6	8.2
	중	680	19.4	39.7	26.3	12.9	1.6	59.1	26.3	14.6
하	410	10.7	47.8	21.7	17.1	2.7	58.5	21.7	19.8	

16. 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

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80.0%, 전문가 95.0%로 나타남.

- [일반국민] '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0.0%로 '반대한다'(2.2%)는 응답보다 77.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찬성한다'(80.0%)는 응답은 1.2%p(2017년 78.8%) 증가하였고, '반대한다'는 응답도 0.5%p(2017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95.0%로 '반대한다'(1.7%)는 응답보다 93.3%p 높게 나타남.

<그림 5-17> 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로 ‘상, 하’,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농/어/임업’(n=1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5-16> 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한다	찬성 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반대 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 한다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0	22.3	58.4	17.1	1.9	0.2	80.7	17.1	2.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1.3	58.8	17.8	1.9	0.3	80.0	17.8	2.2
	전문가	60	43.3	51.7	3.3	1.7	0.0	95.0	3.3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23.5	57.5	17.4	1.4	0.2	81.0	17.4	1.6
	중	564	18.4	60.5	19.0	1.8	0.4	78.9	19.0	2.1
	하	210	24.3	56.7	15.7	3.3	0.0	81.0	15.7	3.3
성별	남성	720	22.2	59.6	16.9	1.1	0.1	81.8	16.9	1.3
	여성	480	19.8	57.5	19.2	3.1	0.4	77.3	19.2	3.5
연령별	20대 이하	299	22.4	56.9	18.4	2.3	0.0	79.3	18.4	2.3
	30대	273	21.2	56.8	19.4	1.5	1.1	78.0	19.4	2.6
	40대	316	23.4	58.9	16.1	1.6	0.0	82.3	16.1	1.6
	50대	312	17.9	62.2	17.6	2.2	0.0	80.1	17.6	2.2
지역별	서울	237	23.2	59.5	15.6	1.7	0.0	82.7	15.6	1.7
	경기/인천	389	19.8	60.7	17.7	1.5	0.3	80.5	17.7	1.8
	부산/울산/경남	183	24.6	66.7	7.7	1.1	0.0	91.3	7.7	1.1
	대구/경북	114	14.9	60.5	21.1	2.6	0.9	75.4	21.1	3.5
	광주/전라	114	20.2	61.4	16.7	1.8	0.0	81.6	16.7	1.8
	대전/충청/세종	128	21.9	39.1	33.6	4.7	0.8	60.9	33.6	5.5
	강원	35	28.6	48.6	22.9	0.0	0.0	77.1	22.9	0.0
지역크기	대도시	542	21.8	63.1	13.8	1.1	0.2	84.9	13.8	1.3
	중소도시	579	21.1	54.6	21.2	2.8	0.3	75.6	21.2	3.1
	읍/면	79	19.0	59.5	20.3	1.3	0.0	78.5	20.3	1.3
직업별	농/어/임업	10	20.0	80.0	0.0	0.0	0.0	100.0	0.0	0.0
	자영업자	260	21.2	59.2	17.3	2.3	0.0	80.4	17.3	2.3
	판매/서비스직	238	21.0	61.8	15.1	1.7	0.4	82.8	15.1	2.1
	사무/기술직	386	22.8	55.7	19.2	1.8	0.5	78.5	19.2	2.3
	전문/자유직	27	33.3	51.9	14.8	0.0	0.0	85.2	14.8	0.0
	전업주부	147	17.7	60.5	19.7	2.0	0.0	78.2	19.7	2.0
	학생	111	18.0	57.7	21.6	2.7	0.0	75.7	21.6	2.7
	무직/기타	21	23.8	66.7	9.5	0.0	0.0	90.5	9.5	0.0
학력별	중졸이하	21	14.3	66.7	19.0	0.0	0.0	81.0	19.0	0.0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8.9	60.9	18.4	1.6	0.3	79.8	18.4	1.8
	전문대(중퇴/졸업)	308	20.1	59.4	17.9	2.6	0.0	79.5	17.9	2.6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22.3	57.5	17.8	1.9	0.4	79.8	17.8	2.4
	대학원 이상	24	58.3	33.3	8.3	0.0	0.0	91.7	8.3	0.0
생활수준 별	상	110	20.0	61.8	17.3	0.9	0.0	81.8	17.3	0.9
	중	680	22.2	54.9	20.4	2.2	0.3	77.1	20.4	2.5
	하	410	20.0	64.4	13.7	1.7	0.2	84.4	13.7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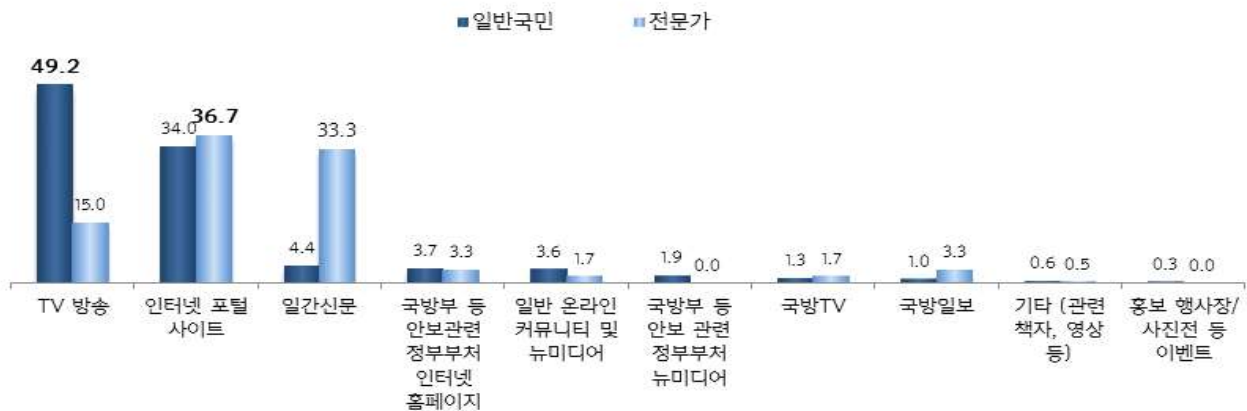
17.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 방법 및 접촉 빈도

17-1.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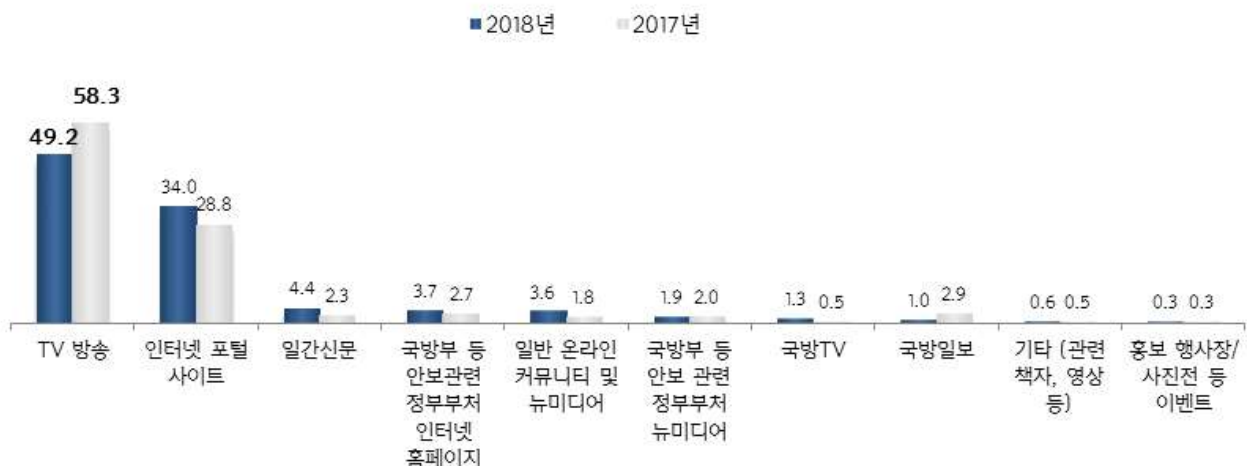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 방법에 대해 일반국민은 'TV방송'(49.2%), 전문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36.7%)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방법에 대해 'TV방송'이라는 응답이 49.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3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TV방송'(49.2%)이라는 응답은 9.1%p(2017년 58.3%) 감소하였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34.0%)이라는 응답은 5.2%p(2017년 28.8%) 증가하였음.
- [전문가]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방법에 대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간신문'(33.3%), 'TV방송'(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7-1>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 방법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방법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TV방송'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 의식 수준별로 '중', 성별로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농/어/임업',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5-17-1>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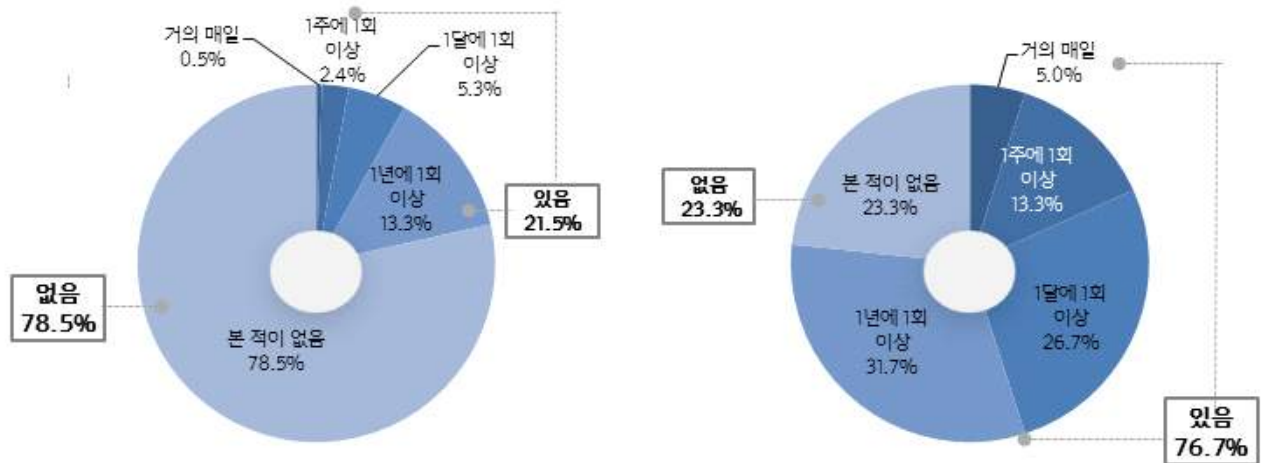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TV 방송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일간신 문	국방부 등 안보 관련 정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일반 온라인 커뮤니 티 및 뉴미디어	국방부 등 안보 관련 정부부 처 뉴미디어	국방TV (위성TV 채널 153)	국방일 보	홍보 행사장 /사진전 등 이벤트	기타 (관련 책자, 영상 등)
전체		1,260	47.5	34.1	5.8	3.7	3.5	1.8	1.3	1.1	0.4	0.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9.2	34.0	4.4	3.7	3.6	1.9	1.3	1.0	0.4	0.6
	전문가	60	15.0	36.7	33.3	3.3	1.7	0.0	1.7	3.3	0.0	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41.8	38.3	4.2	4.7	5.2	2.3	1.6	0.9	0.2	0.7
	중	564	54.4	29.6	4.6	3.7	3.4	1.8	1.1	0.9	0.4	0.2
	하	210	50.0	37.1	4.3	1.4	1.0	1.4	1.0	1.4	1.0	1.4
성별	남성	720	47.8	35.1	3.8	4.4	3.9	2.1	1.4	0.6	0.4	0.6
	여성	480	51.3	32.3	5.4	2.5	3.1	1.7	1.0	1.7	0.4	0.6
연령별	20대 이하	299	41.1	39.1	3.3	5.0	6.7	3.0	0.0	1.3	0.0	0.3
	30대	273	42.1	39.2	4.4	4.0	4.4	1.5	2.2	0.7	0.7	0.7
	40대	316	50.6	35.4	5.1	3.2	1.6	1.3	0.9	0.6	0.6	0.6
	50대	312	61.5	23.1	4.8	2.6	1.9	1.9	1.9	1.3	0.3	0.6
지역별	서울	237	46.0	32.5	6.3	3.8	4.2	5.1	1.3	0.8	0.0	0.0
	경기/인천	389	41.4	36.2	5.4	6.7	5.4	2.1	0.8	1.3	0.3	0.5
	부산/울산/경남	183	59.0	30.6	5.5	0.5	1.1	0.0	1.1	2.2	0.0	0.0
	대구/경북	114	71.1	22.8	0.9	0.0	0.9	1.8	0.9	0.0	0.0	1.8
	광주/전라	114	37.7	43.0	3.5	6.1	1.8	0.9	5.3	0.9	0.9	0.0
	대전/충청/세종	128	59.4	32.0	0.8	0.8	2.3	0.0	0.0	0.0	2.3	2.3
	강원	35	34.3	51.4	2.9	0.0	11.4	0.0	0.0	0.0	0.0	0.0
지역크기	대도시	542	52.2	31.5	5.2	2.4	2.8	2.8	1.1	1.1	0.4	0.6
	중소도시	579	47.8	35.2	3.8	4.8	4.1	1.4	1.2	0.9	0.2	0.5
	읍/면	79	38.0	41.8	3.8	3.8	5.1	0.0	2.5	1.3	2.5	1.3
직업별	농/어/임업	10	60.0	10.0	0.0	20.0	0.0	0.0	10.0	0.0	0.0	0.0
	자영업자	260	55.4	30.8	5.4	2.7	1.2	0.4	1.5	1.2	0.4	1.2
	판매/서비스직	238	50.4	30.3	6.7	5.5	1.7	3.4	0.8	0.0	0.8	0.4
	사무/기술직	386	44.3	37.3	2.8	3.4	5.7	2.8	2.1	0.5	0.5	0.5
	전문/자유직	27	44.4	33.3	3.7	0.0	18.5	0.0	0.0	0.0	0.0	0.0
	전업주부	147	56.5	29.3	6.1	2.0	2.0	0.7	0.0	2.7	0.0	0.7
	학생	111	41.4	42.3	1.8	5.4	5.4	1.8	0.0	1.8	0.0	0.0
	무직/기타	21	38.1	57.1	0.0	0.0	0.0	0.0	0.0	4.8	0.0	0.0
학력별	중졸이하	21	61.9	14.3	9.5	14.3	0.0	0.0	0.0	0.0	0.0	0.0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61.4	23.9	3.4	2.9	2.9	2.6	1.0	0.8	0.5	0.5
	전문대(중퇴/졸업)	308	48.4	31.8	5.8	3.9	4.2	2.9	1.3	1.0	0.3	0.3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39.9	43.1	4.3	3.6	4.1	0.9	1.5	1.3	0.4	0.9
	대학원 이상	24	33.3	62.5	0.0	4.2	0.0	0.0	0.0	0.0	0.0	0.0
생활수준 별	상	110	30.0	44.5	10.0	6.4	5.5	0.0	1.8	0.9	0.0	0.9
	중	680	50.9	33.5	3.5	3.5	3.5	2.6	1.0	0.4	0.1	0.7
	하	410	51.5	32.0	4.4	3.2	3.2	1.2	1.5	2.0	1.0	0.2

17-2.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국방부 등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의 접촉 빈도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13.3%, 전문가 31.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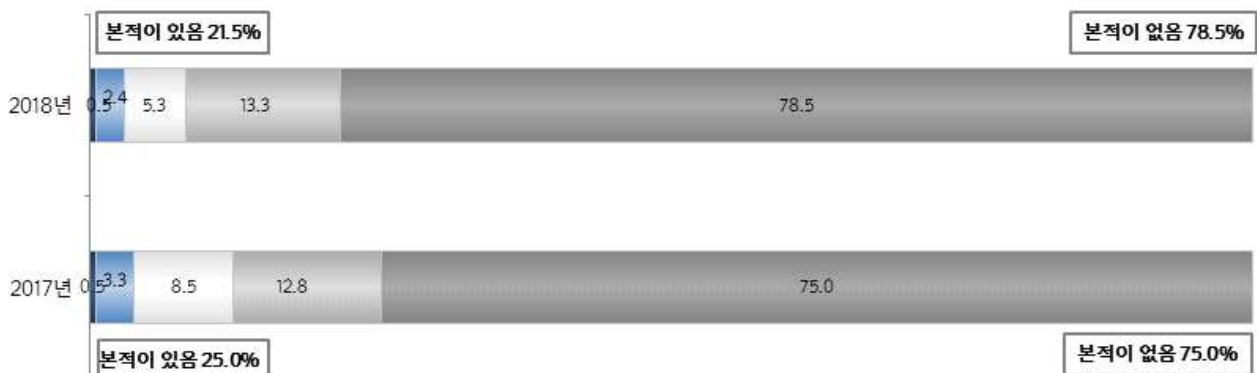
- [일반국민]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의 접촉 빈도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1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달에 1회 이상'(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본 적이 없다: 78.5%).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1년에 1회 이상'(13.3%)이라는 응답은 0.5%p(2017년 12.8%) 증가하였고, '본 적이 없음'(78.5%)이라는 응답은 3.5%p(2017년 7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의 접촉 빈도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3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달에 1회 이상'(2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본 적이 없다: 23.3%).

<그림 5-17-2> 국방 홍보 매체 접촉 빈도 -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 거의 매일 ■ 1주에 1회 이상 □ 1달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본 적이 없음



[특성별 분석]

-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접촉 빈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광주/전라', 직업별로 '농/어/임업'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7-2> 국방 홍보 매체 접촉 빈도 -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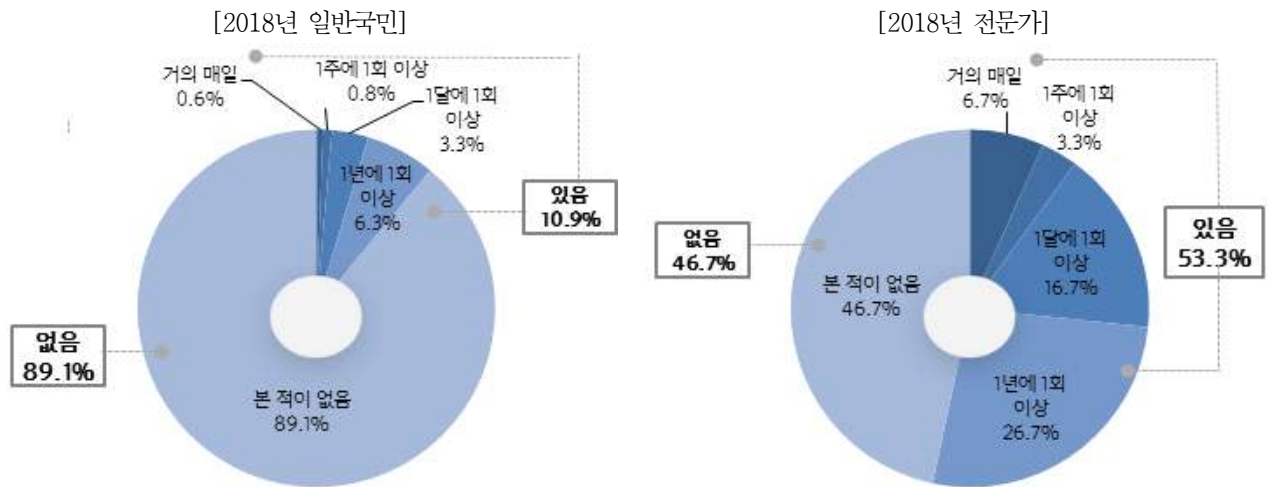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거의 매일	1주에 1회 이상	1달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본 적이 없다	종합		
								있음	없음	
전체		1,260	0.7	2.9	6.3	14.1	75.9	24.1	75.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5	2.4	5.3	13.3	78.5	21.5	78.5	
	전문가	60	5.0	13.3	26.7	31.7	23.3	76.7	23.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0.5	2.6	6.8	12.9	77.2	22.8	77.2	
	중	564	0.7	2.3	4.6	14.7	77.7	22.3	77.7	
	하	210	0.0	2.4	4.3	10.0	83.3	16.7	83.3	
성별	남성	720	0.4	2.9	6.7	15.3	74.7	25.3	74.7	
	여성	480	0.6	1.7	3.3	10.2	84.2	15.8	84.2	
연령별	20대 이하	299	0.7	3.0	8.4	16.4	71.6	28.4	71.6	
	30대	273	0.4	1.8	5.1	13.6	79.1	20.9	79.1	
	40대	316	0.3	2.8	3.8	12.7	80.4	19.6	80.4	
	50대	312	0.6	1.9	4.2	10.6	82.7	17.3	82.7	
지역별	서울	237	0.4	1.7	5.5	9.7	82.7	17.3	82.7	
	경기/인천	389	0.5	3.3	6.2	9.5	80.5	19.5	80.5	
	부산/울산/경남	183	0.0	3.8	2.7	10.9	82.5	17.5	82.5	
	대구/경북	114	0.9	1.8	0.9	9.6	86.8	13.2	86.8	
	광주/전라	114	1.8	0.0	0.9	28.1	69.3	30.7	69.3	
	대전/충청/세종	128	0.0	0.0	11.7	23.4	64.8	35.2	64.8	
지역크기	강원	35	0.0	8.6	14.3	17.1	60.0	40.0	60.0	
	대도시	542	0.6	3.0	4.1	11.6	80.8	19.2	80.8	
	중소도시	579	0.3	2.2	6.9	13.5	77.0	23.0	77.0	
	읍/면	79	1.3	0.0	2.5	22.8	73.4	26.6	73.4	
	직업별	농/어/임업	10	10.0	0.0	30.0	20.0	40.0	60.0	40.0
		자영업자	260	0.4	2.3	3.1	11.5	82.7	17.3	82.7
판매/서비스직		238	0.8	5.9	5.5	11.8	76.1	23.9	76.1	
사무/기술직		386	0.0	1.6	5.7	16.3	76.4	23.6	76.4	
전문/자유직		27	3.7	0.0	7.4	18.5	70.4	29.6	70.4	
전업주부		147	0.7	0.7	2.7	7.5	88.4	11.6	88.4	
학생		111	0.0	1.8	9.0	17.1	72.1	27.9	72.1	
무직/기타		21	0.0	0.0	9.5	4.8	85.7	14.3	85.7	
학력별	중졸이하	21	0.0	0.0	14.3	4.8	81.0	19.0	81.0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6	1.8	3.4	9.7	83.5	16.5	83.5	
	전문대(중퇴/졸업)	308	0.0	1.9	6.5	14.6	76.9	23.1	76.9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0.0	3.2	5.6	15.2	76.0	24.0	76.0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0.0	4.2	8.3	20.8	66.7	33.3	66.7	
	상	110	1.8	9.1	7.3	17.3	64.5	35.5	64.5	
	중	680	0.3	1.9	5.1	14.4	78.2	21.8	78.2	
하	410	0.5	1.5	5.1	10.2	82.7	17.3	82.7		

17-3. 국방일보

국방일보 접촉 빈도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6.3%, 전문가 26.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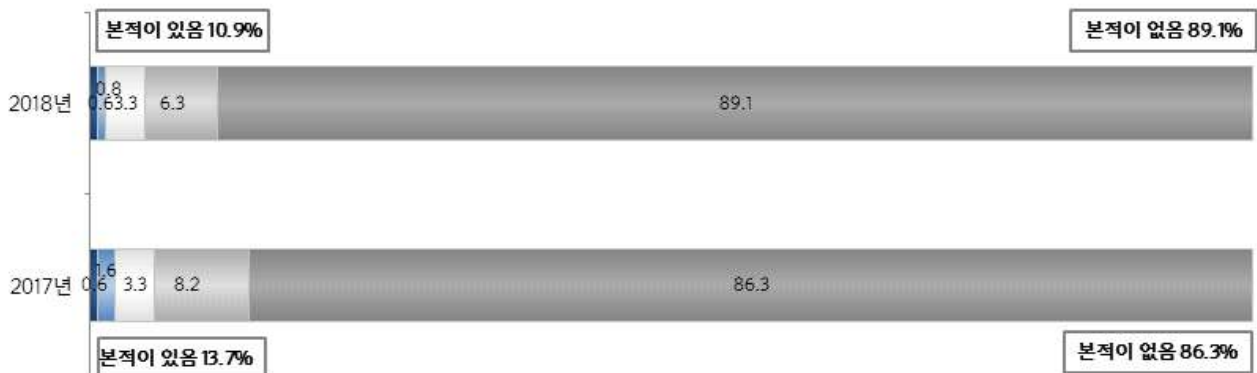
- [일반국민] 국방일보 접촉 빈도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6.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달에 1회 이상'(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본 적이 없다: 89.1%)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1년에 1회 이상'(6.3%)이라는 응답은 1.9%p(2017년 8.2%) 감소하였고, '본 적이 없음'(89.1%)이라는 응답은 2.8%p(2017년 8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국방일보 접촉 빈도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2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달에 1회 이상'(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본 적이 없다: 46.7%)

<그림 5-17-3> 국방 홍보 매체 접촉 빈도 - 국방일보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 거의 매일 ■ 1주에 1회 이상 ■ 1달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본 적이 없음



[특성별 분석]

- 국방일보 접촉 빈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은 본인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강원', 직업별로 '전문/자유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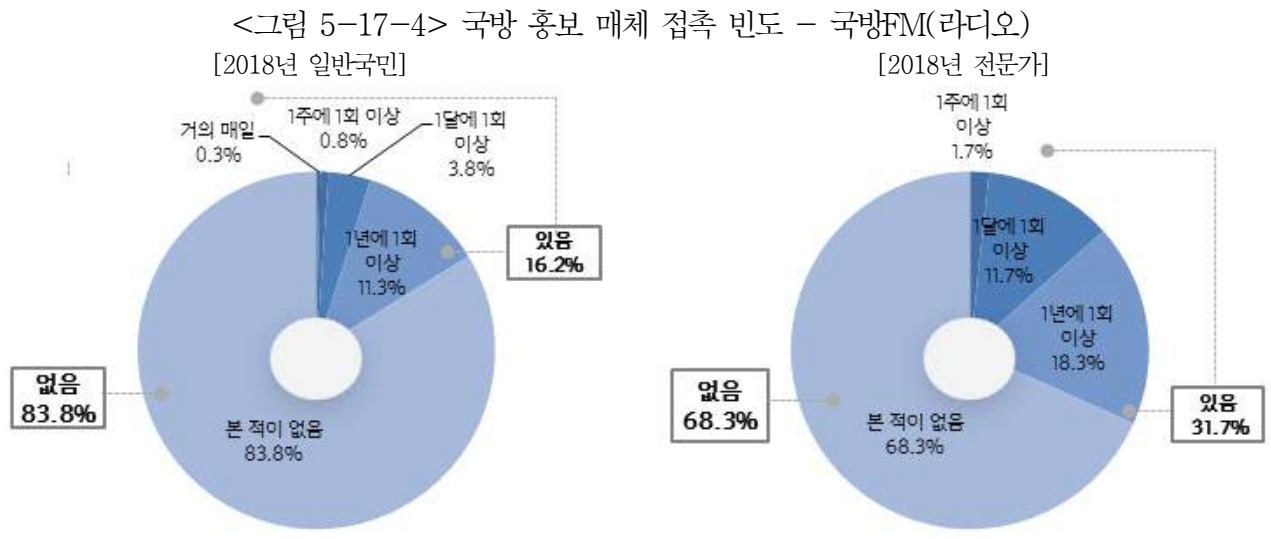
<표 5-17-3> 국방 홍보 매체 접촉 빈도 - 국방일보

단위[%]		사례수 (명)	거의 매일	1주에 1회 이상	1달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본 적이 없다	종합	
								있음	없음
전체		1,260	0.9	0.9	4.0	7.2	87.1	12.9	87.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6	0.8	3.3	6.3	89.1	10.9	89.1
	전문가	60	6.7	3.3	16.7	26.7	46.7	53.3	46.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0.2	0.9	3.1	8.0	87.8	12.2	87.8
	중	564	1.1	0.9	3.4	5.3	89.4	10.6	89.4
	하	210	0.0	0.0	3.8	5.2	91.0	9.0	91.0
성별	남성	720	0.8	1.0	3.6	7.6	86.9	13.1	86.9
	여성	480	0.2	0.4	2.9	4.2	92.3	7.7	92.3
연령별	20대 이하	299	0.7	0.7	4.7	10.0	83.9	16.1	83.9
	30대	273	0.0	1.5	4.0	5.5	89.0	11.0	89.0
	40대	316	0.3	0.6	1.6	5.7	91.8	8.2	91.8
	50대	312	1.3	0.3	3.2	3.8	91.3	8.7	91.3
지역별	서울	237	0.4	0.4	3.8	3.8	91.6	8.4	91.6
	경기/인천	389	1.0	1.3	3.3	6.7	87.7	12.3	87.7
	부산/울산/경남	183	0.0	1.1	2.7	5.5	90.7	9.3	90.7
	대구/경북	114	0.9	0.0	0.9	4.4	93.9	6.1	93.9
	광주/전라	114	0.9	0.9	7.9	7.0	83.3	16.7	83.3
	대전/충청/세종	128	0.0	0.0	0.0	9.4	90.6	9.4	90.6
지역크기	강원	35	0.0	0.0	8.6	14.3	77.1	22.9	77.1
	대도시	542	0.7	0.7	3.7	6.1	88.7	11.3	88.7
	중소도시	579	0.5	0.9	2.8	7.1	88.8	11.2	88.8
직업별	읍/면	79	0.0	0.0	5.1	1.3	93.7	6.3	93.7
	농/어/임업	10	0.0	0.0	20.0	10.0	70.0	30.0	70.0
	자영업자	260	1.2	0.8	1.2	4.2	92.7	7.3	92.7
	판매/서비스직	238	0.8	2.5	5.0	7.1	84.5	15.5	84.5
	사무/기술직	386	0.0	0.0	4.1	7.5	88.3	11.7	88.3
	전문/자유직	27	3.7	0.0	0.0	18.5	77.8	22.2	77.8
	전업주부	147	0.7	0.0	2.0	2.7	94.6	5.4	94.6
	학생	111	0.0	0.9	3.6	6.3	89.2	10.8	89.2
학력별	무직/기타	21	0.0	0.0	0.0	4.8	95.2	4.8	95.2
	중졸이하	21	0.0	0.0	4.8	9.5	85.7	14.3	85.7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0.8	0.3	3.7	3.1	92.1	7.9	92.1
	전문대(중퇴/졸업)	308	0.3	2.3	3.2	8.4	85.7	14.3	85.7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0.6	0.2	3.0	6.7	89.5	10.5	89.5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0.0	0.0	4.2	16.7	79.2	20.8	79.2
	상	110	3.6	2.7	3.6	9.1	80.9	19.1	80.9
	중	680	0.0	0.6	2.8	6.3	90.3	9.7	90.3
하	410	0.7	0.5	4.1	5.4	89.3	10.7	89.3	

17-4. 국방FM(라디오)

국방FM(라디오) 접촉 빈도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11.3%, 전문가 18.3%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FM(라디오) 접촉 빈도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1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달에 1회 이상'(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본 적이 없다: 83.8%).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1년에 1회 이상'(11.3%)이라는 응답은 1.3%p(2017년 10.0%) 증가하였고, '본 적이 없음'(83.8%)이라는 응답은 1.2%p(2017년 8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국방FM(라디오) 접촉 빈도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1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달에 1회 이상'(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본 적이 없다: 68.3%).



[특성별 분석]

- 국방FM(라디오) 접촉 빈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은 본인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20대 이하'와 '40대',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직업별로 '농/어/임업', 등에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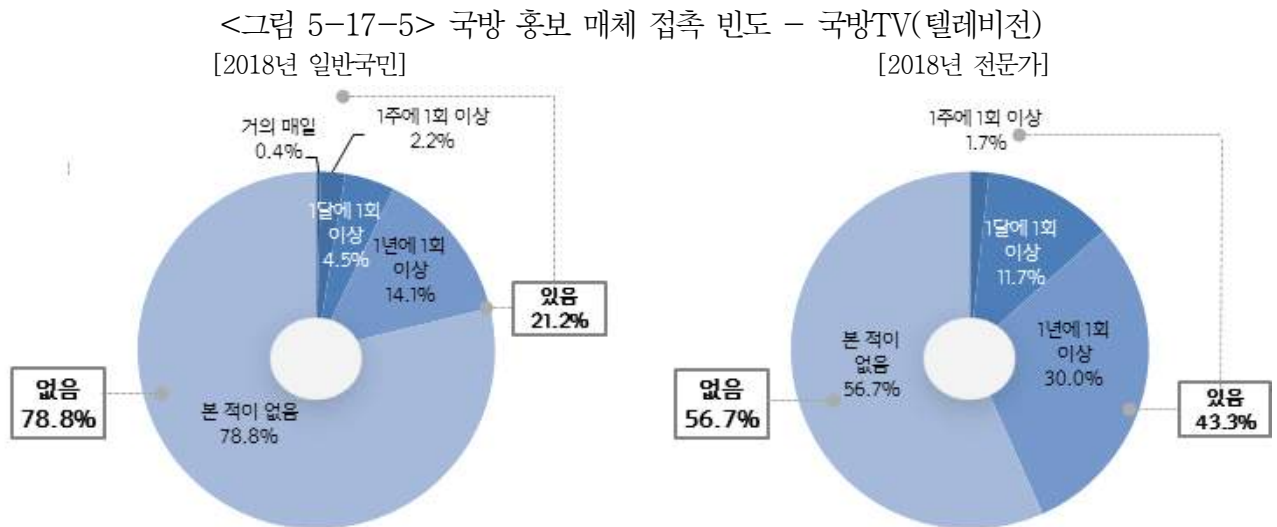
<표 5-17-4> 국방 홍보 매체 접촉 빈도 - 국방FM(라디오)

단위[%]		사례수 (명)	거의 매일	1주에 1회 이상	1달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본 적이 없다	종합	
								있음	없음
전체		1,260	0.3	0.8	4.2	11.6	83.1	16.9	83.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3	0.8	3.8	11.3	83.8	16.2	83.8
	전문가	60	0.0	1.7	11.7	18.3	68.3	31.7	68.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0.5	0.2	4.0	13.1	82.2	17.8	82.2
	중	564	0.4	0.9	3.5	11.2	84.0	16.0	84.0
	하	210	0.0	1.4	4.3	7.6	86.7	13.3	86.7
성별	남성	720	0.4	0.6	4.3	12.8	81.9	18.1	81.9
	여성	480	0.2	1.0	3.1	9.0	86.7	13.3	86.7
연령별	20대 이하	299	0.7	1.0	4.3	12.7	81.3	18.7	81.3
	30대	273	0.0	0.4	4.0	8.8	86.8	13.2	86.8
	40대	316	0.3	0.9	2.8	12.7	83.2	16.8	83.2
	50대	312	0.3	0.6	4.2	10.6	84.3	15.7	84.3
지역별	서울	237	0.8	0.4	3.4	5.5	89.9	10.1	89.9
	경기/인천	389	0.3	1.0	4.4	12.6	81.7	18.3	81.7
	부산/울산/경남	183	0.0	1.1	6.0	10.4	82.5	17.5	82.5
	대구/경북	114	0.9	0.0	0.9	6.1	92.1	7.9	92.1
	광주/전라	114	0.0	1.8	3.5	13.2	81.6	18.4	81.6
	대전/충청/세종	128	0.0	0.0	0.0	21.1	78.9	21.1	78.9
지역크기	강원	35	0.0	0.0	14.3	14.3	71.4	28.6	71.4
	대도시	542	0.4	0.9	4.6	8.1	86.0	14.0	86.0
	중소도시	579	0.3	0.5	2.9	14.0	82.2	17.8	82.2
직업별	읍/면	79	0.0	1.3	5.1	12.7	81.0	19.0	81.0
	농/어/임업	10	0.0	10.0	0.0	50.0	40.0	60.0	40.0
	자영업자	260	0.8	0.8	2.3	10.0	86.2	13.8	86.2
	판매/서비스직	238	0.4	1.3	7.6	10.5	80.3	19.7	80.3
	사무/기술직	386	0.0	0.0	3.6	12.4	83.9	16.1	83.9
	전문/자유직	27	3.7	0.0	3.7	22.2	70.4	29.6	70.4
	전업주부	147	0.0	1.4	3.4	8.2	87.1	12.9	87.1
	학생	111	0.0	0.9	1.8	9.0	88.3	11.7	88.3
학력별	무직/기타	21	0.0	0.0	0.0	14.3	85.7	14.3	85.7
	중졸이하	21	0.0	0.0	9.5	19.0	71.4	28.6	71.4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0	1.0	2.9	8.9	86.1	13.9	86.1
	전문대(중퇴/졸업)	308	0.0	1.0	5.8	13.6	79.5	20.5	79.5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0.0	0.4	3.2	11.2	85.2	14.8	85.2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0.0	0.0	0.0	12.5	87.5	12.5	87.5
	상	110	1.8	0.9	9.1	16.4	71.8	28.2	71.8
	중	680	0.1	0.6	3.1	10.4	85.7	14.3	85.7
하	410	0.2	1.0	3.7	11.2	83.9	16.1	83.9	

17-5. 국방TV(텔레비전)

국방TV(텔레비전) 접촉 빈도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14.1%, 전문가 3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TV(텔레비전) 접촉 빈도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14.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달에 1회 이상'(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본 적이 없다: 78.8%)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1년에 1회 이상'(14.1%)이라는 응답은 1.0%p(2017년 15.1%) 감소하였고, '본 적이 없음'(78.8%)이라는 응답은 1.1%p(2017년 7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국방TV(텔레비전) 접촉 빈도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3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달에 1회 이상'(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본 적이 없다: 56.7%)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국방TV(텔레비전) 접촉 빈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직업별로 '농/어/임업'(n=10)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7-5> 국방 홍보 매체 접촉 빈도 - 국방TV(텔레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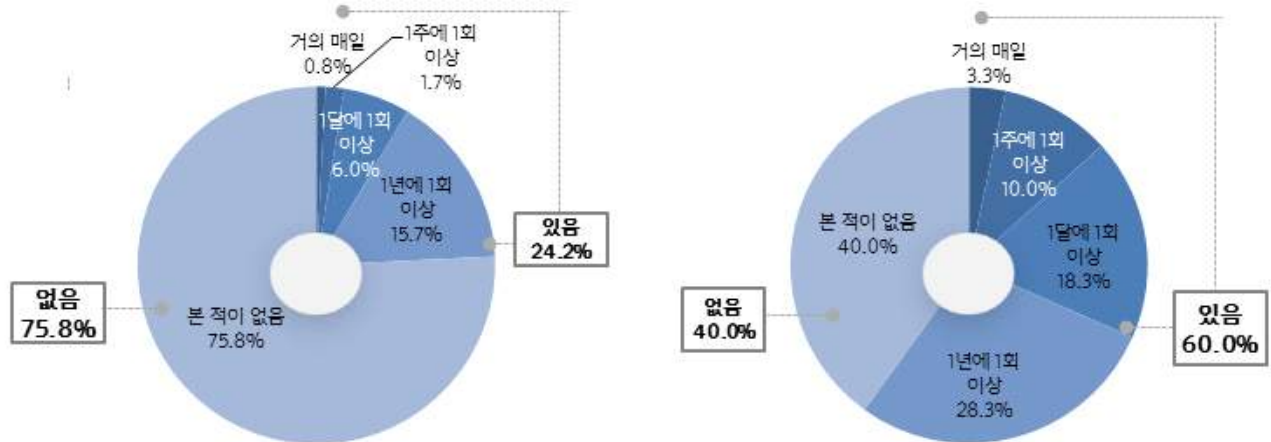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거의 매일	1주에 1회 이상	1달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본 적이 없다	종합		
								있음	없음	
전체		1,260	0.4	2.1	4.8	14.8	77.8	22.2	77.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4	2.2	4.5	14.1	78.8	21.2	78.8	
	전문가	60	0.0	1.7	11.7	30.0	56.7	43.3	56.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0.2	1.2	4.5	16.2	77.9	22.1	77.9	
	중	564	0.5	2.1	4.8	12.6	80.0	20.0	80.0	
	하	210	0.5	4.3	3.8	13.8	77.6	22.4	77.6	
성별	남성	720	0.6	2.1	5.3	14.6	77.5	22.5	77.5	
	여성	480	0.2	2.3	3.3	13.3	80.8	19.2	80.8	
연령별	20대 이하	299	1.0	2.0	8.4	12.4	76.3	23.7	76.3	
	30대	273	0.0	1.8	3.3	13.6	81.3	18.7	81.3	
	40대	316	0.6	2.2	2.8	12.3	82.0	18.0	82.0	
	50대	312	0.0	2.6	3.5	17.9	76.0	24.0	76.0	
지역별	서울	237	0.4	1.3	4.2	8.9	85.2	14.8	85.2	
	경기/인천	389	0.8	1.5	4.4	9.8	83.5	16.5	83.5	
	부산/울산/경남	183	0.0	7.7	10.4	10.9	71.0	29.0	71.0	
	대구/경북	114	0.9	0.0	0.0	10.5	88.6	11.4	88.6	
	광주/전라	114	0.0	1.8	4.4	27.2	66.7	33.3	66.7	
	대전/충청/세종	128	0.0	0.0	0.0	32.8	67.2	32.8	67.2	
지역크기	강원	35	0.0	2.9	8.6	14.3	74.3	25.7	74.3	
	대도시	542	0.4	2.2	4.8	13.1	79.5	20.5	79.5	
	중소도시	579	0.5	2.1	3.8	13.6	80.0	20.0	80.0	
	읍/면	79	0.0	2.5	7.6	24.1	65.8	34.2	65.8	
	직업별	농/어/임업	10	10.0	0.0	0.0	40.0	50.0	50.0	50.0
		자영업자	260	1.2	0.4	2.3	13.5	82.7	17.3	82.7
판매/서비스직		238	0.0	4.2	3.4	16.8	75.6	24.4	75.6	
사무/기술직		386	0.0	1.6	6.2	14.8	77.5	22.5	77.5	
전문/자유직		27	3.7	3.7	7.4	18.5	66.7	33.3	66.7	
전업주부		147	0.0	4.8	3.4	10.9	81.0	19.0	81.0	
학생		111	0.0	0.9	8.1	9.0	82.0	18.0	82.0	
무직/기타		21	0.0	0.0	0.0	9.5	90.5	9.5	90.5	
학력별	중졸이하	21	4.8	0.0	4.8	28.6	61.9	38.1	61.9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0	2.6	3.1	9.7	83.5	16.5	83.5	
	전문대(중퇴/졸업)	308	0.0	2.3	4.5	17.5	75.6	24.4	75.6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0.0	1.9	5.6	15.0	77.5	22.5	77.5	
생활수준 별	대학원 이상	24	0.0	0.0	4.2	8.3	87.5	12.5	87.5	
	상	110	2.7	5.5	6.4	14.5	70.9	29.1	70.9	
	중	680	0.0	1.6	3.8	13.2	81.3	18.7	81.3	
하	410	0.5	2.2	5.1	15.4	76.8	23.2	76.8		

17-6.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접촉 빈도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은 일반국민이 15.7%, 전문가는 28.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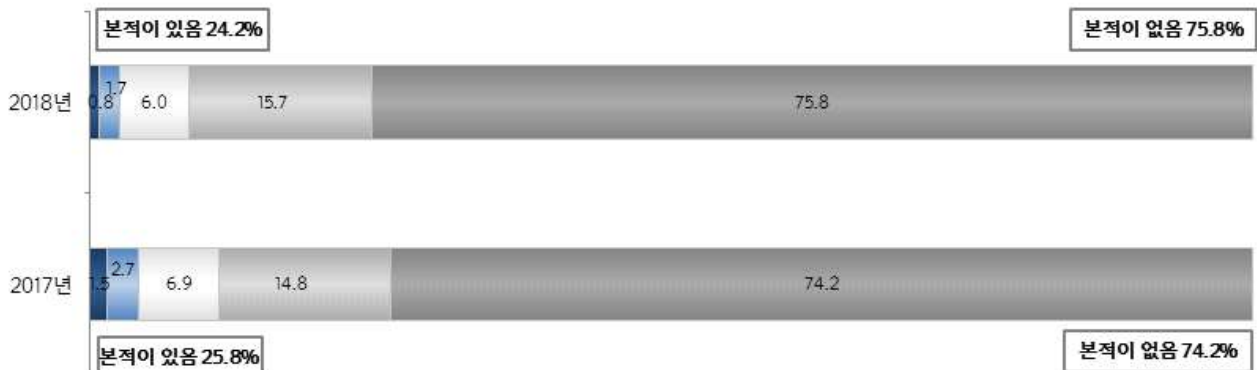
- [일반국민]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접촉 빈도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15.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달에 1회 이상'(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본 적이 없다: 75.8%)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1년에 1회 이상'(15.7%)이라는 응답은 0.9%p(2017년 14.8%) 증가하였고, '본 적이 없음'(75.8%)이라는 응답은 1.6%p(2017년 7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접촉 빈도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2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달에 1회 이상'(1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본 적이 없다: 40.0%)

<그림 5-17-6> 국방 홍보 매체 접촉 빈도 -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2018년 일반국민] [2018년 전문가]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 거의 매일 ■ 1주에 1회 이상 □ 1달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본 적이 없음



[특성별 분석]

-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접촉 빈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강원', 직업별로 '전문/자유직'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7-6> 국방 홍보 매체 접촉 빈도 -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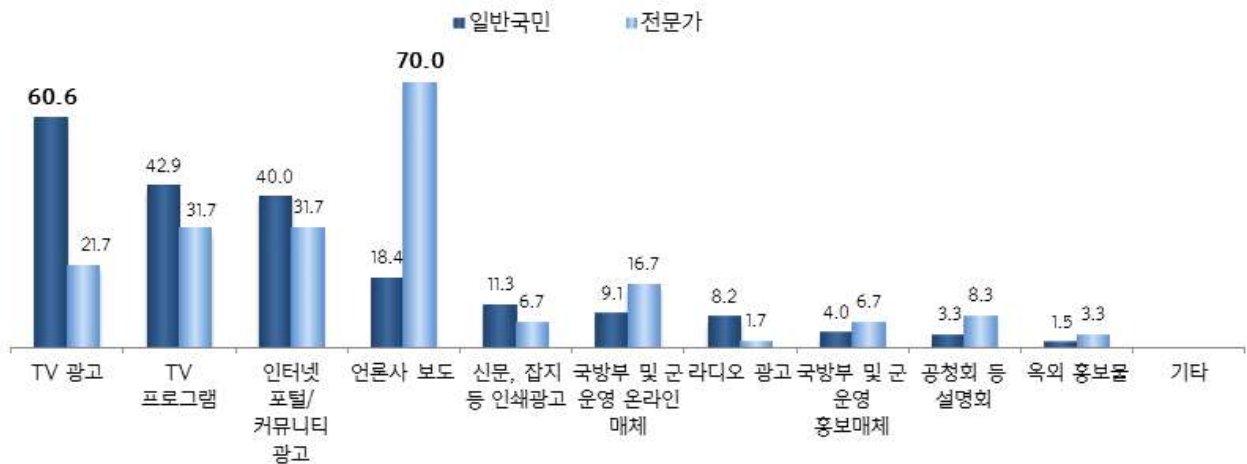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거의 매일	1주에 1회 이상	1달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본 적이 없다	종합		
								있음	없음	
전체		1,260	1.0	2.1	6.6	16.3	74.1	25.9	74.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8	1.7	6.0	15.7	75.8	24.2	75.8	
	전문가	60	3.3	10.0	18.3	28.3	40.0	60.0	4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0.7	1.9	7.7	16.7	73.0	27.0	73.0	
	중	564	0.5	2.0	5.3	16.3	75.9	24.1	75.9	
	하	210	1.9	0.5	4.3	11.9	81.4	18.6	81.4	
성별	남성	720	1.0	1.9	6.8	16.5	73.8	26.3	73.8	
	여성	480	0.6	1.3	4.8	14.4	79.0	21.0	79.0	
연령별	20대 이하	299	1.7	3.0	9.7	16.7	68.9	31.1	68.9	
	30대	273	0.7	1.8	4.0	19.8	73.6	26.4	73.6	
	40대	316	0.3	1.9	5.7	12.3	79.7	20.3	79.7	
	50대	312	0.6	0.0	4.5	14.4	80.4	19.6	80.4	
지역별	서울	237	1.3	2.1	8.0	17.3	71.3	28.7	71.3	
	경기/인천	389	1.0	1.3	7.7	13.6	76.3	23.7	76.3	
	부산/울산/경남	183	0.5	2.2	5.5	11.5	80.3	19.7	80.3	
	대구/경북	114	0.9	0.0	1.8	7.9	89.5	10.5	89.5	
	광주/전라	114	0.9	0.0	1.8	20.2	77.2	22.8	77.2	
	대전/충청/세종	128	0.0	4.7	2.3	24.2	68.8	31.3	68.8	
지역크기	강원	35	0.0	0.0	17.1	28.6	54.3	45.7	54.3	
	대도시	542	0.9	1.8	6.6	13.5	77.1	22.9	77.1	
	중소도시	579	0.9	1.7	5.4	16.2	75.8	24.2	75.8	
	읍/면	79	0.0	0.0	6.3	26.6	67.1	32.9	67.1	
	직업별	농/어/임업	10	10.0	0.0	10.0	20.0	60.0	40.0	60.0
		자영업자	260	1.5	1.5	4.2	12.3	80.4	19.6	80.4
판매/서비스직		238	0.0	1.7	7.6	17.6	73.1	26.9	73.1	
사무/기술직		386	0.3	2.6	6.0	16.1	75.1	24.9	75.1	
전문/자유직		27	3.7	0.0	11.1	29.6	55.6	44.4	55.6	
전업주부		147	0.7	0.0	2.7	13.6	83.0	17.0	83.0	
학생		111	1.8	0.9	9.0	15.3	73.0	27.0	73.0	
무직/기타		21	0.0	4.8	9.5	23.8	61.9	38.1	61.9	
학력별	중졸이하	21	4.8	0.0	9.5	9.5	76.2	23.8	76.2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1.0	0.8	3.1	13.1	81.9	18.1	81.9	
	전문대(중퇴/졸업)	308	0.0	2.6	8.1	16.2	73.1	26.9	73.1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1.1	1.5	6.4	17.4	73.6	26.4	73.6	
	대학원 이상	24	0.0	8.3	12.5	20.8	58.3	41.7	58.3	
생활수준 별	상	110	3.6	4.5	6.4	17.3	68.2	31.8	68.2	
	중	680	0.6	1.2	6.3	16.0	75.9	24.1	75.9	
	하	410	0.5	1.7	5.4	14.6	77.8	22.2	77.8	

18. 국방부 및 군의 정책을 알리기 위한 적합한 홍보활동

국방부 및 군의 정책을 알리기 위한 적합한 홍보활동으로 일반국민은 ‘TV 광고’(60.6%), 전문가는 ‘언론사 보도’(70.0%)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부 및 군의 정책을 알리기 위한 적합한 홍보활동으로 ‘TV광고’라는 응답이 60.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TV 프로그램’(42.9%), ‘인터넷 포털/커뮤니티 광고’(4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2017년 대비 ‘TV 광고’(60.6%)는 6.2%p(2017년 66.8%) 감소하였고, ‘TV 프로그램’(42.9%)은 1.1%p(2017년 4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국방부 및 군의 정책을 알리기 위한 적합한 홍보활동으로 ‘언론사 보도’라는 응답이 7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터넷 포털/커뮤니티 광고’(31.7%), ‘TV프로그램’(3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8> 국방부 및 군의 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2018년 일반국민, 전문가 - 종합순위]



[일반국민-전체(전년대비) - 종합순위]



[특성별 분석]

- 국방부 및 군의 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TV광고'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로 '하',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전업주부' 등에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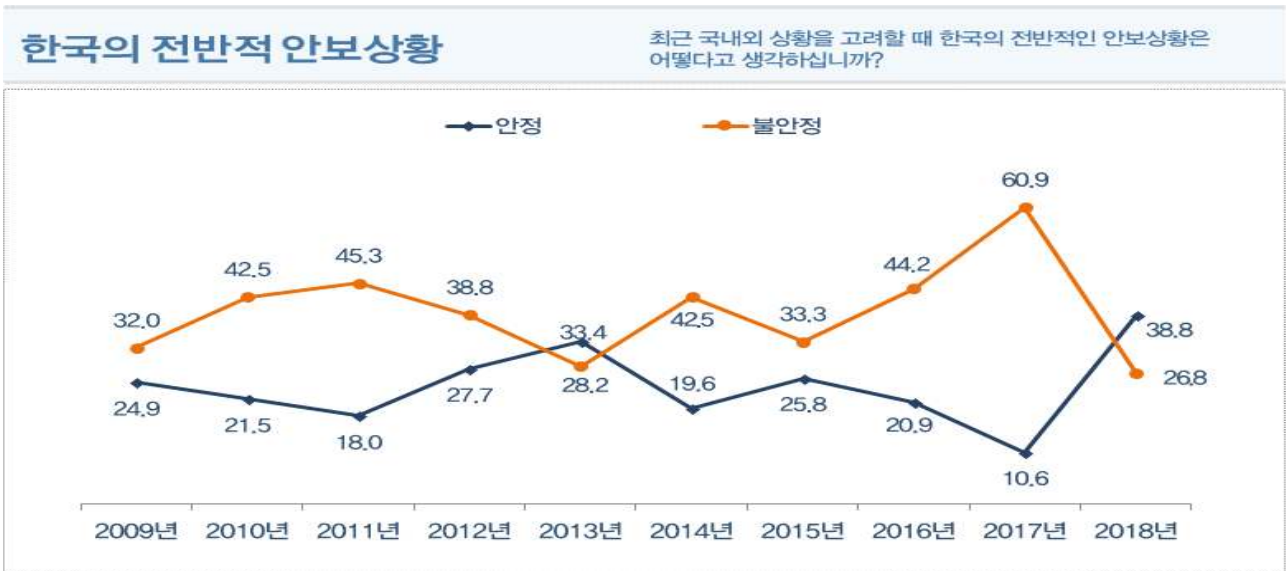
<표 5-18> 국방부 및 군의 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단위[%]		사례수 (명)	TV 광고	TV 프로그 램	인터넷 포털/ 커뮤니 티 광고	언론사 보도	신문, 잡지, 인쇄광 고	국방부 및 군 운영인 매체	라디오 광고	국방부 및 군 홍보매 체	공청회 설명회	옥외 홍보물	기타
전체		1,260	58.7	42.4	39.6	20.9	11.1	9.4	7.9	4.1	3.5	1.6	0.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60.6	42.9	40.0	18.4	11.3	9.1	8.2	4.0	3.3	1.5	0.2
	전문가	60	21.7	31.7	31.7	70.0	6.7	16.7	1.7	6.7	8.3	3.3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26	55.9	42.3	37.6	20.9	11.0	11.3	9.4	6.1	3.8	1.2	0.0
	중	564	63.1	44.9	38.1	17.9	10.8	9.4	6.7	3.7	3.2	1.4	0.0
	하	210	63.3	39.0	50.0	14.8	13.3	3.8	9.5	0.5	2.4	2.4	0.3
성별	남성	720	58.1	42.4	40.8	18.6	11.4	9.3	9.9	3.9	3.6	1.7	0.0
	여성	480	64.4	43.8	38.8	18.1	11.3	8.8	5.6	4.2	2.7	1.3	0.3
연령별	20대 이하	299	56.2	38.1	49.2	16.1	9.0	11.7	8.0	4.7	4.3	1.7	0.0
	30대	273	62.3	40.3	41.4	15.4	11.0	10.3	9.5	4.4	2.2	2.2	0.3
	40대	316	57.0	43.4	40.2	24.1	12.7	6.6	8.9	3.5	2.2	1.3	0.0
	50대	312	67.0	49.4	29.8	17.6	12.5	8.0	6.4	3.5	4.2	1.0	0.4
지역별	서울	237	62.4	38.0	33.3	25.7	12.2	8.4	9.7	3.4	4.6	0.8	0.3
	경기/인천	389	59.1	41.9	38.0	23.7	12.1	5.9	9.3	2.8	4.1	1.8	0.0
	부산/울산/경남	183	79.2	39.9	46.4	8.2	9.3	6.0	8.2	1.6	0.5	0.5	0.0
	대구/경북	114	48.2	71.9	46.5	15.8	4.4	4.4	1.8	3.5	2.6	0.9	0.0
	광주/전라	114	43.9	33.3	51.8	8.8	9.6	33.3	6.1	11.4	0.9	0.9	0.0
	대전/충청/세종 강원	128 35	59.4 65.7	46.1 28.6	34.4 34.3	10.9 31.4	13.3 28.6	8.6 2.9	10.9 2.9	6.3 2.9	5.5 0.0	3.9 2.9	0.0 0.2
지역크기	대도시	542	62.4	41.7	36.9	21.0	9.6	11.3	7.6	4.2	3.5	1.1	0.2
	중소도시	579	60.4	44.4	40.9	16.9	13.1	5.4	9.5	3.5	3.3	1.7	0.0
	읍/면	79	49.4	40.5	54.4	11.4	10.1	21.5	2.5	6.3	1.3	2.5	0.0
직업별	농/어/임업	10	70.0	40.0	30.0	30.0	30.0	0.0	0.0	0.0	0.0	0.0	0.3
	자영업자	260	54.2	45.0	40.4	21.2	8.5	11.2	8.8	4.2	3.5	1.5	0.0
	판매/서비스직	238	64.3	42.4	34.9	17.2	13.0	10.5	8.8	6.3	2.1	0.0	0.0
	사무/기술직	386	59.8	43.3	41.5	17.4	12.2	8.3	7.8	3.4	3.9	2.3	0.0
	전문/자유직	27	51.9	37.0	40.7	37.0	7.4	11.1	3.7	0.0	7.4	3.7	0.0
	전업주부	147	70.7	43.5	36.1	18.4	11.6	4.8	6.8	2.0	3.4	2.0	1.1
	학생	111	60.4	39.6	50.5	13.5	9.0	10.8	9.0	3.6	0.9	0.9	0.0
	무직/기타	21	47.6	38.1	42.9	14.3	19.0	4.8	14.3	9.5	9.5	0.0	0.0
학력별	중졸이하	21	76.2	47.6	14.3	19.0	23.8	4.8	4.8	0.0	4.8	4.8	0.3
	고등학교(중퇴/졸업)	381	64.3	47.2	36.2	20.2	8.7	8.1	6.3	3.7	3.7	1.0	0.3
	전문대(중퇴/졸업)	308	59.7	43.5	35.7	18.2	12.7	11.4	8.1	5.8	1.9	1.9	0.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66	57.7	39.7	46.6	16.1	12.0	8.8	9.9	3.2	3.6	1.5	0.0
대학원 이상	24	54.2	25.0	50.0	37.5	12.5	4.2	8.3	4.2	4.2	0.0	0.0	
생활수준 별	상	110	61.8	26.4	38.2	12.7	20.0	11.8	18.2	2.7	8.2	0.0	0.1
	중	680	62.5	45.0	36.8	20.0	10.1	8.7	7.4	4.3	3.1	1.8	0.3
	하	410	57.1	43.9	45.9	17.3	11.0	9.0	6.8	3.9	2.2	1.5	0.3

1.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

문 최근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에 대해서 ‘안정적이다’는 응답이 38.8%로 ‘불안정적이다’는 응답 26.8% 보다 12.0%p 높게 나타남
-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한 추세비교 결과 2017년 대비 ‘안정적이다’는 응답은 28.2%p 증가하였고, ‘불안정적이다’는 응답은 34.1%p 감소하면서 최근 10년의 조사결과 변화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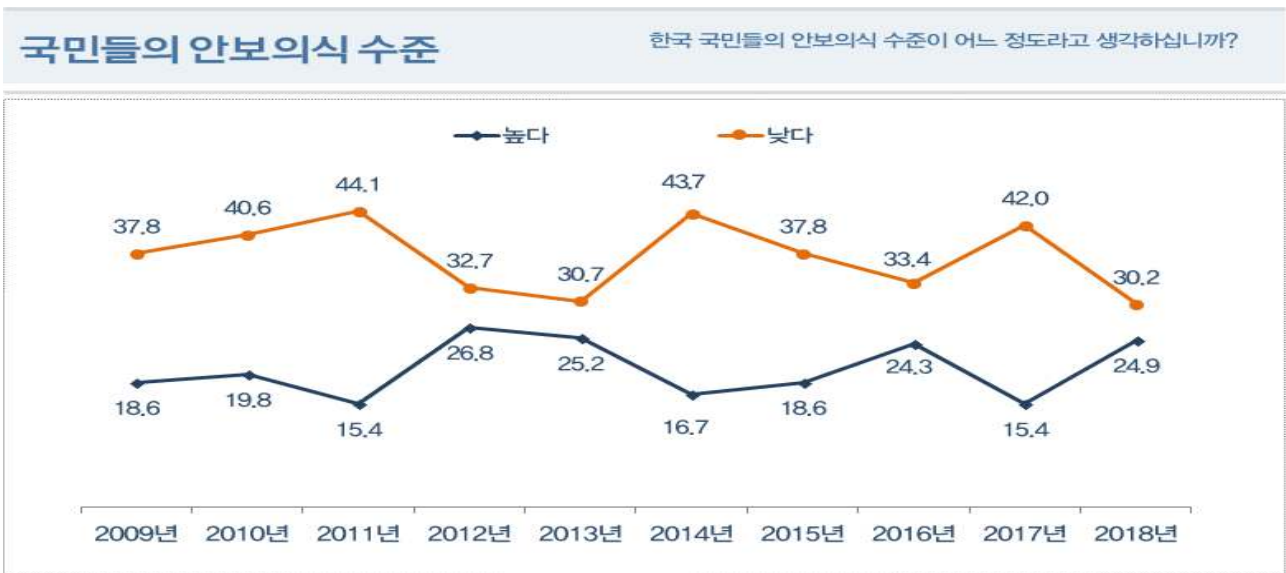


단위[%]	매우 안정적	안정적인 편	보통	불안정한 편	매우 불안정	잘 모르겠다
2018년 ①	3.1	35.8	34.3	22.8	4.1	-
2017년 ②	1.2	9.4	28.5	47.4	13.5	-
GAP (①-②)	1.9	26.4	5.8	-24.6	-9.4	-
2016년	1.8	19.1	35.0	38.6	5.6	-
2015년	0.9	24.9	40.9	29.8	3.5	-
2014년	1.3	18.3	37.9	39.2	3.3	-
2013년	2.2	31.2	38.4	25.6	2.6	-
2012년	1.9	25.8	33.5	35.0	3.8	-
2011년	0.4	17.6	36.7	41.6	3.7	-
2010년	1.0	20.5	36.0	37.5	5.0	-
2009년	1.5	23.4	43.1	29.5	2.5	-

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문 한국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낮다’는 응답이 30.2%로 ‘높다’는 응답 24.9% 보다 5.3%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낮다’는 응답은 11.8%p 감소하였고, ‘높다’는 응답은 9.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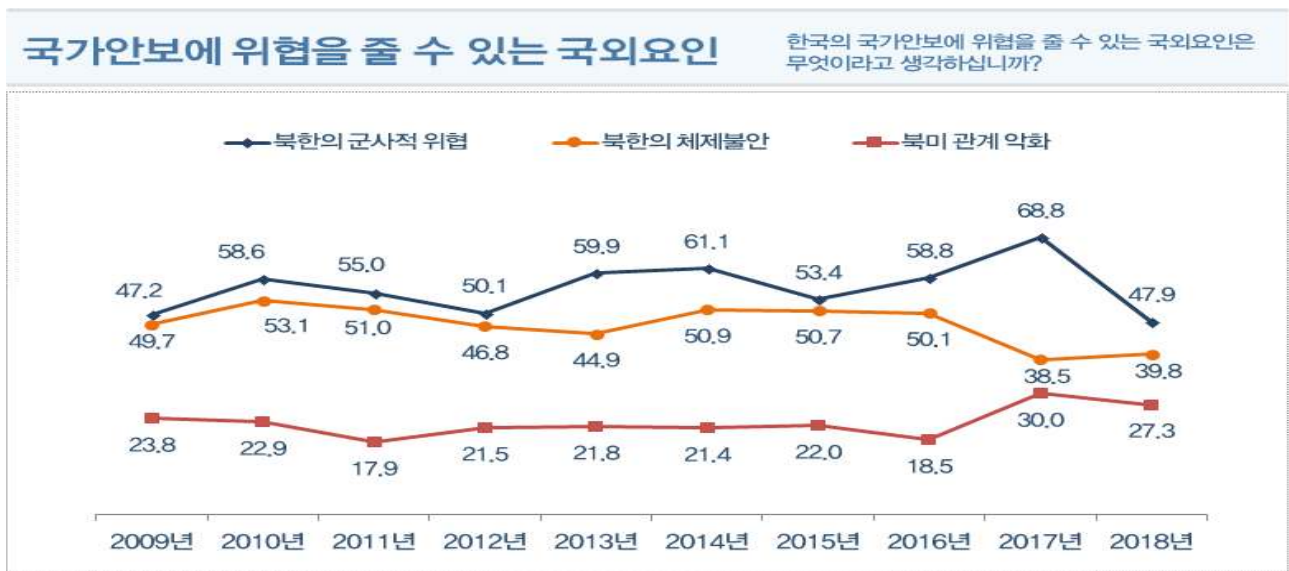
단위[%]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잘 모르겠다
2018년 ①	4.5	20.4	44.9	26.8	3.4	
2017년 ②	0.8	14.6	42.6	36.9	5.1	
GAP (①-②)	3.7	5.8	2.3	-10.1	-1.7	
2016년	2.4	21.9	42.3	28.8	3.6	
2015년	1.2	17.4	43.6	34.1	3.7	
2014년	1.9	14.8	39.6	38.9	4.8	
2013년	1.8	23.4	44.1	27.0	3.7	
2012년	4.5	22.3	40.5	29.8	2.9	
2011년	1.1	14.3	40.5	38.5	5.6	
2010년	0.7	19.1	39.7	33.9	6.7	
2009년	1.4	17.2	43.5	33.9	3.9	

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

문

다음 항목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들입니다. 이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두 가지를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요인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이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북한의 체제불안(39.8%),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악화’(2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북한의 군사적 위협’(20.9%p), ‘북미 관계 악화’(2.7%p)라는 응답은 감소하였고, ‘북한의 체제불안’(1.3%p)라는 응답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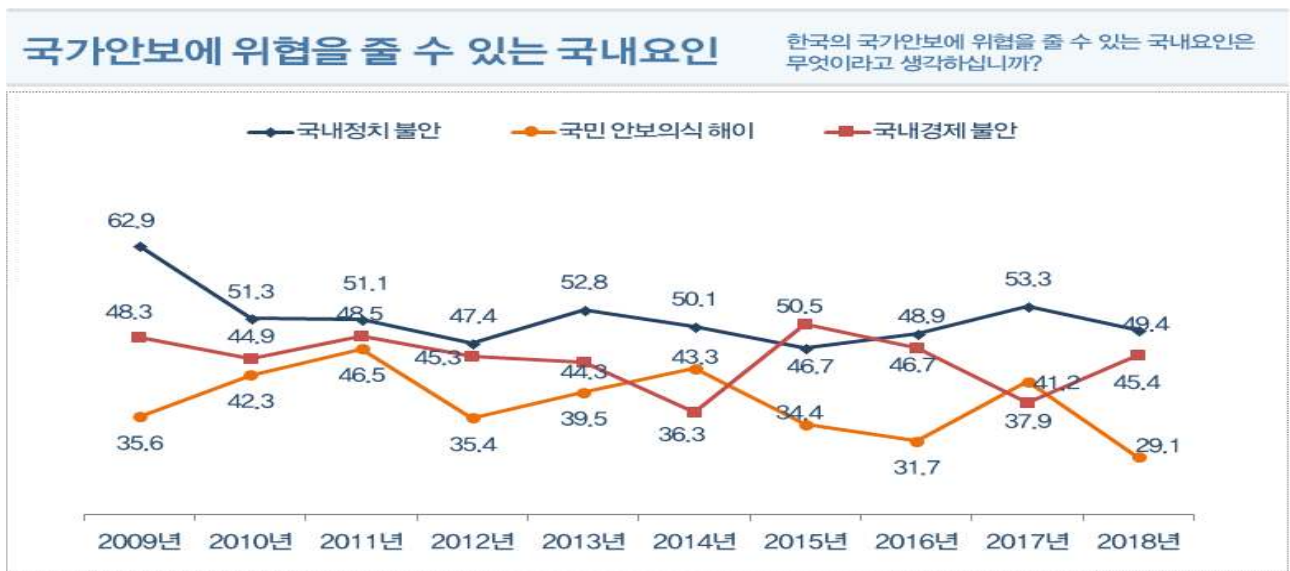
단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①	2018년 ②	GAP ②-①
북한의 군사적 위협	49.7	58.6	55.0	50.1	59.9	61.1	53.4	58.8	68.8	47.9	-20.9
북한의 체제불안	47.2	53.1	51.0	46.8	44.9	50.9	50.7	50.1	38.5	39.8	1.3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악화	23.8	22.9	17.9	21.5	21.8	21.4	22.0	18.5	30.0	27.8	-2.2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악화	15.3	18.1	18.2	25.4	29.8	19.1	23.8	18.2	22.0	27.3	5.3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군비경쟁	19.3	20.0	21.8	27.6	16.5	19.3	18.6	18.9	15.8	23.5	7.7
세계경제의 침체나 경제마찰	28.1	16.9	21.8	20.0	12.8	11.3	16.8	13.5	11.1	17.8	6.7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테러의 위협	13.5	9.5	12.9	8.1	9.5	11.8	10.4	18.9	10.3	11.3	1.0
주변국 영토분쟁	-	-			4.7	4.7	4.0	2.8	2.3	3.8	1.5

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요인

문

다음 항목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요인들입니다. 이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두 가지를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요인으로 ‘국내 정치의 불안’이라는 응답이 4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내 경제의 불안(45.4%)’, ‘사회 불평등의 심화(3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국내 경제의 불안(7.5%p)’라는 응답은 증가하였고, ‘국내 정치의 불안(3.9%p)’, ‘국민 안보의식 해이(12.1%p)’이라는 응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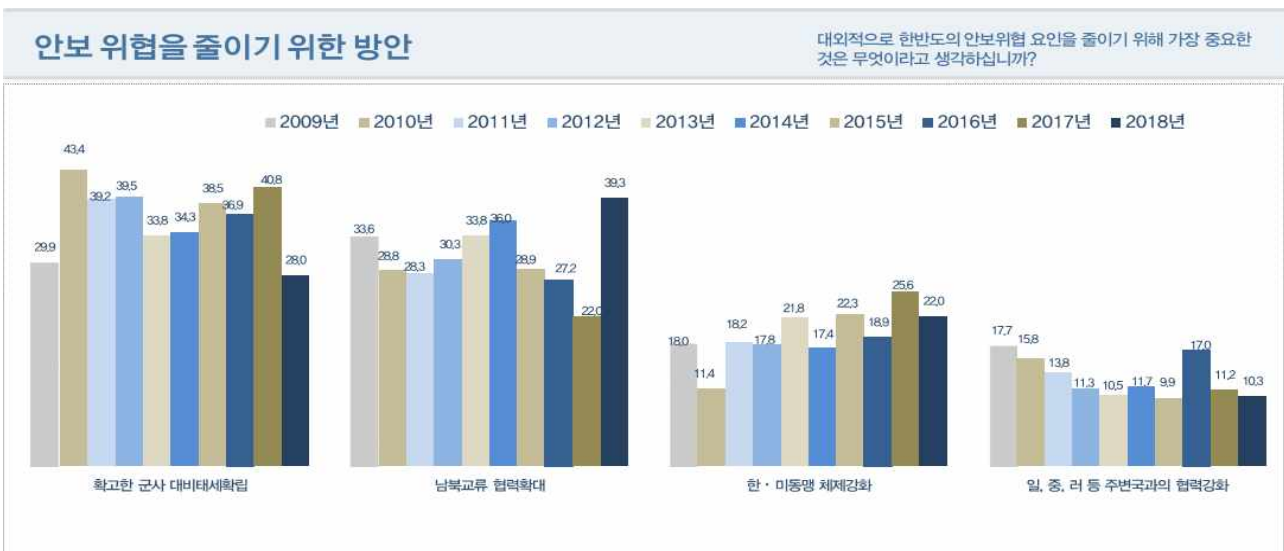


단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①	2018년 ②	GAP ②-①
국내정치의 불안	62.9	51.3	51.1	47.4	52.8	50.1	46.7	48.9	53.3	49.4	-3.9
국민 안보의식 해이	35.6	42.3	46.5	35.4	39.5	43.3	34.4	31.7	41.2	29.1	-12.1
국내경제의 불안	48.3	44.9	48.5	45.3	44.3	36.3	50.5	46.7	37.9	45.4	7.5
사회 불평등의 심화	26.6	33.0	32.8	32.8	26.1	24.9	31.3	35.3	23.1	31.3	8.2
반미감정	12.1	17.8	12.1	16.2	14.3	15.3	11.3	11.8	17.8	16.3	-1.5
이념갈등	-	-	-	13.9	9.8	14.0	11.7	12.9	14.6	17.3	2.7
불충분한 국방비	10.0	9.0	7.8	7.9	9.3	11.4	5.8	6.5	7.9	5.7	-2.2
치안 불안	-	-	-	-	3.5	4.0	8.3	5.9	2.9	4.3	1.4
기타	-	-	-	-	0.3	0.6	0.2	0.1	0.8	0.6	-0.2

5. 안보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

문 대외적으로 한반도의 안보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보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 교류협력 확대’라는 응답이 3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28.0%), ‘한·미 동맹체제 강화’(2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남북교류 협력확대’(17.3%p)라는 응답은 증가하였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12.8%p), ‘한·미동맹 체제강화’(3.6%p) 등은 응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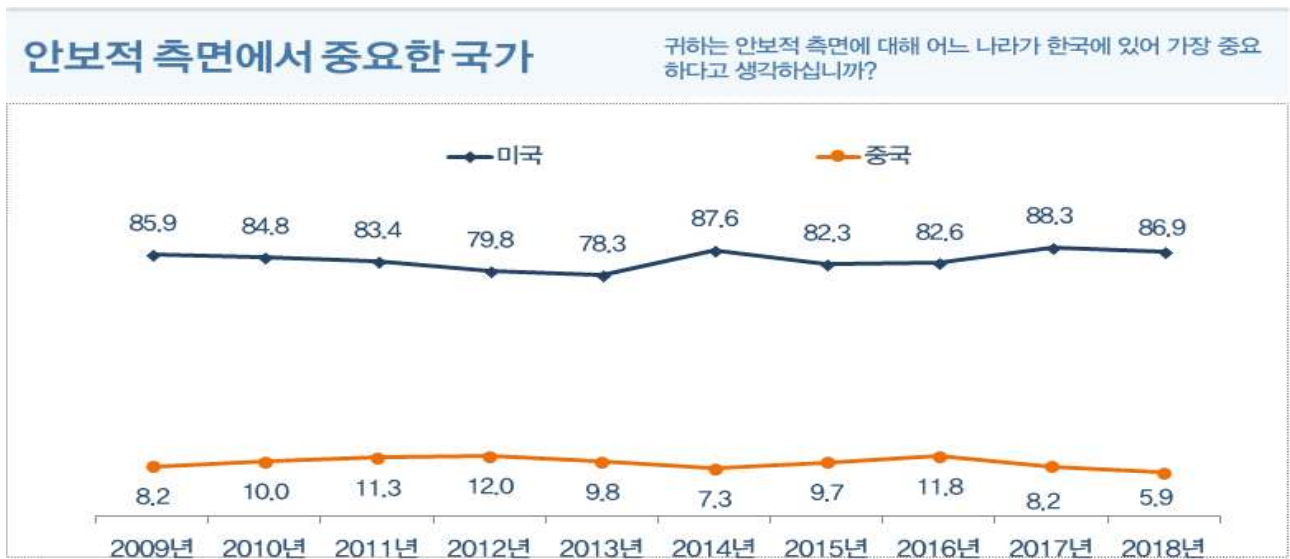


단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①	2018년 ②	GAP ②-①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확립	29.9	43.4	39.2	39.5	33.8	34.3	38.5	36.9	40.8	28.0	-12.8
남북교류 협력확대	33.6	28.8	28.3	30.3	33.8	36.0	28.9	27.2	22.0	39.3	17.3
한·미동맹 체제강화	18.0	11.4	18.2	17.8	21.8	17.4	22.3	18.9	25.6	22.0	-3.6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강화	17.7	15.8	13.8	11.3	10.5	11.7	9.9	17.0	11.2	10.3	-0.9
기타	1.7	0.6	0.6	1.1	0.1	0.6	0.4	-	0.5	0.4	-0.1

6.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문 귀하는 안보적 측면에서 어느 국가가 한국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8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 (5.9%), ‘일본’(4.3%), ‘러시아’(1.7%)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1.4%p 감소하였고, ‘중국’이라는 응답은 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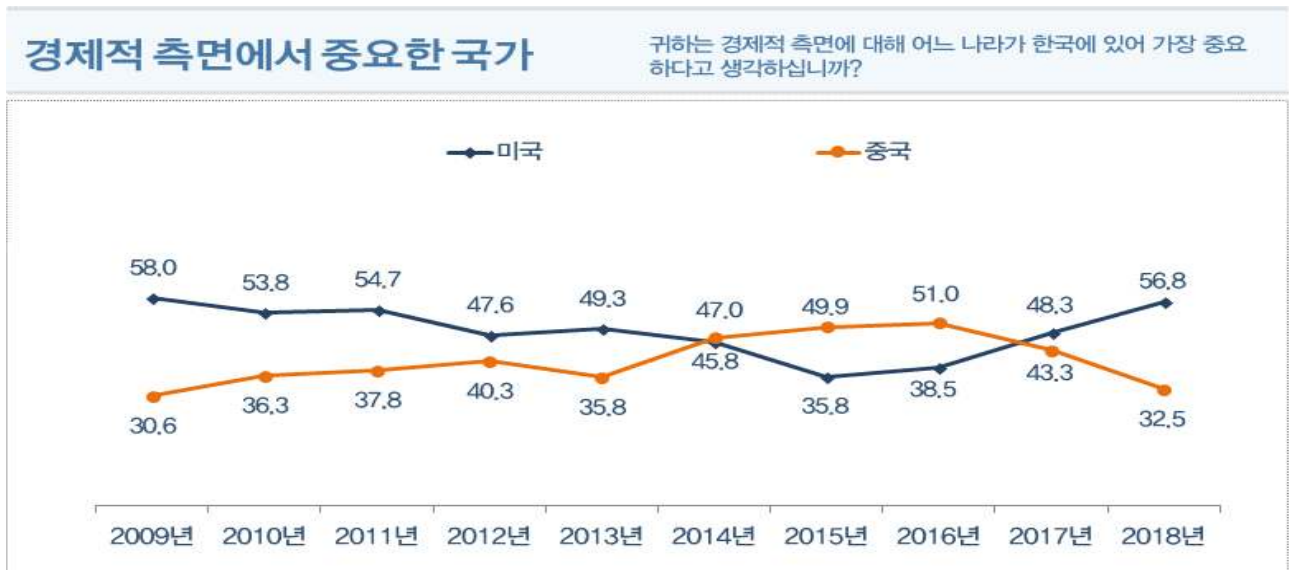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연도별 비교]

단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①	2018년 ②	GAP ②-①
미국	85.9	84.8	83.4	79.8	78.3	87.6	82.3	82.6	88.3	86.9	-1.4
중국	8.2	10.0	11.3	12.0	9.8	7.3	9.7	11.8	8.2	5.9	-2.3
일본	2.9	2.8	3.5	6.2	9.5	3.1	6.0	3.7	1.8	4.3	2.5
러시아	0.3	0.8	0.5	2.0	1.9	0.3	1.8	1.5	1.0	1.7	0.7
기타	2.5	1.8	1.3	-	0.5	1.8	0.2	0.5	0.8	1.3	0.5
잘 모르겠다	-	-	-	-	-	-	-	-	-	-	-
없다	-	-	-	-	-	-	-	-	-	-	-

7.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문 귀하는 경제적 측면에서 어느 국가가 한국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 5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8.5%p 증가하였고, '중국'이라는 응답이 10.8%p 감소하여, '미국'의 경제적 중요성이 더욱 증가함.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연도별 비교]

단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①	2018년 ②	GAP ②-①
미국	58.0	53.8	54.7	47.6	49.3	45.8	35.8	38.5	48.3	56.8	8.5
중국	30.6	36.3	37.8	40.3	35.8	47.0	49.9	51.0	43.3	32.5	-10.8
일본	8.7	7.7	5.1	8.8	8.9	4.6	10.9	8.1	6.1	7.4	1.3
러시아	0.5	0.7	1.4	3.3	-4.3	1.8	2.6	1.8	1.6	1.9	0.3
기타	2.0	1.7	1.1	-	1.7	0.8	0.8	0.6	0.8	1.4	0.6

8.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문

만약 북한의 무력침략과 같이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국가들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각기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에 대해 미국 및 일본은 ‘남한에 지원’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국 및 러시아는 ‘북한에 지원’할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미국 연도별 비교]

단위[%]	남한 적극 지원	남한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남한 지원	북한 지원
2018년 ①	42.0	49.0	8.1	0.7	0.3	91.0	0.9
2017년 ②	49.7	43.9	5.3	1.1	0.1	93.6	1.2
GAP (①-②)	-7.7	5.1	2.8	-0.4	0.2	-2.6	-0.3
2016년	48.7	43.3	7.0	1.0	-	92.0	1.0
2015년	38.1	49.7	10.9	1.1	0.2	87.8	1.3
2014년	49.5	44.4	6.0	0.1	0.0	93.9	0.1
2013년	74.3	41.3	9.5	1.8	0.1	88.7	1.8
2012년	46.0	41.2	11.0	1.88	0.0	87.2	1.8
2011년	41.3	49.2	8.1	1.3	0.3	90.5	1.6
2010년	52.0	40.5	6.9	0.5	0.1	92.5	0.6
2009년	44.7	41.9	13.2	0.1	0.1	86.6	0.2

[일본 연도별 비교]

단위[%]	남한 적극 지원	남한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남한 지원	북한 지원
2018년 ①	6.1	33.6	52.8	6.7	0.9	39.7	7.6
2017년 ②	5.3	43.3	47.8	3.3	0.4	48.5	3.5
GAP (①-②)	0.8	-9.7	5	3.4	0.5	-8.8	4.1
2016년	5.9	37.5	51	5.3	0.3	43.4	5.6
2015년	2.8	29.0	57.4	10.3	0.5	31.8	10.8
2014년	3.2	31.2	57.8	6.5	1.3	34.4	7.8
2013년	7.3	32.5	52.1	7.3	0.8	39.8	8.1
2012년	4.3	31.7	55.0	8.5	0.5	16.0	9.0
2011년	6.7	35.3	50.8	6.5	0.8	42.0	7.3
2010년	6.3	43.2	46.5	3.7	0.3	49.5	4.0
2009년	8.2	34.2	54.8	2.7	0.1	42.4	2.8

[중국 연도별 비교]

단위[%]	남한 적극 지원	남한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남한 지원	북한 지원
2018년 ①	1.4	5.1	21.7	52.7	19.2	6.5	71.8
2017년 ②	0.9	3.3	25.9	58.3	11.5	4.3	69.8
GAP (①-②)	0.5	1.8	-4.2	-5.6	7.7	2.2	2.0
2016년	1.1	6.0	38.3	43.0	11.7	7.1	54.7
2015년	0.6	17.6	42.4	32.9	6.5	18.2	39.4
2014년	1.1	10.2	45.3	39.4	4.0	9.7	43.4
2013년	1.3	8.4	45.3	37.4	7.6	9.7	45.0
2012년	0.8	3.9	28.7	48.3	18.3	4.8	66.6
2011년	0.6	3.0	29.4	51.1	15.9	3.6	67.0
2010년	0.8	4.0	30.6	42.4	22.2	4.8	64.6
2009년	1.4	8.7	41.8	40.6	7.4	10.1	48.0

[러시아 연도별 비교]

단위[%]	남한 적극 지원	남한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남한 지원	북한 지원
2018년 ①	1.5	5.3	37.3	45.8	10.1	6.8	55.8
2017년 ②	0.8	4.6	40	47.5	7.1	5.4	54.6
GAP (①-②)	0.7	0.7	-2.7	-1.7	3.0	1.4	1.2
2016년	1.5	5.3	38.8	49.2	5.3	6.8	54.4
2015년	0.7	11.5	43.0	37.5	7.3	12.2	44.8
2014년	0.8	7.2	49.2	38.0	4.8	8.0	42.8
2013년	1.7	8.9	54.0	30.5	4.9	10.6	35.4
2012년	1.6	5.5	44.6	37.8	10.5	7.1	48.3
2011년	0.8	4.1	42.8	45.1	7.3	4.9	52.4
2010년	1.4	5.5	40.8	42.1	10.3	6.9	52.4
2009년	1.0	6.7	51.1	35.1	6.1	7.7	41.2

9.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문 다음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됨
- 일본, 중국,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미국 연도별 비교]

단위[%]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긍정	부정
2018년 ①	26.6	53.5	13.9	5.0	1.0	80.1	6.0
2017년 ②	28.0	49.1	17.2	5.3	0.4	77.1	5.8
GAP (①-②)	-1.4	4.4	-3.3	-0.3	0.6	3.0	0.2
2016년	23.3	60.2	11.5	4.5	0.6	83.4	11.5
2015년	21.3	53.6	19.3	5.5	0.3	74.9	5.8
2014년	1.3	9.7	51.6	32.4	5.0	11.0	37.4
2013년	4.6	16.3	44.2	29.9	5.0	20.9	34.9

[일본 연도별 비교]

단위[%]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긍정	부정
2018년 ①	2.8	18.5	36.7	30.3	11.8	21.3	42.0
2017년 ②	1.3	16.5	41.3	32.9	8.0	17.8	40.9
GAP (①-②)	1.5	2.0	-4.6	-2.6	3.8	3.5	1.1
2016년	2.1	13.1	46.2	32.6	6.1	15.2	38.7
2015년	1.4	14.1	48.5	30.0	6.0	15.5	36.0
2014년	2.2	12.5	33.9	38.6	12.8	14.7	51.4
2013년	1.3	12.0	38.4	33.5	14.8	13.3	48.3
2012년	2.0	16.2	39.7	31.8	10.1	18.2	41.9
2011년	2.3	16.4	36.4	32.5	12.3	18.7	44.8
2010년	2.2	14.5	30.3	39.8	13.2	16.7	53.0
2009년	2.1	9.7	22.9	33.0	27.8	11.8	60.8

[중국 연도별 비교]

단위[%]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긍정	부정
2018년 ①	1.7	6.6	20.5	51.2	20.1	8.3	71.3
2017년 ②	1.3	4.3	27.8	51.8	14.8	5.7	66.6
GAP (①-②)	0.4	2.3	-7.3	-0.6	5.3	2.6	4.7
2016년	1.6	9.1	32.1	45.2	12.1	10.7	57.3
2015년	1.3	14.8	37.1	38.7	8.1	16.1	46.8
2014년	1.3	12.3	33.1	43.5	9.8	13.6	53.3
2013년	2.1	10.6	38.2	37.4	11.7	12.7	49.1
2012년	1.3	6.3	28.5	44.6	19.3	7.6	63.9
2011년	1.6	8.9	24.2	45.8	19.3	10.5	65.1
2010년	2.1	6.3	24.2	41.9	25.6	8.4	67.5
2009년	1.7	12.3	27.5	44.3	14.2	14.0	58.5

[러시아 연도별 비교]

단위[%]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긍정	부정
2018년 ①	1.7	5.3	34.4	43.8	14.8	7.0	58.6
2017년 ②	1.9	7.1	47.7	37.4	5.9	9.0	43.3
GAP (①-②)	-0.2	-1.8	-13.3	6.4	8.9	-2.0	15.3
2016년	1.3	8.3	49.5	38.0	3.0	9.5	41.0
2015년	0.8	10.3	44.9	37.2	6.8	11.1	44.0
2014년	1.3	9.7	51.6	32.4	5.0	11.0	37.4
2013년	4.6	16.3	44.2	29.9	5.0	20.9	34.9
2012년	2.0	10.6	38.8	40.6	8.0	12.6	48.6
2011년	1.8	14.4	38.6	39.8	5.3	16.2	45.1
2010년	2.0	11.0	34.1	44.7	8.3	13.0	53.0
2009년	1.7	15.6	36.2	39.2	7.3	17.3	46.5

10. 한·미·일간 3개국의 군사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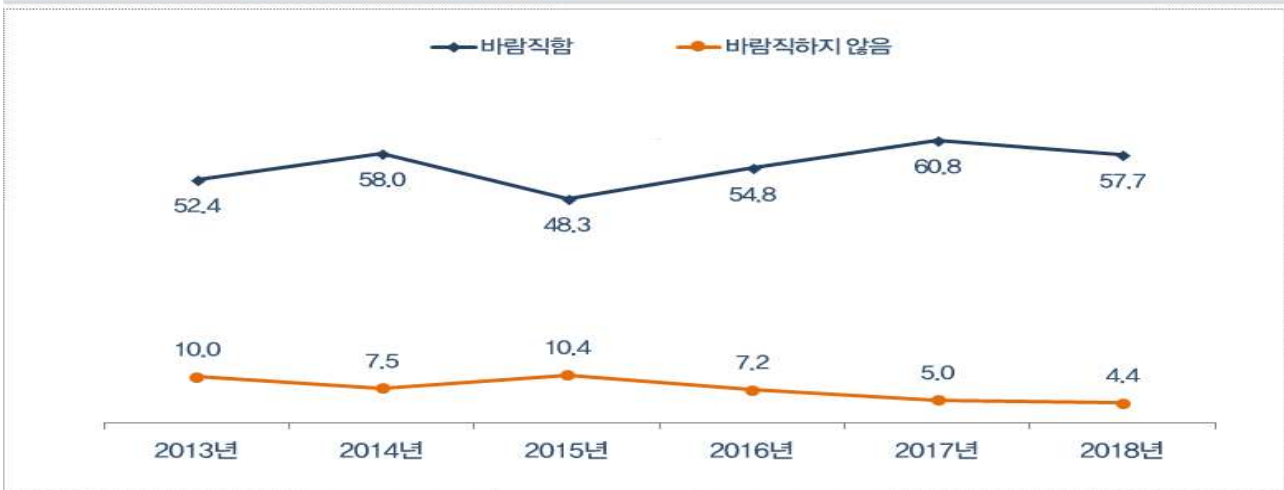
문

귀하는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미·일간 3개국 의 군사협력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7.7%로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1%p 감소하였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0.6%p 감소함.

한·미·일간 3개국의 군사협력

귀하는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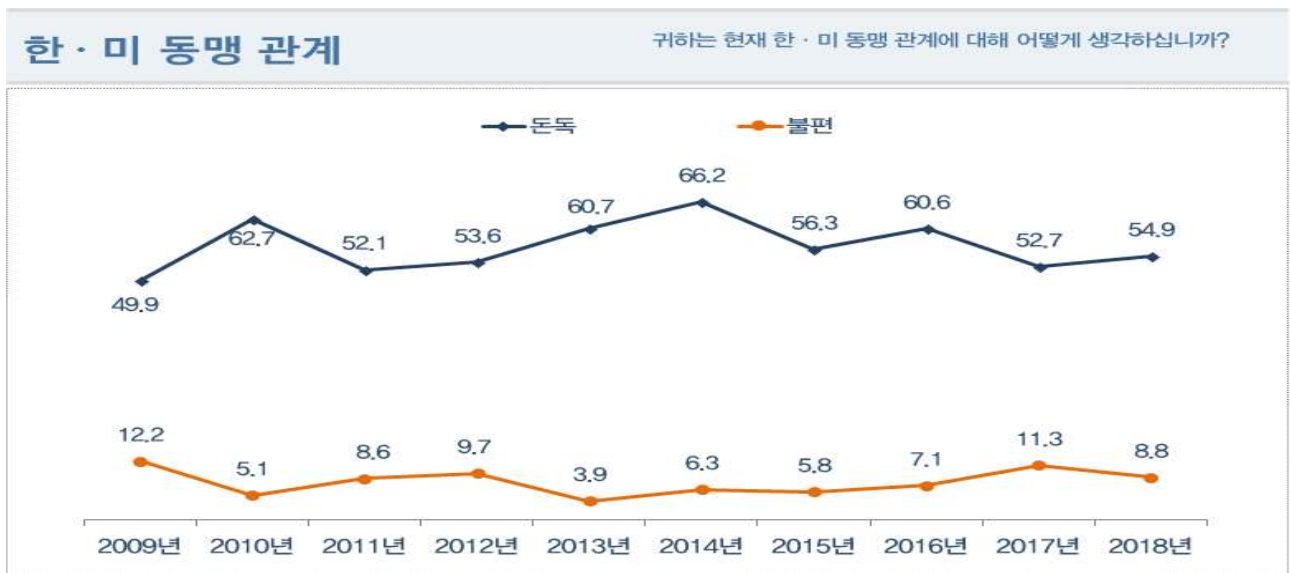


단위[%]	매우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보통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함	바람직하지 않음
2018년 ①	11.4	46.3	37.9	3.7	0.8	57.7	4.4
2017년 ②	12.0	48.8	34.2	4.6	0.4	60.8	5.0
GAP (①-②)	-0.6	-2.5	3.7	-0.9	0.4	-3.1	-0.6
2016	8.8	46.0	38.0	6.4	0.8	54.8	7.2
2015년	5.7	42.6	41.3	10.1	0.3	48.3	10.4
2014년	10.3	47.7	34.5	7.0	0.5	58.0	7.5
2013년	7.6	44.8	37.6	8.7	1.3	52.4	10.0
2012년	9.2	35.7	45.5	8.8	0.8	44.9	9.6

11. 한·미동맹관계

문 귀하는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돈독하다’는 응답이 54.9%로 ‘불편하다’(8.8%)는 응답보다 46.1%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돈독하다’(54.9%)는 응답은 2.2%p(2017년 52.7%) 증가하였고, ‘불편하다’(8.8%)는 응답은 2.5%p(2017년 1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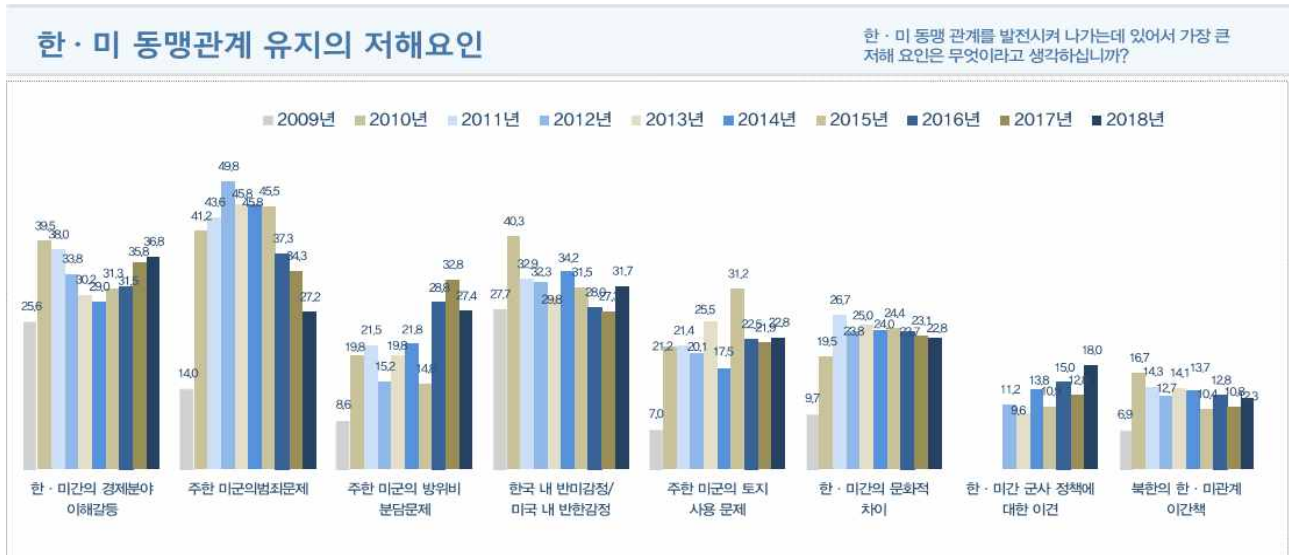
단위[%]	매우 돈독하다	돈독한 편이다	보통이다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2018년 ①	6.1	48.8	36.3	8.5	0.3
2017년 ②	4.3	48.3	36	11.1	0.3
GAP (①-②)	1.8	0.5	0.3	-2.6	0.0
2016년	7.1	53.5	32.3	6.7	0.4
2015년	4.2	52.1	37.9	5.5	0.3
2014년	9.1	57.1	27.5	5.8	0.5
2013년	5.6	55.1	35.4	3.4	0.5
2012년	7.2	46.4	36.7	9.1	0.6
2011년	4.8	47.3	39.3	8.0	0.6
2010년	5.3	57.4	32.3	4.7	0.4
2009년	3.7	46.2	37.9	11.7	0.5

12. 한·미동맹관계 유지의 저해 요인

문

한·미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저해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 한·미동맹관계 유지의 저해 요인은 ‘한미간의 경제분야 이해 갈등’이 3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국내 반미감정/미국내 반한감정’(31.7%),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2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한·미간의 경제분야 이해갈등	주한 미군의 범죄문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	한국내반미감정/미국내반한감정	주한미군의 토지 사용문제	한·미간의 문화적 차이	한·미간군사 정책에 대한이견	북한의한·미관계 이간책	기타
2018년 ①	36.8	27.2	27.4	31.7	22.8	22.8	18.0	12.3	0.8
2017년 ②	35.8	34.3	32.8	27.3	21.9	23.1	12.8	10.8	1.3
GAP (①-②)	1.0	-7.1	-5.4	4.4	0.9	-0.3	5.2	1.5	-0.5
2016년	31.5	37.3	28.8	28	22.5	23.7	15	12.8	0.2
2015년	31.3	45.5	14.8	31.5	31.2	24.4	10.9	10.4	0.0
2014년	29	45.8	21.8	34.2	17.5	24	13.8	13.7	0.2
2013년	30.2	45.8	19.8	29.8	25.5	25	9.6	14.1	0.1
2012년	33.8	49.8	15.2	32.3	20.1	23.8	11.2	12.7	0.6
2011년	38	43.6	21.5	32.9	21.4	26.7	-	14.3	-
2010년	39.5	41.2	19.8	40.3	21.2	19.5	-	16.7	-
2009년	25.6	14	8.6	27.7	7	9.7	-	6.9	-

13.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문 다음은 향후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거 추세 비교 결과, 한·미동맹 발전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대체로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군사동맹 강화 연도별 비교]

단위[%]	매우 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 반대
2018년 ①	17.3	52.3	25.3	4.6	0.6
2017년 ②	24.3	53.7	17.8	4.1	0.2
GAP (①-②)	-7.0	-1.4	7.5	0.5	0.4
2016년	18.3	53.6	21.8	6.1	0.3
2015년	15.8	49.3	26.3	7.3	1.3
2014년	20.2	51.5	22.4	5.6	0.3
2013년	16.3	51.5	26.9	5.0	0.3
2012년	19.8	45.7	27.6	6.6	0.3
2011년	20.4	50.7	23.8	4.8	0.3
2010년	23.1	50.5	21.2	5.2	0.1
2009년	18.2	55.4	22.6	3.6	0.2

[경제 분야 협력 연도별 비교]

단위[%]	매우 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 반대
2018년 ①	20.0	52.4	24.9	2.3	0.3
2017년 ②	24.8	45.3	25.4	4.5	0.1
GAP (①-②)	-4.8	7.1	-0.5	-2.2	0.2
2016년	19.3	48.4	27.6	4.1	0.7
2015년	16.4	51.2	25.7	5.1	1.6
2014년	20.8	50.0	26.6	2.1	0.5
2013년	17.8	39.0	33.8	8.3	1.1
2012년	16.8	44.8	30.6	7.1	0.7
2011년	22.5	48.5	25.3	3.3	0.4
2010년	25.4	48.8	21.1	4.4	0.3
2009년	22.8	56.0	19.4	1.8	-

[문화협력 연도별 비교]

단위[%]	매우 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 반대
2018년 ①	14.7	49.3	31.3	3.8	1.0
2017년 ②	20.8	45.3	28.1	5.4	0.3
GAP (①-②)	-6.1	4.0	3.2	-1.6	0.7
2016년	18.1	43.3	31.9	6.3	0.5
2015년	10.2	47.1	36.2	5.2	1.3
2014년	14.8	48.2	33.2	3.6	0.2
2013년	14.9	43.9	32.4	7.9	0.9
2012년	13.4	43.9	32.5	9.0	1.2
2011년	20.5	43.8	31.4	3.8	0.4
2010년	17.6	47.1	31.4	3.8	0.1
2009년	15.2	54.5	27.9	2.2	0.2

[세계문제 대처 연도별 비교]

단위[%]	매우 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 반대
2018년 ①	18.5	50.9	26	4.2	0.4
2017년 ②	24.7	49.6	20.2	5.2	0.4
GAP (①-②)	-6.2	1.3	5.8	-1.0	0.0
2016년	21.4	46.3	25.5	6.3	0.4
2015년	18.3	46.5	28.2	6.0	1.0
2014년	21.3	49.2	26.3	2.8	0.4
2013년	19.3	47.1	26.5	6.2	0.9
2012년	18.8	45.9	28.3	5.5	1.5
2011년	26.7	46.7	23.6	2.7	0.3
2010년	28.7	44.3	23.5	3.3	0.2
2009년	20.5	51.6	25.0	2.8	0.1

14. 주한미군의 중요성

문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이 77.8%로 ‘중요하지 않다’(2.1%)는 응답보다 75.7%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중요하다’(77.8%)는 응답은 1.4%p(2017년 76.4%), ‘중요하지 않다’(2.1%)는 응답은 0.2%p(2017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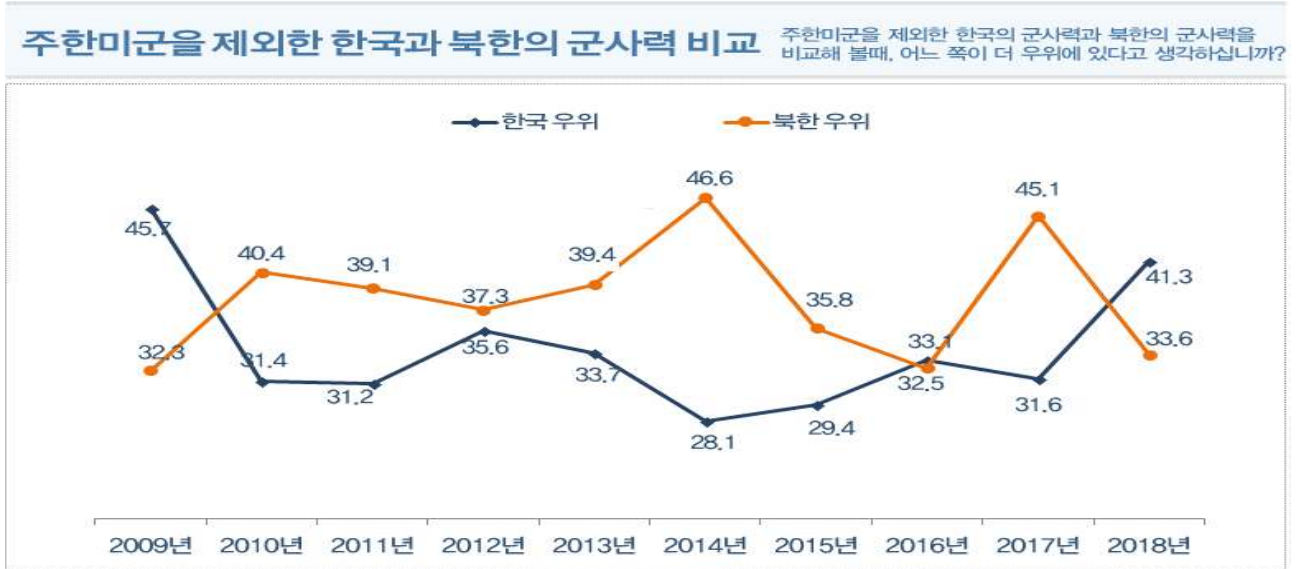
단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2018년 ①	25.5	52.3	20.1	1.8	0.3
2017년 ②	20.2	56.3	21.7	1.8	0.1
GAP (①-②)	5.3	-4.0	-1.6	0.0	0.2
2016년	16.5	57.0	24.3	2.1	0.2
2015년	14.6	56.7	22.4	6.0	0.3
2014년	16.8	58.3	22.0	2.6	0.3
2013년	16.6	52.7	26.5	3.9	0.3
2012년	19.0	48.4	26.9	5.4	0.3
2011년	18.8	48.7	27.2	4.8	0.5
2010년	17.8	60.1	19.6	2.2	0.3
2009년	23.1	52.2	20.4	3.6	0.7

15.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답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의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 군사력 비교 질문에 ‘한국우위’라는 응답이 41.3%로 ‘북한우위’(33.6%)라는 응답보다 7.7%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한국우위’라는 응답은 9.7%p 증가하였고, ‘북한우위’라는 응답은 1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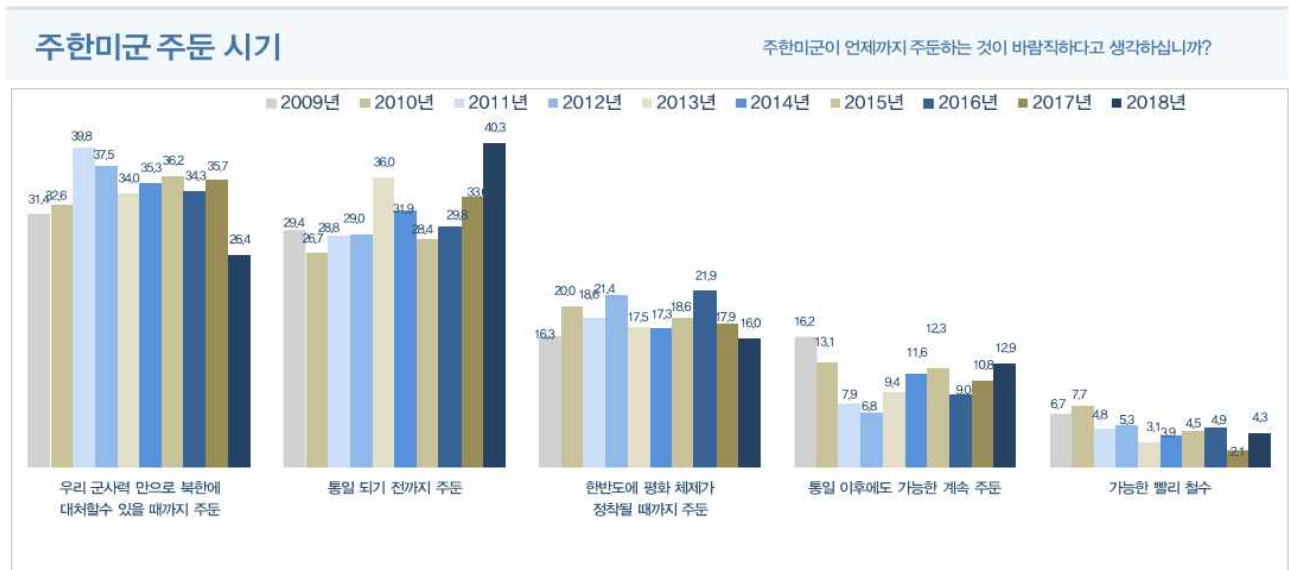
단위[%]	한국이 훨씬 우위	한국이 다소 우위	비슷하다	북한이 다소 우위	북한이 훨씬 우위	한국 우위	북한 우위
2018년 ①	14.7	26.7	25.1	27.1	6.5	41.3	33.6
2017년 ②	7.3	24.3	23.3	34.7	10.4	31.6	45.1
GAP (①-②)	7.4	2.4	1.8	-7.6	-3.9	9.7	-11.5
2016년	7.8	25.3	34.4	26.0	6.5	33.1	32.5
2015년	4.2	25.2	34.8	29.1	6.7	29.4	35.8
2014년	4.9	23.2	25.3	38.8	7.8	28.1	46.6
2013년	6.6	27.1	26.9	31.9	7.5	33.7	39.4
2012년	7.9	27.7	27.1	32.7	4.6	35.6	37.3
2011년	6.8	24.4	29.7	32.8	6.3	31.2	39.1
2010년	7.1	24.3	28.3	31.8	8.6	31.4	40.4
2009년	9.3	36.4	21.9	25.1	7.2	45.7	32.3

※ 남한 우위[한국이 훨씬 우위 + 한국이 다소우위], 북한 우위[북한이 훨씬 우위 + 북한이 다소우위]

16. 주한미군 주둔 시기

문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한미군 주둔시기에 대해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한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2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응답이 최근 10년간 높은 응답을 나타냈으나, 2018년은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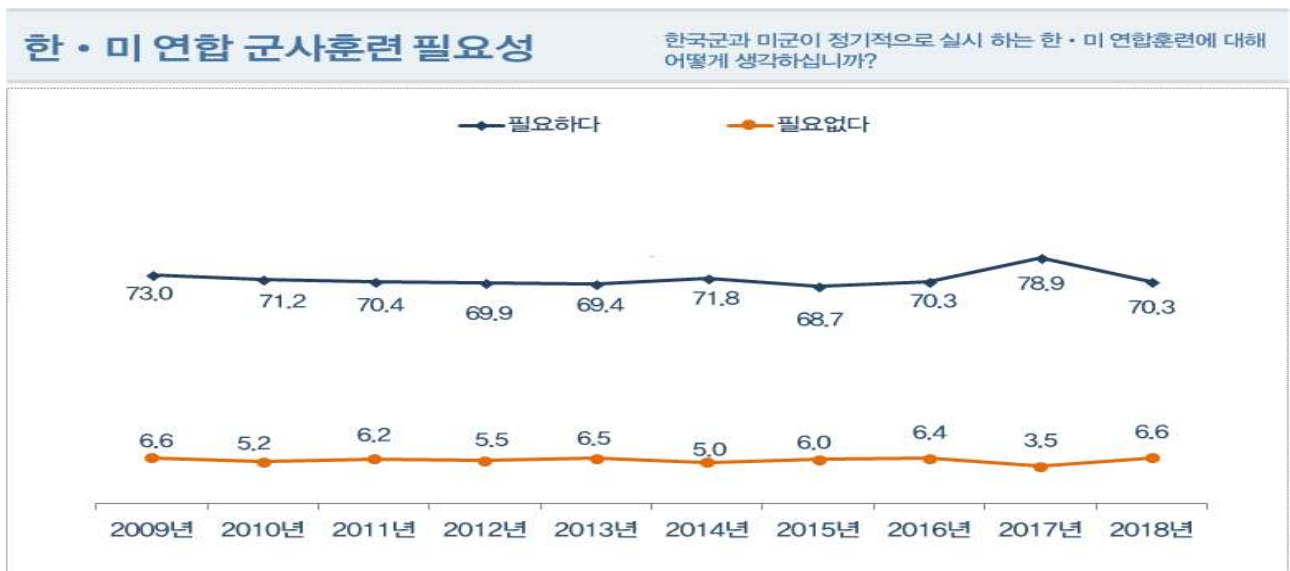


단위 [%]	우리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한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해야한다	한반도에 평화 정착되기 전까지는 주둔해야한다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해야한다	가능한 빨리 철수해야한다
2018년 ①	26.4	40.3	16	12.9	4.3
2017년 ②	35.7	33.6	17.9	10.8	2.1
GAP (①-②)	-9.3	6.7	-1.9	2.1	2.2
2016년	34.3	29.8	21.9	9.0	4.9
2015년	36.2	28.4	18.6	12.3	4.5
2014년	35.3	31.9	17.3	11.6	3.9
2013년	34.0	36.0	17.5	9.4	3.1
2012년	37.5	29.0	21.4	6.8	5.3
2011년	39.8	28.8	18.6	7.9	4.8
2010년	32.6	26.7	20.0	13.1	7.7
2009년	31.4	29.4	16.3	16.2	6.7

17.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필요성

문 한국군과 미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미연합훈련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3%로 ‘필요없다’(6.6%)는 응답보다 63.7%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필요없다’는 응답은 3.1%p 증가하였고, ‘필요하다’는 응답은 8.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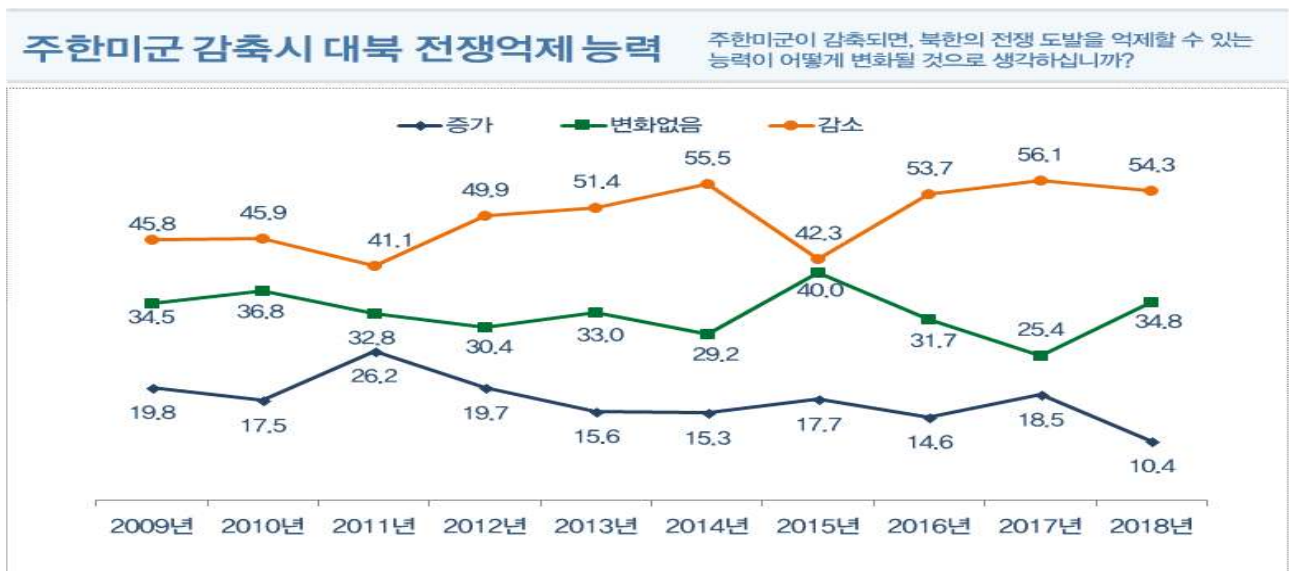


단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필요 없는 편이다	전혀 필요 없다
2018년 ①	16.3	54	23.2	5.8	0.8
2017년 ②	20.4	58.5	17.6	3.2	0.3
GAP (①-②)	-4.1	-4.5	5.6	2.6	0.5
2016년	15.0	55.3	23.3	5.9	0.5
2015년	14.1	54.6	25.3	5.5	0.5
2014년	19.6	52.2	23.2	4.7	0.3
2013년	14.0	55.4	24.1	5.8	0.7
2012년	19.0	50.9	24.6	5.0	0.5
2011년	17.7	52.7	23.4	5.5	0.7
2010년	17.4	53.8	23.7	4.1	1.1
2009년	18.0	55.0	20.3	5.3	1.3

18.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

문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인해 대북 전쟁억제 능력은 ‘감소할 것이다’는 응답이 54.3%로 ‘증가할 것이다’(10.4%)는 응답보다 43.9%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감소할 것이다’(54.3%)는 응답은 1.8%p(2017년 56.1%), ‘증가할 것이다’(10.4%)는 응답은 8.1%p(2017년 1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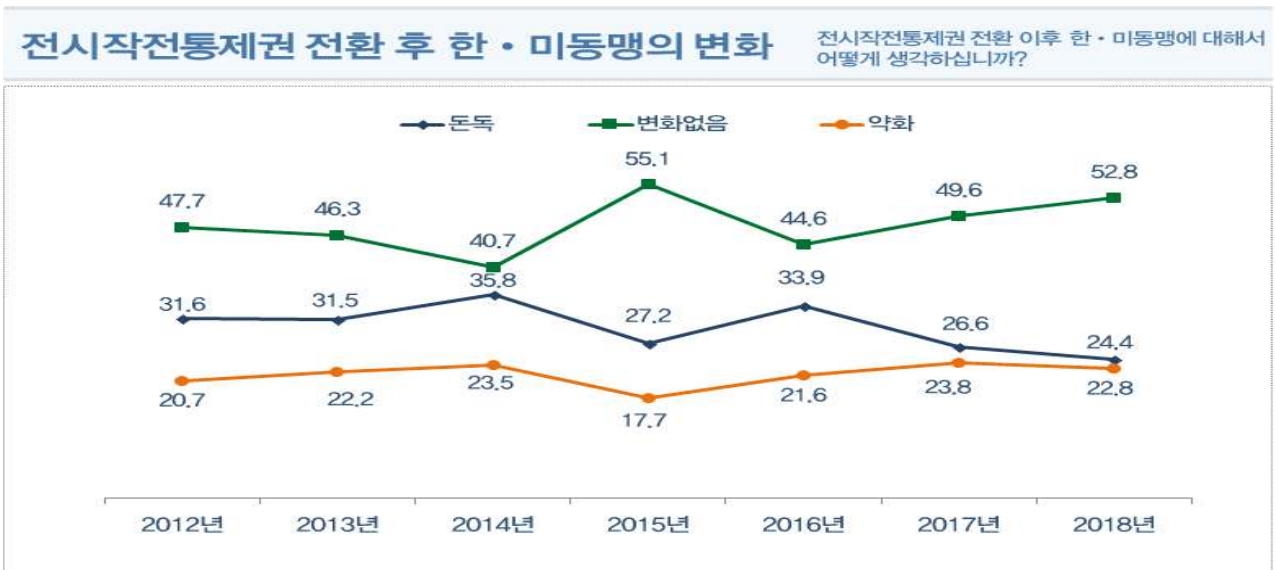


단위[%]	크게 감소할 것이다	약간 감소할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약간 증가할 것이다	크게 증가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2018년 ①	13.8	40.5	35.3	9.3	1.1	-
2017년 ②	15.3	40.8	25.4	15.8	2.8	-
GAP (①-②)	-1.5	-0.3	9.9	-6.5	-1.7	-
2016년	11.8	41.9	31.7	13.2	1.4	-
2015년	1.7	16.0	40.0	32.8	9.5	-
2014년	12.9	42.6	29.2	13.8	1.5	-
2013년	11.3	40.1	33.0	13.8	1.8	-
2012년	11.4	38.5	30.4	17.3	2.4	-
2011년	10.2	30.9	32.8	21.9	4.3	-
2010년	11.3	34.6	36.8	14.7	2.8	-
2009년	10.5	35.3	34.5	17.2	2.6	-

19.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에 대해 ‘돈독해질 것이다’는 응답이 24.4%로 ‘악화될 것이다’(22.8%)는 응답보다 1.6%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돈독해질 것이다’(24.4%)는 응답은 2.2%p(2017년 26.6%), ‘악화될 것이다’(22.8%)는 응답은 (2017년 23.8%) 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	돈독해질 것이다	현재와 같을 것이다	악화될 것이다	더욱 악화될 것이다
2018년 ①	4.0	20.4	52.8	20.3	2.5
2017년 ②	2.6	24.0	49.6	22.8	1.1
GAP (①-②)	1.4	-3.6	3.2	-2.5	1.4
2016년	5.2	28.7	44.6	20.3	1.3
2015년	3.1	24.1	55.1	16.1	1.6
2014년	5.3	30.5	40.7	22.7	0.8
2013년	3.7	27.8	46.3	20.3	1.9
2012년	4.2	27.4	47.7	19.4	1.3
2011년	3.1	20.8	49.3	26.5	0.6

20.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문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대해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66.3%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8.0%)'는 응답보다 58.3%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21.8%p 증가하였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15.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남북한 교류, 협력이 북한의 체제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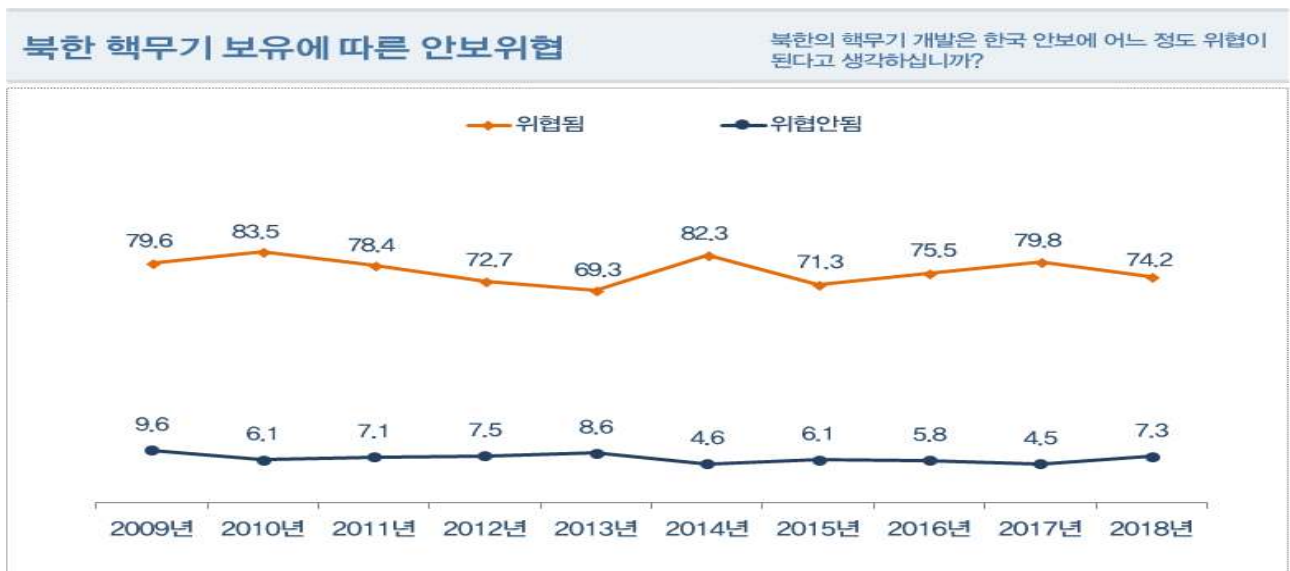
단위[%]	매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보통이다	거의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2018년 ①	14.1	52.2	25.8	6.7	1.3
2017년 ②	5.3	39.2	31.8	20.5	3.2
GAP (①-②)	8.8	13.0	-6.0	-13.8	-1.9
2016년	8.2	40.6	32.8	16.3	2.2
2015년	5.3	44.4	36.8	12.1	1.4
2014년	12.1	49.2	27.0	10.2	1.5
2013년	6.0	40.9	36.9	14.1	2.1
2012년	5.7	43.1	33.4	14.5	3.3
2011년	10.0	51.8	22.8	12.7	2.8
2010년	9.4	52.3	20.9	12.9	4.5
2009년	11.0	49.1	23.9	13.2	2.7

21. 북한 핵무기 보유에 따른 안보위협

문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국 안보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안보위협에 대해 ‘위협이 된다’는 응답이 74.2%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7.3%)는 응답보다 66.9%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위협이 된다’는 응답은 5.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북한 핵무기 보유에 따른 안보위협 연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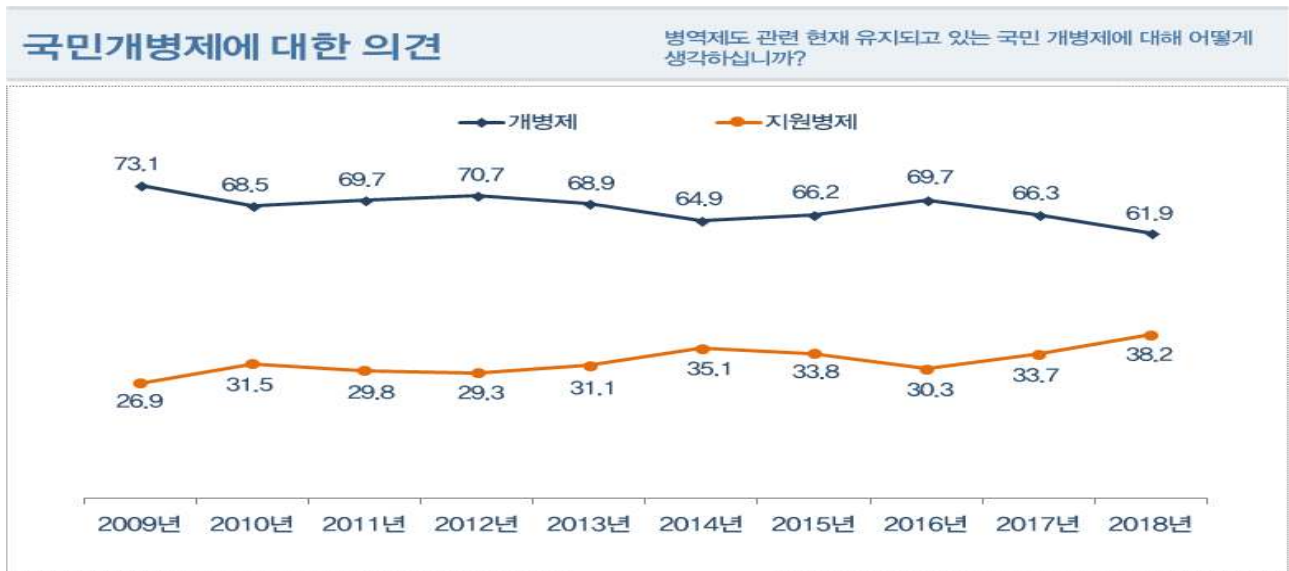


단위[%]	매우 큰 위협이 된다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	그저 그렇다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2018년 ①	29.9	44.3	18.6	6.5	0.8
2017년 ②	38.9	40.9	15.7	4.3	0.3
GAP (①-②)	-9.0	3.4	2.9	2.2	0.5
2016년	30.4	45.1	18.7	5.3	0.5
2015년	25.8	45.5	22.6	5.8	0.3
2014년	39.6	42.7	13.1	4.2	0.4
2013년	25.5	43.8	22.1	7.7	0.9
2012년	30.5	42.2	19.8	6.8	0.7
2011년	38.7	39.7	14.5	6.3	0.8
2010년	38.8	44.7	10.4	5.0	1.1
2009년	36.8	42.8	10.7	7.7	1.9

22.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

문 병역제도 관련 현재 유지되고 있는 국민개병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개병제에 대한 응답으로는 '국민개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61.9%로 '지원병제를 실시해야 한다'(38.2%)보다 23.7%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개병제'는 4.4%p 감소하였고, '지원병제'는 4.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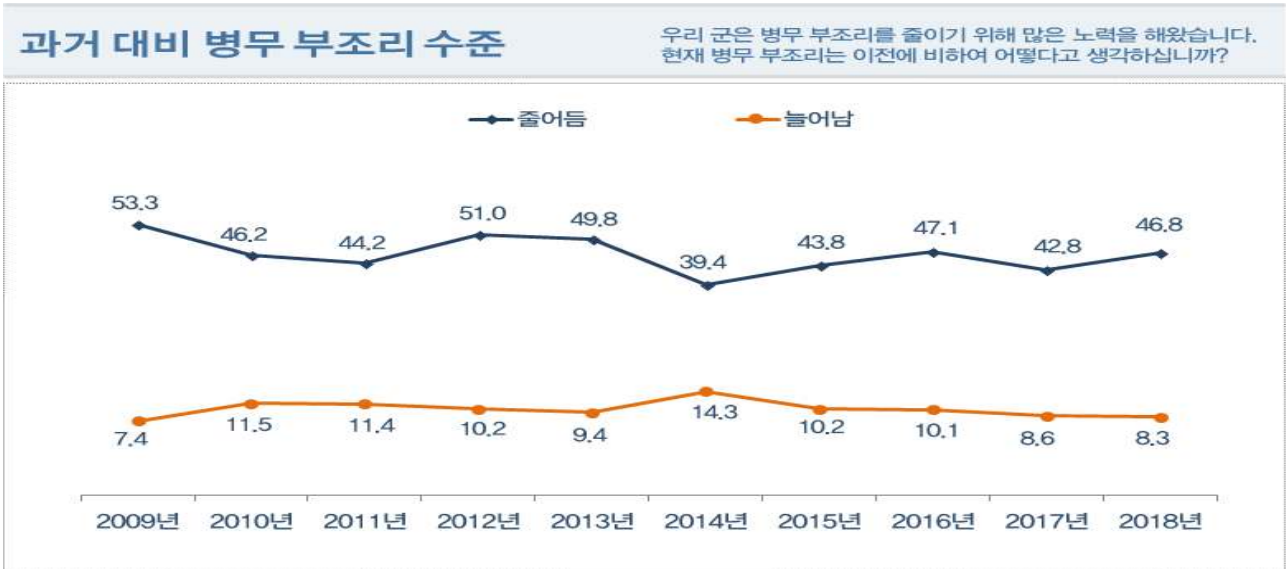
단위[%]	국민개병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한다	전면적인 지원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2018년 ①	27.6	34.3	30	8.2
2017년 ②	28.1	38.3	28.2	5.5
GAP(①-②)	-0.5	-4.0	1.8	2.7
2016년	31.8	37.9	24.3	5.5
2015년	31.4	34.8	28.3	5.5
2014년	28.4	36.5	28.5	6.6
2013년	31.6	37.3	23.6	7.5
2012년	38.8	31.9	25.1	4.2
2011년	34.4	35.3	25.0	4.8
2010년	36.9	31.6	24.9	6.6
2009년	44.2	28.9	22.9	4.0

23. 과거 대비 병무 부조리 수준

문

우리 군은 병무 부조리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병무 부조리는 이전에 비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은 ‘줄어 든 것 같다’는 응답이 46.8%로 ‘많아진 것 같다’는 응답(8.3%)보다 38.5%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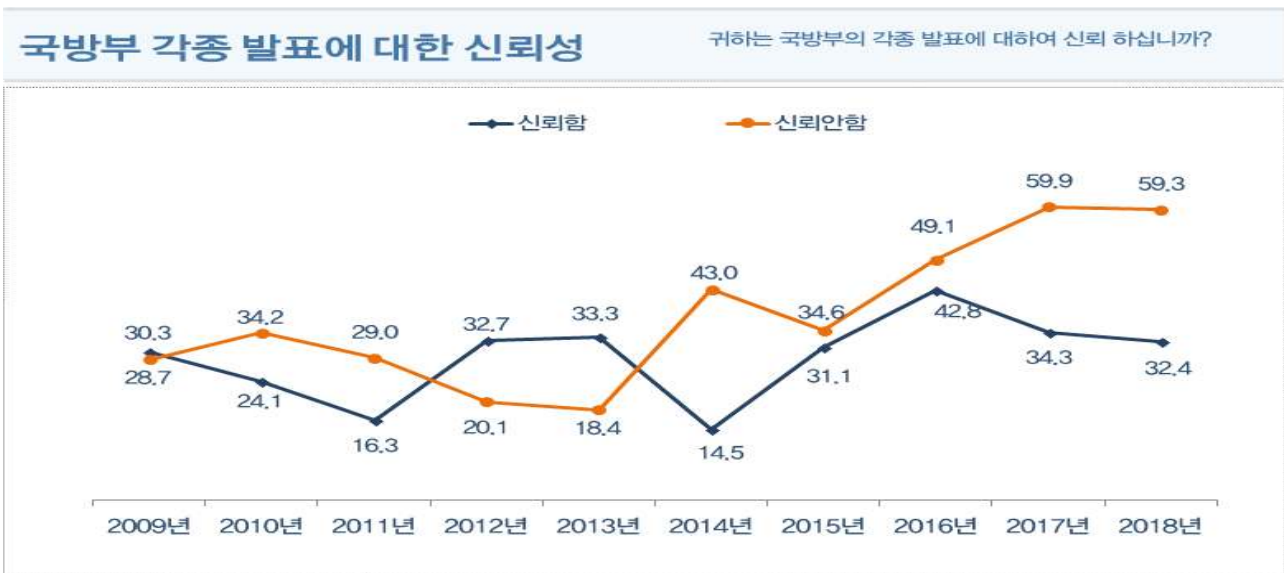


단위[%]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조금 줄어든 것 같다	별 차이가 없다	조금 많아진 것 같다	훨씬 더 많아진 것 같다	잘 모르겠다
2018년 ①	12.8	33.9	44.9	6.4	1.9	-
2017년 ②	8.0	34.8	48.6	5.6	3.0	-
GAP (①-②)	4.8	-0.9	-3.7	0.8	-1.1	-
2016년	6.3	40.8	42.9	6.8	3.3	-
2015년	7.7	36.1	46.0	8.6	1.6	-
2014년	7.2	32.2	46.3	10.3	4.0	-
2013년	8.8	41.0	40.8	7.6	1.8	-
2012년	11.6	39.4	38.8	8.4	1.8	-
2011년	6.4	37.8	44.3	8.8	2.6	-
2010년	7.7	38.5	42.3	7.4	4.1	-
2009년	13.8	39.5	39.2	5.7	1.7	-

24. 국방부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성

문 - 귀하는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하여 신뢰 하십니까?

- 국방부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성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9.3%로 ‘신뢰한다’(32.4%)는 응답보다 26.9%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0.6%p 감소하였고 ‘신뢰한다’는 응답은 1.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국방부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성 연도별 비교]

단위[%]	매우 신뢰한다	신뢰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2018년 ①	2.5	29.9	-	44.8	14.4	8.3
2017년 ②	2.6	31.7	-	50.6	9.3	5.8
GAP (①-②)	-0.1	-1.8	-	-5.8	5.1	2.5
2016년	3.0	39.8	-	40.3	8.8	8.3
2015년	2.3	28.8	34.3	31.5	3.1	-
2014년	1.3	13.2	42.5	35.5	7.5	-
2013년	3.8	29.5	48.3	17.1	1.3	-
2012년	1.7	31.0	47.2	18.5	1.6	-
2011년	2.1	14.2	54.8	24.8	4.2	-
2010년	0.9	23.2	41.8	28.0	6.2	-
2009년	2.3	28.0	41.0	26.3	2.4	-

25. 군에 대한 신뢰도 및 신뢰하지 않는 이유

문

- 귀하는 우리나라 군에 대하여 신뢰 하십니까?
- 귀하가 군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군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46.7%로 '신뢰하지 않는다'(46.8%)는 응답과 유사하게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0.7%p 증가하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 감소하였음.
- 2017년 대비 '간부들의 도덕성'이라는 응답은 5.7%p 하락하였고, '간부들의 능력(전문성)'이라는 응답은 8.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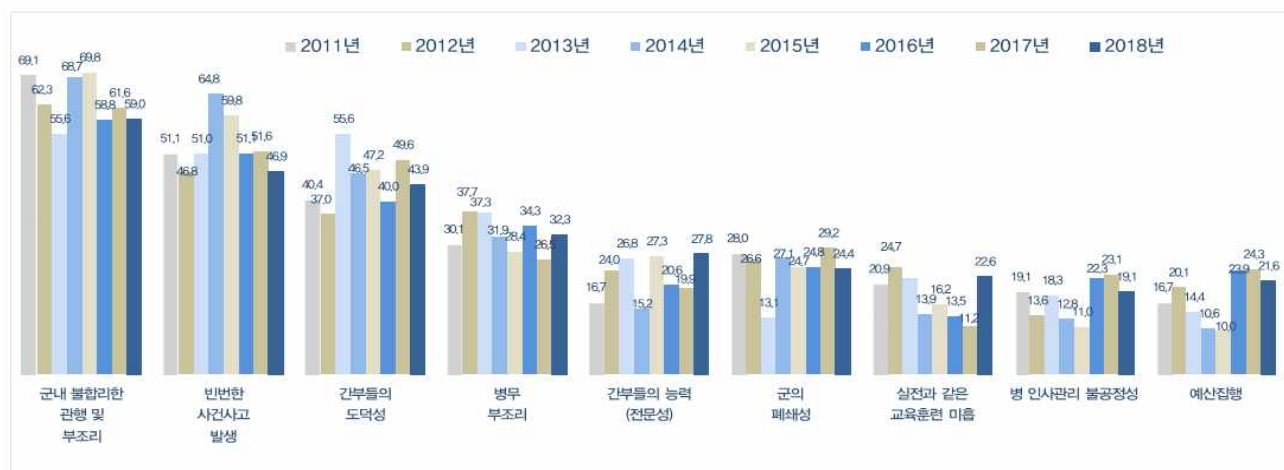
군에 대한 신뢰도

귀하는 우리나라 군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시는 편입니까?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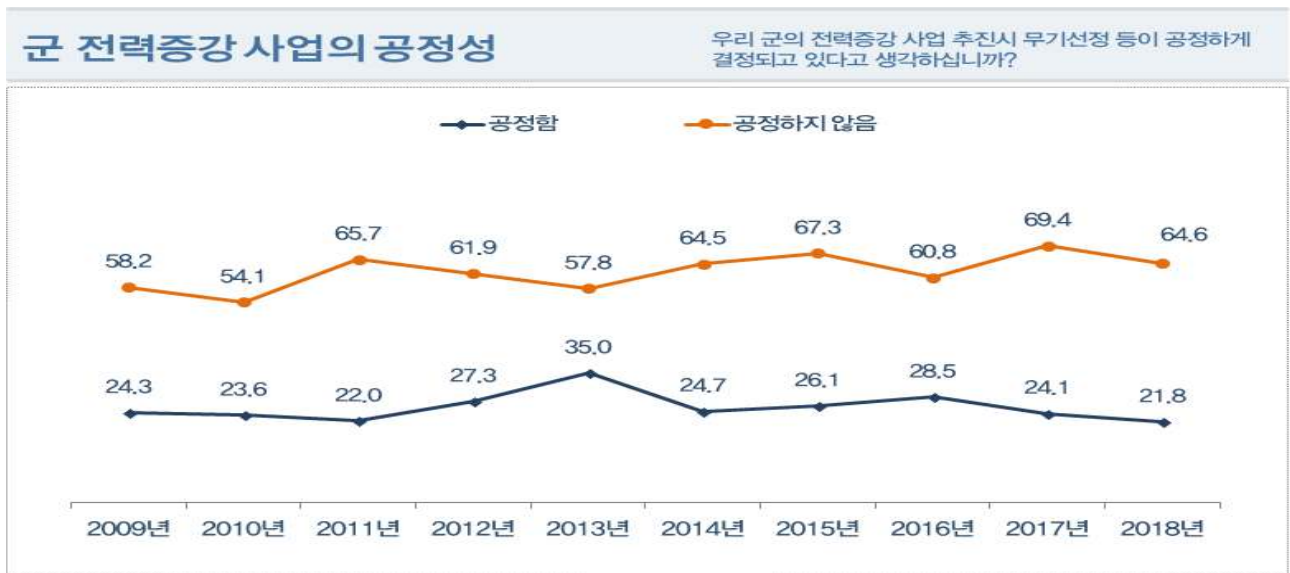
귀하가 군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이유는?



26.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

문 우리 군이 전력증강 사업 추진시 무기선정 등에서 공정하게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64.6%로 ‘공정하다’(21.8%)는 응답보다 42.8%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4.8%p 감소하였고, ‘공정하다’는 응답은 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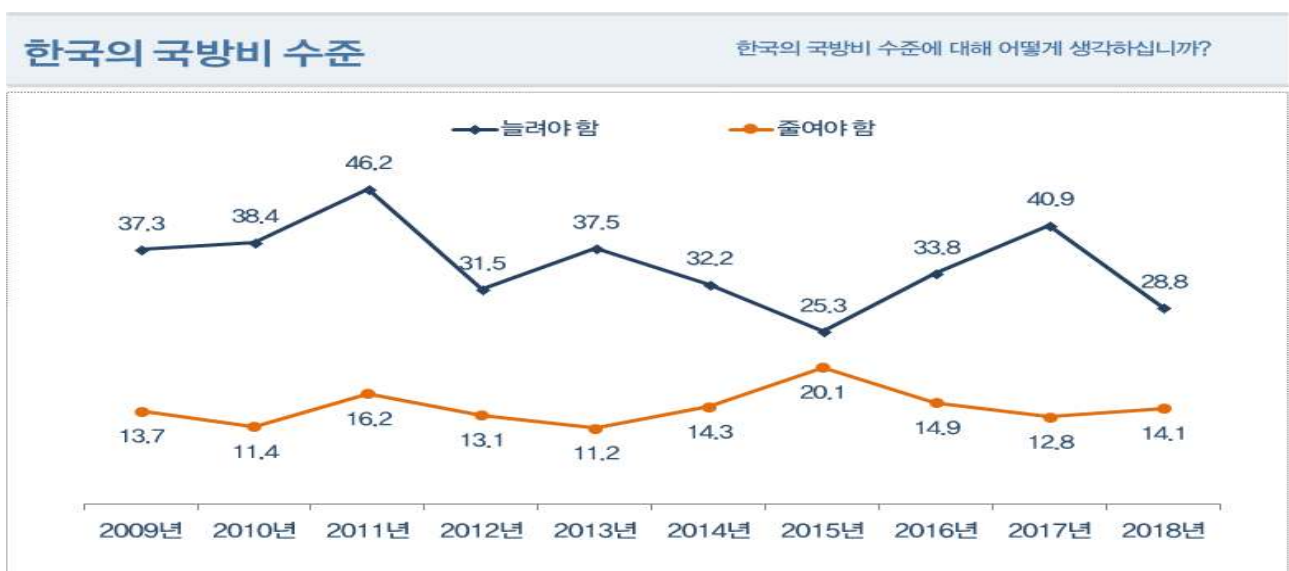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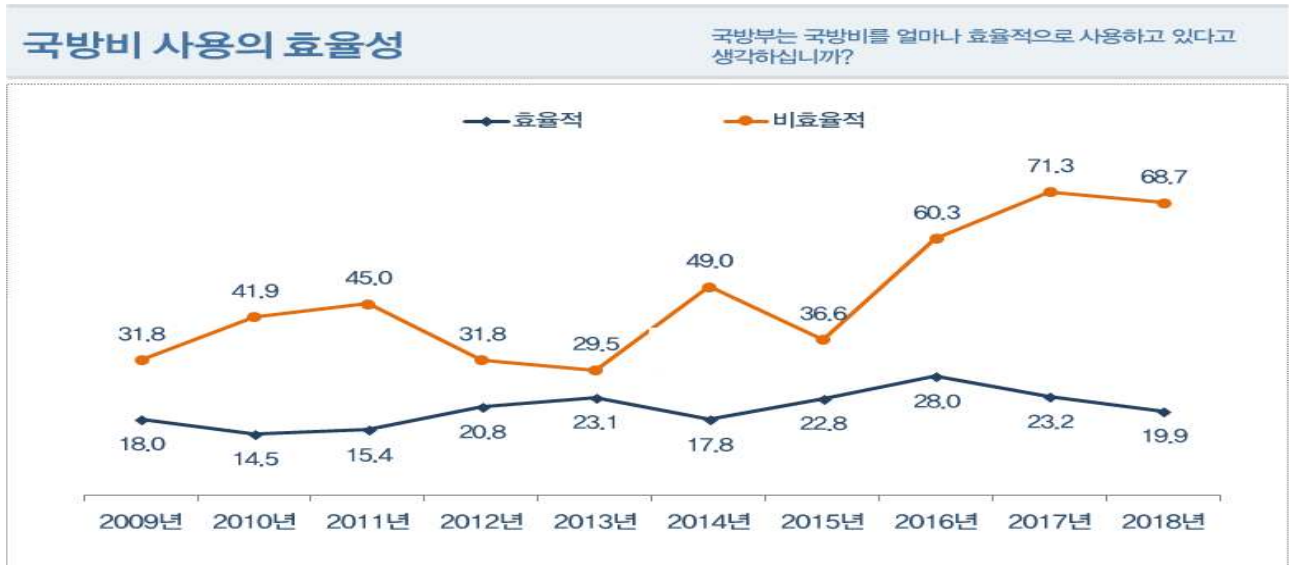
단위[%]	매우 공정하게 결정	공정하게 결정되는 편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는 편	전혀 공정하지 않게 결정	잘 모르겠다
2018년 ①	2.4	19.4	42.3	22.3	13.6
2017년 ②	2.8	21.3	44.6	24.8	6.5
GAP (①-②)	-0.4	-1.9	-2.3	-2.5	7.1
2016년	2.3	26.2	39.8	21.0	10.8
2015년	2.4	23.7	42.4	24.9	6.6
2014년	3.2	21.5	39.3	25.2	7.2
2013년	4.1	30.9	44.8	13.0	7.2
2012년	3.3	24.0	47.0	14.9	10.8
2011년	2.1	19.9	46.8	18.9	12.3
2010년	1.3	22.3	42.4	11.7	22.3
2009년	2.5	21.8	43.5	14.7	17.6

27.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국방비 수준

문

- 국방부는 국방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의 국방비 수준(15년 기준 GDP 대비 2.4%)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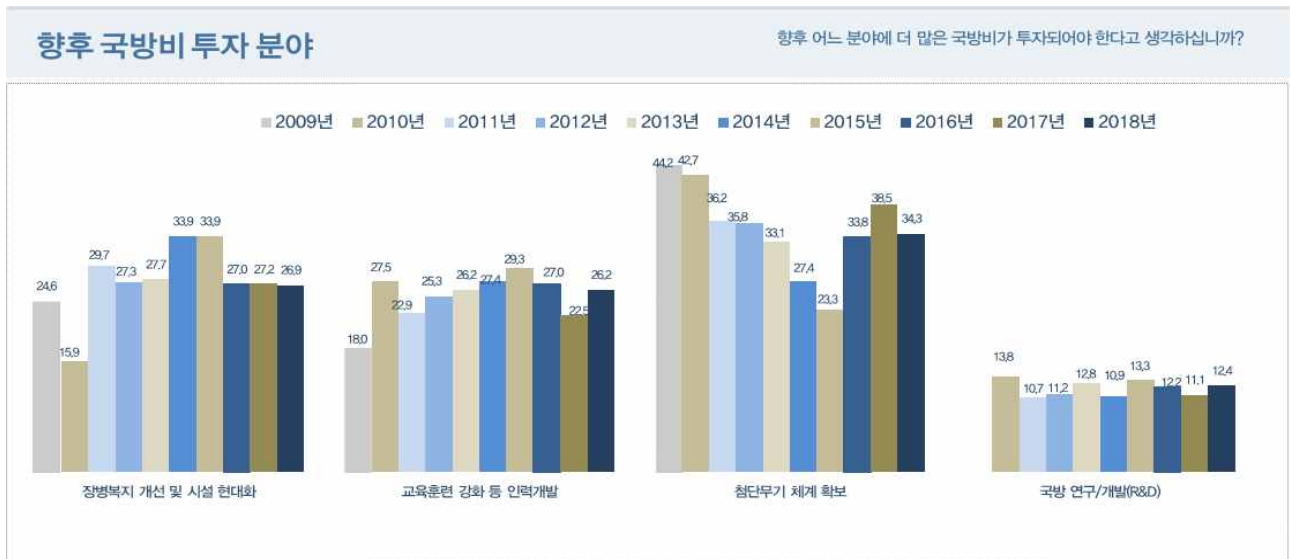
-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비효율적이다'는 응답이 68.7%로 '효율적이다'(19.9%)는 응답보다 48.8%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은 2.6%p 감소하였고, '효율적'이라는 응답은 3.3%p 감소함.
- 한국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28.8%로 '줄여야 한다'(14.1%)는 응답보다 14.7%p 높게 나타남.
- 2017년 대비 '늘려야한다'는 응답은 12.1%p 하락하였고, '줄여야한다'는 응답은 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8.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문 향후 어느 분야에 더 많은 국방비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향후 국방비 투자분야로 ‘첨단 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26.9%),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 현대화’(2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첨단무기 체계 확보’라는 응답은 4.2%p 하락하였고,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이라는 응답은 3.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국방비 투자해야 할 분야 연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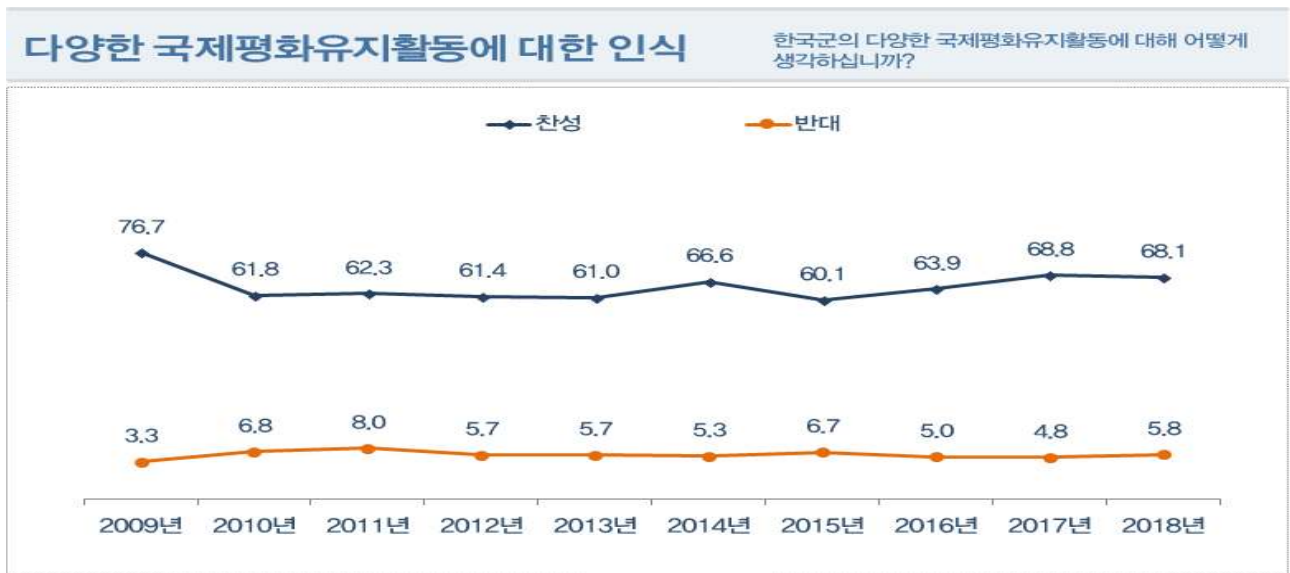
단위[%]	장병복지개선 및 시설 현대화	교육훈련강화 등 인력개발	첨단무기 체계 확보	국방연구/개발(R&D)	기타
2018년 ①	26.9	26.2	34.3	12.4	0.3
2017년 ②	27.2	22.5	38.5	11.1	0.8
GAP (①-②)	-0.3	3.7	-4.2	1.3	-0.5
2016년	27.0	27.0	33.8	12.2	0.2
2015년	33.9	29.3	23.3	13.3	0.2
2014년	33.9	27.4	27.4	10.9	0.4
2013년	27.7	26.2	33.1	12.8	0.2
2012년	27.3	25.3	35.8	11.2	0.4
2011년	29.7	22.9	36.2	10.7	0.6
2010년	15.9	27.5	42.7	13.8	0.0
2009년	24.6	18.0	44.2	-	-

29.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문

- 한국군의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향후 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군의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8.1%로 ‘반대한다’(5.8%)는 응답보다 62.3%p 높게 나타남.
- 2015년 이후 ‘찬성한다’는 응답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향후 국제평화유지활동 추진 방향 연도별 비교]

단위[%]	크게 확대하여야 한다	다소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다소 축소해야 한다	참여할 필요가 없다
2018년 ①	8.3	28.4	56.2	6.4	0.7
2017년 ②	5.3	31	58.2	5.3	0.3
GAP (①-②)	3.0	-2.6	-2.0	1.1	0.4
2016년	5.2	30.0	55.0	9.3	0.6
2015년	4.2	29.3	58.1	7.9	0.5
2014년	7.5	31.8	52.5	7.3	0.9
2013년	6.8	32.6	53.5	6.5	0.6
2012년	8.1	36.6	48.5	6.3	0.5
2011년	7.2	32.8	47.1	10.3	2.2
2010년	4.7	29.0	56.6	8.6	1.2
2009년	8.8	34.6	50.5	5.1	0.7